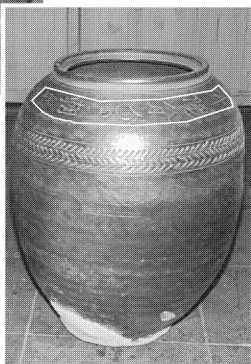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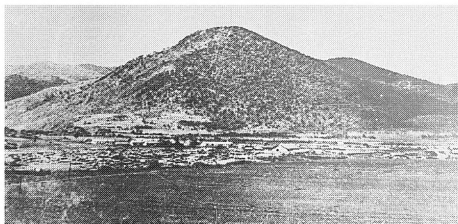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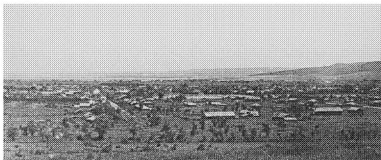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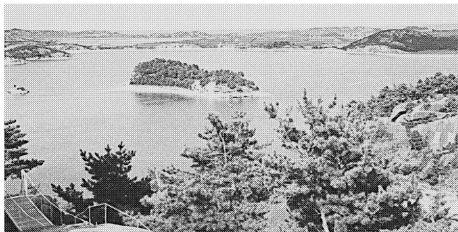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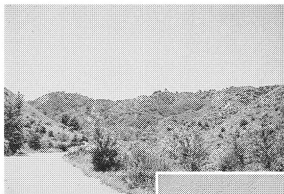
백두산전설편

2

만경대를 찾는 사람들은 해방전 **김일성**장군님께서 만경대에서 탄생하시였다는 소문을 듣고 몰래 이곳에 다녀간 두 왜놈관리가 이런 성지에서 탄생한 **김일성**장군과 맞선다는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명을 지르며 건강을 핑게로 일본으로 뺑소니를 쳤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통쾌함을 금치 못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쏘신 화살이 이 법운암의 느티나무에 날아와 박혔는데 거기에는 세가닥의 해살과 닭이 우는 그림이 그려져있는 쪽지가 끼워있었다. 그림을 보고 3년후에 나라가 해방된다고 뜻풀이를 하였는데 그대로 되였으니 참으로 신비스럽기 그지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조선청년의여 무엇을 하노 1935년 양 8월 금일》 이라는 글이 새겨진 이 독들은 흥미있는 전설을 낳았다.

회오리바람이 **김일성**장군님유격대의 길안내를 하였다는 전설은 여기 삼도만을 비롯한 연길일대에 널리 퍼졌다.

가소롭게도 조선의 정기를 끊어버린다고 하면서 백두산마루에 쇠말뚝을 박아놓고 환성을 지르며 제를 지내는 일제놈들
하늘이 낸 백두산대장수님앞에 그 쇠장대가 무슨 맥을 추겠는가.

동녕현성전투가 진행되였던 이곳은 반일부대두령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룡마에 보검을 찬 천하명장》으로 높이 우러러받든 사실을 오늘도 전하고있다.

1944년 어느 겨울밤 갑자기 이곳 삼일포의 바위가 갈라졌는데 거기에는 신기하게도 《암파》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 조국해방을 예고해 주었다.

여기 청진시 송평구역 남석리에는 주변의 장수바위에서 한 장사가 나타나 **김일성**장군님의 부하가 되여 싸웠다는 전설이 전해지고있다.

남석리에서 발굴된 구호문헌
《로동자는 전민항쟁 주력》
이 구호문헌은 전설 《남석리에
찾아온 녀인》의 신빙성을 더해
주고있다.

백두산대장수님께서 파견하신 한 유격대공작원이 왜놈들의 악행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바위를 내리쳐 깨뜨려버렸다는 돌

김일성장군님께서 최면술을 쓰시여 적들을 옴짝 못하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여기 소왕청을 비롯하여 동북 만주에 널리 퍼졌다.

백두산대장수님께서 가리키신곳은 분명 험한 원시림이였는데 갑자기 넓은 신작로가 생겨났다는 전설은 이 《갑무경비도로》와 관련하여 생겨났다.

하늘에 비낀 이상한 노을을 보고 **김일성**장군님께서 부르신다는것을 알고 여러 부대가 일시에 사령부에로 찾아왔다는 전설이 깃든 만강뒤산

눈덮인 광야에서 유격대에 끌려다니던 왜놈들은 《발자국참모》라는것까지 내왔으나 그놈들인들 무슨 수가 있었으랴.

통쾌한 《발자국전설》을 새기며 백두산눈길을 행군해가는 학생소년들

차　　례

백두산에 내린 령장

하늘나라에 머리를 들이밀고 천상세계를 살핀다는 전설의 산 백두산! 천상과 천하를 이어주는 신성한 산으로 불리워지는 백두산은 우리 강토가 마련된 근본이다.

그래서 조종의 산이라고 부르는데 옛사람들은 말하기를 《백두산이 남으로 바다를 밀고나가 뿌리를 박고 그 뿌리를 타고 뭇산들이 늘어서서 삼천리강산을 이루었으니 이것이 곧 조선땅이다.》라고 하였다.

한편 바로 이 백두산에 성인이 내려 조선국을 구원한다는 말이 예로부터 전해왔다.

그런데 천하대장수 **김일성**장군님께서 하늘의 뜻을 안고 성산에 내려오셨으니 조선이 독립될 날은 불을 보듯 환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군사를 뭇고 나타나시자 나라의 일천강물이 일시에 맑아지고 상서로운 새가 날고 비가 순하고 바람이 고르롭고 온 조선땅이 향기를 뿜었다.

사람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시는 길은 하늘이 열어준 길이니 그 길에 만복래(만가지 복이 온다는 뜻)한다고 하면서 밝은 앞날을 그려보았다.

만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산에서 조선의 군

사를 순시에 일떠세우시고 그들모두를 장수같은 군사들로 키우셨으니 그 뜻은 곧 하늘의 뜻이요, 그 슬기는 곧 령장의 슬기였다.

옛날부터 령장은 하늘이 낸 장수라 일러왔는데 위대한 수령님은 그중에서도 왕건경첩(몸이 웅장하고 동작이 날래다는 뜻)한 령장이시라고, 하기에 그 령장의 휘하에 들면 누구나 장수가 된다고 하였다.

전하는 말이 하늘이 낸 용맹하고 비범한 대장수인 령장은 수천수만년의 력사에서도 드물게 나타나는데 바로 그러한 천하령장이 백두산에 내려 군사를 키우고 장수들을 훈련시키며 왜놈들에게 먹히운 나라를 찾을것이라고 하였다.

령장이 한번 술법을 쓰면 군졸이 장수가 되고 장수가 더 큰 장수로 되여 수많은 장수부대가 순식간에 생겨나군하는데 그 슬기와 재주가 실로 보통이 아니라 했다.

령장의 부하들도 모두 위엄있는 장수들이여서 파하마(일명 《천리마》라고도 불렀다.)를 타고 번개같이 달리며 총을 들어 한번 총알을 날리면 무엇이나 영낙없이 맞히고 창칼을 다루는 솜씨가 또한 여간이 아니여서 한번 휘두르기만 하면 적병들의 모가지가 단번에 열개, 스무개씩 썩둑썩둑 잘라져 떨어졌다고 한다.

그 백두산의 위대한 령장이 압록강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 면소재지에 내려온적이 있었다.

그날은 때마침 민속명절이라 처녀들과 총각들, 늙은이들과 아이들 할것없이 모두 떨쳐나 놀이장은 사람천지를 이루었다.

장터옆에 꾸려진 놀이장에서는 그네뛰기와 널뛰기, 말타기, 씨름 등이 한창 벌어졌는데 령장은 바로 말타기경기장에 나

타났다.

말타기경기는 면소재지에서 50리밖에 있는 연두봉밑에까지 누가 먼저 갔다오는가 하는 내기였다. 이 경기에는 군안에서 뿐아니라 린근에 있는 지방에서 말타기로 소문난 젊은이들이 다 모여들었다.

기마수들이 출발선에 주런이 늘어서서 신호를 기다리고있었다.

《뚜—》하는 뿔나팔소리와 함께 말들이 땅을 박차고 연두봉을 향해 달리기 시작하였다.

이때 령장도 말고삐를 채며 박차를 가하여 말을 몰아갔다.

령장이 탄 말은 하늘로 날아오르더니 구름속으로 사라졌다.

《오호홍!—》

하늘에서 울리는 말울음소리는 벌써 아득히 먼곳에서 들려왔다.

령장이 탄 말은 압록강 2천리를 굽이돌아 남으로는 목포와 려수, 거제도 앞바다가로 해서 부산을 에돌고 동쪽으로는 동해를 바라보며 광대한 태백산줄기를 한바퀴 돌아서 잠간사이에 다시 말타기경기장에 다달았다.

령장이 삼천리를 한바퀴 돌아보고왔을 때는 말타기경기출발선을 떠난 기마수들이 이제 겨우 10리남짓한곳에서 달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령장의 비호같은 날랜 솜씨에 탄복하여 그를 우러르는데 말우에 앉은 령장의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울리였다.

《지금 이 나라를 빼앗은 왜놈들이 다른 나라까지 삼키려고 기회를 노리며 칼을 벼리고있으니 모두 한시도 마음을 늦

추지 말라. 한달후이면 무슨 변이 있으리라.》

이런 말을 남긴 령장은 요란한 채찍소리와 함께 몸을 하늘높이 솟구쳐 자취를 감추었다.

잠시후 아득히 먼 하늘우에서 룡마의 울음소리가 어슴푸레하게 들려왔다.

바로 그때가 왜놈들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기 한달전인 1931년 8월중순이였다.

령장의 예언대로 왜놈들은 한달후에 수백만대군을 풀어 큰 싸움을 일으켰다. 남에서도 일어나고 북에서도 벌어졌다.

북에 있는 왜놈의 군대들이 령장의 본거지로 쳐들어왔다.

그때 하늘가에 섬광이 서리더니 령장이 다시 백마를 타고 하늘에서 날아내려왔다.

령장은 곧 수하의 장수군사들을 정렬시키였다.

름름하게 늘어선 군사들가운데서 백명만을 뽑아내고 나머지 군사는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있으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군사 백명을 거느리고 나는듯이 적진으로 쳐들어갔다.

결국 접전은 백두산에서 멀지 않은 삼산(세개의 봉우리가 있는 산)에서 벌어지게 되였다.

적진에 다 이르러 군사를 멈춰세운 령장은 큰소리로 적장에게 호령하였다.

《적장은 어서 나와 백두산장수들의 칼을 받으라!》

령장의 눈에서는 푸른 불줄기가 쏟아져나오고 웨치는 그 호령소리에 우뢰가 우는듯 땅이 뒤흔들렸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같은 소리인가. 눈이 화등잔만해서 겁에 질려 벌벌 떨던 적장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앞을 바라보

았다.

준수하고 위풍있는 한 장수가 얼마 안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수백만의 군사가 있는 진중에 들어와있었다.

적장은 일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가 백두산의 령장임을 알리 없는 적장은 기세등등하여 수많은 장수들을 거느리고 그들을 사로잡을 생각으로 앞장서 나갔다.

그리고 수백의 장수들을 먼저 풀어 공격케 하였다.

적장수 수백명이 일시에 말을 타고 창을 꼬나들고 달려드는것을 보자 령장은 백명군사중에서 맨 마지막에 섰던 군사에게 분부하여 맞받아나가도록 하였다.

군사 한사람과 적장수 수백명과의 접전이 벌어져 잠시 혼전이 일어났는데 얼마후에 보니 수백명의 적들이 모두 쭉 너부러지고 맨 나중의 그 백두산군사만이 말우에 앉아 빙긋이 웃고있었다.

《엉?》

그 호기가 일당백이라 너무도 놀라 기겁한 적장은 다시 수백의 장수를 풀어 내보냈다.

백두산의 다른 군사 하나가 또다시 비호같이 말을 달려 번개같이 들이치고 내치는데 칼날이 번쩍이고 창끝이 치솟을 때마다 적장수들의 모가지가 여라문개씩 떨어져나갔다.

이를 지켜보던 령장이 나머지 군사를 모두 출동시켜 적진속으로 들여보냈는데 수백만의 대군이 대번에 흐트러지고 악마구리 끓듯 하며 산산이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때 령장이 백두산을 향하여 언뜻 손을 드니 대기하던 장수군사들이 불시에 나타나 도망치는 적병들의 길을 모

조리 막아놓았다.

형세가 기울어졌음을 짐작한 적장은 앞장에 서서 부랴부랴 도망쳤다.

적장놈은 원체 날고뛴다던놈이라 순식간에 전장을 벗어나 어느 고개밑에 이르렀다.

이젠 살았구나 하고 긴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백마를 타고 백명군사를 거느리고왔던 백두산의 그 장수가 산우에서 내려다보며 호탕하게 웃고있었다.

령장의 군사가 모두 장수라는것을 안 적장은 그저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기만했다.

그 꼴을 내려다보던 령장이 산우의 큰 돌배나무 한그루를 툭 건드리자 그 나무가 뿌리채 뽑혀올라왔다. 그런것을 옆에 있던 장수가 받아서 휼 내던지니 나무는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며 날아가 적장놈의 머리우에서 사나운 광풍을 일으켰다.

적장놈은 그 된바람에 날려가 형체도 남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이때 하늘가에 령롱한 무지개가 비끼더니 하늘과 땅사이에 다리가 놓여졌다.

적을 처물리친 령장은 그 무지개다리로 말을 달려 순식간에 백두산쪽 하늘로 사라졌다.

그 령장은 하늘이 낸 천하대장수요, 그의 군사는 천군(하늘의 군대)이였다.

그 령장이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였다.

백가지 도술

김일성장군님을 조선의 하늘님으로 높이 칭송한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그이께서 백가지 도술과 신술을 지니고계신다는 이야기가 많이 전하여졌다.

특히 간도지방에서 이런 전설들이 많이 전해졌는데 그중에서 몇가지를 아래에 소개한다.

1. 회오리바람

언젠가 동만에서 활동하던 **김일성**장군님부대가 갑자기 멀리 북만으로 가야 할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일제가 항일유격대를 《소멸》해보겠다고 수십만의 병력을 풀어 만주의 산과 골짜기마다를 개싸다니듯하던 때여서 부대를 은밀히 그것도 며칠사이에 이동한다는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였다.

언제 어디서 불의에 적들과 조우하게 될지 누구도 알수 없었다.

만약 왜놈들과 전투가 벌어지는 날엔 도저히 제 날자에 가

닿을수가 없었다.

만주의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던 유격대원들이 모두 모여오므로 주력부대인 **김일성**장군님부대가 제일먼저 가닿아야 하였다.

(어떻게 할것인가?)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모두 초조한 생각에 잠겨 위대한 장군님만 쳐다보고있었다.

허나 그이께서는 태연한 표정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부대에 출동명령을 내리시였다.

때는 겨울이라 온 산천은 흰눈으로 덮여있었다.

유격대원들은 숫눈길을 헤치며 행군을 시작하였다.

깊은 눈길을 헤쳐가는 그들의 온몸에선 김이 문문 서려올랐다. 얼마쯤 행군해갔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한 산기슭, 바람이 불지 않는 안침한곳에서 휴식명령을 내리시였다.

대원들은 눈속에 구뎅이를 파고 그안에 들어가 휴식을 하였다.

휴식을 하면서도 그들은 적들이 언제 달려들지 모르는 조건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어디로 가면 무사히 행군해갈수 있을가 하는 생각에 골몰하고있었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으신듯 나무에 기대신채 조용히 눈을 감고계시였다.

이때였다. 어디선가 《땅!》하는 총소리가 골짜기를 울렸다. 모두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은 여전히 눈을 감고 부동의 자세로 계시였다.

《적이다!》

대원들은 재빨리 전투준비를 갖추었다.

이윽고 눈을 뜨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환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대원들에게 말씀하시였다.

《일없소. 왜놈들이 쏘는 눈먼 총이요. 휴식을 계속하시오.》

대원들은 그이의 말씀대로 모두 자기 자리로 돌아가 휴식을 계속하였다. 그렇지만 좀처럼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얼마후 《땅!》하고 또다시 총소리가 울렸다. 이어 연거퍼 《땅, 땅》총소리가 났다.

총소리는 앞에서도 났고 뒤에서도 났다. 그리고 좌우 량옆에서 련달아 울렸다.

(포위망에 들었구나.)

대원들은 모두 이렇게 생각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전히 태연자약하신 어조로 대원들에게 마음놓고 계속 휴식을 하라고 하시였다.

대원들을 충분히 휴식시킨 다음 그이께서는 드디여 부대에 출발명령을 내리시였다.

그런데 척후대는 망설이고있었다. 사방 적들이 에워쌌는데 어느쪽으로 가야 할지 알수 없었던것이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척후에게 《저쪽으로 가시오.》하고 부대가 행군할 방향을 가리켜주시였다.

척후대는 그쪽으로 눈길을 헤치며 행군해가기 시작하였다.

이때 참으로 희한한 일이 생겼다. 척후대가 걸어가는 바로 앞에 눈가루를 타래엿처럼 휘말아올리며 회오리바람이 일었는데 그 바람은 대오가 나아가는 앞길에 덮인 눈우에다 선을 쭉 그어놓았다.

모두 눈이 휘둥그래서 서로 마주 쳐다보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 말씀하시였다.

《저 회오리바람을 따라가시오.》

척후대는 영문도 모르고 무작정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대로 그 회오리바람이 숫눈길우에 낸 표식을 따라나갔다.

부대는 척후대의 뒤를 따랐다.

얼마쯤 갔을가, 회오리바람은 홀연 사라졌는데 부대는 어느사이 포위망을 무사히 뚫고나왔다.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너무도 놀랍고 희한하고 기뻐서 서로 부둥켜안고 어쩔줄 몰라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부대에 휴식명령을 내리시였다.

유격대원들은 그제야 마음을 놓고 푹 휴식을 하였다. 쌓였던 피곤은 봄눈녹듯 사라지고 팔과 다리엔 장수힘이 솟구쳤다.

부대는 또다시 행군길에 올랐다.

먼 행군길에서 그들은 그후에도 몇번씩이나 왜놈들의 포위망에 들거나 놈들과 맞다들군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대오의 앞에는 회오리바람이 일면서 눈우에다 선을 그어주었는데 그리로 따라가면 매번 무사하군하였다.

그리하여 **김일성**장군님부대는 그 어느 부대보다도 제일 먼저 북만의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게 되였다.

유격대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신술을 쓰시여 회오리바람으로 부대가 무사히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시였다고 하면서 그이를 우러러 존경의 마음을 금치 못해하였다.

2. 최면술에 걸린 《토벌》대

지난 항일무장투쟁시기 왕청현사람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면술을 쓰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최면술이란 사람을 잠이 들게 하거나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법을 이르는 말이다. 대체로 최면술은 한사람이나 극상해서 몇명을 상대로 하여 적용하는 술법이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적병 몇백, 몇천명을 동시에 최면술에 걸리게 하셨다니 참으로 신비하기 그지없다.

한번은 왜놈《토벌》대들이 **김일성**장군님유격대를 추격해서 며칠째나 바투 따라다닌적이 있었다고 한다.

《토벌》대놈들의 수는 무려 수천명을 헤아리였다.

왜놈들은 그이께서 이끄시는 부대를 어째보겠다고 악착하게 진드기처럼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김일성**장군님부대에는 갓 입대한 문철이라는 어린 대원이 있었다.

벌써 여러날째나 놈들의 추격을 받으며 행군을 계속하니 누구보다도 지친것은 문철이였다.

뒤에서는 놈들이 쏘는 총소리가 계속 들리였다. 이제는 놈들이 지껄여대는 말소리까지 들릴정도로 바싹 따라오고있었다.

신출귀몰하는 술법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니 별로 걱정되는것은 없었지만 이런 일을 처음 당해보는 문철이

로서는 은근히 조바심이 생겼다.

발이 천근만근 무거워 더 빨리 걸을수 없는데다가 수십배나 되는 《토벌》대놈들이 뒤에서 계속 추격하고있으니 그럴만도 한 일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철이의 마음을 헤아리신듯 그에게로 다가오시여 부축하여주면서 말씀하시였다.

《문철이, 겁먹지 말라구. 왜놈들이 더는 가까이 다가오지 못할테니까 천천히 가도 일없소. 자, 힘을 내라구.》

그이께서는 이어 부대에 휴식명령을 내리시였다.

문철은 그이께서 자기를 안심시키느라고 하시는 말씀이려니 하고 생각하였다. 더우기 자기를 위해 왜놈들이 따라오는데도 부대에 휴식명령을 내리신다고 생각하니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득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휴식을 하면서 산아래를 내려다보니 개미떼처럼 새까맣게 따라오던 왜놈들이 모두 그 자리에 못박힌듯 서있는것이 아닌가!

그놈들은 유격대가 휴식하는 절호의 기회인데도 따라올념을 안하고 우두커니 서서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다.

유격대가 휴식을 충분히 한 다음 행군을 시작하니 그제야 왜놈들도 움직이기 시작하였는데 놈들은 비칠거리며 여드레 팔십리걸음으로 겨우 따라오고있었다.

유격대가 휴식을 하면 따라오던 왜놈들도 그 자리에 서있고 다시 행군을 시작하면 그놈들도 움직이군하였다.

마치 왜놈들도 **김일성**장군님의 구령에 따라 행동하는것 같았다.

이것을 본 유격대원들은 《〈토벌〉대놈들이 또 장군님의 최면술에 걸려들었구나.》하면서 통쾌하게 웃어댔다.

몇천명의 왜놈들이 몽땅 최면술에 걸려 눈을 감고 졸면서

제정신없이 걷고있었다.

실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활한 전법에 걸려들어 며칠째 유격대에 끌려다니느라고 한잠도 자지 못했기때문이였다.

이해 겨울 놈들은 이렇게 **김일성**장군님부대를 따라 끌려다니다가 모두 얼어죽고말았다.

3. 갑자기 나타난 안개

김일성장군님께서 왕청일대에서 활동하실 때 있은 일이였다.

어느날 오후 왜놈들을 들이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부대를 거느리시고 근거지로 돌아가고계셨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곳에 주둔하고있던 이와다《토벌》대는 이것을 알고 총출동명령을 내렸다.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른다고 이곳에 처음 온 이와다《토벌》대장은 그것을 천재일우의 기회로 여기고 여름한철의 메뚜기처럼 날뛰였다.

본토의 대본영에 있던 이와다는 **김일성**장군님에 대해서 말만 들었는지라 어리석게도 이 기회에 한번 무공을 세워보려는 야심과 망상에 들떠있었던것이다.

《토벌》대를 끌고 소북구방향으로 가는 밀림속에 들어선 이와다는 졸병들을 때려내몰았다.

얼마쯤 가니 밀림속에 방금 유격대가 휴식을 하고 떠나간 흔적이 나타났다.

불을 방금 죽였는지 불무지에선 아직 연기가 실실 피여오르고있었다.

《빨리! 빨리!》

《토벌》대장은 졸병들을 자꾸 내몰았다 .

그런데 아무리 가도 밀림속은 쥐죽은듯 고요하고 유격대가 지나간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김일성장군부대는 승천입지한다더니 정말 하늘로 오르고 땅으로 잦아든게 아닌가?

이와다는 대본영에 있을 때 신출귀몰하신다는 **김일성**장군님에 대해 들은 말이 생각났다.

이와다가 어쩔지 몰라 머밋거리고있는데 척후로 나갔던 졸병 하나가 달려와 보고하였다.

《대장님, 저앞에 유격대가 지나간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좋다, 빨리 추격하라!》

이와다는 그러면 그렇겠지 하고 무릎을 치며 《토벌》대놈들을 다시 내몰았다.

얼마동안 달려가니 정말 유격대가 눈앞에 보였다.

소리치면 들릴상싶은 아주 가까운 거리였다.

유격대는 자기들을 추격하는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천천히 행군해가고있었다.

《좋아! 조용조용히 은밀히 추격하라!》

이와다는 목소리를 낮추고 참모장에게 명령하였다.

《토벌》대놈들은 승이 나서 추격하였다.

유격대와의 거리가 불과 장바 두어기장쯤 되였을무렵 이와다《토벌》대장은 포위망을 폈다.

앞을 바라보니 유격대는 자기들이 가까이 추격하는줄을 전

혀 모르고있는것 같았다.

김일성장군님은 태연한 자세로 천천히 담배 한대를 꺼내여 불을 붙이시는것이였다.

실날같은 연기가 피여올랐다.

그런데 바로 그찰나 갑자기 밀림속에 안개가 자오록이 꼈다.

어찌나 안개가 진하게 꼈던지 앞사람도 분간키 어려웠다.

왜놈들은 어디가 어딘지 몰라 방향을 잃고 헤매였다.

놈들은 제놈들끼리 부딪치기도 하고 욕지거리도 하면서 소동을 피웠다. 《토벌》대에서는 대혼란이 일어났다.

급해맞은 《토벌》대장은 척후대를 찾았다.

그러나 척후대인들 무슨 용빼는 수가 있겠는가.

한참만에 안개가 약간 설핏해졌다. 척후대는 그때에야 겨우 앞을 가늠하며 유격대가 간 방향을 찾아나갔다.

이때 어디선가 《땅, 땅》하고 총소리가 나더니 척후대가 모두 비명을 지르며 죽어넘어졌다.

이와다는 또 다른놈들을 척후대로 내보냈으나 그놈들도 길을 못찾고 총에 맞아 쓰러졌다.

도대체 어디에서 날아오는 총알인가, 유격대는 어디에 있는가?

하늘에서 날아오는지 땅에서 날아오는지 온 천지가 안개에 휩싸여 도무지 알수가 없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담배를 피우시자 일어나는 조화를 제눈으로 직접 본 왜놈들은 할수없이 퇴각하면서 비명을 질렀다.

《도술에 능하고 신술을 쓰는 **김일성**장군과 맞선다는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와다는 그후 다시는 《토벌》에 나서지 않았다고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연기를 피워 왜놈들을 혼란에 빠뜨린적

이 있는데 아마도 그것이 전해지면서 이런 전설이 생겨나게 된것이리라.

4. 땅에서 솟아오른 집

유격근거지에 대한 왜놈들의 《토벌》이 하루에도 몇차례씩 거듭되던 그때에 있은 일이다.

어느해 봄, 산에 쌓인 눈들은 녹아내리고 아직 골짜기마다엔 채 녹지 않은 얼음들이 희끗희끗 남아있던 그무렵 왜놈들은 백두산북쪽에 있는 한 유격근거지에 대한 《토벌》을 악착하게 벌렸다.

유격대원들이 멀리에 진출한 틈을 타서 달려든 《토벌》대놈들은 마을에 들이닥쳐 집에 불을 지르고 유격대병실과 후방건물까지 모조리 태워버렸다.

유격대원들이 근거지로 돌아왔을 때는 집이라곤 한채도 남지 않고 싸늘한 재만이 바람에 이리저리 흩날리고있었다.

어른들은 멀리 밭에 파종하러 나갔었고 아이들과 늙은이들은 미리 련락을 받고 산속으로 피신한 뒤여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인민들은 재더미만 남은 마을을 바라보며 어떻게 할지 몰라 한숨만 쉬고있었다.

해가 떨어지고 저녁노을이 스러지자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헤집고 스며들었다.

아이들은 추워서 옹송그리고 엄마품에 꼭 안겨들었다.

어른들은 참고 견딘다치고 아이들은 어떻게 할것인가.

봄이라고는 하지만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은 땅거미가 깃들기 바쁘게 살얼음을 지어놓았다.

집을 다시 짓자면 적어도 여러날이 걸릴터인데 하루이틀밤은 우등불을 피워놓고 견딘다 하더라도 며칠씩 아이들을 한지에서 재울수는 없었다.

여기 소식을 보고받으신 **김일성**장군님께서 곧 이곳 유격근거지로 찾아오시였다.

모두 그이품에 달려가 안기며 눈물을 흘리였다.

피해정형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으스러지게 주먹을 쥐시더니 《악귀같은놈들!》하고 부르짖듯 말씀하시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우선 인민들이 밤을 무사히 지내도록 여러가지 대책을 취해주시였다.

간단히 초막도 짓도록 하고 식량도 구해오도록 하시고 화식도구도 장만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근거지안의 인민들과 유격대원들은 그날밤을 편안히 지낼수 있게 되였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그들이 잠자리에서 눈을 떠보니 깜짝 놀랄 일이 생겼다.

《집이다! 집이 일떠섰다!》

어느 집 로인이 어뜩새벽에 일어나 집이 백여채나 번듯하게 일떠선것을 보고 꿈을 꾸지 않는가 하여 어리둥절해 바라보다가 소리쳤다.

이때 다른 사람도 같은 광경을 보고 꿈인가 생신가 얼떠름해있다가 서로 말을 주고받아보고서야 사실이 분명한것을 알

고 둘이 함께 《집이다! 집이다!》하고 소리쳤다.

땅에서 솟았는가,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였다.

불타기전보다 오히려 번듯한 집들이 더 많이 생긴것이였다.

마을뿐만아니라 유격대병실과 후방건물도 숲속에 덩그렇게 일떠섰다.

모두 놀랍고 기뻐서 서로 영문을 물으며 떠들썩하는데 한 유격대원이 그들에게 달려와 위대한 장군님의 편지라고 하면서 전해주었다.

편지에는 자신께서 바쁜 일이 있어 밤중으로 떠나가는데 새로 선 집에서 꿋꿋하게 살라는 내용이 씌여있었다.

《그럼 장군님께서?!》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신술을 쓰시여 하루밤사이에 백여채의 집이 땅속에서 솟아오르게 하셨다고 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유격대원들과 함께 밤새워 집을 지으셨다는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겠는가!

그후 **김일성**장군님께서 신술을 쓰시여 땅속에서 집이 솟아오르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간도의 여러 지방으로 파다하게 퍼져갔다.

그때 인민들속에서는 그이께서 유격대병실이 둔갑술을 쓰게 한다는 이야기가 돌았는데 그 내용인즉 왜놈들이 근거지로 《토벌》하러 들어가면 그놈들의 눈엔 통나무로 지은 밀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 자리엔 아름드리 나무들만이 울창하게 들어차있다, 그래 아무리 근거지로 쳐들어가도 유격대원들이 쓰는 집을 하나도 다치지 못했다는 내용이였다.

하여간 근거지인민들의 집과 유격대밀영과 관련하여서는 재미있고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었다.

5. 굳어진 기마경찰

1931년 추수투쟁때 화룡지방에서 있은 일이다.

두만강류역의 어느 한 마을에 복동이라는 총각이 살고있었다고 한다.

나이는 열두살이지만 몸이 다부지고 힘이 세서 무슨 일이나 막히는데가 없었다.

그러나 외아들이여서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여 부모들이 웬만해서는 복동이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날 복동이는 지게를 지고 뒤산에 나무하러 가게 되였다.

복동이의 부모들이 마을사람들과 함께 일제놈을 등에 업고 악독하게 착취하는 지주놈과 담판하기 위해 갔기때문에 집에 아무도 없었던것이다.

마을사람들은 지주집에 달려가 담판을 하고 그 자리에서 낟가리를 허물어 3.7제로 곡식을 되찾아오려는것이였다.

산마루에 오른 복동이는 지게를 벗어놓고 강대나무를 찍으려고 도끼를 손에 들었다.

이때 산밑에서 와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눈을 아래로 주니 마을사람들이 지주집으로 밀려가는 모습

이 빤히 내려다보였다.

복동이네 마을뿐아니라 이 마을, 저 마을 사람들이 길목에서 합쳐져 투쟁군중은 어느덧 몇백명에 이르렀다.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자!》

《반동지주를 타도하자!》

격노한 군중들의 웨침소리는 산발을 찌렁찌렁 울리였다. 성난 파도처럼 거세차게 밀려가는 군중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듯하였다.

그것을 내려다보는 복동이는 저도모르게 흥분에 떴다.

바로 그때였다. 투쟁군중앞에 경찰들이 막아나섰다.

누런 외투를 입은 일본경찰들과 보위색복장을 한 《만주국》 경찰들이였다.

이놈들은 급보를 받고 달려온 화룡현안의 경찰들이였다.

놈들은 헛총질을 하면서 투쟁군중들을 해산시키려고 발악하였다.

그러나 군중들은 한데 뭉쳐 놈들과 맞받아 용감하게 싸웠다.

그것을 내려다보는 복동이는 마음이 조마조마하였다.

저들속에 아버지, 어머니도 있을것인즉 혹시 무슨 불행한 일이라도 생기지 않을가 하는 우려가 마음을 놓지 못하게 했다.

이윽고 투쟁군중들은 경찰놈들을 밀어제끼고 앞으로 나아갔다.

경찰들은 더는 어쩔수 없었는지 뒤로 물러섰다.

《후—》 복동이는 안도의 숨이 나갔다.

수백명의 농민들은 앞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마음이 놓인 복동이는 어서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가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텅텅 몇대의 강대나무를 찍었다.

강대나무를 토막내서 지게에 싣던 복동이는 갑자기 울리는 말울음소리에 그쪽을 바라보았다.

그랬더니 종성과 상삼봉(현재는 삼봉, 함경북도에 있는 고장이름)쪽에서 달려오는 한무리의 기마경찰들이 얼음이 언 두만강우에 들어서는것이였다.

아마도 화룡현경찰서에서 그쪽에 응원을 요청한 모양이였다.

(아참, 이걸 어쩌나?)

복동이는 안타까와 어찌할바를 몰랐다.

이것을 알리 없는 투쟁군중들은 마음놓고 지주놈의 집으로 달려가고있었다.

수백명의 기마경찰들이 두만강을 건너서기만 하면 투쟁군중들은 형세가 매우 불리하게 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무참한 희생만 낼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였다.

복동이의 작은 가슴은 세차게 방망이질을 하고 이마엔 땀이 빠질빠질 내돋쳤다.

바로 이때였다. 하늘에서 《오호홍!—》하고 우뢰같은 말울음소리가 울렸다.

뒤이어 번개가 일고 꽝 꽈르릉 천둥이 울었다.

복동이는 깜짝 놀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솜같은 흰구름 몇덩이가 떠가는 하늘에 룡마가 두 나래를 펴고 날아가고있었다.

룡마우엔 장수가 앉아 채찍을 휘둘러대고있었다.

장수가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번개가 일고 천둥이 울군하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다음에 벌어졌다.

번개가 일고 천둥이 울자 두만강얼음우에 들어선 수백명의 기마경찰들이 갑자기 그 자리에 얼어붙어 꼼짝 못하는것이였다. 조금 있더니 말들은 웬일인지 뒤걸음을 치며 꺼꾸로 가는것이였다. 아무리 박차를 차고 고삐를 당겨도 말은 자꾸 뒤로만 물러갔다.

놈들이 말을 몰아대는 소리와 말울음소리가 강안에 가득찼다.

얼마후에 말들은 자기들이 달려온 종성과 상삼봉쪽으로 물러갔다.

이렇게 되여 기마경찰은 한놈도 두만강을 건느지 못했다.

눈이 휘둥그래진 복동이는 너무 기뻐 두손을 높이 쳐들고 《야!》 탄성을 내질렀다.

밀려간 투쟁군중들은 지주집을 몇겹으로 에워싸고 연방 구호를 웨쳐대며 들이댔다.

군중들의 기세에 눌리워 그처럼 살기등등하던 지주놈은 고양이앞의 쥐처럼 꼼짝하지 못하였다.

농민들은 낟가리를 허물고 3.7제로 곡식을 되찾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하여 투쟁은 농민들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투쟁군중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되여 승리하게 되였는지 모르고있었다.

나무를 지고 돌아온 복동이가 아버지에게 자기가 본 사실을 말해서야 그들은 모든 내막을 알게 되였다.

《백두산대장수님의 그 신묘한 도술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기지도 못하고 큰 희생을 낼번하였소.》

그들은 백두산대장수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하여 목이 꽉 메

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날밤에 사람들을 보내여 두만강의 얼음을 미리 까놓게 하신 사실을 모르고있는 그들은 백두산장수가 도술을 부린것으로 생각하였던것이다.

6. 독안에 든 쥐

김일성장군님께서 거느리신 유격대의 한 부대가 어느 부락에서 류숙할 때였다.

왜놈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수백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부락을 포위하기 시작하였다.

《토벌》대 대장 다무라는 수량상우세를 믿고 먼거리포위를 한 후 점점 마을로 조여들기 시작하였다.

왜놈들은 이번에야말로 빨찌산을 소탕한다고 의기양양해서 마을쪽으로 다가들고있었다.

이때였다.

광주리에 무엇인가를 가득 담아 인 두 녀인이 마을쪽에서 걸어나오더니 산으로 오르는것이였다.

(**김일성**유격대한테 음식을 가져가는게 틀림없다.)

이렇게 단정한 다무라는 저도모르게 권총에 손이 갔다.

그러나 다음순간 다무라는 자신을 자제하고 고쳐 생각하였다.

《옳지, 저 녀자들의 뒤를 감쪽같이 따라가 포위하면 빨찌산은 올데갈데없이 독안에 든 쥐신세다. 으흐흐흐.》

쾌재를 올리며 다무라는 병졸들을 내몰아 녀인들이 올라가는 산을 향하여 포위진을 펴고 조여들었다.

녀인들은 왜놈들보다 한발 앞서 산꼭대기로 올랐다.

다무라는 망원경으로 녀인들의 뒤를 쫓았다.

그런데 산으로 오르던 녀인들은 갑자기 안개에 휩싸였다가 홀연 사라져버리고마는것이였다.

《엉?》

다무라는 놀라 소리를 지르며 망원경을 다시 눈에 가져다댔다.

녀인들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한 예감에 등골이 써늘해졌다.

이때 《땅! 땅!…》하고 갑자기 산꼭대기에서 내리쏘는 요란한 총성이 골안을 뒤흔들었다.

《빨리, 빨리 올라가라! 저쪽이다!》

다무라는 겁에 질렸으나 입으로는 호통을 쳤다.

잔뜩 겁을 먹은 졸병들이 엉기엉기 산으로 게바라오르는데 총성이 딱 멎더니 이번에는 뜻밖에도 오른쪽 옆고지에서 몰사격이 퍼부어졌다.

《아이쿠!―》

《아이쿠!―》

여기저기서 놈들은 삼대 쓰러지듯 무리로 나가 빼드러졌다.

《이쪽 고지다!》

다무라는 황황히 총소리나는쪽으로 군대를 돌리는데 그렇게도 우박치듯 쏟아붓던 총성이 또 일제히 그치고 이번에는 왼쪽 옆고지에서 맹사격이 퍼부어졌다.

《엉? 이게 대관절 어떻게 된판이야?》

왜병들은 가뜩이나 겁이 나던판에 빨찌산들이 눈깜짝할사이에 이 고지에서 저 고지로 왔다갔다하는것을 보니 한발자국도 옮겨디딜 용기가 나지 않았다.

왜놈들이 갈팡질팡하는데 총성이 멎더니 또 다른 고지에서 맹사격이 퍼부어졌다.

망원경을 이쪽저쪽에 대고 살피던 다무라는 또 한번 흠칠 놀랐다.

산에서 구름이 뭉게뭉게 피여오르는데 그 구름이 옮겨가는 산마다에서 총성이 울리는것이였다.

《유격대가 구름을 타고다니누나.》

다무라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이번엔 구름이 움직이는쪽을 자세히 살피였다.

조금 있더니 저쪽 산에서 구름이 뭉게뭉게 피여올라 다른 산으로 옮겨가는것이였다.

《저 구름을 쏘라! 유격대가 구름을 타고 간다!―》

다무라가 소리를 지르자 왜병들은 구름을 향해 미친듯이 총을 쏘아댔다.

한동안 쏘아대니 탄알은 한알도 남지 않았다. 총알이 떨어진 왜놈들은 떠가는 구름만 멍하니 쳐다보며 눈을 꺼벅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놈들이 있는 바로 뒤산에서 《땅!―》하고 총성이 울리더니 총알이 비발치듯 날아오기 시작했다.

이건 또 웬일인가?

《아이쿠! 아이쿠!》

왜놈들은 무리로 쓰러졌다.

유격대의 총알은 뒤산에서만이 아니라 앞산과 옆산에서도 날아왔다.

지어는 하늘과 땅에서도 날아오는것 같았다.

사면팔방에서 총알이 날아오니 다무라《토벌》대는 독안에 든 쥐신세가 되고말았다.

왜놈들은 옴짝달싹 못하고 손발도 변변히 놀려보지 못한채 몽땅 쓰러지고말았다.

《어이구,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는 **김일성**장군유격대를 무슨 수로 당하나?》

《축지법을 쓰는 유격대를 잡겠다구, 어이구 맙시사…》

놈들은 죽어자빠지면서도 공포에 넋을 잃고 중얼거렸다.

그후부터 다무라는 구름을 타고다니며 앞에서 번쩍, 뒤에서 번쩍,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몰사격을 퍼붓는 **김일성**장군유격대와 감히 맞서려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왜놈들을 유인한 두 녀인은 바로 **김일성**장군님께서 보내신 유격대원들이였다.

놈들은 장군님의 유인매복전술에 걸려들었던것이다.

류다른 방문객

혁명의 요람 만경대에는 축원의 마음을 안고 달려오는 우리 인민들과 세계 여러 나라 벗들의 발길이 일년 사시절 그칠새가 없다.

일제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고향이 만경대라는것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만경대로 찾아왔다.

일제관청에 복무하는 사람들까지 만경대를 방문한 사실이 있으니 그 이야기를 아래에 전한다.

보천보전투가 있은 다음해 봄 어느날이였다.

평안남도 도청의 관리로 있던 스즈끼 사부로는 대동군의 어느 한 마을에서 보통학교 교장을 하고있는 가네가와 신따로를 찾아갔다.

그들은 일본에서도 귤고장으로 유명한 와까야마태생으로서 어려서부터 한마을에서 자랐고 사범학교를 나올 때까지 공부도 내내 같이 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사이는 퍽그나 자별하였다.

학교를 졸업한 후 조선으로 배치되여와서 서로 그리 멀지 않은곳에서 일하게 된 그들은 여가가 생기면 자주 찾아다니며 만나군하였다.

그날도 스즈끼는 쉬는날을 계기로 친구네 집에 찾아갔던것이다.

그가 가네가와의 집에 들어선것은 땅거미가 지기 시작한 저녁무렵이였다.

만나면 의례히 있기마련인 술상을 가운데 놓고 마주 앉아 서로 권커니작커니 몇순배 돌아가자 취흥에 겨워 하는 얘기는 고향이야기로부터 어느덧 시국이야기로 번져갔다.

이 시절 조선사람이건 일본사람이건 그들의 화제에는 응당히 《하늘에서 백두산에 천군을 거느리고 내리신 **김일성**장군》이야기가 오르군하였는데 스즈끼와 가네가와도 그 말을 하게 되였다.

《우리 일본군대가 보천보에서 **김일성**부대한테 무리죽음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나?》

스즈끼가 이렇게 말하자 《보천보뿐이 아닐세. 우리 황군은 신출귀몰하는 **김일성**부대한테 꼼짝 못한다더군.》 하고 가네가와가 받았다.

《둔갑, 변신, 분신술을 쓰는데다가 축지법을 쓰구 승천입지한다니 그런 **김일성**장군을 어떻게 당하겠나?》

얘기가 한창 고조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가네가와가 심중한 낯빛을 지었다.

누가 주위에서 자기들의 말을 엿듣기라도 할가봐 겁이 났는지 눈을 흡뜨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아이들은 웃방에서 모두 잠에 곯아떨어졌고 술상옆에 쭈그리고앉아 두손을 무릎우에 올려놓고 졸고있던 녀편네도 견디다못해 바람을 쏘이려고 밖으로 나가고 없었다.

그야말로 죽마지우인 스즈끼와 가네가와 자기네 둘뿐이였다.

《여보게 스즈끼군, 그 유명한 **김일성**장군의 고향이 어딘지 아나?》

《뭐? **김일성**장군의 고향?》

스즈끼는 눈이 커졌다.

《그래 임잔 아나?》

《쉿, 조용하게.》

스즈끼의 목소리는 저도모르게 작아졌다.

《**김일성**장군의 고향은 여기서 멀지 않은 저기 고평면 남리 만경대일세.》

《만경대?!》

스즈끼는 깜짝 놀랐다. 반도인들이 그토록 유명한 희세의 영웅으로 떠받드는 **김일성**장군의 고향이 여기 대동군 그것도 얼마 멀지 않은 고평면이라니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신따로군, 우리 **김일성**장군의 고향에 한번 찾아가보지 않겠나?》

《그렇게 하세. 나도 언제부터 가보고싶었는데 같이 갈 믿을만한 사람이 없어 못갔네.》

소시적의 두 친구 스즈끼와 가네가와는 이렇게 되여 다음날 아침 만경대로 찾아가기로 약조를 하였다.

스즈끼가 만경대로 찾아가려는데는 호기심에 가까운 제딴의 속심이 있었다.

스즈끼는 고향 와까야마에 있던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요구로 풍수쟁이한테서 풍수보는법을 배운적이 있었다.

어린 나이에 호기심도 있고 아버지의 요구도 엄하여 열심히 배운덕에 마을에서 집터나 묘자리를 볼 때는 저마다 스즈끼를 데려갔다. 그러다나니 어느덧 그는 저도모르게 《풍수쟁이》가 되였다.

풍수를 한번 봐주고는 진수성찬으로 푸짐히 대접을 받던 그때가 생각나 스즈끼는 씩 웃었다.

그는 바로 위인이 탄생한 만경대가 어떤 고장인지 이른바 그 《풍수쟁이》의 눈으로 한번 보고싶은 생각이 버쩍 들었던것이다.

다음날 그들은 아침일찍 행장을 갖추고 녀편네와 아이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만경대를 향해 떠났다.

룡악산을 지나 만경대에 거의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한 조선로인을 만나 길을 물었는데 마침 그는 만경대태생으로서 지금 거기서 살고있다고 하였다.

처음에 그는 두 일본인을 만나자 경계하는 눈치였으나 그들이 찾아오는 사연을 듣고는 마음이 놓이는지 **김일성**장군님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자랑에 넘쳐 말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정은 대를 이어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싸워오는 애국적인 가정이라는 로인의 말을 들으면서 스즈끼와 가네가와는 놀라움을 금할수가 없었다.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 지어는 증조할아버지까지도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싸워오셨다는 이야기에 비록 일본의 식민지정책을 집행하는 일본인관리이지만 감동이 매우 컸다.

큰 인물의 뒤에는 출중한 가정이 있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한 말이로구나.

그들은 다같이 이런 생각을 하였다.

일행은 어느사이에 벌써 만경대에 다달았다.

만경대는 참으로 아름다운 고장이였다.

옆으로는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이 있고 남으로는 푸른 소나무들이 우거진 나지막한 언덕이 있고 그밑에 조선의 어데서나 볼수 있는 몇채의 농가들이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집은 만경봉의 한 기슭에 자리잡고있었다.

처마가 낮은 자그마한 초가였다.

그들은 사립문을 지나 조용히 마당으로 들어섰다.

온 가족이 다 밭에 나갔는지 집은 텅 비여있었다.

한 절반쯤 비스듬히 열려져있는 방문사이로 들여다보니 노전이 깔려있는 방안에 별로 눈에 띄는 가구란 없었다.

앞마당에는 고간으로 쓰는 막이 하나 있고 그안에는 몇개의 농쟁기들이 있었다. 얼핏 보아도 가난의 흔적이 력력한 빈농가였다.

머리를 기웃거리며 여기저기를 돌아본 그들은 집을 나서 만경봉으로 올라갔다.

스즈끼는 동서남북을 호기심어린 눈으로 둘러보았다.

유난히도 화창한 봄날, 하늘도 맑게 열리고 갖가지 꽃들이 다투어 피여나 대지가 꽃바다로 설레이는데 눈아래에는 대동강 푸른 물이 유유히 흘러내려 망망한 창해에 잇닿고 멀리 남쪽으로는 무연한 벌판이 시원스럽게 펼쳐져있었다. 그 두리로 연두보라빛 산발들이 점점이 늘어선 광경은 참말로 아름다왔다.

스즈끼는 만경대의 풍치에 도취되여 묵묵히 사위를 굽어보다가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게, 가네가와군. 풍수설에 의하면 좌청룡 우백호 배산림수한 고장이 명장이라 하였는데 바로 만경대야말로 그런 곳이요. 여기서 **김일성**장군과 같은 위인이 탄생하신 연유가 명실공히 리유가 있는듯하네.》

가네가와도 스즈끼의 말을 들으니 만경대는 틀림없는 명장이라는 생각이 들어 고개를 끄덕이였다.

예로부터 인걸은 지령이라 하였으니 이런 명당자리에선 위인이라도 걸출한 위인이 탄생할것인즉 여기에 고향을 둔 위대한 장군님을 희세의 영웅이요, 하늘이 낸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응당하고 분명하다는 생각이 스즈끼와 가네가와

의 가슴에 차올랐다.

《우리 일본은 분명히 망했구나.》

그들의 입에선 저절로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그들은 만경봉에서 내려 곧바로 집으로 향했다.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서로 아무 말도 주고받지 않았다.

깊은 사색에 잠겨 걷는 그들의 얼굴엔 심중한 빛이 어려있었다.

만경대와 같은 명장에서 탄생한 위대한 장군님과 맞선다는 것은 닭알로 바위를 치는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선사람들이 구세주로 떠받들고 경모하고있는 위대한 장군님은 장차 일제를 몰아내고 나라를 구원할뿐아니라 어지러운 이 세상을 평정할것이라는 예감이 엄습해들어와 저절로 온몸이 굳어지는듯 싶었다.

만경대에 갔다온 후 스즈끼와 가네가와는 약속이나 한듯 각기 자기들의 상급에 서둘러 사직서를 냈다.

리유인즉 이곳의 물이 맞지 않아 몸에 탈이 생겨 고향에 돌아가 치료를 받아야겠다는것이였다.

리유가 그럴듯 했는지 그들은 승인을 받고 부랴부랴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왜 갑자기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갔는지 그 진짜 리유는 모두 몰랐다고 한다.

그들은 아무에게도 지어는 자기 안해와 아이들에게까지도 고향으로 가는 리유를 말하지 않았던것이다.

그러나 만경대를 다녀오는 일본인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사직서를 내고 본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자 일제통치말기에 왜놈우두머리들이 약간한 눈치를 채기 시작하였는데 미처 손쓸사이없이 망하고말았다.

사진에 나타나지 않는 장군

분명히 사진은 같이 찍었는데 후에 현상해보니 위대한 장군님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전설이 한때 많이 돌았었다.

이 전설은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물론 왜놈들속에서도 많이 돌면서 놈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왜놈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항일유격대에 되게 얻어맞고 관동군과 조선침략군, 지나파견군을 비롯한 일체 무력을 유격대 《토벌》에 내몰던 그때에 있은 일이다.

륙군사관학교를 최우수생으로 졸업한 아끼모도는 일본에서 만주로 떠나기전날 고향에서 하루밤을 잤다.

그날 아끼모도는 백두산호랑이가 《따웅—》하고 자기를 덮치는 무서운 꿈을 꾸어 온밤 악몽에서 허덕이였다.

사관학교시절 백두산호랑이로 불리우는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말을 많이 들어서인지 꿈에서까지 공포에 시달리다나니 온몸의 맥이 쭉 빠졌다.

그래서인지 아끼모도는 만주에 건너와서도 늘 기를 펴지 못하고 목을 움츠리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날 아끼모도가 있는 《토벌》대에 관동군사령관이 시찰을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그의 소대병실에 들렸다.

소대장인 아끼모도는 너무도 뜻밖이여서 영접보고도 제대로 하지 못해 불이 번쩍 일게 따귀를 얻어맞았다.

사령관이 때렸는지 따라온 부관이 때렸는지 얼결에 얻어맞아 그것조차 알수가 없는데 그는 쓰러져 정신을 잃고말았다.

아끼모도는 사령관이 돌아간 퍽 후에야 정신을 차렸는데 그때부터 그는 머리가 돌았는지 가끔 엉뚱한짓을 잘했다.

우울병에 걸린것처럼 말도 하지 않던 그는 수다스러운 다변가로 되였고 사람들을 깜짝 놀래우는 말도 꺼리낌없이 하였다.

어느날 아끼모도는 졸병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나를 소대장으로 모시고있는것을 하늘의 덕으로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대일본제국이 무서워 벌벌 떠는 **김일성**장군과 륙군사관학교를 같이 다닌 동창생으로서 각별한 사이란말이다.

그러니 〈토벌〉을 나가도 **김일성**장군이 우리 소대는 절대로 다치지 않을것이다. 이것이 천복이 아니고 무엇인가!》

아끼모도의 이 말은 그 즉시로 《토벌》대에 쫙 퍼졌다.

그는 여기저기 상관들에게 불리워다니느라고 분주하였다.

《아끼모도군, 군이 **김일성**장군과 동창생이란게 사실인가?》

《핫, 사실입니다.》

아끼모도는 상관들이 물을 때마다 차렷을 하고 큰 목소리로 자신있게 대답하였다.

《그러면 무슨 증거가 있는가? 사진이라도 같이 찍은것이 있겠지?》

《핫, 여러번이나 같이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진들을 빨리 가져오라.》

《핫.》

아끼모도는 돌따서 자신있게 걸어나갔다.

그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토벌》대장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은근히 속으로 켕기는점도 없지 않았다.

정말 **김일성**장군의 동창생이라면 아끼모도를 함부로 건드렸다가 봉변을 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위구심이 생겼던것이다.

얼마후 아끼모도는 사진 몇장을 가지고 들어왔다.

《토벌》대장은 빼앗다싶이 사진을 황급히 받아들고 뚫어지게 들여다보았다.

《아끼모도군, 어디에 **김일성**장군이 있는가?》

《사진을 같이 찍었는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졸업사진을 찍을 땐 여기에 서있었고 이 사진을 찍을 땐 이쪽에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사진을 깨워보니 어디에도 **김일성**장군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떤 사진은 깨워보면 처음엔 장군께서 나타나는데 얼마후에 보면 없어진다고 하였다.

《뭐라구? 군은 상판을 놀리는가?》

《토벌》대장은 소리치며 다시 사진들을 들여다보았다.

사진들엔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있었다는 자리마다 신통히도 비여있었다.

그의 뇌리엔 언듯 이런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관동군사령부 참모시절에 수많은 종군기자들을 **김일성**장군이 나타났다는곳에 파했으나 어느 누구도 장군의 모습을 찍어오지 못하여 애를 먹었었다. 그때도 기자들은 분명히 **김일성**장군을 사진찍었는데 깨워보면 수림만 나타날뿐 보이지 않는다고 우는 소리를 했었다.

《토벌》대장은 아끼모도를 믿을수도 없고 안믿을수도 없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였다.

김일성장군항일유격대가 나타났다는 정보가 들어와 아끼모도도 소대를 데리고 《토벌》에 끌려나갔다.

그런데 **김일성**장군항일유격대는 한명도 보이지 않고 그저 하늘에서 커다란 불덩어리가 놈들의 머리우에 떨어져 거의 모두를 전멸시켜버렸다.

하늘에서 떨어진 불덩이에 맞아죽었으니 화공전술에 걸린것도 아니요, 이것은 분명 천벌을 받은것이였다.

김일성장군의 도술과 신술이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인다고 하더니 아마도 번개를 불러 조화를 부린것이라고 수군거리며 왜놈들은 불안에 휩싸여 벌벌 떨었다.

이상한 일은 그것만이 아니였다.

그물이 삼천코라도 빠지는놈이 있다고 아끼모도소대는 전원이 살아돌아온것이였다.

아끼모도는 졸병들에게 으시대며 큰소리를 쳤다.

《너희들은 아직도 내 말을 믿지 않겠는가? 모두가 황천으로 갔는데 유독 우리 소대만이 살아남지 않았는가. 이것은 다 소대장인 나의 덕이다.》

그러나 《토벌》대장은 부대가 괴멸되자 부아통이 터져 아끼모도를 군사재판에 넘기고 영창에 잡아넣었다.

죄인즉 **김일성**장군과 미리 내통했다는것이였다.

그래도 아끼모도는 하소할데가 없었다.

김일성장군이 동창생이라고 제입으로 발설한데다가 자기 소대만이 살아돌아왔으니 더 발뺌을 할수가 없었다.

그가 영창에 들어가자 일은 더 별나게 번져갔다.

《토벌》대장은 그를 잡아넣고 속이 켕기였지만 그래도 사무라이의 자존심으로 태연한체하였으나 참모장이하 장교들은 아끼모도가 갇혀있는 영창으로 뻔질나게 드나들며 아첨을 하는것이였다.

제일먼저 참모장이 찾아갔다.

《아끼모도군, 조금만 참게. 인차 내놓도록 하겠네. 대장님이 분김에 한 처사이니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널리 리해해주게.》

다음엔 작전과장이 찾아갔다.

《아끼모도군, 이번 일은 내 불찰일세. 나를 욕해주게. 임자에게 무슨 죄가 있나. 대장님이 너무했단말야. 내 우에 말을 잘해서 빨리 나오도록 하지.》

참모장도 작전과장도 돌아갈 땐 큼직한 꾸레미를 주고갔는데 그안엔 별의별 진귀한 음식이 다 들어있었다.

아끼모도는 난생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을 영창에 들어와서 다 먹어보았다.

그는 조금도 영창에서 나갈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상관들이 련달아 찾아와 아첨을 하고 진수성찬으로 대접을 하는데야 왜 나가겠는가. 여기보다 더 좋은데가 어데 또 있을라구.

그가 영창에 들어온지 며칠 안되여 부대에 또 출동명령이 내렸다.

김일성장군부대를 《토벌》한다는것이였다.

아끼모도는 《토벌》에도 나가지 않고 실컷 잠만 자고 대접만 받으니 더없이 좋았다.

그런데 이번엔 《토벌》에 나갔던 왜놈들이 한놈도 살아돌아오지 못했다.

아끼모도소대졸병들도 모두 끌려나갔었는데 전멸되고말았다.

《토벌》대를 끌고나갔던 참모장도 죽었다.

하늘에서 이번엔 우박처럼 주먹같은 돌멩이가 쏟아져내려 모두 맞아죽었던것이다.

그러자 《토벌》대장은 아끼모도에 대한 생각이 번쩍 났다.

혹시 **김일성**장군이 아끼모도를 잡아가두었다고 보복을 하는게 아닐가?

불안과 공포속에 모대기던 《토벌》대장은 아끼모도를 당장 놓아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는 체면도 다 버리고 제먼저 녀편네와 함께 아끼모도를 찾아갔다.

《아끼모도군, 날 용서하게. 내가 눈이 멀어 미처 몰라보았으니 미련한 나를 너그럽게 생각해주게. 다시는 **김일성**장군과 맞서지 않을테니 나에 대해 잘 말해주게. 군은 참 행복한 사나이일세. 하늘이 낸 위인과 친분이 두터우니 부럽기 그지없네. 내 하늘이 낸 위인과 맞선다는건 우둔한짓이라는걸 누구보다 잘 아네.》

《토벌》대장은 갖은 너스레를 다 떨었다.

그다음부터 이놈은 정말로 항일유격대《토벌》에는 어떤 구실을 대서라도 한번도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아끼모도는 그후에도 **김일성**장군님의 동창생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우쭐대며 돌아갔다니 참으로 소가 웃다가 꾸레미가 터질 노릇이였다.

백두산대장수

우리 나라는 삼천리강산이 온통 산악으로 이루어졌다해도 파언이 아니다.

올려다보아도 만악천봉이요, 내려다보아도 숭산준령이다.

동방의 령지라고 하는 백두산은 이 모든 산의 조종이며 근본뿌리이다.

산악이 이렇듯 웅장하니 천하를 쥐고흔들 용감한 장수가 여기 백두산에서 날것은 분분명명한 일이다.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는 일엽편주의 신세로 무연창파우에서 헤매이던 망국노의 그 시절 사람들은 백두산을 우러르며 왜놈들을 내쫓고 나라를 구원할 위인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바라고있었다.

바로 그무렵, 백두산에 하늘이 낸 큰 장수가 날개달린 룡마를 타고 내려왔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쫙 퍼지였다.

나라를 찾을 큰뜻을 품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장수별이 높이 솟아 눈부신 빛을 뿌리는 백두산으로 삼삼오오 떼를 지어 찾아들어갔다.

그들중엔 갑산에서 살던 박오득이라는 젊은이도 있었다.

오득이는 원래 황해도 곡산인가 신계인가에서 살았었는데

왜놈에게 땅을 빼앗기고 졸지에 한지에 나앉게 되자 화김에 왜놈순사를 제끼고 고향을 떴었다.

여기저기 품팔이를 하며 변성명하고 돌아다니다가 갑산의 깊은 산속에 거접한지 다섯해, 화전민으로 그럭저럭 살아오던터에 그는 백두산에 대장수가 내렸다는 소문을 들었던것이다.

워낙 힘이 장사인 오득이는 왜놈들을 복수하지 못해 속에서 방망이가 치밀어서 늘 옥옥하던지라 소문을 듣자 짚신감발을 하고 백두산을 향해 떠났다.

떠난지 열이틀만에 백두산에 이른 그는 두리가 300리나 넘는 큰 굴속에 들어가 백두산대장수님을 만나뵙게 되였다.

《저는 갑산에서 온 사람인데 왜놈에 대한 원한이 구천에 사무쳐 그 한을 풀고저 하오니 저에게 도술과 무술을 배워주십시오. 평생 대장수님의 부하로 충정을 다하겠으니 부디 소청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장수님은 그를 기꺼이 군사로 받아들이시였다.

그날부터 오득이는 다른 군사들과 함께 대장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신기한 도술과 무술을 닦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깊은 굴속에서 하늘로 날아오르고 땅으로 잦아드는 도술도 배우고 한걸음에 몇백몇천리를 갈수 있는 축지법도 배우고 눈깜박할사이에 한사람이 열사람으로 늘어나고 그것이 또 수백수천사람이 되는 분신술도 배웠다.

그리하여 굴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한사람이 수천수만의 왜놈들을 칠수 있는 장수들로 자라났다.

그러던 어느날 이것을 알게 된 왜놈들은 백두산의 군사들이

도술과 무술을 다 닦기전에 없애버리려고 숱한 군대들을 백두산으로 내몰았다.

관동군과 조선주둔군, 경찰대와 위만군까지 총동원하니 그 수가 이루 헤아릴수없이 많았다.

이 정보를 받은 백두산대장수님은 박오득이를 부르더니 그동안 도술과 무술을 닦았으니 달려드는 적을 혼자서 물리치라는 령을 내리셨다.

박오득이는 더럭 걱정이 생겼다.

천인지 만인지 모르는 그 많은 적과 어떻게 혼자서 맞선단 말인가.

옛병서에도 《일당백》이란 말은 있으되 《일당천》이란 말은 없는데 《일당만》도 더 넘는 힘겨운 싸움이니 그럴만도 하였다.

그러나 오득이는 흔연히 대답하고 왜놈들을 맞받아 굴밖으로 나갔다.

백두산발을 한벌 뒤덮은 왜놈들이 개미떼처럼 산마루로 기여오르고있었다.

오득이는 조금도 당황하거나 덤비지 않고 침착하게 대장수님께서 배워준 도술을 썼다.

백두산마루에 흔한 부석 하나를 집어들고 왜놈들을 향해 던지니 팡, 파르릉 하고 요란한 우뢰소리가 울리면서 사방에서 돌멩이가 비발치듯 놈들에게 날아갔다.

《아이쿠, 아이쿠.》

여기저기서 왜놈들의 비명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왔다.

놈들은 눈이 퀭해지지 않을수가 없었다. 사람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데 어디서 날아오는지 주먹같은 돌멩이가 총알같

이 날아오니 영문을 알수가 없었다.

누가 어디서 무슨 조화를 부리는지 알수없어 왜놈들은 머리를 기웃거리다가 꽁무니를 빼고말았다.

박오득이가 바위뒤에 숨어서 혼자 조화를 부리니 놈들이 어떻게 알겠는가.

백두산에 올랐던 왜놈들은 겨우 몇놈밖에 살아서 돌아가지 못했다.

놈들은 백두산으로 또 숱한 군대를 들이밀었다.

이번에는 날아오는 돌멩이를 피하기 위해 밀림의 빽빽한 나무들을 방패로 삼으며 숲속으로 살금살금 기여올라갔다.

오득이는 전번과 같이 또 부석을 들어 놈들에게 던졌다. 수천수만개의 돌멩이들이 놈들을 향해 날아갔다. 놈들은 용케도 나무에 의지해서 요리조리 돌멩이를 피하며 산으로 그냥 기여올라왔다.

오득이는 당황해지기 시작했다.

아무리 부석들을 던졌으나 왜놈들은 날아오는 돌멩이를 살살 피하며 자꾸만 부득부득 기여올라오는것이였다.

어떻게 할것인가? 오득이는 다른 수법을 쓰려고 하였으나 꼭 맞는것이 없었다.

이때였다. 《오호홍!》하는 룡마의 울음소리가 하늘땅을 울리였다.

머리를 들어 소리나는쪽을 올려다보니 어느새 백두산의 병사봉(오늘의 장군봉)마루에 키가 후리후리하고 름름한 대장수님이 흰 룡마를 타고 서계시는것이였다.

대장수님께서는 백두산 병사봉마루에서 숲속으로 기여오르

는 왜놈들을 내려다보시고 쓴웃음을 지으시더니 권총을 하늘 높이 쳐들고 쏘시였다.

땅—

산발을 쩌렁 울리며 요란한 총소리가 나자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다.

잠잠히 서있던 숲속의 나무들이 굵은 가지를 휘둘러 왜놈들을 내리치기 시작하였던것이다.

《아이쿠! 악!》

왜놈들의 비명소리가 골짜기를 가득 채웠다.

돌멩이에 얻어맞지 않으려고 숲속에 기여들었던 왜놈들은 모조리 쓰러져 황천객이 되고말았다.

두번씩이나 무리죽음을 당하자 왜놈들은 당황망조하여 백두산의 장수들을 그냥 두었다가는 큰일이 날것 같아 천황에게 보고하였다.

천황은 기절초풍하였다.

아마데라스 오미까미(천조대신)의 보살핌을 받는 황군이 백두산장수에게 녹아난단말인가.

천황은 륙군대신을 궁성으로 급히 불러 귀가 째지게 욕을 퍼붓고나서 이런 분부를 내렸다.

《창창하던 일본의 앞길에 암운이 드리웠은즉 경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가서 백두산장수와 맞서싸워 이 난국을 타개할지어다.》

《황은을 입은 이 몸 목숨으로 폐하의 어명을 받들겠나이다.》

어전에서 물러나온 륙군대신은 그 길로 비행기를 타고 만주로 갔다.

륙군대신은 군대와 경찰, 《자위단》까지 총동원하여 백두산으로 올려밀었다.

산과 골짜기는 온통 왜놈들로 가득 찼다.

륙군대신은 화공전술을 썼다.

숲에 불을 지르고 나무를 모조리 불태우면서 백두산으로 기여올라갔다.

이 정보를 받은 백두산대장수님께서는 박오득이와 함께 굴밖으로 나가 병사봉마루에 오르시였다.

오득이는 연기에 휩싸인 산발들을 내려다보며 어쩔줄 몰라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와하였다.

《저런 고약한놈들!》

대장수님은 놈들을 노기에 찬 눈길로 쏘아보시였다.

조금 있더니 손을 하늘높이 쳐드시였다.

그러자 풍운조화가 일어났다.

사방에서 구름떼들이 와와 몰려와 해빛이 쨍쨍하던 하늘을 삽시에 꽉 메우고말았다.

이윽고 하늘에서는 비가 쏴—쏴 쏟아지기 시작했다.

온 지구를 태울듯 세차게 타오르던 삼단같은 불길은 잠간사이에 꺼졌다.

불은 꺼졌으나 비는 그냥 억수로 쏟아졌다.

골짜기마다 물이 사품치며 흘러내렸다. 어느새 온 골짜기에 물이 가득차 산봉우리들이 잠기였다.

백두산으로 기여오르던 왜놈들은 모조리 물에 빠져 수중고혼이 되고말았다.

이번엔 대장수님의 수공전술에 녹아난것이였다.

대장수님은 물에 빠져서 아우성치는 왜놈들을 내려다보시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굴안으로 들어가시였다.

박오득이는 대장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다.

《난 아직 멀었어. 백년을 배워도 대장수님의 술법은 만분의 하나도 따르지 못할거야.》

기겁을 하여 일본으로 되돌아간 륙군대신은 천황한테 하마트면 효수를 당할번하였다.

천황은 급히 어전회의를 열고 《2000년래의 국난》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였으나 일본이 갈 길은 죽음의 나락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왜놈들은 **김일성**장군님의 존함만 들어도 사시나무 떨듯하면서 백두산으로 기여오를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길들여진 호랑이

백두산마루에 올라서서 천하를 굽어보면 하늘의 천궁에 올라감이 별다른게 아니요, 바로 백두산에 오름이 승천하는게 아닐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백두산말기에서 몸을 가누며 한참 섰노라면 온갖 거룩한 환상과 신비감에 사로잡혀 백두산을 우러러 더더욱 몸과 마음이 엶어번진다.

백두산을 삼지연쪽에서가 아니라 멀리 에돌아 서북쪽에서 바라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호호망망 무연한 수림우에 우뚝 솟은 백두산은 마치 흰 룡좌처럼 보인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나면 그 룡좌에 만리 푸른 대공을 배경으로 거연히 앉아 천하를 굽어보는 거인의 영상이 눈앞에 떠오른다.

정말 세상만물을 창조해냈다는 조물주가 앉았던 산이 아닐가! 그래서 백두산이 그처럼 신령스러운 산으로 된걸가.

해방전 사람들은 정말로 그 룡좌에 거인이 앉아서 천하의 만가지 일을 다 내려다보고있다고 믿고있었다.

일제의 강점하에서 풀과 나무뿌리로 끼니를 에우면서도 사람들은 가상적인 그 거인의 존재를 기정사실화했고 거인에 대한 이야기로 긴긴밤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언제부터인가는 그 거인이 다름아닌

백두산대장수 **김일성**장군님이시라는데 생각을 모으게 되였다.

즉 오래전부터 백두산대장수님께서는 조선땅에서 감행하는 왜놈들의 꼴스런 지랄에 천벌을 예고하며 이 룡좌에 앉아 기회를 벼르고계셨다. 어느날 백두산의 거인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룡좌에 앉으시여 왜놈들과 싸우던 독립군들이 모두 포위에 들어 전멸될 위험에 처하게 된것을 내려다보시자 더는 참지 못하고 번개창을 틀어쥔 수만의 천병을 거느리시고 백두산을 내리시였다는것이였다.

그때에는 안개가 자오록이 끼여 누구도 그 광경을 보지는 못하고 다만 쿵쿵하는 뢰성소리만을 들었을뿐인데 그것은 마치 천제 환인의 아들 환웅이 지상에 래도하는 행차소리보다 더 요란광대했다는것이다.

이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하나 전해오는데 그것은 장군님께서 백두산에 척 걸터앉아계시자 산의 신령이라고 하면서 위세를 돋구던 호랑이가 갑자기 양처럼 순하게 길들여졌다는 이야기이다.

어느날 장군님께서는 부하 한명을 거느리시고 《일행천리》, 《야행천리》술법을 쓰시여 하루낮과 밤사이에 백두산마루에 오르셨다.

룡걸이라고 부르는 장군님의 부하는 난생처음 보는 백두산의 여름이 펼쳐놓은 황홀경에 온 정신을 빼앗겨 모든것을 감감 잊은채 사방을 두릿거렸다.

원래 그는 장군님의 부하로 들어오기전에 황해도 재령벌태생으로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으니 기껏 주변의 야산들을 보았을뿐이였다.

산우에 큰 호수가 있고 그 호반에 만병초며 담자리참꽃,

금매화들이 꽃주단을 펴놓은것처럼 피여난 백두산의 이런 절경은 난생처음 보는터였다.

하얀 눈을 점점이 노란빛으로 물들이며 방긋방긋 웃는 만병초며 해빛에 물들어 보라빛으로도 감빛으로도 보이는 부드러운 안개며 커다란 바위돌우로 물줄기들이 솟구쳤다 꺼지군하는 갈헐천이며 미처 이름도 모를 산새들의 갖가지 노래소리…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옷깃을 날리며 기분이 둥둥 떠 여기저기의 꽃을 꺾기도 하고 눈을 한웅큼 쥐여서 달아오른 얼굴을 문대기도 하는 룡결이를 장군님께서는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였다.

룡결이는 동심세계로 되돌아간듯 연해연방 《야!—야!—》하며 탄성을 질렀다.

그 소리에 놀라서인지 떨기나무숲속에서 부시락거리던 작은 짐승이 요리조리 내빼는것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 산토끼였다.

재빛의 산토끼를 보게 되자 룡결은 이번엔 자기가 달속의 계수나무동산에 올라온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정말 별천지요, 지상의 황홀경이였다. 주단처럼 흰눈우에 펼쳐진 호함진 꽃의 동산이였고 아름다운 꽃잎과 푸른 잎새들이 조화를 이루며 흐늘어진 풍만한 눈부신 세계였다. 사계절이 자기의 재간을 뽐내며 가꾼 산상이였고 하늘과 땅도 자기의 《권세》와 《힘》으로 차지하지 못한 성스러운 령마루였다.

산토끼가 달아나 숨은 산비탈 저 아래로는 사슴이며 노루떼가 꾸역꾸역 몰려드는것이 보였다.

여름의 눈얼음도 핥고 내물도 마시며 다가오는 사슴떼들을

바라보던 룡걸은 이상한 예감에 번쩍 정신을 차렸다.

갑자기 마술에라도 걸린듯 돌조각처럼 굳어져 산정을 응시하고있는 짐승들의 겁기어린 눈길에서 룡걸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날래게 몸을 뒤로 돌려 산마루를 바라보았다.

순간 그는 전률했다.

저도모르게 악! 소리를 쳤다. 그러나 소리가 입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누가 뒤에서 우악스러운 손으로 그의 입을 틀어막은것처럼 신음소리조차 낼수 없었다. 그는 굳어진채로 바라보고만 있었다.

볼수록 가슴을 옥죄이는 놀라운 광경이였다.

황소만한 호랑이가 새끼 한마리를 데리고 장군님께서 앉아 땀을 들이시는 왼쪽 후면으로 어슬렁어슬렁 다가가고있지 않는가. 더욱 놀라운것은 장군님의 무릎에 고양이만한 새끼호랑이 한마리가 안겨져있는것이였다.

보매 어미호랑이는 새끼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다가 장군님의 품에 안겨져있는 자기 새끼를 발견한 모양이였다.

그놈은 짐짓 오만상을 찡그리며 성난듯 그러면서도 조심스럽게 한걸음, 한걸음 다가갔다.

거리는 점점 좁혀졌다. 쉰보, 아니 열댓보가량으로 각일각 줄어들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아무 기척도 느끼지 못하신듯 여전히 호랑이새끼를 무릎우에 올려놓고 두앞다리를 마주쳐 짝자꿍도 치게 하시고 혹은 자신의 옆에 나란히 앉히기도 하시며 애무해주고계시였다.

언뜻 보면 어느 화창한 봄날 해빛넘치는 토방에 앉아 고양이를 놀리는것처럼 목가적이고도 평화로운 광경이였다.

어미호랑이는 꽉뒤까지 성이 치미는지 시뻘건 혀로 이발을 문다지며 덮칠듯한 자세로 서있었다. 어룽어룽하게 간 검은 줄무늬들과 몇백년 묵은 구렝이처럼 굵직한 꼬리로 하여 그놈은 퍼그나 위엄스러워보였다.

룡걸은 눈앞에 벌어질 일이 너무도 엄청난것이여서 감히 소리도 치지 못하고 매복전에서처럼 툹은 숨을 죽여가며 어깨에서 총을 벗어들고 그놈을 겨냥하였다.

그러면서 장군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작은 기침소리를 냈다.

문득 장군님께서는 새끼호랑이에게서 눈길을 떼시고 말뚝처럼 서있는 룡걸이에게 시선을 주시였다.

룡걸의 땀이 내밴 얼굴에서 그 어떤 심각한 사연을 읽으신 장군님께서는 무중 시선을 옆으로 돌리시였다.

순간 장군님의 시선과 부딪친 호랑이의 두눈에서 번쩍 섬광이 이는듯했다.

이어서 《따웅!—》하고 산을 깨치듯 요란한 울부짖음소리가 들려왔다.

허나 그것은 경악의 부르짖음이였다.

장군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자 그이의 호협한 기상에 호랑이는 옴짝을 못하고 벌린 입도 다물지 못한채 그린듯 그 자리에 머리숙이고 서있었다.

마치 응당한 꾸중을 듣는 아이처럼 뭉툭한 두앞발을 모아 붙이고 대가리를 조아리였다.

장군님품에 안겼던 새끼호랑이가 어미를 따라온 자기 형제의 대가리를 앞발로 툭 치더니 만나서 기쁘다는듯 서로 이발과 이발을 마주치며 노는양이 퍼그나 앙증스러웠다.

장군님께서는 호랑이새끼 두마리를 각각 한팔에 안으시고 우는 애를 달래듯 흔들어주시였다.

그 모습을 띄여보며 어미호랑이는 계속 머리를 짓수굿한채 장군님께로 한치한치 다가갔다.

저도 아마 그런 애무를 받고싶은 모양이였다.

허나 만일 영문을 모르는 사람이 이것을 보았다면 아마 호랑이와 사람이 서로 윽벼르며 기회를 엿보는것같이 볼것이였다.

룡걸이가 그러했다. 그는 긴장한채로 절컥 총에 장탄을 했다.

그리고는 소리쳤다.

《장군님!》

룡걸은 술진 눈섭으로 하여 더욱 이글거리는 두눈을 똑바로 부릅뜨고 호랑이에게로 접근해갔다.

그 모양을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는 웃음을 못참으시겠는지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하하하》하고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시였다.

그 웃음소리는 온 산판을 찌렁찌렁 울리였다.

부쩍부쩍 산은 하늘높이 키를 솟구고 숲도 와—와—하고 장군님의 웃음소리에 맞춰 설레이며 우쩍우쩍 일어나는것 같았다.

《룡걸동무, 총을 내리우고 어서 올라오시오. 하하하.》

룡걸은 태연하신 장군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람을 몰라보는 무지한 산짐승이 어떤 거치른 행동을 하지나 않을가 하여 경계의 빛을 지우지 않은채 그이께서 계시는곳으로 올라갔다.

허나 룡걸의 걱정은 괜한것이였다.

어미호랑이는 장군님의 폭소에 귀가 멨는지 아니면 얼이

빠져버렸는지 두눈을 꾹 감고 부동자세로 서서 도적숨을 들이쉬고있었다.

룡걸이는 그토록 사나운 짐승을 손 한번 대지 않고 큰소리도 없이 꼼짝 못하게 하는것을 보기는 생전 처음이였다.

자세히 보니 싯누런 금종이에 먹물을 묻힌 큼직한 대붓으로 휘갈겨쓴듯 번듯한 호랑이의 이마에 새겨진 임금 왕(王)자에서는 산중대왕다운 위엄과 기상이 맥맥히 넘쳐흐르고있었다.

장군님께서는 호랑이의 이마며 목덜미며 훌쭉 꺼진 배허벅을 부드러이 내리쓸어주시였다.

그러자 호랑이의 온몸은 황금빛 윤기로 더욱 빛났고 몸매도 더욱 날렵해보였으며 앙칼 발톱 또한 산을 동강내는 네개의 방망이처럼 서슬푸르렀다.

《호랑아! 인젠 어서 새끼를 데리고 가거라.》

장군님의 이 말씀에 호랑이는 머리를 끄덕였다.

흡사 선생의 말을 알아들은 총명한 제자와도 같았다.

어미호랑이는 새끼들을 량옆에 나란히 데리고 산을 내렸다. 몇번이고 뒤를 돌아보는것을 보면 마치도 부모의 슬하를 떠나기 싫어하는 자식같이도 보였고 네죽지를 펴고 천방지축 산발을 타고 날아넘으며 《따웅!》하는것을 보면 마치도 권선징악을 이룩하고저 령을 받고 지상에 내려가는 천국의 사자인듯도 했다.

이윽고 저 멀리 산발너머로 호랑이들은 가뭇없이 사라져버렸다.

《히야—》

룡걸은 장군님을 우러러보았다.

조종의 성스러운 령봉인 백두산은 옷자락을 기폭처럼 휘날리시며 거연히 서계시는 장군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자별하게 어울렸다.

그후에도 룡걸은 장군님의 호위병으로서 늘 그이와 함께 다녔다.

그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백두산정에서 산중의 왕인 호랑이를 벌벌 떨게 하시고 용악스러운 맹수를 집짐승처럼 순하게 길들이시는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즐겨하군하였다.

그는 들려주기만한것이 아니라 청중들로부터 길들여진 호랑이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

그중엔 공작원의 뒤를 따라 몰래 근거지로 기여들려고 하던 밀정을 호랑이가 불쑥 나타나 물어갔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유격대원을 호랑이가 꼬리에 물을 묻혀가지고와서 그것으로 이마를 쓸어주어 깨워주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유격대원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이따금씩 죽은 메돼지와 노루를 비롯한 산짐승들이 놓여지군했는데 그 소행의 임자가 바로 호랑이라는것이였다.

길들여진 호랑이에 대한 전설은 백두산부근에서뿐아니라 수백리나 실히 떨어져있는 로흑산과 액목, 산동툰에서도 많이 창조되였다.

로흑산부근의 인민들속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다.

로흑산에는 예로부터 호랑이들이 많았는데 그 호랑이들은 사납고 포악하기로 유명하였다.

부근마을들에서는 호환이 막심하였다.

왜놈들과 지주, 토호놈들의 학정에 못이겨 쫓겨들어온 가

난한 이곳 산골마을사람들은 설상가상으로 호환마저 겹치다 보니 살림형편은 가물에 수수잎 마르듯 꼬여만 갔고 가슴속엔 까만 재만이 가득 찼다.

집안의 큰 재산인 돼지와 양을 물어가는가 하면 사람들에게까지 달려들어 피해를 입히니 호랑이에 대한 원한과 공포는 하늘에 닿았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다.

로흑산의 사나운 호랑이들이 착하게 길들여진것이였다.

이런 말이 처음 나돌게 된것은 로흑산부근의 어느 한 마을에 들이닥쳐 갖은 악한짓을 다하던 왜놈들이 봉변을 당한후부터라고 했다.

왜놈들은 유격대를 《토벌》한다고 마을에 틀고앉아서는 농가의 개와 돼지, 지어는 목숨처럼 여기는 소까지 잡아먹고 재산을 략탈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은 그놈들을 두고 《개토벌대》, 《돼지토벌대》라고 욕을 하며 물러가길 바랐으나 좀처럼 떠날 심사가 아니였다.

그런데 어느날 밤 왜놈들의 천막이 갈가마귀 끓듯 법석하더니 아직 날도 채 밝지 않았는데 후줄근해서 모두 줄레줄레 꽁무니를 빼는것이였다.

후에 알고보니 그날밤 갑자기 호랑이떼가 왜놈들에게 달려들어 《토벌》대장을 비롯한 악질적인놈들만 열댓놈 물어갔다는것이였다.

그리고 언젠가 한번은 로흑산주변을 개싸다니듯하던 《정안군》놈들이 수림속을 지나다가 되게 혼쫄이 났다고 한다.

이놈들은 붉은 천에 《정안군》이라고 쓴 완장을 왼팔에

두르고 다녔는데 숲에 들어서자마자 어디서인지 호랑이가 나타나 장교든 졸병이든 가리지 않고 왜놈이라고 생긴놈들만 골라 물어갔다는것이다.

당시 괴뢰만주국의 직속부대이며 위만군가운데서도 가장 악질적인 부대인 이 《정안군》내에는 일본놈들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정안군》놈들은 저들이 호환을 입는게 일본놈들때문이라고 하면서 어디로 가든 왜놈들과 함께 다니는것을 매우 꺼리였다.

더우기는 숲속을 걸어가며 그놈들과 말하는것을 제일 싫어했다.

어떤 경우에는 로골적으로 질시하며 일본사람들은 저들의 천황폐하를 위해서보다도 호랑이밥이 되는것을 더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조선과 만주로 건너온 작자들이라고 야유까지 하였다.

하여튼간에 인민들이 제일 미워하는놈들만 마대안의 썩은 감자 솎아내듯 쏙쏙 골라가며 물어가니 모두들 이것은 **김일성**장군님께서 호랑이들을 왜놈을 미워하게 길들이시여 온 천하에 놓아보내신것이라고 하면서 통쾌해하였다.

날개돋친 흰말

봄이면 밭갈이군의 머리우에서 노고지리 우짖는 소리 청아하고 가을이면 벼단실은 황소의 영각소리가 구성지던 이 땅에 일제침략자들이 기여들어 총소리, 대포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었다.

그 무리들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넓은 만주광야를 휩쓸고 점차 중국관내깊이까지 침략의 마수를 뻗쳐갔다.

그러자 왜놈들의 발길이 닿는곳마다에서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의로운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졌다.

그 불길은 마침내 남북만주의 넓은 땅도 휩쓸었다.

푸르던 나무잎에 어느덧 황이 들어 하나둘 잎이 떨어지기 시작하던 어느해 초가을이였다.

백두산에서 멀리 북쪽, 어느 깊은 산속으로 며칠째 우군 여러 부대의 대장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왜놈들을 족칠 작전을 의논하기 위해 모임을 마련한것이였다.

말을 타고 창을 든 창기병을 이끌고 왕사령이 달려왔고 투구 쓰고 방패를 잡은 용기병을 앞세우고 진사령이 왔으며 번쩍거리는 장검을 등에 진 청룡도부대와 함께 주사령이 왔다.

련이어 화승대와 5련발총을 멘 포수부대와 도끼와 낫으로

무장한 나무군부대의 대장들도 모두 모여들었다.

그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왜놈들을 칠 묘책을 토의했다.

그로부터 며칠후 우군의 여러 부대들은 힘을 합쳐 어느 성시를 들이쳤다.

천군만마가 내달리고 용기병과 창기병, 청룡도부대가 성시를 겹겹으로 에워싸고 포수부대와 나무군부대들까지 화승대로 쏘고 도끼로 짓조기며 밀물처럼 쳐들어갔다.

그러나 현성은 끄떡도 안하고 들이칠 때마다 매번 이쪽만 큰 피해를 보았다.

왜놈들이 틀고앉은 현성은 높은 담장과 함정으로 둘러싸인 불락의 성새였다.

입을 꽉 다문 열두개의 무쇠대문에 청각이 예민한 파수병들이 진을 치고 솟을대문과 일각대문마다에는 방금 불길이 쏟아져나올듯한 총구들이 벌둥지처럼 숭숭했다.

싸우기를 몇십번, 그때마다 우군은 성밑에 시체만 쌓고 되돌아섰다.

우군대장들은 한숨을 지으며 다시 모여앉아 방략을 의논했다.

그러나 누구도 신통한 방안이 없어서 한숨만 내쉬였다.

이때 나이지긋한 왕사령이 정중히 말했다.

《패전을 역전함이 쉬운 일이 아니거늘 여기에 단 한가지 타개책이 있을가 하오. 내 듣자하니 백두성봉에 나라찾을 홰불을 높이 들고 왜놈격멸에서 혁혁한 공을 쌓고있는 해동국의 대장수가 있다고 하니 거기에 청을 드려 응전을 받음이 어떠하오?》

그러자 진사령이 그 말을 받으며 이렇게 물었다.

《백두산대장수에 대한 말을 나도 들은바 있소만 자세히

몰라 매우 궁금하던차요. 그래 로장은 그분에 대해 잘 알고 있으시오?》

다른 대장들도 백두산대장수에 대해 말을 많이 들었노라면서 호기심이 잔뜩 어린 눈으로 왕사령을 쳐다보았다.

《나도 들어 아는바이지만 해동국대장수님은 축지법에 분신술, 거기에 도술까지 겹쳐쓰는데 천하에 그를 당할 힘은 없다고 하오.》

《그럼 어서 그 장수한테 청을 드려 도움을 받읍시다.》

주사령과 여러 대장들은 한결같이 왕사령의 말에 호응해나섰다.

그들은 누굴 대표로 보낼것인가를 한참이나 토의하다가 마침내 날파람있고 총명한 한 군사를 보내기로 하였다.

《그대의 용맹과 슬기를 믿고 중임을 맡기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백두산대장수님을 만나 우리들의 소청을 전해드리기 바라오.》

《그대에게 우군부대들의 운명이 달려있다는것을 언제나 명심하오.》

대장들은 저마다 대표로 떠나는 군사에게 한마디씩 하였다.

곧 우군부대의 대표가 장수의 도움을 요망하는 청탁을 안고 백두산을 향하여 떠나갔다.

군사는 조선의 명산, 산지조종 백두산을 향해 공골말을 냅다 몰아갔다.

떠난지 보름만에 백두산에 이른 군사는 어디에 대장수님이 계시는가 하여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러다가 백두산에서 제일 높이 솟은 대장봉(장군봉)마루에 한사람이 서있는것을 언뜻 띄여보았다.

다시 자세히 보려 하니 갑자기 안개가 자욱히 가리워 잘 보이지 않았다.

(아, 저이가 백두산대장수임이 틀림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한 군사는 대장봉을 향해 말을 몰아갔다.

그런데 바람이 어찌나 센지 말을 타고 도저히 그리로 오를 수가 없었다.

공골말은 연방 투레질을 하며 뒤걸음질을 쳤고 군사는 자꾸만 박차를 찼다.

군사는 바람에 밀리고 오르고 하면서 간신히 대장봉마루에 다달았다.

그는 말에서 뛰여내려 무릎을 꿇고앉아 찾아온 사연을 말씀드렸다.

《대장수님! 대장수님께 청을 드릴게 있어 찾아왔습니다. 간악한 왜놈들은 날이 갈수록 악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놈들에 대한 원한이 구천에 사무쳐 복수의 불길이 끓어넘치고있으나 저희들의 힘으로는 닭알로 바위를 치는격이여서 싸움마다 패전을 면치 못하옵니다. 대장수님께서 넓으신 도량으로 저희들을 가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군사가 머리를 드니 어찌된 일인가? 그앞에 서있는 사람은 열뒤살도 되나마나한 소년동자였던것이다.

동자는 놀란 눈을 흡뜨고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있는 군사를 보더니 한참이나 배를 쥐고 깔깔 웃어대였다.

군사는 어린 소년앞에서 무릎을 꿇고앉아 말한것이 쑥스럽기도 하고 멋적은데다가 동자가 웃어대니 밸이 울컥 치밀었다.

《너는 누군데 이 신성한 산에 올라 어른을 욕보이며 그렇게 한정없이 웃어대기만하느냐?》

군사가 꾸짖자 동자는 별같은 두눈을 반짝거리며 귀엽게 생긴 입을 열었다.

《나는 백두산대장수님의 제자온데 방금 저 멀리 북쪽에 사는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고저 떠난 우리 대장수님을 바래드린 길입니다.》

군사는 동자가 손을 들어 가리키는곳을 바라보았다.

엉? 이 어인 일인가?

그곳은 자기가 떠나온 바로 그고장이 아닌가!

《아니, 그럼 대장수님께서 우리 고장에 가셨단 말씀이시오?》

군사는 놀라면서 이렇게 되물었다.

《대장수님께서는 백두산에 오르시여 손금보듯 천하를 굽어보고계시기에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계십니다.

바로 오늘도 그곳 현성에서 우군부대들이 왜놈들에게 거듭 패전하는것을 보고 가슴아프시여 이렇게 길을 떠난것이옵니다.》

군사는 다시한번 깜짝 놀랐다.

(어쩌면 그렇게도 세상만사를 다 알고계실가?)

군사가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데 동자가 손에 든 쑥대로 허공을 쭉 가로 긋는것이였다.

그러자 기승을 부리던 바람은 어느새 잦고 천지엔 갑자기 풀잎 하나 까딱하지 않는 고요가 깃들었다.

군사는 도술을 쓰는 동자를 보고 (제자가 저렇듯 신비한 힘을 가지고있으니 하물며 대장수님이시야.) 하고 생각하였다.

군사는 동자앞에 다시한번 무릎을 꿇고앉아 머리를 숙이였다.

《내 원체 미련한데다가 눈이 멀어 미처 몰라보았으니 제자님께서 널리 량해하여주십시오.》

동자는 펄쩍 뛰며 군사를 일으켜세웠다.

《그러지 말고 어서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먼길을 급히 달려온걸 보니 그곳 형세가 매우 위급한것 같은데 그럼 저와 함께 그리로 가십시다.》

그러더니 동자는 그 자리에서 어느새 가뭇없이 사라지고말았다.

눈을 비비고 사방을 둘러보니 동자는 벌써 산봉우리들을 가볍게 짚으며 저 멀리로 바람처럼 달려가는것이였다.

군사는 공골말을 타고 동자를 따라 바삐 달려갔다.

그런데 웬일인지 갈 때는 보름이나 걸렸는데 올 때는 눈깜빡할사이에 와닿았다.

동자는 천리산발을 쉽게 주름잡아 세걸음에 전장의 성곽밑까지 날아왔던것이다.

《과시 대장수님의 제자임에 틀림없구나. 제자가 이럴진대 대장수가 닷새천기를 내다보고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축지법을 쓴다는 소문이 사실이였구나.》

군사는 놀라마지 않았다.

동자는 군사에게 한곳을 가리키며 《저기 대장수님이 계십니다.》하고 말했다.

《예, 대장수님께서요?》

동자가 가리키는곳을 바라보니 과연 대장수님께서 높은 바위봉우리에 올라서서 성시를 내려다보고계셨다.

대장수님의 눈에서는 불이 펄펄 일고있었다.

군사는 대장수님에게로 달려가려고 말고삐를 힘있게 잡았다.

동자는 그러는 군사를 말리며 《여기서 나와 함께 구경이나 하십시다.》 하고 말했다.

군사는 호기심에 끌리여 그이의 거동만 살폈다.

적진을 노려보던 대장수님께서는 한손을 높이 들어올리시였다.

그 손길이 허공에서 반원을 그으며 천천히 내려지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바람이 일더니 재빛구름이 떠돌았다.

그런가싶더니 짙은 구름틈사이로부터 하얀 실날같은것이 급히 이쪽으로 움직이는것이였다.

그것도 잠간사이이고 다시 재빛구름에 가리워 알릴듯말듯하더니 점차 그것이 크게 보였다.

군사는 하도 신기하여 감탄하며 다시 하늘을 쳐다보았다.

자세히 보니 날개돋친 흰말 한필이 재빛구름을 밀어제끼며 훨훨 날아오고있지 않는가!

《야, 룡마다! 하늘에서 룡마가 내린다!》

군사는 너무도 놀라운 현실앞에서 어찌할바를 몰라하는데 어느새 흰말은 대장수님앞에 이르러 쌍날개를 접고 유순하게 몇번 울음소리를 내더니 그 자리에 허리를 낮추고 섰다.

대장수는 날랜 동작으로 말잔등에 올라탔다.

대장수는 곧바로 룡마를 적진으로 내몰았다.

나래펴고 달리는 말뒤로 바람이 일고 구름이 날렸다.

그 순간에 굉장한 일이 벌어졌다.

흰말이 성벽에 이르기도전에 돌문같이 닫겨있던 철문짝들이 와지끈 퉁탕 하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자갈처럼 부서져 날아났다. 일시에 성곽이 허물어져나가고 왜놈들이 벌떼처럼 쏟아져나왔다.

대장수님께서 쏜살같이 날아들어가시면서 장검을 몇번 휘둘러대니 왜놈들은 용도 못쓰고 그 자리에 풀썩풀썩 꺼꾸러지며 피를 토하는데 삽시간에 검은 피가 도랑을 이루었다.

현성의 왜놈들이 모조리 죽어자빠지고 마지막으로 우두머리놈의 목이 떨어졌다.

군사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려고 동자에게 말하고 우군부대가 있는곳으로 달려갔다.

우군부대의 대장들과 병사들은 이 소식을 듣고 모두 현성으로 달려와 환성을 올리며 쾌전쾌승을 축복하였다.

대장들은 대장수님을 경건히 우러르며 그이앞에 달려가 무릎을 꿇고앉았다.

왕사령이 그들을 대표하여 말하였다 .

《대장수님! 저희들도 룡마에 보검을 잡은 천하명장의 슬하에서 싸우도록 허락해주십시오.

목숨이 다할 때까지 미력한 힘이나마 다 바치겠습니다.》

우군병사들과 대장들은 모두 대장수님의 뒤를 따라갔다.

그들은 대장수님의 휘하에 굳게 뭉쳐 싸울 결의에 충만되여있었다.

그 대장수님은 바로 백두산의 명장 — **김일성**장군님이시였다.

느티나무에 박힌 화살

룡악산은 평양의 서쪽 교외에 솟아있는 해발 292메터의 그리 높지 않은 산이다. 그 생김새가 마치 룡이 입을 벌리고 날아오르는것 같다고 하여 《룡악산》이라고 부르는 이 산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덕학교시절에 자주 오르시군하던 유서깊은 사적지이다. 뿐아니라 룡악산은 깨끗한 숲과 골짜기로 흘러내리는 수정처럼 맑은물 그리고 갖가지 고운 새들이 깃들어 우짖는 경치좋은 명산으로서 사람들이 즐겨찾는 유원지이다.

이 산의 남쪽기슭에는 17세기 리조시기의 사립학교였던 룡곡서원이 원상대로 잘 보존되여있고 거기서부터 얼마쯤 올라가면 산중턱에 법운암이라는 크지 않은 절간이 있다.

법운암은 본전과 라한전, 칠성각, 산신각 등 여러채의 건물로 조화롭게 이루어져 룡악산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돋구어주고있다.

이 절간은 고구려시기인 393년 평양에 9개의 절간을 세울때 모란봉의 영명사와 함께 세웠다고 한다.

경치좋은 여기 룡악산근방에는 크고작은 절간들이 여러개 있었는데 백범 김구가 1900년부터 3년동안 주지로 있으면서 두루섬과 만경대를 다니군하던 령천암도 여기서 멀지 않은곳

에 있다.

법운암 오른쪽 옆에는 하루에 네바께쯔밖에 솟아나지 않는다는 신기한 약효를 가진 샘물이 있고 가까운 주변에는 천연기념물 국가지정으로 되여있는 참중나무와 회화나무 그리고 느티나무가 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천연기념물 국가지정 제19호로 등록되여있는 룡악산느티나무에 깃든 전설이다.

휘영청 밝은 달빛이 고요한 숲속을 비치고있었다.

풀벌레들의 울음소리도 뜸해지고 밤새들의 울음소리가 이따금 본전에서 흘러나오는 주지의 념불소리에 장단을 맞추듯 가락맞게 울리였다.

암자의 상좌는 불탑이 있는 뜨락과 라한전, 칠성각, 산신각들을 돌아보며 빗장도 지르고 거둠새도 하면서 주변을 두루 살피였다.

조심스런 상좌의 발자국소리는 오히려 골짜기의 정적을 더해주는듯싶었다.

이윽하여 주지의 념불도 끝나고 상좌도 자려고 잠자리에 들었다.

골짜기엔 더한층 고요가 깊어졌다.

이때였다. 풀잎에 이슬 듣는 소리도 들릴상싶은 정적을 깨뜨리며 저 멀리 골짜기아래에서 쿵쿵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다.

잠자리에서 반쯤 몸을 일으킨 상좌는 그 소리에 귀를 강구었다.

분명히 사람의 발자국소리였다.

누굴가? 누가 이 깊은 밤중에 왜 이리로 올가? 상좌는 주

섬주섬 옷을 입고 주지가 깨여날가보아 조심스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발자국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웬 사람이 벌써 본전앞의 돌계단을 오르고있었다. 달빛에 비친 그 사람의 모습을 얼핏 보니 어느 절의 스님인것 같았다. 가벼운 미풍에 가사자락을 날리며 급하게 달려올라오던 그 스님은 잠시 서서 어디로 갈가 하고 주춤거리더니 인기척을 느꼈는지 상좌가 서있는곳으로 다가왔다. 상좌는 그를 마주 걸어나가 제먼저 인사를 했다.

《스님은 어느 절에 계시는데 이렇게 어려운 밤걸음을 하셨습니까?》

그는 린근에 있는 암자에 새로 온 주지라고 자기를 소개하고는 《주지님께서 계시옵니까?》하고 물었다.

방금 자리에 들었다고 하니 안타까와하는 그의 표정이 달빛에도 력연히 알렸다.

상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머뭇거리고있는데 웅글은 법운암 주지의 목소리가 울렸다.

《뉘신데 이 밤중에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자리에 들었으나 잠이 오지 않아 이리저리 뒤척거리던 주지는 아까부터 그들이 조심스레 주고받는 말을 죄다 듣고있었던것이다.

《주지님!》

스님은 합장을 하면서 절을 한 다음 찾아온 사연을 말하였다.

《… 오래동안 불도를 닦으신 령험하신 주지님께 긴하게 물어볼 말이 있어 찾아왔으니 무례한 저의 짓을 료량해주십시오. 주지님께서도 보셨겠지만 매일밤 저 북쪽하늘에 갑자기 붉은 화광이 비꼈다가 한참만에 사라지군하는데 그러기를

벌써 사흘째나 되지 않습니까?

예로부터 천기조화는 범상한것이 아니여서 속세에 길흉화복을 미리 알려주는것이라 하였으니 그게 무슨 조짐인지 알고싶어 이렇게 밤길을 걸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딱한 일이였다. 법운암은 남쪽에 자리잡은 절이라 북쪽 하늘에 비낀 그 불빛을 보지 못했은즉 주지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법운암 주지는 례를 갖춰 찾아온 스님에게 륭숭한 대접을 하였다.

이튿날 아침 찾아왔던 스님은 돌아갔으나 그의 발걸음은 가볍지 못했다.

법운암 주지에게서는 신통한 해명을 들으리라고 했는데 신기한 불빛을 보지도 못했다니 그럴수밖에 없었다.

스님이 돌아간 후 깊은 생각에 잠겼던 법운암 주지는 아무래도 그 신기한 천기조화를 보아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였다.

다음날 그는 저녁을 기다렸다가 날이 어둡자마자 룡악산정수리 대봉으로 올라갔다.

얼마를 기다려 밤이 이슥해지자 정말로 북쪽에 불이 붙는듯한 시뻘건 불빛이 하늘로 뻗치였다.

한참만에 사라진 불빛은 참말로 신기하였다. 여직 저런 신기한 불빛을 한번도 본적이 없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주지는 상좌의 부축을 받으며 가파로운 길을 톺아 대봉으로 오르군하였다.

그러나 그 빛이 어떤 조짐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었다.

그러기를 이레째 되는 날이였다. 그날 주지는 념불을 외우

느라고 부처앞에 마주앉았고 상좌만을 대봉으로 올려보내였다.

상좌는 북쪽 하늘의 불빛을 보고 가파로운 바위길을 조심스레 내려오고있었다.

절간뒤 샘물터를 지나 라한전을 거쳐 본전으로 오는데 갑자기 휘!—하는 바람소리가 머리우에서 들렸다.

밤사냥을 하는 어느 맹금의 날개짓소리려니 하고 생각하는데 텅하고 본전의 느티나무에 무엇인가 날아와 박히는 소리가 들렸다.

상좌는 얼결에 느티나무밑으로 달려가 우를 쳐다보았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인가? 느티나무에는 난데없는 화살이 날아와박혔는데 그것은 보통화살이 아니였다.

달빛에 빛나 번쩍번쩍 금빛을 뿌리는데 화살의 꼬리엔 무엇인가 깃같은것이 달려 바람에 나붓기고있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상좌는 주지가 념불을 하고있다는 생각도 잊고 본전으로 달려들어갔다.

《네가 무슨 일이냐? 불도를 닦는 상좌로서 념불을 하는데 무슨 무례한짓이냐?》

주지는 황황히 달려들어온 상좌를 엄하게 꾸짖었다.

상좌는 무릎을 꿇고앉아 주지에게 루루이 사죄하고 느티나무에 박힌 화살에 대해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것부터 진작 말할것이지.》

노여움이 풀린 주지는 호기심에 끌려 불경을 덮고 느티나무로 달려갔다.

과연 상좌의 말대로 신기한 화살인지라 주지는 거기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어디서 날아온 화살일가? 누가 쏜 화살일가? 저 꼬리에 깃

처럼 나붓기는것은 무엇일가?

이런 의문이 연방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저녁마다 북쪽 하늘에 붉은 불빛이 비치고 영문모를 신기한 화살이 날아온것을 보면 틀림없이 무슨 연고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뜬눈으로 밤을 새우다싶이한 주지는 날이 밝자마자 느티나무밑에 사다리를 가져다놓게 하고 그리로 올라가 화살을 자세히 보았다.

그 화살은 정말로 금화살이였고 꼬리에 달린 것은 종이를 접어 달아맨 쪽지편지였다.

주지는 그 편지를 조심스레 펴보았다.

거기에는 닭이 홰를 치며 꼬끼요하고 우는 그림과 산에 해가 떠오르는데 세가닥의 해살이 퍼지는 그림이 그려있고 맨밑에는 《백두산대장수로부터》라는 글이 씌여있었다.

《뭐? 백두산대장수! 그럼 **김일성**장군님이 쏘신 화살이란 말인가?》

편지를 쥔 주지는 돌처럼 굳어지고말았다.

한참만에야 정신이 들어 상좌의 부축을 받으며 땅에 내려온 주지는 편지에 그린 그림이 무엇을 뜻하는것일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림내용을 해석할수가 없었다 .

닭이 홰를 치자 해가 솟아오르는 이 평범한 그림을 백두산대장수가 왜 화살에 달아 여기 룡악산에 날려보냈을가?

이 의문은 도저히 풀수가 없었다.

주지는 상좌를 시켜 린근의 절간들에 보내여 이 소식을 전하고 주지들을 법운암으로 오도록 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주지들은 그날로 모두 법운암으로 모여들었다.

전에 왔던 그 스님도 찾아왔다. 그들은 모두 느티나무에 박힌 화살을 보고 신기해하였다.

천출명인으로 세상에 소문이 자자한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말을 항간에서 귀에 젖도록 들어온 그들은 금빛을 뿌리는 화살을 멍하니 서서 열없이 쳐다보았다. 볼수록 신기하고 놀랍기만하였다.

어떻게 백두산에서 쏜 화살이 여기까지 날아왔을가?

우두커니 서있는 주지들에게 법운암의 주지가 그림이 그려있는 백두산대장수의 편지를 보이며 그 뜻을 풀어보라고 하였다.

주지들은 모두 신기하게 편지를 들여다볼뿐 아무도 그 뜻을 해석하지 못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되였으나 도저히 그 뜻을 알아맞추지 못했다.

법운암의 주지는 멀리에 있는 모란봉의 영명사와 대성산의 광법사에까지 사람을 보내여 주지들을 초청했다.

법운암의 소식을 듣자 주지들이 그달음으로 달려왔다 .

그러나 영명사와 광법사의 주지들도 신통한 해석을 하지 못하였다.

스님들은 모두 실망하였다. 불도를 오래동안 닦아 신묘한 도술을 지니고있다는 광법사의 주지까지도 이렇다할 말을 못하니 인젠 어디에 더 물어볼데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토록 유명했다는 금강산과 묘향산의 서산대사나 사명

대사가 살아있었으면 어떻게 해석했을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여러곳에서 모여온 스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리며 전전긍긍하고있을 때였다.

갑자기 룡악산중턱에 안개가 뽀얗게 서렸다가 걷히였는데 난데없이 불탑옆에 웬 로승이 장삼자락을 날리며 서있었다.

그는 람루한 의발(중들이 입는 가사와 그들이 쓰는 밥그릇)이였건만 천하를 압도하는 위엄이 있었다. 당당한 몸매에 수려한 이목이다.

로승은 이윽히 헤아리던 념주를 고쳐쥐면서 자기를 쳐다보는 스님들에게 말을 걸었다.

《그대들은 무슨 일로 그리도 속을 태우시오?》

법운암의 주지가 로승앞에 다가가 합장을 하면서 절을 한 다음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백두산대장수님이 보낸 편지를 펼쳐보이였다.

로승은 두손으로 편지를 정중히 받쳐들고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머리를 끄덕이고나서 입을 열었다.

《이 나라에 참으로 길할 일이 생기고 복이 내릴것입니다.》

스님들은 로승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닭이 홰를 치고 동산에 해가 솟는것은 장차 이 나라에 광명이 온다는 뜻인데 그 광명이 올 시기인즉 12지에서 유가 닭을 의미하니 아마 계유, 을유, 정유, 기유, 신유 등 다섯해가운데서 어느 해일것이요.

그런데 해살이 세개 그려졌은즉 3년후를 의미할터인데 그러면 바로 을유년에 나라가 독립된다는 뜻으로 되오.

참으로 깊은 뜻이 담긴 편지이니 잘 간수하고 이 소식을 어서 만백성에게 전해야겠소.》

로승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부드러웠으나 매우 저력있게 울렸다.

《어허, 참으로 신통한지고—》

스님들은 로승의 너무도 신통한 해석에 감심하여 무릎을 쳤다.

법운암 주지는 마음속으로 자기의 렬세를 느끼면서 로승의 밝고 투명한 해석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대사님, 대사님을 진작 알아뵙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과연 대사님은 만천하의 스승이옵니다. 부끄러운 몸이오나 저희들을 대사님의 제자로 삼아주시옵소서. 대사님의 그 령험스런 법도에 이르도록 부디 가르치심을 주시옵소서.》

법운암 주지만이 아니라 모든 스님들이 땅에 무릎을 꿇고 엎디여 로승에게 절을 하였다.

그런데 이 어인 일인가. 머리를 들어 올려다보니 로승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린것이다. 두리번두리번 아무리 찾았으나 로승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대사님! 대사님!》

여기저기에 대고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로승이 사라지자 스님들은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 의견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중에서 많은 스님들이 그 로승을 백두산에서 대장수님이 편지의 뜻을 해석하지 못하는 자기들에게 보낸 부하일것이라고 말하였다.

법운암주지는 여러 스님들에게 《며칠전부터 북쪽하늘에

저녁마다 붉은 화광이 비끼는것이 다 이 편지의 뜻과 깊은 연고가 있는것 갈습니다. 백두산대장수님이 다른곳에도 아니고 여기 룡악산에 자리잡은 우리 절간에 이런 귀한 편지를 보내주신것은 무상의 영광이요, 천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장수님께서는 어린 시절 이곳에서 심신을 키우셨은즉 고향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저 애심이 스며있는 이 편지를 보내신거요. 이 나라의 물과 공기를 마시고 사는 우리로서는 그이의 뜻을 받들어 이 기쁜 소식을 천하에 전하는것이 마땅한 도리일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옳은 말씀입니다.》

스님들은 모두 그의 말에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리하여 이 소문은 만경대는 물론 린근인 대평, 금천, 강선, 증산에까지 퍼져갔다.

그후부터 크지 않은 절간인 법운암은 더 유명해져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다.

지금도 법운암본전 앞뜨락 좌측에는 그 느티나무가 있는데 화살이 박혔던 자리를 력력히 찾아볼수 있다고 한다.

렬차칸에서 만난 장군

서울역을 떠나 부산으로 달리는 렬차의 1등칸에는 조선총독부 일본고급관리 스미야 미노루가 앉아있었다.

중절모에 은테안경을 끼고 앞가슴에 시계줄을 늘인 스미야는 살집이 좋은 얼굴에 갓 면도질을 하여 푸릿해진 수염터때문에 펴그나 위엄이 있어보였다 .

맞은켠걸상에는 준수한 얼굴에 깨끗한 양복을 차려입은 젊은 조선사람이 태연한 자세로 앉아있었다.

려행길에서는 흔히 쉽게 통성이 되고 서로 정이 빨리 통하기 마련인데도 그들사이에는 벌써 여러개의 역을 지나도록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스미야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부아가 났다.

조선사람이 감히 총독부의 고급관리를 본체도 하지 않으니 그가 도대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 젊은 사람에게서는 함부로 범접할수 없는 위엄이 풍기여 먼저 말을 걸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스미야는 애써 태연한체하며 두어번 기침을 하다가 드디여 입을 열었다.

《어디 가는 누군지 우리 서로 통성이나 하고 즐거운 려행을 합시다.》

스미야는 애써 얼굴에 웃음을 지으면서 품속에서 명함장을

꺼내여 그에게 주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사를 받으며 사례를 했다.

《처음 와보는 고장이다나니 아름다운 산천경개에 정신이 팔려 그만 례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널리 량해해주십시오.》

그 사람은 명함장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명함장에는 조선총독부 고급관리 스미야 미노루라는 이름과 집주소가 씌여있었다.

그 사람은 명함장을 받아보고나서 자기도 품속에서 천천히 명함장을 꺼내 그에게 주었다.

그 사람의 태연하고 자연스러운 몸가짐에 스미야는 어쩐지 자꾸만 위압되고 주눅이 드는감을 느꼈다.

스미야는 그 사람의 명함장을 받아들었다.

그런데 명함장을 받아든 그는 웬일인지 얼어붙은듯 꼼짝않고있었다. 지어는 눈알마저 꽛꽛해져 움직이지 않았다.

《왜 그러십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물어서야 스미야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명함장을 들여다보았다.

분명 거기에는 항일유격대 대장 **김일성**, 집주소는 백두산이라고 씌여있었던것이다.

다음순간 스미야는 명함장을 건사할 생각도 못하고 와들와들 떨기 시작하였다.

《왜 자꾸 그럽니까? 얘기나 좀 나눕시다. 당신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스미야는 그래도 자꾸 떨기만하면서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재차 물어서야 겨우 《부… 부… 부산에 갑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그에게 담배도 내놓고 과실과 음료도 권하시였다.

장군님께서 하도 친절하게 대해주고 허물없이 말씀하시자 스미야는 약간 긴장이 풀려 담배도 겨우 받아서 입에다 물었고 음료도 약간 마셔 목을 추기였다.

장군님께서는 스미야에게 조선의 주인은 조선사람이니 일본사람들은 어서 제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고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음성은 비록 낮았지만 스미야에겐 우뢰소리처럼 들리였다.

장군님께서는 계속하여 일본이 조선을 강점한것은 강도가 백주에 남의 집에 뛰여들어와 주인을 내쫓고 제가 주인이라고 하는 행위와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스미야는 연신 머리를 갑삭거리며 잘못했노라고 빌었다.

그러느라니 렬차는 어느덧 대구를 가까이하고있었다.

《스미야선생, 이제 나는 다음역에서 내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을 깊이 생각해보고 량심에 꺼리지 않게 사시오.》

장군님께서는 스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천천히 두루마기를 벗겨 입으시더니 가방을 드시였다.

기차가 멎자 승강대로 나가 홈으로 내려서신 장군님께서는 다시한번 스미야에게 손을 드시여 잘 가라는 인사를 하고는 표찍는곳으로 걸어나가시였다.

대구역에서 렬차는 오래동안 서있었다.

스미야의 머리는 매우 착잡하였다.

어떻게 할것인가. 경찰에 알릴것인가? 잘못하다간 내가 봉변을 당할수 있다. 그렇다고 가만 있을수도 없지 않는가?

스미야의 가슴에선 일본놈의 피가 끓고있었다.

스미야는 장군님이 역밖으로 나가 보이지 않자 경찰을 불렀다.

경찰은 스미야의 증명서를 보더니 나무막대기처럼 꿋꿋해졌다.

스미야는 웬일인지 말이 잘 나가지 않았다.

《김…김…》

스미야는 한참동안 갑자르더니 드디여 겨우 《**김일성**장군이 나타났다! 빨리 체포하라.》 하고 소리쳤다.

경찰은 웬일인가 하여 스미야를 흘끔 쳐다보았다.

은테안경은 벗겨져 한쪽귀에만 걸리고 눈은 동자가 한쪽으로 돌아갔는데 제정신있는 사람같지 않았다.

《**김일성**장군이 나타났다! **김일성**장군이 나타났다! 빨리 체포하라!》

그러나 경찰들은 스미야의 말을 믿지 않았다.

렬차칸의 손님들과 역에 있던 사람들도 그를 미친 사람이 아닌가 하는 눈길로 곱지 않게 흘겨보았다.

얼마만에야 제정신으로 돌아온 스미야는 렬차에서 내려 역장과 대구경찰서장을 불렀다.

그리고 자기의 명함장과 **김일성**장군님한테서 받은 명함장을 꺼내보이며 빨리 총출동하여 체포하라고 을러멨다.

대구는 벌통 쑤셔놓은것처럼 소란하였다.

연사흘을 법석 끓었으나 놈들은 **김일성**장군님의 그림자도 보지 못하였다.

닷새만에 어느 파출소에서 **김일성**장군님을 《체포》하였다고 떠들어댔다.

스미야가 급히 나가보니 렬차칸에서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이 분명하였다. 모자며 입은 양복이나 얼굴모습이 같았던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 사람은 **김일성**장군님이 아니였다.

스미야는 렬차칸에서 얼이 나가 **김일성**장군님을 자세히 보지도 못했던것이다.

왜놈들은 《**김일성**장군을 <체포>하였다》고 신문에까지 크게 내고 떠들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을가 스미야에게는 편지 한장이 날아왔다. 수신인의 주소와 이름은 똑똑히 적혀있었는데 발신인의 주소와 이름은 없었다.

스미야는 어디서 오는 편지인지 알수가 없어 급히 뜯어보았다.

그랬더니 그 편지는 백두산에서 **김일성**장군이 보낸 편지였다.

《엉?》

스미야는 덴겁을 하였다.

한동안 편지를 든채 벌벌 떨던놈은 한참만에야 조심조심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편지에서 **김일성**장군은 스미야를 준렬히 꾸짖으시였다.

려행길에서 만난 손님이여서 왜놈이지만 그래도 사람으로 대해주었는데 짐승보다도 못하게 배반한 스미야를 격분하여 준절히 꾸짖으시면서 앞으로 그 값을 꼭 치르게 될것이라고 쓰시고 잡아들인 그 사람을 빨리 놓아주라고 하시였다.

스미야는 그 길로 경무국장에게 찾아가 잡아들인 **김일성**장군이 가짜라고, 내보내라고 죽어가는 소리로 말하였다.

그후부터 스미야는 어느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살았다.

우뢰만 울어도 혹시 **김일성**장군이 조화를 부려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지 않을가 겁이 나서 목을 움츠리였고 어디에서 편지 한장 와도 선뜻 마음놓고 뜯어보지 못하였다.

기를 펴지 못하고 살던 스미야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종내 염라국에 가고말았다고 한다.

신기한 옷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장군님의 친솔부대에 만석이라는 대원이 있었다.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석이를 부르시더니 백두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성시에 내려가 적정을 정찰해올 임무를 주시였다.

(조선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왜놈들이 또 혼쭐이 나게 됐구나.)

만석은 이렇게 생각하며 장군님께서 주신 임무를 어김없이 수행하리라 마음을 든든히 다졌다.

임무를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석이앞에 무명바지저고리를 한벌 내놓으시며 입고 갔다오라고 이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무명바지저고리를 거뜬하게 차려입은 만석은 지체없이 길을 떠났다.

성시를 향해 발걸음을 다그치는 만석의 머리에는 문득 언젠가 중대장한테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다.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대장을 부르시더니 강건너 어느 마을에 나가 식량을 조달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중대장이 떠나기에 앞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복 한벌을 내주시며 입고 갔다오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옷을 갈아입은 중대장은 곧 길을 떠났다.

목적지에 이른 그는 그곳에서 식량조달임무를 훌륭히 끝내

고 부대로 돌아오고있었다.

그가 강을 건느려고 나루터에 이르렀을 때였다.

나루터에 있던 왜놈경찰들이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 다짜고짜로 총부리를 내대는것이였다.

너무도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 미처 손쓸새가 없었다.

중대장은 무작정 강기슭에 펼쳐진 갈숲으로 몸을 피하려고 달려갔다.

그때 총부리를 쳐들고있던 왜놈경찰이 방아쇠를 당겼다.

땅!

요란한 총성이 울렸다.

총구에서 튀여나온 총알이 중대장의 몸에 맞았다.

그런데 총알은 마치도 바위에 부딪친듯 튀여나는것이였다.

잠시 어안이 벙벙해있던 왜놈들은 저마다 방아쇠를 당겼다.

땅, 땅, 땅!

총알은 여전히 군복을 뚫지 못하고 튀여나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옷이 보통옷이 아님을 제꺽 알아차린 중대장은 마음을 푹 놓고 품속에서 싸창을 꺼내여 왜놈들을 몽땅 요정내였다. …

중대장한테서 들은 그 이야기를 생각하며 자기가 입고있는 무명바지저고리를 내려다보는 만석은 마음이 든든하였다.

만석은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어느새 성시가 빤히 내려다보이는 산마루에 이른 만석은 잠시 땀을 들이며 형편을 살펴보았다.

두길이 넘게 성을 쌓고 그우에는 가시철조망과 전기선을 늘여놓았는데 보기만해도 삼엄하였다.

왜놈수비대병영과 우편국, 농사시험장, 산림경영소가 자리잡고

있는 성시로는 총창을 번쩍거리며 왜놈들이 들락날락하고있었다.

(어디로 해서 성시에 들어갈가?)

만석은 성시 여기저기를 두루 살펴보았다.

아무리 살펴봐야 성시로 들어가는 길은 육중한 성문밖에 없었다.

그런데 성문에는 누런 군복을 입은 왜놈들이 총창을 번쩍거리며 나드는 사람들을 깐깐히 단속하고있었다.

(어떻게 저 성문을 통과할가?)

만석은 이윽토록 성문을 내려다보며 궁리를 짜보았다.

그러나 별 신통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에라, 길고 짧은거야 대봐야 알게 아닌가. 만석은 뻐젓이 정문으로 통과해들어가리라 마음먹었다.

여차하면 왜놈들을 모조리 쏘아눕힐 생각으로 품에 간수한 싸창을 꺼내 살펴본 다음 산을 내려 성문쪽으로 다가갔다.

그때 왜놈보초병들은 성안에서 나오는 한 할머니를 단속하고있었다.

한손에는 지팽이를 들고 다른손에는 자그마한 보퉁이를 든 늙은 할머니가 토닥토닥 걸어나오고있었는데 성문을 지키고 있던 왜놈보초병이 총창을 휘두르며 고함을 질렀다.

왜놈보초병이 지르는 꽥소리에 할머니는 흠칫 놀랐다.

《이거나 뭔가말이다?》

왜놈보초병은 할머니의 손에 들려있는 보퉁이를 홱 나꾸채더니 땅에 내동댕이쳤다.

중얼중얼하는 할머니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저 집난이가 몸을 풀었다고 해서 수수쌀을 좀 …》

할머니는 들고있던 지팽이를 내려놓고 땅에 푹 주저앉아 화들화들 떨리는 손으로 보퉁이를 풀어놓았다.

보퉁이속에는 둬되나 될가말가한 불그스름한 걸수수가 나졌다.

《수수? 유격대에 보낼거지? 망할놈의 로친네, 이런거나 들고다니지 못하게 됐다는걸 모르는가?》

왜놈보초병은 발길로 보퉁이를 탁 차버렸다.

그바람에 보퉁이에 들었던 수수쌀이 길바닥에 쫙 뿌려졌다.

《아니, 이런?…》

할머니는 황황히 수수쌀을 떨리는 손으로 그러모았다.

《에, 에. 시끄럽다. 그냥 가라, 가란말이다.》

왜놈보초병은 길바닥에 흘어진 수수쌀을 발로 짓뭉개며 총탁으로 할머니를 떠밀었다.

《에익, 천하에 죽일놈들!》

만석은 저도모르게 품속에 찔러넣은 싸창에 손이 갔다.

그러나 다음순간 입술을 꽉 깨물었다.

만석은 마음을 다잡고나서 보초병들이 서있는 성문쪽으로 걸어갔다.

왜놈보초병과 거리가 가까와질수록 마음이 더욱 긴장해졌다.

(왜놈들이 물으면 …)

생각을 굴리며 왜놈보초병앞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왜놈보초병은 웬일인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것이였다.

만석이가 성문을 다 지날 때에도 보지 못하는것 같았다.

(거참 이상한데…)

만석은 한쪽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면서도 성문을 무사히 통과한 기쁨에 더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걸음을 다그쳤다.

성시에 들어선 만석은 왜놈수비대며 경찰서, 산림경영소등을 살살이 정찰해가지고 성문밖을 빠져나왔다.

성문밖을 빠져나올 때도 아무 일 없었다.

만석은 일이 너무 순조롭게 된것이 이상했다.

생각을 더듬던 그는 입고있는 무명바지저고리에 눈길이 미치자 무릎을 쳤다.

(옳지, 장군님께서 주신 이 옷이 신기한 조화를 부려 왜놈들이 날 알아보지 못한것이구나.)

만석은 한참동안 서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백두산쪽을 우러러보았다.

그러다 다시 걸음을 재촉하였다.

때는 선선한 가을이였으나 한참 달려서인지 온몸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좀 쉬였다 길을 다그치자.)

산중턱에 이른 만석은 어느 나무밑에 무명저고리를 벗어놓고 앉아 담배를 두툼하게 말아물었다.

담배를 절반쯤 태웠을 때였다.

갑자기 뒤에서 총소리가 나더니 《유격대다!》하는 고함소리가 들렸다.

만석은 고개를 홱 돌리고 소리나는쪽을 바라보았다.

누런 군복을 입은 왜놈 《토벌》대놈들이 무리지어 다가오고있었다. 유격대를 찾는다고 산판을 싸다니다 만석을 본 모양이였다.

만석은 순간적으로 품에서 싸창을 꺼내 왜놈 《토벌》대놈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땅!

왜놈 《토벌》대 한놈이 그 자리에 푹 꼬꾸라졌다.

만석은 곁에 놓은 무명저고리를 한손에 들기 바쁘게 산으로 올리뛰였다.

뛰다가는 진대나무에 몸을 숨긴채 한방 갈기고 총을 쏜 다음에는 다시 내달렸다.

왜놈《토벌》대놈들은 마구 총질을 해대며 쫓아왔다.

왜놈의 수는 점점 불어났다.

수백명의 왜놈들이 산을 포위하고 점점 좁혀들었다.

산마루로 번개처럼 내달리던 만석은 그만 발걸음을 뚝 멈추었다.

발밑에 수백길 낭떠러지가 있는것이 아닌가.

만석은 눈길을 들어 앞을 바라보았다. 왜놈《토벌》대가 총들을 꼬나들고 한걸음한걸음 조여들고있었다.

순간 만석은 그때까지 한손에 들고있던 무명저고리생각이 났다.

(아차, 내가 이 저고리를 벗은탓이구나.)

어망결에 만석은 자기가 웃옷을 벗었댔다는것을 잊었던것이였다.

그는 서둘러 무명저고리를 입었다. 그러자 총부리를 겨누고 다가오던 왜놈들이 하늘과 땅을 눈이 퀭해서 올려다보고 내려다보고 할뿐 바로 코앞에 서있는 만석이를 보지 못하는것이였다.

《방금까지 여기 있던 유격대가 하늘로 올랐는가, 땅으로 잦았는가.》

《**김일성**장군유격대가 틀림없다. 축지법을 쓴 모양이다.》

만석은 눈이 퀭해서 어디서 무슨 벼락이 떨어질지 몰라 벌벌 떠는 왜놈들사이로 유유히 빠져나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옷은 둔갑술을 쓰는 신기한 옷이였던것이다.

무사히 부대로 돌아온 만석은 위대한 장군님께 적정을 낱낱이 보고드렸다.

그날밤, 성시에 틀고앉아 갖은 악한짓을 다하던 왜놈들은 모조리 몰살당하고말았다.

백두산대장수와 수돌이

검정수개 성나서
긴 칼을 번쩍번쩍
죄없는 백성을
사정없이 족치더니
하루밤사이에
모가지가 뎅강
백두산장수가 잡아갔구나

이것은 민요도 아니고 창가도 아니다. 파도가 굽이치는 동해바다가 홍남지방에서 지금으로부터 70여년전에 불리워진 동요의 한 구절이다.

봉건통치배들의 죄악상을 폭로하고 저주한 리조시대의 참요들인 《묵책요》나 《충성은 사모냐》와 달리 이 동요는 왜놈순사들을 야유하고 풍자하고있다.

이 동요는 그 유래와 함께 오늘도 이 지방에 전해져내려오고있다.

화창한 봄날이였다. 옷자락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은 어디서나 그윽한 향기를 실어왔다.

백두산에서 제일 높은 병사봉(오늘의 장군봉)말기에서 너울너울 날아예는 백학을 바라보며 한 장수가 못박힌듯 서있었다.

그는 왜놈들이 말만 들어도 사시나무 떨듯하며 삼십륙계 줄행랑을 놓는 백두산대장수님이시였다.

한겨우내 백두산산발을 넘나들며 수하장수들을 키우신 백두산대장수님은 꽃내가 풍기는 삼천리금수강산을 굽어보시였다.

맑은 바람, 향긋한 꽃내—대장수님께서는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 한껏 사무쳐왔다.

대장수님께서는 가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과 백두산에서 사방으로 련련히 뻗어내린 산발들을 빙 둘러보시더니 북쪽 저 멀리 하늘과 땅이 맞붙은 어느 한곳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한떼의 구름이 우쑤리강쪽에서 백두산쪽을 향해 와와 밀려오고있었던것이다.

울울창창한 수림과 번쩍거리는 강과 넓은 들은 온통 운무에 휩싸였다. 말그대로 구름바다가 백두산쪽으로 밀려오고있었다.

대장수님께서는 꿈틀거리며 밀려오는 구름바다를 이윽토록 바라보고계셨다.

조금 있으면 백두산은 거침없이 밀려오는 구름바다에 삼키워버릴것만 같았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구름떼는 백두산의 거대한 웅자에 겁을 먹었던지 아니면 대장수님의 름름하고 억센 기상에 기가 눌렸는지 장군봉우로는 감히 오르지 못하고 대장수님의 발아래

로 기슭을 어루만지며 조심조심 흘러갔다.

눈뿌리 아득한 저 멀리까지 조국산천은 온통 구름이 뒤덮였다. 대장수님께서는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머리를 약간 숙일사하고 귀를 강구시였다.

왜놈들의 총칼밑에서 신음하는 겨레들의 한숨소리, 신음소리를 들으시는것인가. 대장수님의 눈에선 불찌가 날리고 두 손은 으스러지게 쥐여졌다.

《고현놈들!》

대장수님께서는 백두산마루에서 조선의 방방곡곡을 손금보듯 자세히 살피시였다. 그러다가 왜놈들이 공장을 세운다, 철길을 늘인다 하며 법석이는 동해바다가, 파도가 쉬임없이 기슭을 치는 홍남지구에서 눈길을 멈추시였다. 이윽하여 대장수님께서는 《내 홍남에 나가서 왜놈종자들을 좀 다스리고 오리다.》하고 말씀하시더니 홀연 가뭇없이 사라지셨다.

어느새 술법을 써서 백두산을 내리신것이다.

대장수님께서는 두만강연안의 소도시인 남양에서 하루밤을 류숙하시고 새벽녘에 다시 축지법을 써서 눈깜짝할사이에 홍남비료공장에까지 날아가시였다.

옷은 보통사람 나들이가는 차림을 하시고 어깨에 피나리보짐까지 가뜬하게 짊어져 대장수님께서는 얼핏 보면 조금도 남과 다른 점이 없었다. 좀 류다르다면 체구가 우람하고 첫눈에도 인품이 높아보이는것이랄가.

대장수님께서는 곧장 로무계사무실로 찾아가시였다.

로무계장은 낯선 젊은이를 훑어보더니 입이 헤벌쭉해졌다.

힘꼴이나 쓸 상일군이 제발로 찾아왔으니 이게 웬떡이냐 하는 기색이였다.

계장은 젊은이에게 그 자리에서 당장 나무로 깎아만든 패쪽을 하나 내주었다.

그날부터 대장수님께서는 흥남비료공장합숙에서 로동자들과 같이 기숙하시였는데 그의 높은 인품과 너그러운 성품에 끌려 모두 그를 친형처럼 대하였다. 그러나 그가 백두산대장수이리라고는 그 누구도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들중에는 수돌이라고 부르는 소년로동자도 있었다. 아버지는 선주놈의 강요에 못이겨 풍랑사나운 날 고기잡이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얼마전에 전염병으로 어머니까지 잃은 불쌍한 수돌이였다.

대장수님께서는 의지가지할데 없는 수돌이와 퍽 가까운 사이가 되여 그를 각별히 사랑해주시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그날 수돌이는 진종일 무거운 벽돌짐을 지고 높은 사다리우로 오르내리였다.

그는 온몸을 땀으로 미역을 감으며 백번도 넘게 사다리우로 오르내리느라니 지칠대로 지쳤다.

더는 제몸조차 지탱할수가 없었다. 수돌이는 저도모르게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고말았다. 눈앞이 가물거리고 하늘과 땅이 엇바뀌여 빙글빙글 돌아갔다.

이때 갑자기 눈앞에서 불이 번쩍 일더니 《이놈의 새끼!》하는 소리가 들렸다.

감독놈이 수돌이의 따귀를 친것이였다.

수돌이는 비칠거리면서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안깐힘을 썼다.

《그 애는 왜 때리오?》

어느새 대장수가 감독놈앞에 나타났다.

감독놈은 무슨 상판이냐는듯 장수를 한번 훌겨보았다. 그러던놈이 대장수의 기상에 겁이 났던지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려고 하였다.

대장수가 달아나려는 그놈의 손목을 슬쩍 잡았다놓았다.

그놈은 아파서 죽는다고 소리치며 뱅글뱅글 돌아갔다.

그러거나말거나 대장수는 또 감독놈의 귀를 잡아당기며 뭐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놈은 쩔쩔매며 허리를 갑삭거렸다.

《네 이놈, 다시한번 조선사람을 못살게 굴었다간 가만두지 않을테다.》

대장수는 감독놈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한번만, 한번만 용서해주십시오. 제발 잘못했습니다.》

그놈은 손을 싹싹 마주 비비였다.

그때부터 감독놈들은 로동자들에게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오히려 힐끔힐끔 그들의 눈치를 보군하였다.

수돌이는 대장수를 각근히 따랐다.

수돌이는 날이 갈수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대장수는 밤마다 어디론가 갔다가 새벽녘에야 돌아오군하였는데 그 다음날이면 어김없이 놀라운 일들이 생기군하였기때문이다.

흥남에 둥지를 틀고있던 일본수비대의 한 부대가 갑자기 전멸하는가 하면 어디에서는 왜놈주재소가 하늘로 날아났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그 소문과 함께 이것은 다 백두산대장수가 왜놈들에게 내리는 징벌이라는 말이 사람들속에 퍼졌다.

(아저씨가 혹시 백두산대장수가 아니실가?)

수돌이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곳 주재소의 털보순사는 무슨 기미를 챘는지 대장수를 의심하며 로동자들을 감시했다.

털보순사는 순사들중에서도 가장 악질이였는데 바로 수돌이 아버지가 죽은것도 실은 이놈의 작간이였던것이다.

이놈은 비료공장에서 얼마 멀지 않는 수돌이네가 살던 어촌마을에 자주 나타나군하였다.

대가 바른 수돌이 아버지는 원래 남에게 허리를 굽히는 성미가 아니였다.

언젠가 밉살스러운 털보순사가 또 무슨 냄새를 맡았는지 긴 칼을 번쩍거리며 어촌마을에 나타났다.

그놈은 다짜고짜로 칠순이 넘은 한 로인의 수염을 잡아쥐고 그에게 뭇매질을 가하였다.

내용인즉 동네늙은이 몇이 모여앉아 한담을 하였는데 그것이 법에 위반된다는것이였다.

세명이상 모여앉으면 일본에 대해 나쁜 말을 한다는것이였다.

마침 그옆을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수돌이 아버지는 참다못해 바위같은 주먹으로 그놈의 면상을 후려쳤다.

유도에 격검까지 한다고 소문이 난 이놈은 아근의 왜놈들중에서 제일 힘이 세고 날파람이 있다는놈이였다.

왜놈들도 이 털보순사와는 아예 맞서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놈은 마치 민충이 쑥대에 올라간것처럼 멋없이 우쭐해져서 코를 들고 돌아쳤다.

제가 무서워서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있었다.

그런데 천하게 여기던 조선어부한테 된매를 맞았으니 창피해서 어디에다 말하겠는가.

그놈은 수돌이 아버지와 한번 겨뤄보려 하였으나 황소같은 힘앞에 자기의 격검술과 유도재간이 아무런 맥도 못춘다는것을 알고있는지라 어쩌지 못하고있었다.

벙어리 랭가슴 앓듯하던 이놈은 선주에게 강요하여 풍랑사나운 날 기어이 수돌이 아버지를 바다에 내보내게 하였다.

후에야 이것을 알게 된 수돌이는 그 털보순사놈만 보면 눈에서 불이 일었다.

어느날 수돌이는 대장수에게 스스럼없이 이말저말 하다가 바로 이 털보순사놈의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대장수는 수돌이의 말을 귀담아듣고는 동정도 해주고 같이 왜놈을 미워하며 격분하기도 하였다.

대장수에겐 수돌이가 더없이 불쌍하고 측은하게 보였다.

그날밤이였다. 대장수는 수돌이 몰래 깨여나 또 어디론가 나갔다.

한밤중에 수돌이가 눈을 떠보니 아저씨가 보이지 않았다.

아저씨는 새벽녘에야 돌아왔다. 그 이튿날 소문이 나기를 백두산대장수님께서 부하장수를 시켜 검정수개(왜놈순사를 말함) 털보순사의 목을 베고 연기처럼 가뭇없이 사라졌다는것이였다.

(또 백두산대장수님께서 나타났구나.)

수돌이의 가슴에 한번도 보지 못한 그 백두산대장수님에 대한 고마움이 차올랐다.

긴 칼을 번쩍거리며 죄없는 백성들을 사정없이 족치던 원한많은 그 털보순사놈의 모가지가 하루밤사이에 뎅강 달아나

자 모두들 속이 시원해하고 통쾌해하였다.

그러면서도 대장수님을 직접 제눈으로 보지 못한것을 못내 서운해하였다.

수돌이는 아저씨에게 이렇게 물었다.

《아저씨, 아저씬 백두산대장수님을 아시나요?》

《뭐? 백두산대장수? 글쎄 말은 들었다만 한번도 보지 못했구나.》

아저씨는 전혀 모르쇠를 하였다.

그후에도 아저씨는 가끔 밤마다 없어지군하였는데 그다음날이면 어김없이 왜놈들이 무리로 녹아났다는 소문이 나군하였다.

수돌이는 아저씨가 백두산대장수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하였다.

왜놈들은 쩔쩔매며 돌아쳤다.

《백두산대장수가 나타났다!》

《백두산대장수가 나타났다!》

왜놈들은 저마다 수군거리며 기를 펴지 못하고 비실거렸다. 어떤놈들은 무서워서 방에 들어박혀 머리도 내밀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날 그 마음좋은 아저씨—대장수가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아저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수돌이는 몹시 섭섭했다.

다른 로동자들도 수돌이 못지 않게 궁금해하였고 서운해하였다.

수돌이는 마치 친형이나 부모를 잃은듯한 심정이였다.

(어디로 가셨을가? 혹시 신변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게 아닐가?)

사람들은 모두 걱정을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흥남비료공장 로동자들에게 편지가 왔다.

그 편지는 보통사람들이 주고받는 편지와 조금도 다름이 없이 서두에 문안을 한 다음 그동안 많이 도와주어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왜놈들과 잘 싸우면 반드시 조선독립이 이룩된다고 써있었다.

그러면서 떠나올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사를 하지 못했는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량해해달라는것으로 끝을 맺었다.

맨밑엔 백두산대장수라고 쓰고 활달한 필치로 수표까지 했다.

편지를 받아본 흥남비료공장 로동자들은 깜짝 놀랐다.

(아니 백두산대장수라구? 우리와 함께 자고 같이 일하던 그분이 백두산대장수님이라니?…)

로동자들은 웅성거렸다.

《우리가 청맹과니지, 청맹과닐세.》

《백두산대장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모르다니. 이런 실책이 어디 있겠나?》

이 순간 고마운 백두산대장수님께 따뜻한 물 한사발 제대로 대접해드리지 못한 죄송한 마음이 로동자들의 가슴마다에 가득 고여올랐다.

얼마전 흥남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신흥지구에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쓴 수백대의 구호나무들이 발견되였는데 그중 서곡리 돛대재에 있는 껍질벗긴 나무에서는 《백두산대장수 왜놈치러 왔다》고 쓴 구호가 현출되였다.

이 부전령산줄기에서 나온 수많은 구호나무들과 혁명유적, 유물들은 이 동요가 나온 유래에 신빙성을 더해주고있다.

《아리랑》노래를 부르면 비가 온다

언제 누가 먼저 낸 소문인지는 모르나 한때 서간도일대에서는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 비가 온다는 말이 돌았다.

어느해 봄에 가물이 몹시 든적이 있었다고 한다. 씨를 뿌린 밭에서는 싹이 트지 않았고 어쩌다 싹이 튼 곡식은 노랗게 다 말라죽어버렸다.

사람들은 모두 올해농사는 폐농이라고 한숨을 쉬며 하늘을 원망하고있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 허연 수염을 내리드리운 풍채좋은 한 로인이 나타났다.

그 로인은 밭머리에 앉아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고있는 마을사람들을 동정어린 눈길로 한참동안 바라보더니 느닷없이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서 천천히 마을을 지나 백두산쪽으로 걸어가는것이였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를 넘어간다
…

풍채좋은 로인이 저음으로 부르는 웅글은 노래소리는 가물이 든 밭과 잎이 시든 숲을 지나 태양이 작열하는 뜨거운 하늘가로 조용히 울려갔다.

바로 그날저녁 구름 한점 없던 하늘이 갑자기 시커매지더니 비가 흠뻑 쏟아졌다.

정말 말그대로 이 비는 약비였고 금비였다.

아니 생명수였다.

사람들은 모두 밖으로 달려나와 그 비를 흠뻑 다 맞았다.

그들은 로인이 지팽이를 짚고 노래를 부르면서 넘어간 동구밖 고개길을 바라보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해 씨붙임은 여느해보다 잘되였다.

그런데 실은 이 일이 있기 얼마전 **김일성**장군님께서 일제침략자들을 몰살시킨 한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아리랑》노래를 부르면 비가 온다는 소문이 났던것이다.

그때 전해진 이야기가 바로 소낙비에 대한 전설이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부대를 이끄시고 장백현의 어느 한 산마루에 오르신 그날은 구름 한점 없는 맑게 개인 날이였다.

천하명장 **김일성**장군님께서 오르시니 하늘은 더 푸르러보이고 산마루도 한층 더 높아보이고 숭엄해보였다. 태고의 밀림도 창검이 늘어선것처럼 장엄하게 안겨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변의 지형을 두루 살피시고나서 부대에 휴식명령을 내리시였다.

그러시고는 지휘관들을 부르시여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래일아침 해떠오를무렵에 1,000명의 왜놈들이 여기로 달려들거요. 그러니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대원들을 푹 휴식시키시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들은 첫순간 지휘관들은 어리둥절해졌다.

누가 적후정찰을 갔다온것도 아니고 왜놈밀정을 잡아다가 심문한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셨을가? 언제 어느 시각에 몇놈이 달려든다는것까지 미리 다 알고계시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였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것은 대원들에게 전투명령을 내리시지 않고 휴식명령을 주신것이였다.

아무리 휴식이 필요하다해도 싸움준비는 해놓고 봐야 하지 않을가?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장군님의 뜻을 헤아릴수 없어 못내 궁금하였다.

그러나 장군님의 말씀을 언제나 무조건 그대로 따르는 그들은 그이의 명령대로 푹 휴식을 하였다.

그 이튿날 아침 여전히 날씨는 청명하였다.

동녘하늘에 아름다운 감빛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방금 해가 떠오르려는 순간이였다.

바로 이때 산아래에서 절버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왜놈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에 왜놈들이 나타난것이였다.

그런데 그이께서는 이 일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태연하게 책만 보고계시였다.

대원들은 모두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김일성**장군님만 바라보았다. 그이께서는 여전히 책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였다.

왜놈들의 발자국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리고 말소리는 그 뜻을 헤아릴정도로 분명하게 들려왔다.

어떤 대원들은 저도모르게 총알을 재우고 방아쇠에 손을 가져갔다.

이때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드디여 보시던 책을 덮고 움쭉 일어서시더니 산아래를 굽어보시였다.

《허허, 이놈들이 많이도 기여올랐군.》

그이께서는 이렇게 혼자말씀처럼 하시였다.

그러시면서도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그에는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자 동무들, 노래나 부릅시다!》하고 대원들을 향해 말씀하시였다.

노래를 부르다니, 대원들은 영문을 몰라 모두 얼떠름해졌다.

한 대원이 조용히 《아리랑》을 불렀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를 넘어간다

그 대원이 선창을 떼자 아연해서 그이만 쳐다보던 대원들은 하나둘 《아리랑》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맑은 하늘에 구름 몇장이 모여들더니 갑자기 부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조용히 내리는 부슬비소리는 마치도 누에가 뽕잎 먹는 소리처럼 울려왔다.

대원들은 온몸에서 힘이 부쩍부쩍 솟구쳐 올라 노래를 계속 불렀다.

그 노래소리와 함께 이상하게도 비발은 점점 더 굵어지며 좌락좌락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아리랑》의 노래가락은 온 산골짜기에 울려퍼졌다.

노래소리가 커지면커질수록 비발은 점점 더 굵어져서 창살같은 소낙비로 변했다.

갑자기 쏟아지는 소낙비에 함뿍 젖은 왜놈들은 강물에 빠

진 풋병아리꼴이 되고말았다.

《**김일성**장군이 천지조화를 부린다더니 그게 정말이구나!》

잔뜩 겁에 질린 적들은 제놈들의 기침소리, 삭정이 부러지는 소리에도 와뜰와뜰 놀라군하였다.

산우에서 울려퍼지는 《아리랑》의 노래소리는 왜놈들의 총소리를 짓누르며 바다처럼 가없이 펼쳐진 백두밀림을 뒤흔들었다.

녀대원들이 멋들어지게 넘기는 가락에 남대원들의 굵직한 목소리가 받쳐지니 산악이 온통 《아리랑》 노래소리에 휩싸여버렸다.

나무도 바위도 아니 온 산천이 《아리랑》 노래를 부르는것 같았다.

왜놈들은 비에 젖고 기가 질려서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놓았다.

놈들은 하늘땅을 울리는 《아리랑》의 노래가 그 어떤 하늘의 계시같기도 하고 **김일성**장군이 도술을 써서 무서운 죽음을 안기는 신호같기도 하여 산으로 더 올라갈념을 못했다.

《아리랑》의 노래소리는 왜놈들의 사지를 얼구어놓았다.

소낙비는 폭우로 변했다. 마치도 바다를 거꾸로 엎어놓은듯 하였다. 게다가 태풍까지 일었다.

쏴! 쏴! 억수로 쏟아지는 폭우로 골짜기들에 물이 사품치며 흘러들었다.

그리하여 산골짜기들엔 어느새 《호수》가 생겨 놈들을 몽땅 삼켜버렸다. 거기에 태풍까지 들이닥쳐 호수에서는 세찬 파도가 일고 물갈기가 날렸다.

물에 빠진 왜놈들은 살아보겠다고 물을 꿀꺽꿀꺽 먹으면서 허우적거렸다. 그러나 일렁이는 파도에 묻혀 왜놈들은 물속에서 영영 다시 솟구치지 못했다. 왜놈들은 총 한방 쏘아보지 못하고 몽땅 물귀신이 되고말았다.

구름우의 지휘처

푸른 가지가 실실이 내리드리운 큰 버드나무밑에 사람들이 모여앉아있었다. 그들은 무슨 애기를 하는지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 자못 흥겨운 기색이였다.

대통을 문 한 로인이 입과 코로 연방 담배연기를 내불며 제법 고저장단을 맞추어 흥겹게 이야기를 하고있었다.

《**김일성**장군님은 하늘이 낸 천하용장이시오. 그러기에 쪽발이왜놈들이 대낮에 눈을 시퍼렇게 뜨고도 몇천놈씩 무리로 녹아나군하지.

축지법에 승천입지, 둔갑장신, 못부리시는 조화가 없으니 듣는 말마다 놀라울뿐이요. 얼마전에는 김장군님부대가 평양과 원산, 함흥을 동시에 들이쳤는데 왜놈들은 이리 몰려가고 저리 몰려가다가 그만 떼죽음만 당했지우다. 장군님은 구름우에 지휘처를 정하시고 거기서 땅을 내려다보시면서 지휘를 하셨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로인의 말은 점점 더 신비한 전설의 세계로 들어갔다.

가슴속에 밝은 희망과 크나큰 기쁨을 안겨주는 로인의 이야기를 듣는 화전민들은 만시름을 잊고 귀를 기울였다.

맑고 푸른 하늘아래 한떼의 흰 뭉게구름이 떠가고있었다.

마치 파도를 헤가르며 대양을 달리는 돛배마냥 가없는 하늘로 거침없이 날아가는 그 구름우에는 사람들이 타고있었다.

웬 사람들일가? 어떻게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을가?

놈들은 모두 의혹에 찬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구름은 어느 높은 산마루를 스칠듯말듯 날아지나더니 이윽고 큰 소나무가지에 걸렸다. 아니 일부러 그 나무가지에 걸어놓는듯 했다.

구름우에 타고있던 사람들이 모두 나무줄기를 타고 땅에 내렸다.

그들은 한결같이 체구가 장대하고 눈에선 광채를 뿜는데 발자국을 옮길 때마다 쿵쿵 땅이 울리였다.

모두 장수들이다. 장수들중에도 웃어른되는 장수가 있으니 바로 그들을 거느리고 내리신분이 백두산의 대장수 **김일성**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산봉우리에 오르시여 동서남북을 살피시였다.

꽃향기 풍겨오는 산봉우리들과 맑은 물 흐르는 강과 기름진 논밭이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달려와 품에 안기는듯싶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손을 들어 숲을 가리키시자 갑자기 초목들이 총을 멘 군사가 되여 그이앞에 즐비하게 정렬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구름을 함께 타고 온 부하들중에서 세 장수를 부르시더니 명령을 내리셨다.

《이제 곧 부대들을 이끌고 평양과 함흥 그리고 원산으로 출동하여 차후 나의 명령을 기다리라.》

그러자 세 장수는 구름을 타고갔는지 아니면 바람을 타고

갔는지 눈깜짝할사이에 부대들을 이끌고 사라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은 장수들을 거느리시고 다시 구름을 타시더니 창공높이 날아오르시였다.

구름은 산과 들을 훨훨 날아지나갔다.

아름다운 조국산천이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볼수록 더더욱 그리워지는 조국산천이고 그리울수록 나라를 빼앗은 쪽발이왜놈들을 쳐부실 마음이 더더욱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장군님이시였다.

드디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칼을 번쩍 쳐들고 평양에 내보낸 부대에 명령을 내리시였다.

《왜놈들의 병영을 들이치고 불살라버리라!》

찌렁찌렁 위대한 장군님의 목소리가 온 산천을 뒤흔들었다.

삽시에 삼단같은 불길이 평양의 왜놈병영들에서 치솟아올랐다.

왜놈들은 손쓸새없이 모두 불에 타죽었다.

항일유격대가 평양에 쳐들어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제우두머리놈들은 눈알이 뒤집히여 와글와글 끓으며 평양에 숱한 병력을 끌어들였다.

하늘의 지휘처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빙그레 웃음을 지으시며 이번에는 함흥에 내려간 부대에 명령을 내리시였다.

《왜놈들의 병영을 들이치고 불살라버리라!》

함흥에 둥지를 튼 왜놈들도 앉은자리에서 얻어맞고 너부러졌다.

일제우두머리놈들은 또 부랴부랴 함흥에 제놈들의 병력을 끌어가는 소동을 피웠다.

함흥시내는 왜놈들의 시체로 한벌 쭉 깔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때 또 원산에 나간 부대에 명령을 내리시였다.

《경찰판주재소들에 불을 지르라!》

일시에 원산의 주재소마다에서 검붉은 불길이 타래쳐올랐다.

일제우두머리놈들은 전화통을 쥐고 아우성을 치며 숱한 병졸들을 또 원산으로 내몰았다.

그러나 평양과 함흥, 원산에서 들어오는 소식은 제놈들이 련이어 녹아났다는 보고뿐이였다.

일제우두머리놈들은 정신이 아찔해지고 앞이 캄캄하였다.

이때 구름우의 지휘처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엄한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왔다.

《쪽발이 왜놈들아, 듣거라! 당장 조선땅에서 물러가지 않으면 한놈도 목숨이 붙어있지 못할줄 알아라!》

그러자 왜놈들은 우두머리이건 졸병이건 할것없이 모두 무릎을 땅에 대고 두손을 하늘높이 쳐든채 맞비비며 제발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뭉게구름은 위대한 장군님을 태우고 또 남쪽으로 날아갔다.

구름우의 지휘처가 옮겨지는곳마다에서 왜놈들이 무리로 녹아났다.

백두산대장수와 두 제자

산이 많은 우리 나라, 삼천리라는 터전이 거의 산악으로 이루어져 어느것이 산마루가 아닌것이 없고 어느것이 봉우리가 아닌것이 거의 없다.

이 우뚝 솟은 봉우리들과 깊이 패인 골짜기들은 아무리 흩어진 실과 같고 엉켜진 삼거웃과 같더라도 반드시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다.

이 모든 산의 근본뿌리이며 조종인 백두산에서 도를 닦으신 **김일성**장군님의 도술이 못부리는 조화가 없으니 그 소문이 삼천리에 자자하게 퍼졌다.

신비한 묘기와 천기조화를 한손에 거머쥐신 김장군님을 찾아 이 나라의 뜻있는 젊은이들이 매일같이 백두산으로 밀려드니 그 수가 천인지 만인지 이루 헤아릴수가 없었다.

어느해 어느날 뜻을 품은 두 청년이 백두산으로 찾아와 김장군님앞에 무릎을 꿇고앉아 자기들의 소원을 말씀드렸다.

《장군님! 저희들은 장군님의 능한 도술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것을 배우고저 찾아왔습니다.

부디 제자로 삼으시여 그 령험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사람구실을 하도록 해주옵소서.》

장군님께서는 그들의 소청을 받아들여 곧 제자로 삼으시였다.

그날부터 그들은 장군님에게서 직접 도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도술에 무술을 겸비하여 축지법, 승천입지, 변신술, 둔갑술, 장신술, 분신술은 물론이거니와 미리 천기를 내다보는 방법과 천문지리에 정통하여 모든것을 마음대로 거침없이 하는 방법도 배워나갔다.

두 젊은 제자가 도를 닦기 시작하여 석달열흘이 되는 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두 젊은이를 불러앉히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그대들이 도를 닦기 시작한지도 어언 백날이 되였거늘 그사이 술법을 얼마나 익혔는지 궁금한 마음 없지 않노라. 오늘 북만의 왜놈헌병대본부를 습격하여 그대들의 술법을 남김없이 보이라.》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두 젊은이에게 구체적인 분부를 내리셨다.

《헌병대본부는 넓은 수로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였으나 그대들의 재주로 그것을 넘기는 그리 힘들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넓은 수로는 반드시 그 물을 밟고 건너야 하며 높은 담장은 반드시 타고넘어야 한다. 뛰여건느거나 날아넘으면 안된다는것을 명심하라.》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 분부를 이상히 여겼다. 허나 위대한 장군님의 어명을 어이 어기랴.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을 받은 두 제자는 백두산을 내려 눈깜빡할사이에 수천리밖 북만의 왜놈헌병대본부의 앞산에 이르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배워주신 축지법을 썼던것이다.

두 제자는 헌병대본부를 들이치기 위해 숲속에 몸을 숨기고 적정부터 자세히 살피였다.

헌병대본부는 넓은 수로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있는데 경계가 얼마나 심한지 보기만해도 어마어마했다.

두 제자는 은밀히 수로옆에까지 다가갔다.

그들은 수로를 건너뛰려 하였다. 그러나 다음순간 위대한 장군님께서 반드시 물을 밟고 건너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 그들은 어떻게 할가 하고 사방을 두리번거리였다.

이때 마침 그리 멀지 않은곳에 호박넝쿨이 뻗어간것이 보였다. 그들은 제일 큰 호박잎 두개를 뜯어내여 수로우에 띄웠다.

그리고 그 호박잎을 짚고 날쌔게 껑충 수로를 건너갔다.

얼마나 날쌔게 짚고 건너뛰였던지 호박잎은 그 자리에 그냥 떠있었다. 두 제자는 물우에 둥둥 떠있는 호박잎을 내려다보며 자기들이 신통한 생각을 해냈다고 자랑스레 생각했다.

다음 그들은 담장밑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그들은 망설이지 않을수 없었다. 담장이 어찌나 높은지 도저히 그냥은 오를수가 없었던것이다.

날아넘으면 간단히 넘어가련만 반드시 타고넘어야 한다니 어쨌으면 좋을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궁리를 짜던 두 제자는 담장밑에 흩어져있는 벽돌을 모아 쌓은 다음 그것을 딛고 담장을 넘으려고 하였다.

벽돌을 외줄로 반길이나 되게 쌓고 거기에 올라섰다.

그러나 담장우까지는 어방이 없었다.

아무리 살펴도 주변엔 벽돌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래 이번에는 있는 벽돌을 가지고 모로 세워 쌓아보았다. 여전히 높이가 모자랐다.

두 제자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쌓아보다가 맥이 진하여 땅바닥에 주저앉고말았다.

이때 갑자기 머리우에서 《맥을 놓고 주저앉지 말고 용기를 내라.》하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 그것은 분명 **김일성**장군님의 음성이였다.

그들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담장우를 올려다보았다.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제자들은 다시 벽돌을 쌓아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높이가 모자랐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할지 몰라 우두커니 서있는데 담장웃쪽에서 또다시 위대한 장군님의 음성이 울렸다.

《이것을 딛고 담장을 넘으라!》

그쪽 담장우를 바라보니 운무에 싸인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모습이 보였다.

담장우에 서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한쪽손을 땅을 향해 내리펴시였다.

그러자 땅에 있던 벽돌이 자석에 끌리듯 위대한 장군님 손에 씽 날아가붙는것이였다.

장군님께서는 그 벽돌을 드시더니 담장 맨우에다 가져다 붙이시였다.

벽돌은 자석마냥 담장에 척척 들어붙었다.

장군님께서는 다음 벽돌을 그 아래에 또 붙이고 또 다른 벽돌을 연방 그밑에다 내리쌓으시는것이였다.

자기들과는 반대로 우로부터 아래로 내려쌓으시는 위대한 장군님만을 바라보고있던 제자들은 하도 신기하여 눈을 크게 뜨며 《야, 장군님께서 또 신비한 도술을 쓰시는구나.》하고 감탄하였다.

두 제자가 입을 하 벌리고 멍하니 서있는데 다시 장군님의 음성이 울렸다.

《어서 담장을 넘어들어가 왜놈들을 치라!》

그러자 그들은 그이께서 붙여주신 벽돌을 딛고 단번에 담장우에 올라섰다.

그제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담장우에서 내리시여 넓은 수로를 건너가시였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께선 마치 땅우를 걷듯이 물우를 딛고 걸어건느시는것이였다.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자기들이 호박잎을 딛고 건는것이 몹시 부끄럽게 생각되였다.

얼마를 배우면 위대한 장군님의 술법을 백의 하나라도 깨칠수 있을가?

그들은 자기들이 배운 술법이 인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것을 깊이 깨달았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익힌 무술과 도술로 헌병대본부를 치고 바람처럼 씽— 백두산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장군님앞에 무릎을 꿇고앉았다.

《장군님! 이 미련한 제자들을 용서해주십시오. 백날을 배운 저희들의 술법이 어느것 하나 익은것이 없으니 이는 리치에 밝지 못한 둔재임을 스스로 나타낸것입니다. 산을 허물어 평지를 만들고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그런 담력과 인내로 기어이 술법들을 깨치겠으니 부디 한번만 더 조련을 시켜주십시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씀하시였다.

《그네들의 재조 그만하면 괜찮거늘 과히 상심말라. 술법을 익히는것이 그리 쉽지 않거늘 마음의 탕개를 더욱 조이라.》

그후 두 제자는 더욱 열심히 술법을 배워나갔으니 그때부터 삼년석달후 그들은 무술과 도술에 도통한 장수가 되였다.

남석리 장수바위

청진시 송평구역 남석리에 가면 직두천이라는 크지 않은 강이 흐르고있다. 그 강을 끼고 자동차길이 나있는데 이 길을 따라 얼마쯤 올라가면 연두봉기슭에 자그마한 바위산이 솟아있는것을 보게 된다.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왜놈들이 군사훈련을 하던 련병장자리가 있다.

바로 그 바위산에 신통히도 사람머리처럼 생긴 바위가 있었다.

이고장 사람들은 그 바위를 장수바위라고 불렀다.

지금은 바위우에 새겨진 발자국자리 하나와 사람의 손자리가 하나 남아있을뿐이고 그 장수바위는 길을 넓히는 공사를 할 때 거의다 없어졌다고 한다.

장수바위는 없어졌으나 이고장 사람들속에서는 그 바위와 관련한 전설이 오늘도 전해지고있다.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는 자연부원을 략탈해갈 목적으로 해안도시인 청진시에 제철소와 제강소를 세웠다.

그때 사봉벌에 선 제철소를 《일철》이라고 불렀다.

바로 《일철》이 선 후에 있은 일이니 아마도 1930년대중엽이 아니면 그 이후의 일일것이다.

그때 청진시의 사봉벌에서 장수가 태여났다는 소문이 났었다.

그 장수는 태여나자마자 걸음마를 떼고 한달만에 뛰여다녔는데 힘이 굉장히 센 장사라고 하였다.

세살이 되자 키가 어른만해졌는데 송아지를 한손으로 버쩍 쳐들었다고 하였다.

다섯살에는 황소를 쳐들었고 열살에는 황소만한 돌을 들었다고 하였다.

열두살이 되자 집채만한 바위를 들어 멀리 바다에 집어던졌는데 그 바람에 파도가 세차게 일었다고 하였다.

그 장수에 대해서는 별의별 말이 다 돌았다.

온몸이 돌로 되여있다고도 했고 지어는 무쇠로 되여있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화살이나 총알도 몸에 맞으면 튀여난다는것이였다.

그 장수는 바람이 너무 세서 돌도 날린다고 하는 사봉벌에서 《일철》로동자들과 같이 산다고 했다.

이 소문은 사봉벌에서 멀지 않은 남석리에도 돌았다.

남석리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고 희한해하면서도 잘 믿으려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밤 남석리사람들은 모두 놀라 잠에서 깨여났다.

갑자기 땅이 울리는것이였다. 처음엔 지진이 일어났는가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날랜 사람 몇이 밖에 나가 알아보았다.

그랬더니 우람한 몸집을 가진 거인이 뚜벅뚜벅 연두봉쪽으로 걸어올라가는것이였다.

그 거인의 발걸음소리가 쿵쿵 울리였다.

희미한 달빛에 자세히는 볼수 없었으나 거인의 우람한 체구만은 확연히 알리였다.

거인을 보자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서 집으로 달려가 숨었고 어떤 사람들은 문을 방싯 열고 방안에서 밖을 내다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 몇사람은 거인의 뒤를 따랐다.

거인은 쿵쿵 땅을 울리며 직두천을 따라 뻗은 길로 걸어올라갔다.

얼마쯤 가던 거인은 길옆에 바위산이 나지자 그리로 올라가더니 바위를 손으로 짚고 《으—윽》하고 힘을 썼다.

그러자 거인의 발부터 점점 바위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잠시후에 거인은 보이지 않고 그저 바위산만 우뚝 솟아있을뿐이였다.

《히야!》

따라갔던 젊은이들은 모두 놀라와 소리를 질렀다.

새벽이 될 때까지 자리를 뜰줄 모르던 마을사람들은 동녘이 밝아오자 그때에야 정신을 차리고 바위산으로 달려올라갔다.

바위산에 거인의 발자국자리가 여러군데 찍혀있었고 손으로 짚었던 자리도 두군데나 나있었다.

《과시 장수는 장수로구나!》

젊은이들은 모두 혀를 차며 놀라와하였다.

그후 그 소문이 마을사람들에게 퍼지자 거인이 왜 바위속에 들어가 숨었을가 하는 의혹이 큰 화제거리로 되였다.

이 의혹은 인차 풀렸는데 사봉벌의 《일철》로동자들한테

갔다온 사람이 소식을 가져왔던것이다.

며칠전이였다고 한다.

그 거인은 바로 사봉벌에서 태여난 장수인데 그는 늘 끓어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해 안타까와하였다고 한다.

어느날 장수는 부모들에게서 왜놈들이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갖은 악독한짓을 다하고있다는 사실을 죄다 알게 되자 분을 못새겨 씩씩거렸다.

장수는 저 혼자서 왜놈들을 몽땅 때려잡고 나라를 되찾겠다고 윽윽하였다.

울분에 차서 펄펄 뛰는 장수의 기상은 참으로 무서웠다. 누구도 그를 말릴수가 없었다.

왜놈들은 그것을 알고 군대와 경찰, 《자위단》까지 총동원하여 장수를 잡으려고 날뛰였다.

어떻게 될가?

아무리 힘이 센 장수라 하더라도 왜놈군대의 수가 적지 않은데 어떻게 당해내랴 하며 가슴을 조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장수의 귀에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서라, 자중할지어다. 독불장군이라고 혼자힘으로는 대업을 이룰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대장수가 백두산에 내렸으니 저 남석리바위속에 들어가 때를 기다릴지어다. 백두산쪽에서 주라소리가 울리면 장수들이 출전할것인즉 그때 깨여나 함께 싸우면 왜놈들을 쫓아내고 나라를 찾을수 있을것이니라.》

그 소리를 듣고 장수는 어안이 벙벙했다. 어디에서 누가 하는 말인지 사방을 두리번거렸으나 아무것도 눈에 띄우는것이 없었다.

이때 또 같은 목소리가 울렸다.

《어서 바위산속에 들어가 때를 기다릴지어다.》

장수는 이것은 분명 하늘의 계시이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장수는 그 길로 남석리로 향했던것이다.

그뒤 장수가 들어간 바위산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한달, 두달, 한해, 두해 세월이 흐르자 사람들은 그 장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화제에도 올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뿌웅―붕―》

백두산쪽에서 갑자기 주라소리가 울리였다.

《뿌웅―붕―》

주라소리는 온 산천을 깨우는듯싶었다. 그 소리에 숲이 설레이고 강과 바다가 격랑을 일으켰다.

사람들도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남석리바위의 장수가 생각난것이였다.

《장수가 깨여나지 않을가?》

주라소리가 울린지 사흘째 되는 날이였다.

우르릉 지동이 일더니 바위속에 들어가 잠들었던 장수가 깨여나 드디여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였다.

《장수가 나온다!―》

《장수가 나온다!―》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바위산밑으로 달려갔다.

이 소문을 듣고 왜놈들도 허겁지겁 달려들었다.

《우르릉!》

또 한번 지동이 일었다.

바위산에서 장수가 머리부터 밖에 내밀었다.

당황한 왜놈들은 장수의 머리를 향해 마구 총질을 해댔다.
《땅! 따당!》
《앗!》
사람들은 차마 볼수가 없어 눈을 꽉 감았다.
한참만에 눈을 떠보니 이게 웬일인가? 총알은 그의 머리에 맞고 탕탕 튀여나는것이였다.
후—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장수의 몸이 점점 더 솟구쳐 어느덧 목이 보이게 되였다.
당황망조한 왜놈들은 더 많은 경찰을 내몰아 장수의 머리를 향하여 련발사격을 하였으나 여전히 총알은 튀여나기만 하였다.
악에 받친 왜놈들은 힘꼴이나 쓰는 놈들을 한무리 데려왔다.
《빨리빨리 쇠메로 저 장수의 머리를 쳐라!》
대장놈의 왜가리청이 빽 울렸다.
몸집이 우람한놈들이 저마다 떡메만한 쇠메를 하나씩 들고 바위산으로 올라가 장수의 머리를 겨끔내기로 내리치기 시작했다.
《탕! 탕!》
이것을 보는 마을사람들의 가슴은 또다시 옥죄여들었다.
장수는 더 솟아나지 못했다.
아뿔싸! 사정없이 내리치는 쇠메를 맞고 장수가 숨이 진게 아닐가?
그러나 그것은 괜한 걱정이였다.
왜놈들이 솟아나지 못하고있는 장수의 머리를 보고 마음을 놓고있을 때 다른쪽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장수의 온몸

전체가 땅우로 솟구쳐올라 바위산우에 떡 뻗치고서는것이였다. 장수의 머리가 둘인 모양이였다.

《히야!》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깨밑에서 구름이 감도는 장수를 올려다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있었다.

장수는 바위속에서 더 커졌던것이다.

왜놈들은 너무 무서워서 줄행랑을 놓았다.

장수는 쿵쿵 땅을 울리며 백두산쪽을 향해 걸어갔다.

그후 장수는 백두산대장수님의 부하가 되여 왜놈들을 쳐부시고 나라를 해방하는 성업에 단단히 한몫하였다고 한다.

이고장 사람들속에서는 오늘도 이 전설이 즐겨 전해지고있는데 근래에 와서는 이곳에서 발굴된 구호나무와 결부시켜 이야기하고있다.

그 구호문헌들가운데는 《단결된 로동계급력; 태력이다. 제철로동자 일심단결하라》, 《로동자는 전민항쟁주력》이라는 구호와 함께 힘을 합치자는 뜻으로 《합》(合)이라 쓴 구호나무도 나왔는데 바위산의 장수가 백두산쪽에서 울리는 주라소리를 듣고 자기의 힘도 합쳐 왜놈들과 싸우러 갔다는 전설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데가 있다.

세개의 호수와 밀림속에 난 큰길

백두산과 관련한 전설에는 포수이야기가 적지 않다. 한것은 산이 험준하고 천기가 사나와 이고장에서 살림을 펴고 살기에는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여서 예로부터 여느 사람들은 깃들기가 퍽 어려웠던탓이리라.

그래서 이 밀림의 유일한 거주자들이 포수였던까닭에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것은 응당한것이다.

바로 이 전설도 한 백두산포수가 겪었다는 사실에 대해 전해오는 이야기이다.

기승스럽고 사나운 자연의 횡포를 이겨내며 살아가는 백두산의 짐승들은 그 어느것 하나 날래고 용맹스럽지 않은것이 없다.

하물며 그런 짐승을 사냥하는 백두산포수들임에야 더 말해 무엇하랴.

박만덕이라는 포수도 날래고 용맹스럽고 명사수여서 아근의 포수들은 그를 모르는이가 없었다.

그가 어떻게 포수가 되였는지 그 경력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 누구에게도 자기자신에 대해서는 말한적이 한번도 없었기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범상한 경력을 가지고있지 않으리라는 짐작은 누구나 다 하고있었다.

가만히 눈여겨 그의 표정을 살펴보면 일순 피로운 빛이 가끔 스쳐지나는것을 느낄수 있었다.

그러고보면 과묵한 그의 성격때문이기도 하겠지마는 그보다도 헤쳐보이기 피로운 가슴아픈 사연이 그의 속마음에 깊숙이 묻혀있는것 같았다.

온 민족이 왜놈의 기반밑에 죽지 못해 살아가는 망국노의 형편에서 그 누구에겐들 가슴아픈 사연이 없겠는가.

박만덕은 혈혈단신 부모도 형제도 처자도 있는상싶지 않았다.

꾹 다문 입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이런 그가 얼마전부터 아예 다른 사람이 되여버렸다.

그의 얼굴엔 언제나 신심이 넘치고 희망을 안고사는 사람들에게서만 볼수 있는 빛이 력력히 비껴있었다.

인적없는 수림속이지만 저녁이면 만덕이네 초막에 마실군들이 생기고 밤깊도록 광솔불밑에서 주고받는 말소리가 두런두런 들려나왔다.

그들이 하는 말은 항간에서 떠도는 백두산의 대장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다.

벙어리처럼 말이 없던 그 사람이 말을 하고 딴 사람으로 된데는 바로 하늘에서 내리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축지법을 쓰시며 왜놈들을 족치고계신다는 통쾌한 소식을 들은 다음부터였다.

그는 오래간만에 짐승가죽을 지고 보천장에 나갔다가 백두산의 대장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것이다.

그때부터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그들에게서 백두산대장수님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해듣기도 하였다.

쑥대 일곱가지로 태평양을 건느신다는 얘기도 들었고 종이 한장으로 강을 건느고 밀림의 나무들을 군사로 만든다는 신기한 이야기도 들었다.

박만덕의 가슴속에 든든한 마음의 기둥이 서고 점차 백두산의 대장수님을 만나뵈올수 없을가 하는 욕망이 자라올랐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여느때없이 일찌 사냥을 나간 그는 숲속에서 송아지만한 메돼지 두마리를 만났다.

한발이나 되는 어금이가 주둥이 량옆에 쑥 삐여져나오고 잔등에는 버섯까지 내돋은 이놈들은 보기만해도 속이 흠칫 떨릴 정도였다.

그러나 유명한 포수인 만덕은 그런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속으로 쾌재를 올리며 그 두마리의 메돼지를 다 잡으리라고 마음먹고 어깨에서 총을 벗겨내렸다.

박포수는 번개같이 그놈들을 맞받아나가며 《땅! 땅!》하고 두마리를 다 쏘았다.

그런데 총알이 메돼지의 가죽을 뚫지 못하고 마치 바위에 부딪친것처럼 탕탕 튀여나는것이였다.

아무리 총을 쏘아대도 메돼지는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는듯 꿈쩍않고 여전히 태연한 자세로 꿀꿀거리며 보습같은 주둥이로 땅만 뚜지고있었다.

박포수는 어쨌으면 좋을지 몰라 당황해났다.

그는 또 메돼지들을 향해 총을 쏘아댔다.

그제야 무엇을 느꼈는지 성이 난 메돼지들이 불이 이는 눈길로 박포수를 쏘아보더니 받아넘길듯 씩씩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더는 어쩔수 없게 된 박포수는 돌아서서 냅다 달아나기 시작했다. 바위를 에돌고 진대나무를 뛰여넘고 개울을 건너뛰며 한참 달려가던 그는 그 자리에 멈춰서고말았다.

메돼지가 따라오는 기색이 없었기때문이였다.

웬일일가? 머리를 기웃거리던 그는 궁금한 생각이 들어 다시 메돼지가 있던곳으로 슬렁슬렁 되돌아갔다.

얼마쯤 가던 만덕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래졌다.

글쎄 송아지만한 메돼지들이 둘 다 쓰러져있는것이 아닌가!

가까이 다가가보니 그 어디에도 다친데는 없고 또 총에 맞은데도 없는데 메돼지들에게선 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죽은것이 분명하였다.

자기가 그렇게 총을 쏴대도 끔쩍않던 메돼지가 왜 죽었을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영문을 알수가 없었다.

이때 어디선가 인기척이 났다.

박포수는 그쪽으로 머리를 돌리는 순간 흠칫 놀랐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키가 구척이고 몸집이 우람찬 사람들이 3백～4백명은 실히 되게 숲속공지에 모여있는것이였다.

그들은 모두 장수들인데 아름드리나무를 저가락 가지고 놀듯하고 큰 바위들을 새끼손가락으로 튕겨 건너편 산으로 홱홱 날려보내기도 하였다.

《히야!》

만덕은 저도모르게 탄성을 내질렀다.

《과시 장수들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한 만덕은 바로 메돼지들도 저 장수들이 던진 돌멩이나 나무통에 맞아죽었을것이라고 짐작하였다.

그러나 실은 그런것도 아니였다.

만덕이가 숲속에 몸을 숨기고 장수들의 거동을 살피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수리개 한마리가 툴렁 땅에 떨어졌다.

가만히 보니 장수들이 불이 펄펄 이는 눈길로 마주보기만 하면 얼이 빠지고 숨기가 끊어지는것이였다.

메돼지들도 장수들의 그 눈총을 맞고 죽은것이 분명하였다.

만덕에게 저 장수들이 하늘에서 내린 군사가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천군이 백두산에 내렸을진대 그렇다면 저 군사를 이끌고 내려온 백두산대장수님이 계실터인즉 내가 정말 큰 행운을 만났나보다.

박포수는 초롱눈이 되여 장수들을 두루 살펴보았다.

(어디에 계실가? 어느분이실가?)

그는 드디여 그토록 만나뵙고싶던 백두산대장수님을 찾아냈다.

백두산대장수님께서는 수하장수들보다 키가 배나 더 크고 몸이 우람한데 그 대장수님이 바위우에 올라서서 어느 한쪽을 가리키며 《모두 저쪽으로 가시오!》하고 명령하시는것이였다.

신기한 기적은 또 일어났다.

백두산대장수님이 가리킨곳엔 분명 해빛도 스며들지 못하는 험한 원시림이였는데 그가운데 갑자기 넓은 신작로가 생겨난것이였다.

장수들은 밀림속으로 뻗어간 그 길로 번개처럼 달려갔다.

산을 타는데는 누구에게도 짝지지 않는 만덕이지만 장수들

을 따를수가 없었다.

뽀얀 먼지가 이는 신작로를 따라 헐떡거리며 달려가니 어느 한 평퍼짐한곳에서 그들이 쉬고있었다.

박포수는 그들을 따라잡은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숲속에 몸을 숨기였다.

그는 장수들을 살피면서 대장수님을 만날 기회를 찾고있었다.

장수들은 숲가운데로 흐르는 내물에 엎디여 물을 마시고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한 장수가 물을 마시면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내가가 한동안 마르는것이였다. 그래 다음 장수는 한참이나 기다렸다가 물을 마시군하였다.

어떤 장수는 샘물에서 동이로 물을 마시였는데 아홉동이씩 마시고야 입을 문지르며 물러나는것이였다.

그러니 숲속에 물이 모자라는것이 큰 야단이였다.

이때 백두산대장수님이 나타나 큰 지팽이로 땅을 쿵쿵쿵하고 세번 두드리시자 갑자기 큰 호수가 숲가운데 세개나 생기는것이였다.

맑은 물이 찰랑거리는 호수안에 파란 하늘이 그대로 비껴있었다.

장수들은 그 세개의 호수에서 마음껏 물을 마시며 기뻐하였다.

물을 다 마신 장수들은 또 대장수님이 가리키신쪽 — 새로 난 그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들이 저쪽 멀리로 사라진 다음에야 박포수는 백두산대장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친것이 분하여 넵다 뛰였으나 도저히 따를수가 없었다.

천지조화를 일으키고 풍운조화를 부리시는 백두산대장수님을 속인으로서 따른다는것은 어림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포수는 할수없이 근처에서 제일 높은 산꼭대기로 달려올라갔다.

거기서 백두산장수들이 가는것을 보려는 심산이였다.

그가 겨우 산마루에 올라서서 보니 저 멀리로 장수들이 가는 모습이 어렴풋하게 보였다. 안개속에 감기기도 하고 구름속에 잠기기도 하면서 백두산장수들은 축지법을 쓰고있었다.

얼마후 저쪽 산림의 먼곳에서 팡 파르릉 하는 소리가 나고 비명소리가 한참동안 들리더니 잠잠해지고말았다.

박포수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리로 달려가보았다.

그랬더니 거기엔 백두산장수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왜놈들의 시체만 시누렇게 널려있었다.

그 왜놈들은 총 한방 맞지 않고 모두 얼이 빠져 죽었던것이다. 그런데 그중에 한놈이 얼쳤댔는지 살아나서 눈을 멀뚱거리고있었다.

그놈을 보자 만덕은 포수총으로 한방 갈겼다.

놈은 찍소리도 못하고 황천객이 되였다.

초막으로 돌아온 박만덕은 마실온 사람들에게 자기가 겪은 일을 죄다 이야기하였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백두산대장수님이 왜놈들을 멸살시키고 우리 나라를 독립할 날이 멀지 않았다면서 몹시 기뻐하였다.

조롱박골이야기

중국의 룡정땅에서 서남쪽으로 얼마쯤 가면 룡수평이다.

룡수평과 복동마을은 약 40리가량 떨어져있는데 그 절반쯤 되는곳에 석국촌 또는 돌국시라고 부르는 마을이 있다.

이 마을앞에 넓지는 않으나 깊은 강이 흐르고있는데 그 강은 해란강의 지류이다.

그 강을 건느면 독산마을이 있고 그 다음이 진풍동마을이다. 진풍동에서 2리쯤 더 가면 큰 바위 두개가 량옆에 막아서고 그사이에 좁은 목이 나진다. 그 목을 빠져나가면 병풍처럼 높은 산에 둘러싸인 넓은 분지가 나진다.

우물처럼 깊은 이 분지는 하루에 해가 한시간도 드나마나 한다고 한다.

바로 여기가 조롱박골이다.

일제통치시기 여기에는 집이 몇채 안되는 자그마한 조선인 마을이 있었다.

리조말기 기근으로 하여 쪽박을 차고 고향을 떠난 어느 한 사람이 여기에 짐을 풀어놓은다음 한집 두집 늘어나기 시작하여 생긴 마을이였다.

인적없는 무명촌이던 이 마을에 언제인가부터 조롱박골이라는 이름도 생기고 이웃마을과 물산도 서로 오가면서 점점

마을로서의 체모를 갖추게 되였다.

이 조롱박골에 해방전부터 홍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져내려오고있었다.

조롱박골에는 마음이 착하고 부지런한 허가성을 가진 한 가족이 살고있었다고 한다.

이 집을 《명천집》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할아버지때 명천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고 하여 그렇게 부르는것이였다.

이 집에는 나이가 지났으나 장가를 가지 못한 개펄이란 총각이 있었다.

이름을 봐선 꽤 벌찰것 같았으나 개펄이는 마음이 순하고 어리무던한 총각이였다.

성품은 고지식하고 말이 없는데다가 일 또한 잘하여 조금도 나무랄데가 없었다.

비록 헌 베잠뱅이를 입었을망정 쭉 빠진 키에 튼튼한 체구, 조화로운 이목구비를 가진 그를 과연 어느 처녀가 탓하랴.

그러나 나이 서른이 가까와오도록 장가를 못간것도 사실이요, 그 집에서 여기저기에 혼처를 구하고있는것도 분명하였다.

그럼 개펄이가 왜 장가를 못가고있을가.

여기에는 몇가지 원인이 있었다.

《명천집》의 살림이 너무도 구차하여 누구도 선뜻 그 집에 딸을 주려 하지 않는것이 첫째 원인이요, 봉건유습이 완고한 개펄이네 할아버지의 고집이 둘째 원인이였다.

게다가 조롱박골과 린근인 진풍동, 룡수평, 독산마을 그 어디에나 혼기에 이른 처녀가 별로 없다는것도 그 원인으로

들어야 할것이였다.

멀리 룡정이나 조양툰에 파년한 딸을 가진 집들이 있어 몇번 혼사말이 오갔으나 우의 두가지 원인으로 하여 그것들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러니 당사자인 개펄이는 물론 개펄이의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왔겠는가.

살림이 구차한것은 별수 없는것이였으나 할아버지의 완고한 봉건유습이 혼사를 방해하니 부모들은 속으로 할아버지를 나무람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제는 세상이 개화해서 이 깊은 산골에도 그 바람이 불어들어 머리도 깎고 헌옷일망정 양복을 입는것이 류행으로 되였는데 개펄이네 집만은 고집스럽게 여전히 상투머리에 바지저고리를 입고다녔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상투를 튼것은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개펄이가 머리를 길게 따서 늘인것은 참으로 보기가 민망스러웠다.

바로 그놈의 긴 머리채가 말썽이 되여 혼사줄이 끊긴적도 여러번이였다.

개펄이 할아버지가 상투를 틀고 단발을 반대하는데는 깊은 연고가 있었다.

개혁파들이 우리 나라에서 권력을 잡은 후 법령을 발포하여 급진적으로 모든 제도를 개혁하던무렵, 그 새 법의 하나로서 나온것이 단발령이였다.

고종황제부터 먼저 머리를 깎고 양복을 입게 한다음 관리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깎게 하자는것이였다.

이 단발령이 전국에 내렸으나 백성들이 응하지 않기때문에 서울을 비롯하여 감영, 병영이 있는 큰 도회지에서는 길목에 군사가 지켜서서 행인들을 붙들고 상투를 막 잘라버렸다.

이것을 륵삭(억지로 깎는다는 뜻)이라 하였는데 륵삭을 당한 사람은 큰일이나 난것처럼 통곡을 하였다.

이 단발령은 크게 민심을 자극하였다.

어떤 선비는 도끼를 메고 《내목을 자를지언정 이 머리는 깎지 못하리라》하는 뜻으로 상소를 올리기도 하고 《차라리 지하의 목없는 귀신이 될지언정 살아서 머리깎은 사람은 아니되리라》는 글귀가 마치 격언모양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여 민심을 선동하였다.

이처럼 단발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리유가 다만 유교의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라 불감훼상은 효지단야》 즉 부모가 만들어준 신체에서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치지 않은것이 효의 시작이라고 하는데서만 나온것이 아니였다.

이것은 일제가 시키는것이라는데서부터 나온 반감이였다.

당시 명천에서 하급관리로 있던 개펄이 할아버지 역시 이런 의미에서 단발을 반대하는 민족주의자였다.

그러니 할아버지의 완고한 고집을 그저 탓하기만 할수도 없었다.

그럭저럭하여 개펄이의 나이는 자꾸 늘어만 갔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천정에서 거미가 줄을 늘이며 내리더니 이날저녁 개펄이네 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멀고먼 명천에서 외삼촌이 불원천리 찾아왔던것이다.

개펼이네만이 아니라 온 마을이 외삼촌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마을이라야 고작 집이 몇채밖에 안되는 외진 산골이여서 조롱박골에 손님이 찾아오기란 년중 한두번이면 많은축이였다. 그래서 이 마을에선 어느 집에 찾아온 손님이든 무등 반갑게 맞이하고있었다.

《누님, 벌써 찾아왔어야겠는데 굶지 않고 살아가자니 어디 짬을 낼수 있어요. 이번에도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누이생각을 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사는지 가보라고 자꾸 몰아대서 힘든 걸음을 했수다.》

개펼이네 집엔 잠시나마 화기가 돌았다.

며칠후 떠나기에 앞서 외삼촌은 누이, 매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세월이 흐르는건 아이들을 보면 안다더니 정말 그렇구려. 개펼이가 벌써 로총각이란 말을 듣게 되였으니 세월두 참. 매부, 내 이번 걸음에 제일 가슴이 알알한건 저 조카녀석이 나이가 지나도록 장가를 들지 못한것이웨다. 내 집에 돌아가 아근에서 혼처자리를 곧 수소문해보리다.》

《임자가 좀 그렇게 해주게. 고향에 사돈을 두면 얼마나 좋겠나.》

매부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처남에게 부탁했다.

외삼촌이 떠난지 석달이 지나 명천에서 반가운 기별이 왔다.

좋은 혼처자리가 나섰으니 빨리 오라는것이였다.

이곳 조롱박골에서 태여나 난생처음 먼곳으로 떠나게 되는 개펼이는 루루이 설명해주는 할아버지의 말을 조금도 지루해

하지 않고 곰곰히 새겨들었다.

개펄이는 며칠을 준비한 후 괴나리보짐을 지고 남평나루를 건너 명천으로 향했다.

개펄이는 무산에서 리발관에 들려 거치장스러운 긴 머리부터 깎았다.

할아버지가 알면 야단법석할 일이였으나 긴 머리채때문에 줄줄 따라다니는 도회지아이들의 웃음거리가 되고싶지 않았던것이다.

며칠을 부지런히 걸어 외삼촌집에 다달은 개펄이는 그날저녁으로 맞선을 보았다.

개펄이는 보름달같은 처녀를 보자마자 대번 마음에 들었다.

처녀 역시 개펄이를 싫어하는 기색이 아니였다.

그 자리에서 외삼촌의 주관하에 혼사말이 오가고 결혼식날자까지 정했다.

개펄이가 가지고온 물건에다 외삼촌이 준비해준것까지 합쳐서 처녀네 집에 례장감도 보냈고 례장을 받기도 했다.

외삼촌은 없는 살림에 약혼식과 결혼식을 한데 합쳐서 소박한 잔치상까지 차려주었다.

그리하여 개펄이는 나이 서른이 거의 되여서야 외삼촌덕에 한 처녀의 머리를 얹어주었다.

외할아버지는 처음 조국에 나와보는 외손자를 결혼식만 하고 그냥 돌려보낼수가 없어 색시를 결달아서 경치좋은 칠보산구경이나 하고 가라고 권하였다.

개펄이 역시 그것이 싫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고향산천! 조국! 죽어서라도 고향에 돌아가 묻히겠노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하던 바로 그 고

향에 처음 와보는 개펄이는 며칠사이에 마음이 끌리고 정이 붙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하루라도 아름다운 조국, 고향산천의 흙을 더 밟아보고싶었고 꽃내, 풀내 싱그러운 그 숲속에 몸을 파묻고싶었다.

며칠후 외삼촌이 준비해준 보따리를 신혼부부 량주가 맞들고 칠보산을 향해 떠났다.

때는 가을이라 만산에 화려한 단풍이 들었는데 그윽한 파일향기가 산으로 오르는 행복한 두 젊은이의 온몸을 감쌌다.

온갖 시름을 잊은 그들은 신선이라도 된듯 선경속을 거닐었다.

《저것 봐요, 얼마나 아름다와요?》

《응, 참 그렇군.》

《저길 좀 봐요. 룡이 하늘로 날아오르는것 같아요.》

《응, 정말 그렇군.》

《야, 저 빨간 열매를 봐요. 구슬같지 않아요?》

《응, 정말 그렇군.》

《참, 그건 뭐예요. 응, 정말 그렇군, 응, 정말 그렇군. 아이 참.》

새색시는 정이 푹 들게 눈을 살짝 치뜨고 뾰로통해졌다.

《응, 정말 그렇군.》

《또 정말 그렇군이예요.》

《하하하.》

《호호호.》

그들의 웃음소리는 골짜기를 울리였다.

두루 경치를 즐기며 돌아다니다나니 어느덧 열흘이 지

났다.

《아이참, 어쩜 좋아요. 이젠 돌아갈 날이 되였네. 어서 내려가요.》

새색시가 이렇게 말하자 개펄이는 펄쩍 놀랐다.

아니 벌써 날이 그렇게 흘렀는가?

눈깜빡할사이인것 같은데 열흘이 지났다니, 아쉬운 생각보다 허구픈 감정이 앞섰다.

아름다운 경치에 도취되여 개펄이는 모든것을 잊고있었던 것이다.

언젠가 할아버지가 들려주던 옛말이 생각났다.

한 농군이 김을 매다가 신선을 따라가서 잠간 바둑 두어판 두는것을 보고왔는데 속세에선 수백년이란 세월이 흘러 호미자루가 썩었더라는 이야기였다.

(옛말에 있기를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줄 모른다더니 내가 과연 그렇게 되였는가보다.)

그러나 개펄이는 산을 내리고싶지 않았다.

새색시 역시 말로는 돌아가자고 하면서도 마음은 개펄이와 조금도 다를바 없었다.

저 한골짜기만 내려가보자, 저 한봉우리만 올라가보자 하다나니 또 열흘이 지나 어느덧 한달이 되여왔다.

그러다나니 외삼촌네는 물론 온 동네가 떨쳐나 그들을 찾았다.

어느 한 계곡에서 외삼촌이 자기들을 부르는 산울림을 듣고서야 그들은 황황히 산을 내려왔다.

개펄이한테서 늦게 된 사연을 자초지종 듣고난 외삼촌과 마을사람들은 더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가슴이 아팠던것이다.

아름다운 고향을 두고 낯선 이국땅에서 살지 않으면 안되는 개펄이의 가슴아픈 처지가 남의 일같지 않게 가슴에 마쳐왔던것이다.

다음날 개펄이는 새색시와 함께 외삼촌네와 처가집의 바래움을 받으며 조롱박골을 향해 떠났다.

개펄이를 따라 처음 먼길을 가보는 새색시는 하루이틀은 호기심이 어린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며 가볍게 걸었다.

산세가 점점 험해지고 깊어지자 새색시의 눈엔 겁먹은 빛이 완연해졌다.

《저건 뭐예요?》

새색시가 산봉우리의 흰것을 가리키며 물었다.

《눈이요.》

《눈이라니, 벌써 눈이 왔단말이예요?》

《그렇소.》

말이 적은 개펄이는 산이 높아서 눈이 먼저 온다는 얘기를 하려다가 말고 입을 꾹 다물고있었다.

그렇게도 아름다운 칠보산을 옆에 끼고있는 명천에서 이런 험한 산골로, 그것도 제 나라 땅이 아닌 남의 나라로 안해를 데려가니 마음어진 개펄이에겐 죄를 짓는것만 같이 생각되였다.

무산을 거쳐 두만강을 건너 남평나루마을을 지나니 개펄이에겐 제가 살던 고장이지만 평생 처음 와보는듯 낯설게만 느껴졌다.

하물며 두만강을 처음 건너오는 안해야 더 말해 무엇하랴.

《아직 멀었어요?》

《조금 더 가면 되오.》

안해가 자꾸만 같은 말을 반복하여 묻는걸 보니 퍼그나 지친것 같았다.

돌국시도 지나고 진풍동마을도 지났다.

조금 더 가니 큰 바위 두개가 량옆에 막아서고 그 사이로 좁은 목이 나졌다.

《이젠 다 왔소.》

《정말이예요?》

조금만 더 가면 된다는 개펄이의 말을 사흘째나 들어오는지라 안해는 잘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좁은 목을 빠져나가면 빙 둘러 높은 산이 있고 한쪽에는 펑퍼짐한 릉선이 있는 조롱박골인데 여기는 그렇지 않았다.

병풍처럼 높은 산이 둘러싸여있는데 어느 한곳도 열려있는 곳이 없었다.

개펄이는 우뚝 멈춰서서 사방을 두릿두릿 살폈다.

《왜 그러세요?》

안해가 참다못해 물었다.

《글쎄 여기가 우리 마을이 아닌것 같소.》

《예?》

《거 참, 모를 일이군.》

개펄이는 저혼자 중얼거렸다.

《아니, 어쩌면 자기가 사는 마을도 못찾는단말이예요?》

안해는 저도모르게 한숨이 나갔다.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지 않는가?)

지금까지 지내봐선 그런 부실한 사람같지는 않은데 제 마을도 못찾으니 더럭 이런 의심이 생기였다.

개펄이는 가던 길을 돌따서서 다시 좁은 목을 빠져나왔다.

안해는 속이 좋지 않아 아무 말도 않고 따라가기만 했다.

아무리 가도 자기가 사는 마을을 찾을수가 없는 모양인지 개펄이는 또 걸음을 멈추고 두리번거렸다.

안해는 이러는 개펄이를 자기 살던곳도 못찾는다며 몰아댔다.

가뜩이나 어리무던한 개펄이는 온몸에서 진땀이 났다.

이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개펄이에게 귀인이 나타났다.

바로 개펄이네 옆집에 사는 사람을 만난것이였다.

《너 개펄이 아니냐?》

《쌍가매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우리 마을이 어디 있습니까?》

《음, 네가 길을 헛갈렸구나. 옳지, 새아긴가? 임자가 색시를 얻으러 갔다오는사이 우리 마을지형이 좀 달라졌네. 그러니 헛갈릴수도 있지.》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개펄이도 안해도 그 말뜻을 알수가 없었다.

《나하고 같이 가세. 가면서 얘길 하지.》

개펄이네 내외는 쌍가매 아버지를 따라 오던 길을 다시 되돌아갔다.

큰 바위 두개가 있는 좁은 목으로 빠져들어가니 아까 갔던 그곳이 분명하였다.

쌍가매 아버지는 어리둥절해있는 개펄이에게 말해주었다.

《저쪽에 솟은 저 높은 산은 임자가 없는 사이에 새로 생긴 산일세. 그래서 임자가 제 마을을 못알아본거네.》

《새로 생긴 산이라니요?》

쌍가매 아버지는 차근차근 얘기를 들려주었다.

… 개펄이가 명천으로 떠난지 열흘가량 지난 다음이였다고 한다.

조용하던 조롱박골에 갑자기 누런 군복을 입은 왜놈들이 무리로 쓸어들었다.

김일성장군항일유격대를 《토벌》하겠다고 몰려다니는 놈들이였다.

놈들은 마을과 수림속에 천막을 치고 숙영을 하였다.

그런데 그날밤, 항일유격대가 놈들을 습격하였다.

밤새 번개치고 우뢰가 울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천둥이 울고 지동이 동시에 이는것이였다.

마을사람들은 밖에 나갈념도 못하였다.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이 몰래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백두산대장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 산봉우리에서 저쪽 산봉우리로 날아다니시면서 불칼을 휘두르며 벼락을 치는것이였다. 놈들은 꼼짝못하고 멸살되였다.

밤새 여기저기서 왜놈들의 비명소리가 끊기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해가 솟은후에야 밖에 나온 마을사람들은 모두 눈이 화등잔만해졌다.

왜놈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그 시체가 산을 이루었던 것이다. 그런데 더우기 놀라운것은 그 시체산이 바위로 굳어진것이였다.

여기에 풀씨와 나무씨들이 날아들어 푸른색을 입혀 완연한 산으로 되여버렸다. …

개펄이와 그의 안해는 쌍가매 아버지의 말을 듣고 너무도 놀라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일으키시는 천지조화를 말로는 여러번 들었으나 실지 눈으로 보기는 처음인 개펄이와 그의 안해는 너무도 신기하여 산만 쳐다보다가 쌍가매 아버지가 손을 잡아 이끌어서야 집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집에 이르자 아버지, 어머니가 맨발로 달려나오고 할아버지도 지팽이를 짚고 마당으로 나와 개펄이와 손자며느리를 반겨맞았다.

개펄이 부모들은 물론 할아버지는 보름달같은 손자며느리를 보고 만족함을 금치 못하였다.

그후 젊은 부부는 아들딸 낳고 조롱박골에서 의좋게 살았다.

개펄이와 그의 안해는 길을 잃었던 때 일을 두고두고 즐겁게 외우군하였다고 한다.

신출귀몰하는 청년

북청군 신창로동자구는 일제통치시기 자그마한 어촌이였다. 얼마 안되는 초가집이 여기저기 널려있을뿐이였다.

지금으로부터 400여년전 이곳을 지나가던 어느 한 도사가 바다가에 솟은 련봉산에 올라 지형이 배처럼 생긴 이 마을을 내려보다가 도래굽이에서 맑은 샘이 콸콸 솟구쳐오르는것을 보고 《밑창 빠진 배라 흥할수 없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그때부터 이곳을 새로 생긴 바닥이라는 뜻으로 신창이라 부른다고 전해져 내려오고있다.

그러나 그 도사의 말은 조금도 신빙성이 없다는것이 세월이 갈수록 더욱 반증되고있다.

오늘 여기 신창은 나라의 수산기지로서 바다에서는 사철 물고기를 퍼내고 지방산업공장들에서는 흰 연기가 솟구쳐오르고 들에서는 해마다 구수한 낟알을 거둬들이고있는 매우 흥하는 고장으로 된것이였다.

해방전 련봉산수림속엔 샘피절이라는 절간이 있었는데 여기엔 최아무개라는 중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중국 동북지방의 화룡현 투도구에서 살다가 나왔다고 한다.

몸집이 억대우같이 크고 반일감정이 남다르게 높은 그는

소문에 홍범도의 부하였다고도 하고 화승총을 메고 독립군의 량세봉을 따라다녔다고도 하였는데 그럴만한 확실한 근거는 별로 없었다.

최아무개중은 해방직후에도 여전히 그 절간에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가 김형직선생님의 지도를 받았다는 소문까지 돌렸었다.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는 그럴만한 연고가 있었다.

이 중은 백두산의 대장수 **김일성**장군님께서 장수들을 거느리시고 왜놈들을 족치시는 통쾌한 이야기를 잘하였던것이다.

그는 백두산대장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알고있었다.

아마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 중을 두고 여러가지 소문을 냈는지도 모른다.

그가 어떻게 되여 중이 되였는지 그의 경력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었고 그후 소식도 전혀 모르고있다.

최아무개중이 들려준 백두산대장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당시 이고장 사람들속에 많이 퍼졌는데 이 전설도 바로 그가 한 이야기들중의 하나이다.

달래가 많아 달래봉이라 부른다고도 하고 또 달빛이 제일 먼저 비치기때문에 그렇게 부른다고도 하는 달래산기슭에 월양촌이 자리잡고있었다.

산이 우거져 그 어느 골짜기에 들어가도 강대나무와 삭정이가 많아 월양촌사람들은 별로 힘들이지 않고 나무를 해오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도 일본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날을 앞당겨오시던 어느해 봄날 이 마을에 살고있는 춘배는 달래봉에 올라가 강대나무를 한짐 해지고 내려오고있었다.

춘배의 나무짐은 얼마나 큰지 낟가리가 통채로 움직이는듯하였다.

춘배는 이 고장에서 한다하는 장사였다.

씨름판에 나가 황소를 탄적도 여러번이나 있었다.

《히야, 달래산을 통채로 지고오는것 같구만.》

《저렇게 나무를 다 해오면 우린 뭘 해다 땐다, 허… 힘도 장사지.》

마을사람들은 그의 나무짐을 보고 혀를 끌끌 차며 이렇게 한마디씩 하군하였다.

씨엉씨엉 산을 내리던 춘배는 한 바위츠렁에 지게를 내려놓고 숨을 돌리였다.

흠뻑 땀을 흘린 뒤여서 따스한 봄볕이 재글재글 내리비치자 춘배는 저도모르게 잔디밭우에서 소롯이 잠들고말았다.

주변에 갑자기 안개가 자오록이 피여오르고 하늘에 무지개가 걸리더니 생황 부는 소리가 들려오고 난데없이 따오기 한마리가 날아왔다.

따오기는 곧장 누워있는 춘배앞에 내려앉더니 머리를 주억거리며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총각님, 어서 일어나 나를 따라오세요.》

춘배는 하늘에 무지개가 걸리고 따오기가 날아내려와 자기에게 말하는것이 이상하여 머리를 기웃거리다가 나무짐을 팽개치고 무작정 따오기를 따라갔다.

얼마쯤 가니 커다란 동굴이 나졌다. 거기에는 바위문이 굳게 닫겨져있었다.

따오기가 긴 부리로 바위문 손잡이를 똑똑똑 세번 쪼아대자 그 큰 문이 드르릉 하고 열리며 굴아구리가 휑하니 드러났다.

따오기는 굴안으로 날아들어갔다.

춘배도 굴안으로 따라들어갔다.

갖가지 보석들이 번쩍거리는 굴안은 참으로 희한하였다.

춘배는 어리둥절해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는데 따오기는 간곳없이 사라지고 갑자기 어디선가 갑옷입은 군사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창과 칼을 들고 무술을 익히고있었다.

집채같은 바위를 한손으로 휭휭 집어던지는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장수들이였다.

그들의 무술을 닦는 모습을 멍하니 쳐다보고섰는데 장수들을 조련시키고있던 대장수님이 춘배를 보더니 자기한테로 오라고 부르시는것이였다.

춘배는 대장수님앞으로 가서 땅에 넙적 꿇어엎디여 절을 하였다.

《대장수님! 저는 신창에 사는 젊은이옵니다.》

대장수님은 이미 알고계신다는듯 머리를 끄덕이며 그를 잡아일으켜세우시였다.

춘배는 대장수님께 거기까지 오게 된 사연을 자초지종 말씀드렸다. 그러면서 자기도 여기서 무술을 닦게 해달라고 청을 드렸다.

그의 청을 들으신 대장수님께서는 《집에 늙으신 부모님들

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분들을 버리고 오겠는가? 그러지 말고 내 그대에게 백가지 술법이 적혀있는 책을 한권 줄터이니 그것을 베껴가지고 가서 짬짬이 훈련을 하시오.》 하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춘배는 대장수님에게서 책을 받아들고 정신없이 베끼기 시작했다. 사흘만에 다 베낀 그는 좋아서 껑충거리며 집으로 달려갔다.

《앗!》

산을 넘고 숲을 헤치며 달려가던 그는 그만 발을 헛디디여 낭떠러지에 곤두박히고말았다.

그바람에 놀라 번쩍 눈을 뜨니 그것은 꿈이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꿈에 본 그 책이 자기 손에 그대로 쥐여져있는것이였다.

이때부터 춘배는 산을 오르내리면서 늘 그 책을 가슴에 품고다니였다.

그는 깊은 숲속에 들어가 누구도 모르게 그 책을 보며 술법을 하나하나 익혀나갔다.

어언 세월은 흘러 어느덧 춘배가 도를 닦기 시작한지도 3년이 되여왔다.

그러다나니 어지간히 도술을 익힌 춘배는 부모님들앞에서 자기의 솜씨를 자랑하고싶은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 제가 그사이 도술을 좀 배웠는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뭐라구, 네가 도술을 배웠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는 춘배의 말을 아예 믿으려 하지 않았다.

언제 한번 아들이 도술을 배우는것을 본적이 없었기때문이

였다.

나무하러 숲속에 들어가 책을 보고 제혼자 배웠으니 아버지가 그것을 알리가 만무하였다.

《아버지, 하여간 제가 도술을 할터이니 보겠어요?》

춘배는 아버지에게 또 말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말이 잘 믿어지지 않았으나 춘배가 하도 자신있게 말하여서 《그럼 한번 해보려무나.》 하고 대답하고 자리를 틀고앉았다.

춘배는 자기가 배운 도술중에서 제일 쉬운것 하나만을 보여드리리라 마음먹었다.

《그럼 아버지, 어머니가 내앞에 나란히 앉으세요.》

어머니는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의 옆에 가앉았다.

춘배는 갑자기 《앗!》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춘배는 어느새 나란히 앉은 부모님들사이를 빠져나가 뒤에 가앉는것이였다.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도 놀라와 눈이 휘둥그래졌다.

그런데 춘배가 또 《앗!》하고 소리를 지르자 이번엔 어느새 부모님들앞에 다시 나와앉았다.

《아니, 네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아버지는 눈이 왕사발만해서 물었다.

춘배는 부모님들에게 모든것을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런데 그의 말을 다 듣고난 아버지는 얼굴이 굳어지는것이였다.

《우리 집안에 살이 뻗친것 같다. 예로부터 속인이 뛰여난 재주를 가지면 역적이 된다 하여 나라에서 그냥 두지 않았거늘 너같은 처지에 그 무슨 당치 않은 재주냐? 어서 그 책을

이리 내놓아라.》

아버지의 추상같은 말에 춘배는 할수없이 보풀이 인 그 책을 내놓았다.

책을 받아든 아버지는 다짜고짜로 《이 책이 장차 우리 집에 화근을 가져올것인즉 내가 미리 없애여 화를 면하게 해야겠다.》고 하며 당장 일을 칠것같이 굴었다.

춘배가 안타깝게 사정하였으나 아버지는 끝내 말을 듣지 않고 부엌으로 나가 아궁이에 그 책을 집어넣어 태워버리고 말았다.

춘배는 그 책에 적은 도술을 거의 다 배웠으나 마지막 몇가지만은 채 배우지 못한것이 못내 아쉬웠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하는 일이니 그로서는 어떻게 할수가 없었다.

만약 그 책에 적혀있는 술법을 다 배웠더라면 그는 하나도 무서울것이 없었을것이였다.

지금 배운 술법만 가지고도 잡히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도술을 부려 왜놈들과 싸울수 있었다.

잡힌다음 몸을 빼는 술법만은 채 배우지 못한 춘배는 달래봉으로 나무하러 오르내리면서 이미 배운 도술을 더 숙련시키였다.

그러면서 그는 언제건 왜놈들과 싸울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있었다.

어느날이였다.

나무짐을 지고 마을에 들어서던 춘배는 조무래기들이 모여 왁작 떠드는 소리가 나기에 그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보니 왜놈순사의 아들새끼가 가난한 조선아이를 야구방망

이로 마구 때리고있었다.

다른 아이들이 말렸으나 애비세도를 믿고 왜놈의 새끼는 더 기승을 부렸다.

매를 맞는 아이는 춘배의 조카벌이 되는 총각애였다. 춘배는 저도모르게 주먹이 불끈 쥐여졌다.

순간 그는 도술을 부려 왜놈의 새끼를 혼내주고싶었다.

춘배는 나무짐을 진채로 조카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가까이 다가갔다.

승이 나서 펄펄 뛰던 왜놈의 새끼가 춘배를 올려다보았다.

서로 눈길이 마주치는 순간 춘배는 기합을 썼다.

그랬더니 왜놈아이는 야구방망이를 떨어뜨리고 모로 나가 넘어졌다.

격분한 조선아이들이 달려들어 모두매를 안겼다.

그바람에 왜놈의 새끼는 반주검이 되고말았다.

그후 춘배와 조선아이들은 주재소에 붙잡혀가 졸경을 치르었다.

왜놈의 새끼는 몇달후에야 자리에서 일어나 바깥출입을 하게 되였는데 종시 다리를 저는 병신이 되였다.

애비는 그 앙갚음으로 춘배를 다시 고소하여 끝내 감옥밥을 먹게 하였다.

춘배는 청진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게 되였다.

체포된 다음 몸을 빼는 술법을 배우지 못한 춘배는 감옥에 들어갈 때 몸에 자그마한 칼 하나를 감춰가지고 들어갔다.

춘배는 그것으로 첫날부터 제가 앉아있는 마루바닥을 도려내기 시작하였다.

3년간 꾸준히 하니 몸 하나는 얼마든지 빠질수 있을만한

크기의 구멍이 나게 되였다.

이제나저제나 탈옥할 기회만 노리는데 어느날 갑자기 다른 감방에 화재가 일었다.

그바람에 감옥안에 갇혀있던 많은 사람들이 불을 끄는데 동원되였다. 그러다나니 감옥안은 수라장이 되였다.

그 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떼를 지어 너도나도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춘배는 도망치지 않고 자기 자리에 그냥 앉아있었다.

왜놈들은 도주한 사람들을 잡으려고 경찰을 풀었다.

지어는 라남 19사단소속 군대까지 풀어 달아난 사람들을 붙잡느라고 야단법석이였다.

모두 도망쳤는데 춘배만이 문이 열린 빈 감방에 혼자 앉아있는것을 본 털보왜놈간수장은 그를 칭찬하였다.

《존거시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고 량민이 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속죄하는것이 매우 존거시다.》

춘배는 그놈의 말이 어처구니가 없었으나 태연하게 받아넘겼다.

《아무렴요. 죄를 지었으면 응당 벌을 받아야 할텐데 어찌 기회가 있다고 해서 도망치겠소.》

그 말에 간수장과 간수들은 매우 감동하여 그 다음부터는 춘배에게 밥도 더 많이 주고 별로 감시도 하지 않았다.

놈들은 탈옥하려다가 붙잡힌 사람들에게는 형기를 배로 늘구고 갖은 행패를 다하였다.

춘배는 자기에게 감시가 덜해진 틈을 리용하여 이미 도려낸 마루바닥을 들어내고 유유히 도망을 쳤다.

고향으로 돌아온 춘배는 그리스도교목사를 하는 사촌형네 집으로 찾아갔다.

련봉산밑에 그리 크지 않은 례배당이 있었는데 춘배의 사촌형은 거기서 목사로 있었다.

춘배는 형네 집에 숨어있으면서 왜놈들과 어떻게 싸울가 하고 궁리에 궁리를 거듭하였다.

그는 마침내 왜놈들의 무기를 빼앗아가지고 그놈들과 맞서 싸우리라 결심을 내리였다.

마침 형이 홍원에 있는 례배당으로 이동하여 집이 이사하게 되여 더는 숨어살수 없게 된 춘배는 그날밤 주재소를 습격하여 보총과 륙혈포를 빼앗아냈다.

무기를 빼앗긴 왜놈들은 온 신창땅을 발칵 뒤집었다.

더우기 감옥에서 도망친 춘배가 무기를 탈취하였다는것을 알게 된 왜놈들은 수사진을 물샐틈없이 폈다.

춘배가 산당집안에 숨어있다는 정보를 받자 북청경찰서가 총출동하여 그 집을 포위하고 환을 점점 좁혀들어갔다.

(이제야 아무리 날고 뛰는놈이라 해도 독안에 든 쥐신세지.)

경찰서장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산당집을 몇겹으로 포위한 놈들은 《투항하라! 투항하면 살려준다!》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산당집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웬일일가?)

서장은 경찰들을 시켜 산당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라고 총끝으로 내몰았으나 누구도 그 문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하도 서장이 고아대자 한놈이 용기를 내여 산당집 문손잡이를 쥐였으나 손이 굳어져 열지를 못하였다.

《빨리 열라!》

서장의 왜가리청에 경찰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눈을 지르감고 겨우 문을 열었다.

이때 산당집안에서 부시럭소리가 났다. 왜놈들은 분명 춘배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빨리 나오라! 나오면 살려준다!》

서장이 달려들며 문에다 권총을 들이대고 또 소리질렀다.

수십개의 총구가 일시에 산당집안으로 들이밀어졌다.

위기일발의 순간, 자칫하면 그 총구들에서 금시라도 불을 뿜을듯 할 때 《야옹—》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금 있더니 고양이 한마리가 훌쩍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제야 왜놈들은 산당집안으로 달려들어가 발칵 뒤졌으나 춘배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어디로 사라졌을가? 놈들은 춘배가 고양이로 변신하여 도망쳤다고 아우성을 쳤다.

경찰들은 무서워서 일단 철수하고말았다.

더우기 놈들이 무서워 떨게 된것은 그즈음 항간에서 떠도는 백두산대장수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때문이였다.

축지법과 분신술, 장신술, 둔갑술, 변신술에 능한 **김일성**장군님의 술법에 대한 말을 들은 놈들은 춘배가 그이의 부하가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며칠후 이번엔 도경찰부에서까지 내려와 현지수사반을 꾸리고 경찰력량을 총동원하였다.

어느날 춘배가 렬녀문이 있는 련봉산기슭 수수밭에 들어가는것을 보았다는 정보가 도경찰부에 들어왔다.

경찰들은 수수밭을 또 몇겹으로 포위하고 《투항하라!》고

소리지르며 점점 좁혀들어갔다.

그러나 수수밭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악에 받친 왜놈들은 인민들을 강제로 내몰아 익지 않은 수수를 몽땅 베게 하였다.

수수밭을 가을하니 밭가운데 벙거지만 하나 있을뿐 춘배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왜놈들은 또 아연해지고말았다.

이때 밀정을 통해 정보가 들어오기를 거기서 퍼그나 먼 장호리 솔밭에서 춘배가 누워 자고있다는것이였다.

언제 벌써 그리로 갔을가. 놈들은 아연실색하였으나 이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모두 우르르 그리로 달려가니 이번엔 춘배가 련봉산고개를 넘어가는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왜놈들은 《경방단》까지 동원하여 길목마다 다 지키게 하였다.

근 한달나마 길목을 밤낮으로 지켰으나 춘배의 그림자도 보지 못한 경찰들과 《경방단》놈들은 탕개가 풀려 밤이면 부근의 콩밭에서 익지 않은 콩을 꺾어다가 청대를 하는 정도가 되였다.

어느날 《경방단》부단장이 몇명의 《경방단》놈들을 데리고 한창 콩청대를 하고있는데 웬 사람이 그들한테로 다가왔다.

그들은 정신없이 콩을 집어먹느라고 누가 가까이 다가온것도 알지 못했다.

《나도 좀 함께 먹읍시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서야 《경방단》놈들은 시커먼 광대

칠을 한 얼굴을 들고 올려다보았다.

《누구야?》

부단장이 먼저 소리지르며 얼결에 총을 집어들었다.

《왜들 그렇게 놀라는가? 내가 바로 당신들이 찾는 김춘배요.》

그 사람은 태연하게 오금을 꺾고 앉아 몇알 남은 콩을 집어 입에 가져가는것이였다.

《경방단》놈들은 모두 사시나무떨듯 하였다.

춘배는 《경방단》 부단장에게 《당신은 나와 옷을 바꿔입어야겠소.》하고 말했다.

《예예, 그렇게 합죠.》

부단장은 갑삭거리며 제꺽 옷을 벗어주었다.

춘배는 부단장의 옷을 갈아입고 유유히 사라졌다.

춘배가 부단장옷을 입고 사라진 후 도경찰부에서는 《경방단》옷을 입은 사람은 모조리 다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군안의 《경방단》놈들이 다 류치장에 잡혀 들어가게 되였다.

온 함경남도가 끓었다.

김일성장군님이 함흥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짜하니 돌던 때인지라 사람들은 춘배가 틀림없이 그이의 부하라고 수군거렸다. 그렇지 않다면야 어떻게 그런 신출귀몰한 술법을 쓰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왜놈들은 춘배를 잡는데 거액의 현상금까지 걸었다.

그러던 어느날 밤 련봉산숲속에서 전지불이 반짝거리는것을 발견한 왜놈들은 그리로 달려올라갔다.

전지불은 움직이고있었다.

분명히 수상한 사람이 있다고 여긴 놈들은 더 빨리 달려올라갔다.

이때 뒤에서 총소리가 났다. 놈들은 무리로 쓰러졌다.

총을 쏜 사람은 바로 춘배였다.

그는 소나무에 전지를 걸어놓고 그것을 흔들어놓아 놈들이 그 불빛을 보고 그리로 올라가게 하고는 반대쪽인 바다가로 내려가 놈들의 뒤에 대고 사격을 하였던것이다.

왜놈들은 더 많은 병력을 풀어 춘배를 잡으려고 발악하였다.

춘배는 끝내 놈들이 쏘는 총알에 맞아 다리를 상하게 되였다.

그는 부근에 있는 샘피절에 찾아갔다.

춘배는 놀라는 샘피절의 중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왜놈들이 찾는 김춘배입니다. 지금 다리를 상해서 더는 피할수가 없으니 스님께서 나를 잠시 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록 머리를 깎고 중노릇을 하지만 애국의 마음을 품고 살던 중은 춘배를 칠성단안에 숨길가 하다가 절간옆 나무낟가리에 숨겨주었다.

인차 경찰이 달려들었다.

놈들은 중에게 행패를 하며 칠성단을 마구 뜯어냈다. 그안에 숨겼는가 해서였다. 이번엔 사방 구석구석을 다 뒤지고 천정에까지 올라가보더니 절간옆 나무낟가리로 곧장 다가갔다.

중은 간이 콩알만해져서 그저 머리를 수그리고 《나무아미

타불, 나무아미타불.》하고 념불만 외웠다.

놈들은 나무낟가리를 하나하나 헤치기 시작했다.

중은 차마 볼수가 없어 눈을 감았다.

한참만에 경찰들이 뭐라고 지껄이며 사라진다음 중은 눈을 떴다. 그런데 어느새 어디로 빠졌는지 나무낟가리안에는 춘배가 없었다.

영문을 몰라 두리번거리는데 왜놈들이 방금 뜯어낸 그 칠성단안에서 춘배가 나오는것이였다.

(언제 칠성단안에 들어갔으며 그것을 뜯어낼 때 놈들이 왜 보지 못했을가?)

어리둥절해 서있는 중에게 춘배가 말하였다.

《스님, 고맙습니다. 한가지 부탁만 더 들어주십시오. 제가 여기 신창주재소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줄터이니 그것을 수고스러운대로 청진에 가서 부쳐주십시오.》

중은 쾌히 승낙하고 그의 부탁대로 청진에 가서 그 편지를 부쳐주었다.

며칠후 주재소장은 춘배의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백두산으로 들어가니 더는 잡을념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씌여있었다.

겉봉에 찍힌 일부인을 보니 청진에서 부친것이였다.

주재소장은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비록 잡지는 못했으나 자기 관할구역에서 사라졌으니 그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실은 춘배는 샘피절에서 치료를 받고있었다.

부상당한 다리를 다 치료한 그는 중에게 루루이 감사의 인사를 하고나서 말을 이었다.

《스님,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저에게 술법을 배워주신 백두산대장수님을 찾아가겠습니다. 제가 채 배우지 못한 술법을 마저 배워가지고 그이의 부하가 되여 왜놈들과 싸우겠습니다. 나라가 해방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백두산쪽을 우러러보자 한뭉치의 흰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를 태우고 날아갔다.

중은 파아란 하늘속에 점으로 사라져가는 구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후 김춘배는 신창에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곳 사람들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백두산준령을 넘나드시며 왜놈들을 족치고계신다는 통쾌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춘배도 그이의 슬하에서 싸우고있을것이라고 믿고있었다.

샘피절의 중도 그 이후 소식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소식을 정말로 몰라서인지 아니면 그 가족들이 왜놈들의 행패를 받을가봐 념려해서인지 그것은 알수가 없다.

중에 대해서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누구도 모른다고 한다.

최근 북청일대에서는 혁명적구호문헌들과 함께 혁명유적유물들이 많이 발굴되였다.

《조선정통령 **김일성**》, 《고금동서 지상천하 만국호걸 **김일성**대장》 등 혁명적구호문헌들과 함께 1970년초 청흥리에서 발굴된 군사지도와 라침판, 《대강백자령》(《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100자의 한자로 쓴것), 등사용강판 등 10여점의 유물은 그 력사적사실을 생동한 실물자료로 확증하여주

고있다.

조국광복회 북청조직이 선전문 《금란지계전》과 혁명적가요 《김대장을 따라나서자》와 항일의 녀성영웅을 흠모한 《녀성투사흠모가》를 비밀리에 대중속에 널리 보급선전하였다는 귀중한 자료도 발굴되였다.

《금란지계전》에는 다음과 같은 시가 적혀있다.

담배 피우며 생각해보라
농민들
금수같은 망국노생활
죽으면 진토될뿐
범은 죽어서 가죽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그 이름을 남기거늘
그대의 빛 다시 찾을 때는 왔나니
모든것 다 바치자

동이 튼다 강토는 우리의것
백두산에 해뜨고
계룡산에 닭소리 높아
백의동포 조국해방 위하여
백자령 받들고
왜놈의 통치
창으로 꿰자

정통령은 우리의
김일성장군

김대장은 민족의 영재
하늘의 태양

복되도다 우리 조선족
오매에 그리던 당당한 기상
영생불멸이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정통령》으로 우러러모시고 끝까지 따르려는 겨레의 한결같은 열망을 담은 《금란지계전》의 구절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반일조국광복전선에 굳게 뭉쳐 싸워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상을 시위하는 노래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련관시켜볼 때 이 전설은 당시 이 지방에 파견된 항일유격대의 정치공작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김춘배와 중에 대한 자료는 없다.

오랑캐령의 샘물

회령에서 두만강을 건느면 삼합촌이라는 중국마을이 나진다.

이 삼합촌에서 룡정이나 연길로 가려면 오랑캐령이라는 높은 령을 넘어가야 한다.

이 령은 오르면서 20리요, 내리면서 20리인데 40리나 되는 긴 구간이 예나 지금이나 무인지경이다.

오랑캐령은 작가 최서해의 단편소설 《탈출기》의 주인공 박군이 정든 고향을 등지고 《천부금탕》이라고 소문난 간도로 이주해갈 때 넘었다는 바로 그 령이다.

오랑캐령을 넘어 조금 더 가면 룡정시가 있는데 룡정이라는 이름은 말그대로 룡의 우물이라는 뜻이다.

1918년경에만 해도 이 룡정시는 열네호가 사는 자그마한 조선인부락이였다.

회령에서 온 김가성을 가진 열일곱살난 총각이 우물을 팠는데 바로 그 우물에서 룡이 날아올랐다고 한다.

지금 그 우물은 말라버리고 자리만 남아있다. 그옆에 아름드리 버드나무가 중견자인양 하늘을 치받고 높이 솟아있다.

그 버드나무밑에는 룡정지명기념비가 세워져있다.

연길현과 린접해있는 왕청현의 이름은 거기 흐르는 강의

물이 하도 맑아 깊은 밑바닥까지 들여다보인다고 하여 왕청이라고 부른데서 온것이라고 한다.

그러고보면 간도땅의 여러 지명이 우물이나 강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것이 적지 않은것 같다.

그와 함께 우물이나 강과 관련한 전설도 많이 전해지고있다. 그 실례로는 룡정시의 우물전설이나 해란강전설을 들수 있다.

오랑캐령의 샘물에 대한 전설은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관련되여있는 전설이다.

오랑캐령의 정수리, 말하자면 삼합촌에서 령을 올라 20리 가면 큰길옆에 일년내내 맑은 물이 솟는 샘터가 있다.

인가가 없는 무인지경에서 먼길 가는 나그네의 타는 목을 추겨주는 그 샘물은 말그대로 생명수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귀하다.

이 샘터가 언제 생겼는지는 딱히 알수 없으나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닌것이 분명하다.

1930년대중엽에 이 령을 넘어 간도에 벌이를 갔댔다는 한 로인은 이 샘터를 보지 못했다고 하니 말이다.

추측컨대 이 샘터가 생긴것은 1930년대말이 아니면 1940년대초엽일것이다.

그러니 《탈출기》의 박군이 오랑캐령을 넘을 때인 1920년대초엽에는 샘터가 없었으므로 이 물을 마시지 못했을것이다.

뿐만아니라 왜놈들에게 땅을 떼우고 살길을 찾아 간도로 떠나간 수많은 이주민들도 두만강을 건너 오랑캐령을 넘을 때 이 샘물로 망국노의 울분에 찬 가슴을 식히지 못했을것이다.

그러면 언제 누구에 의해 이 샘터가 생겨났는가?

삼복에도 이가 시린 이 샘물을 오늘 수많은 길손들이 마시면서도 그에 대해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못하다.

항일무장투쟁시기 국내로 파견되는 항일유격대의 공작원들은 주로 오랑캐령을 넘어 회령을 거쳐서 이 길로 많이 다니였다고 한다.

국내혁명가들도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령부로 찾아갈 때 이 길로 적지 않게 다니였다.

언젠가 천출명인, 백두산의 대장수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국내에 정치공작원으로 파견할 한 대원을 부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청진지구에 나가 공작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을 받고 곧 국내로 떠나갔다.

때는 여름 삼복철이라 놈들의 눈을 피해 걸어가는 그의 온몸에선 땀이 비오듯 철철 흘러내렸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임무를 하루빨리 수행하려는 일념으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숲을 헤치며 걷고 또 걸었다.

이틀을 걸어 사흘째만에는 룡정이 멀리 내려다보이는 산줄기의 밀림속을 헤쳐가고있었다.

얼마 안있어 오랑캐령의 기슭에 접어든 유격대원은 큰길로 나가 길가는 행인들속에 섞이였다.

벌이를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처럼 변복을 하여서 무인지경인 여기서는 마음놓고 가도 놈들에게 걸릴 위험이

조금도 없었다.

오랑캐령으로 오르는 길에는 행인들의 발걸음이 그치지 않았다.

그는 소문을 듣고 만주에 왔다가 얼마 안되는 가산까지 다 털리우고 빈털터리가 되여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한 가족일행과 함께 걸었다.

올망졸망한 아이들을 넷이나 거느린 중년부부는 눈감으면 코떼가는 세상을 원망하면서 말도 하기 싫은지 유격대원이 말을 건네자 퉁명스럽게 단마디로 대답할뿐이였다.

유격대원은 발이 아프다고 칭얼대는 셋째아이를 업고 걸어갔다.

길가에서 만난 생면부지의 사람이 너무도 친절하게 대해주자 남편은 미안한 생각이 들었던지 제먼저 말을 걸었다.

《손님은 어디로 가는 길이시우?》

《청진제철소에 있는 형님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형님이 중하게 앓는다는 기별이 와서 이렇게 불원천리 길을 떠났습니다.》

《사람마다 근심거린 다 있구만요.》

이렇게 말꼭지를 뗀 그 사람은 자기 신세타령을 했다.

그가 살기 좋다는 함경남도 함주에서 만주로 떠난것은 지난해 봄이였다.

대대로 농사를 지어오는 그 집에서 씨뿌리는 철에 온 일가식솔(부모님들과 두 형제의 가족이 모두 합해 열세명이였다고 한다.)이 고향을 뜬데는 기막힌 사연이 있었다.

원래 그 집은 얼마 안되는 땅마지기라도 있어 온 가족이 걸구고 열심히 농사를 지은덕에 굶지 않고 근근히 살아왔

었다.

그런데 몇해전에 흉년이 들어 식량이 떨어져 부득불 지주네 집에 가서 쌀을 꾸어왔는데 그것이 빌미가 되여 집안이 망하고말았다.

지주놈의 속임수에 넘어가 리자에 리자가 붙고 또 붙어서 세해만에는 그 빚이 엄청나게 불어났다.

억울하여 소송을 걸었지만 세월은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 아니였다. 그만 재판에서 지고말았던것이다.

세력이 당당한 지주놈을 어떻게 당하겠는가.

불어난 빚은 빚대로 다 물게 되였고 소송비를 물고 변호사에게까지 돈을 주고나니 빚을 진 그것만큼 더 돈을 내야 할 형편에 빠지게 되였다.

악착한 지주놈은 앙갚음을 하느라고 군청을 끼고 당장 빚을 물지 않으면 징역을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다나니 땅마지기를 다 팔아 그 빚을 물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땅을 떼우고 졸지에 빈주먹으로 나앉게 된 그들은 할수없이 집과 세간들을 다 판다음 쪽박을 차고 땅이 많고 벌이가 좋다는 간도로 가게 되였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간도는 어디 가나 사람천지여서 발을 붙일수가 없었다.

개간할 땅도 없었고 사자밥을 지고다닌다는 광산의 일자리조차 얻지 못할 형편이였다.

어느날 그들은 한고향사람을 만났는데 장사밑천만 좀 대주면 수입이 좋은 영업을 하도록 알선해주겠다고 하여 가산판돈을 모두 맡겼더니 어디론가 도망을 쳐서 그 돈을 몽땅 떼

우고말았다.

그 일로 하여 늙은 부모님들은 심화병으로 한날에 세상을 뜨게 되였다.

낯설은 이국땅에 시신을 묻은 후 열한식솔이 함께 살수가 없어 동생네 가족은 만주에 남고 자기네 가족만은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길이였다.

《후— 몹쓸놈의 세상.》

중년의 신세타령이 끝났다.

아이를 업은 유격대원은 그에게 강심을 먹고 굳세게 살라고 하면서 백두산대장수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축지법을 쓰시는 **김일성**대장수님께서 왜놈들을 쳐부시고 꼭 나라를 찾아주신다고 하면서 세상돌아가는 형편을 알기쉽게 이야기해주었다.

유격대원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년부부는 그가 앓는 형님을 찾아간다고 했지만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혹 그분의 부하가 아닐가? 그렇지 않다면야 어떻게 세상리치를 그처럼 잘 알고 장군님이야기를 잘알가.

이때 엄마등에 업힌 아이가 물을 달라고 칭얼댔다.

《엄마, 나 물! 물!》

오랑캐령을 오르면서 아이들은 벌써 몇번이나 목이 말라 물을 애타게 찾았다.

그러나 그고장엔 물이 없었다. 흐르는 개울은커녕 샘물도 없었다. 인가가 없으니 물을 얻을 집도 없었다.

물이 없는 고장이니 어떻게 인가가 깃들겠는가. 모든것을

삶아내는듯한 만주의 무더위는 건강한 어른들도 견디기가 어려웠다.

갈증으로 하여 목에서 겨불내가 났다.

그러니 아이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더우기 엄마등에 업힌 세살잡이 막내는 입술이 까실까실 터서 물을 달라고 하다못해 기진하여 입도 벌리지 못했다.

오랑캐령을 내릴 때에는 아이들의 숨소리마저 가늘어진듯싶었다.

애아버지는 걸으면서 산세와 지세를 두루 살폈다.

한때 마을에 들린 풍수쟁이에게서 산수에 대한 지식을 좀 배운바가 있는 그는 혹시 물이 나올만한 곳이 없을가 하여 오랑캐령에 접어들면서부터 지세를 유심히 살폈었다.

그러나 물이 나올만한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들은 더위를 피해 나무그늘밑에 아이를 내려놓았다.

그런데 이 일을 어찌하겠는가. 엄마등에 업혔던 막내에게서 전혀 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애야, 정신을 차려라.》

어머니가 흔들며 애타게 불렀으나 어린 아이는 다시 눈을 뜨지 못했다. 그저 알릴듯말듯 입만 움직이는데 분명 물을 찾는듯싶었다.

조금있더니 그러지도 못하고 입을 벌린채 머리를 한쪽으로 떨구었다.

《애야, 막내야!》

어머니의 호곡소리에 무심한 숲도 흐느끼는듯싶었다. 숲은 쏴쏴 몸부림치며 설레였다.

《늘 배가 고파 울더니 물마저 못마시고 죽었구나. 아이고—》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오가는 길손들의 가슴을 아프게 허비였다.

유격대원은 그들과 함께 막내를 땅에 묻은 후 삼합촌까지 함께 걸어갔다. 거기에 당도해서야 그들은 물을 마실수 있었다.

유격대원은 그들을 성심성의로 도와주었다.

그는 그들과 같이 회령, 부령을 거쳐 청진까지 갔다.

청진에서 헤여질 때 유격대원은 그들에게 공작기금으로 가지고 온 돈을 거의 다 주었다.

유격대공작원은 그후 청진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다시 두만강을 건너 오랑캐령을 넘어 사령부로 돌아갔다.

돌아올 때도 그는 길가에서 가슴아픈 정상을 많이 목격하였다. 더우기 오랑캐령을 넘는 사람들이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는것을 볼 때 숨진 어린 아이 생각이 나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었다.

그는 장군님께 청진에 나가서 공작한 정형을 보고드린 다음 오랑캐령에서 만났던 그 가족에 대한 얘기와 함께 물때문에 고생하는 길손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슴아프신듯 잠시 눈을 감으시고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시였다.

그러시더니 이번엔 어랑에 나가 공작할데 대한 새로운 임무를 주시였다.

《… 어랑으로 가려면 또 오랑캐령을 넘을텐데 령을 넘을

때 자세히 살펴보면 길옆에 있는 큰 바위둘레에 류달리 잎이 크고 푸른 이깔과 분비나무들이 우거져있을거요. 바로 그 바위밑을 파면 샘물이 나올거요.》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떻게 오랑캐령밑 땅속에 있는 샘줄기를 아실가?

사령부를 떠나 오랑캐령에 이른 그는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바위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오랑캐령의 정수리에 올라서자 정말 길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곳에 큰 바위가 있고 류달리 잎이 큰 이깔과 분비나무가 그 주변에 둘러싸여있는것을 발견하게 되였다.

유격대원은 그리로 달려가 바위밑을 얼른 파보았다.

나무잎이 떨어져 두텁게 쌓인 부식토층을 파헤치고 부사와 석비레가 섞인 땅을 조금 더 파내니 네모방정한 판돌이 나타났다.

유격대원은 너무도 놀라와 그 판돌을 멍하니 내려다보고있었다. 이때 쪼르륵쪼르륵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였다.

유격대원은 기뻐서 판돌을 넝큼 들어올리였다.

그랬더니 맑은 물이 퐁퐁 솟구치는 샘터가 나타났다.

《아! 샘물!》

땀을 흠뻑 흘린 뒤라 심한 갈증을 느낀 그는 경황없이 넙적 엎디여 그 물을 꿀꺽꿀꺽 마시였다.

얼마나 찬지 대번에 가슴이 쩡 열리고 땀방울이 사라졌다.

오가던 행인들이 그것을 보고 달려와 너도나도 그 물을 마

시였다.

《여보게 젊은이, 장하이, 장해. 이 샘물은 말그대로 생명수일세.》

한 로인이 이렇게 말하자 또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받았다.

《이 샘물은 장생불로수입니다.》

저저마다 이 물을 마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유격대원은 그들에게 이 샘물이 어떻게 되여 생겨난것인지 사실대로 말할수 없는 안타까움을 안고 어랑으로 걸음을 재촉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달라붙어 주변에 돌담도 쌓고 샘터를 깨끗하게 꾸리였다.

어느 한 사람은 보짐을 풀어 표주박 하나를 꺼내 샘물우에 동동 띄워놓았다.

샘물을 실컷 마신 길손들은 호로병에 그 샘물을 가득 넣어가지고 자리를 떴다.

유격대원이 어랑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올 때 보니 정가로운 샘물이 퐁퐁 솟는 샘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 물을 마시고있었다.

샘터는 전보다 더 깨끗하게 꾸려져있었다.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면서 천수 즉 하늘의 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백두산천지물이 여기에 솟구친것이라고도 하였다.

그 사실을 그대로 보고받으신 장군님께서는 그저 웃으시기만하시였다.

어떻게 그이께서 거기에서 샘이 솟으리라는걸 아셨을가.

호풍환우(도술로 바람, 비를 불러일으키는것)하는 술법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천지물을 여기 샘으로 솟게 하신것이 아닐가?

유격대원은 그후에도 이곳을 지날 때마다 그 샘물을 마시군하였는데 늘 이런 생각을 하였다고 한다.

아마 그이께서는 백두산의 정기를 타고나신 백두산대장수이시니 이곳 지형을 손금보듯 하시기에 오랑캐령의 샘줄기도 쉬이 찾으셨으리라.

몇년후 유격대원을 만났던 그 함주사람은 고향에 갔으나 염병이 돌아 거기서 가족까지 다 잃었다.

그는 할수없이 다시 동생을 찾아 만주로 가는 길에 오랑캐령을 넘으면서 샘터를 보게 되였다.

샘터에서 사람들이 물을 마시면서 한 유격대원이 그 샘을 팠다는 말을 듣고 그는 오랑캐령에서 만났던 몇년전의 그 친절한 젊은이를 생각하였다.

(분명히 그 사람이 파놓은것이다. 그가 **김일성**장군님의 부하인게 틀림이 없다.)

그는 자기의 이런 생각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군하였다.

오늘도 이 샘물은 끊임없이 퐁퐁 솟구쳐오르고있다.

늪이 생겨난 이야기

해방전에는 련못동일대에 크고작은 못들이 여러개나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도시건설계획에 따라 그 못들을 메우기도 하고 정리도 하였는데 원래는 매우 많았었다.

그 못들중 어느 한 못엔 그것이 생긴 유래를 말해주는 전설이 전해져내려오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에서 항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강도 일본제국주의를 때려부실 때 사람들속에서는 저마다 자기들이 사는 고장에 장군님이 오셨댔다는 소문을 많이도 내돌렸다.

서울사람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시여 치료를 받고가셨다고 하였고 개성사람들은 고려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셨다고도 하였다.

북청사람들은 북청리발관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리발을 하고 가셨다고 하였고 함흥사람들은 흥남비료공장에 그이께서 오셨다 가셨다고도 하였다.

그때 평양사람들속에서도 **김일성**장군님께서 평양에 오셨댔다는 소문이 많이 돌았었다.

가루개리발관에 오시여 리발을 하고가셨다고도 했고 왜놈 순사들을 처단하고 상수구리에 있는 구름다리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 둔갑술을 쓰시였다고 하였다.

그런 소문중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련못이 많은 감북동(오늘의 련못동)에 오셨댔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두명의 부하장수들을 대동하고 오셨는데 청룡산줄기의 말단인 장산수림속에 거처를 정하시였다고 한다.

그 두 부하장수는 평양출신들이였는데 모두 재조가 대단하였다.

그들이 평양으로 올 때 구름을 타고왔는지 룡마를 타고왔는지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저저마다 다르게 말하였다. 누구는 장산수림속에서 룡마울음소리가 울렸는데 아마 그때 백두산장수들이 룡마를 타고왔을것이라고 하였고 또 누구는 구름이 장산마루에 오래동안 걸려있었는데 그때 장수들이 구름을 타고왔을것이라고도 하였다.

하여간 당시 **김일성**장군님이 백두산에서 평양에 나오셨다는 여러가지 신비한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다.

그때 같이 온 두 부하장수중 한 사람은 몸집이 우람하고 힘이 센 장사였는데 아름드리나무를 한손으로 휭 뽑아 집어던지는 사람이였다고 한다.

그는 힘이 셀뿐아니라 무예에 능하여서 창과 칼을 잘 다루고 택견과 기합에도 견줄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다른 한 사람은 몸집이 그리 크지 않지만 둔갑, 분신술에 능하여서 왜놈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그를 잡을수 없다고 하

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부하장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고 한다.

《이제부터 제각기 평양을 돌아보고 적정을 자세히 알아보라. 그다음 시간을 내여 자기 집에도 잠간 들려 부모형제들과 정을 나누고 래일 이 시간에 여기로 다시 돌아오라. 될수록 소동을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다녀오도록 하라. 나도 한구역을 맡겠으니 여기서 헤여져 제가끔 산을 내려가자.》

김일성장군님과 부하장수들은 산을 내려 서로 다른 방향으로 헤여져갔다.

그리하여 그들은 평양성안을 제가끔 돌아보고 다음날 서산마루에 노을이 곱게 물드는 저녁무렵 다시 장산의 수림속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두 부하장수들의 얼굴엔 침통한 빛이 어려있었다.

먼저 몸집이 우람한 장수가 장군님께 자기가 알아온 적정을 보고드렸다. 그리고 집에 다녀온 사실도 자상히 말씀드렸는데 그러는 그의 눈에선 불이 펄펄 일었다.

가는곳마다에서 보고듣고온것이 왜놈들의 행패에 시달리는 조선사람들의 비참한 생활이여서 장수의 가슴속에서는 증오심이 부글부글 끓어번졌던것이다.

더우기 그의 집에서 기다리는 소식은 참으로 비통한것이였다.

두 남동생은 징병에 끌려가고 녀동생은 《녀자정신대》에 끌려갔는데 모두 죽었다는 통지가 왔다. 외롭게 혼자 살고있던 어머니마저 얼마전에 심화병으로 숨을 거두었다.

《이놈들!》

그는 이 세상을 온통 짓부셔버리고싶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소동을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다녀오라는 말씀이 없었던들 무슨 변이 일어났을것이였다. 씩씩 숨을 몰아쉬며 겨우 자신을 자제한 장수는 그저 화김에 발로 땅을 약간 굴렀는데 그바람에 지진이 일면서 건너편에 있는 경찰관주재소의 지붕이 무너져내렸다.

주재소에서는 소동이 일어났으나 경찰관들은 지진이 일어났다가 멎은줄 알고 인차 잠잠해졌다.

장수는 기어이 왜놈들을 복수하리라 다짐하며 장산으로 돌아왔던것이다.

그는 말을 끝내고 너무 안타깝고 통분하여 주먹으로 옆에 있는 바위를 꽝 내리쳤다. 그러자 바위가 와그르르 무너져내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그의 말을 들으시면서 주먹을 꽉 그러쥐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눈길에는 서리발이 비끼였다. 그이께서는 더는 앉아있기가 괴로우신듯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수림속을 거니시였다.

그러시다가 그이께서는 산을 내리시였다.

때는 푸릿한 달빛이 비치는 늦은 저녁이라 길에는 별로 행인들이 없었다.

두 부하장수들은 **김일성**장군님의 뒤를 따라 그이께서 거니시는대로 감북동의 늪많은 오솔길을 걸어갔다.

다른 장수가 적정을 보고드리고 집에 다녀온 일도 사실대로 말씀드렸다.

그가 집에 찾아가니 찌그러져가는 오막살이집에선 인적이

느껴지지 않았다. 반나마 무너진 담장에 의지하고 선 사립문엔 빗장이 걸려있었다.

동네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 집 아들이 백두산대장수 **김일성**장군님의 부하라고 해서 왜놈들의 닥달질이 심했다고 한다.

아버지와 형님은 감옥에 잡혀가 죽고 두 동생은 굶어죽었는데 겨우 살아남은 어머니는 소경이 되였다.

왜놈들은 어머니만은 인질로 잡아두느라고 겨우 생명이나 부지하게 하였다고 한다. 허나 놈들의 성화가 하도 극심하여 몸이 쇠약해진 어머니는 눈이 보이지 않게 되였던것이다.

왜놈들은 아들을 《귀순》시킨다고 하면서 며칠전에 이런 어머니를 끌고 백두산으로 갔다는것이다.

몇해전에 어리석게도 위대한 장군님을 《귀순》시켜보겠다고 만경대의 할머님을 백두산의 험지로 끌고다니다가 실패한 왜놈들은 이번엔 그이의 부하들이라도 《귀순》시켜보려고 발악하는것이였다.

그는 더는 참을수가 없었다. 왜놈들을 요정내지 않고서는 그냥 있을수가 없었다.

그는 곧바로 파출소로 찾아가 소장과 경찰놈들의 뺨을 불이 번쩍 일게 때리고 무기를 빼앗았다. 놈들은 눈만 멀뚱거릴뿐 돌미륵처럼 그 자리에 서서 아무런 반항도 못하였다.

그도그럴것이 둔갑술을 썼기때문에 왜놈들은 그를 볼수 없었던것이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누가 따귀를 갈기고 자기들이 멘 총을 빼앗으니 영문을 몰라 눈만 디룩거렸다.

그는 빼앗은 무기를 모두 메다가 대동강에 처넣고말았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고서는 견딜수가 없었던것이다.

그의 말을 들으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노하시여 주먹을 떠시였다.

《이놈들, 네놈들에게 벼락을 내리리라!》

참고참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드디여 노하시여 땅을 주먹으로 꽝하고 내리치셨다. 그바람에 땅이 움푹 패웠는데 크기가 학교운동장만하였다. 그리로는 사방에서 물이 촬촬 흘러들어 어느덧 늪이 되고말았다.

그리하여 여기에 난데없이 못이 하나 더 생겨나게 되였다. 그옆에 자그마한 못이 또 생겼는데 그것은 몸집이 우람한 장수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노하셨을 때 같이 격분하여 주먹으로 내리쳐 생긴것이라고 한다.

늪이 새로 생겨난 이야기는 해방전후로 하여 평양사람들속에 짜하니 퍼졌다.

특히 아이들속에 많이 퍼졌는데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이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먹으로 내리치시여 생겨난 그 늪을 구경하겠다고 감북동으로 매일같이 찾아갔다고 한다.

올망졸망한 늪들이 많아 어느것이 그 늪인지 알겠는가!

그러나 사람들은 그 늪가운데 위대한 장군님께서 만드신 늪이 분명히 있다고 믿고있었다. 그때 장수가 바위를 주먹으로 쳐서 깨진 그 돌멩이들은 아직도 장산마루에 몇개 남아있다고 한다.

신기한 거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백두산의 깊은 수림속에서 갓 입대한 대원들에게 훈련을 주고계실 때 있은 일이다.

갓 입대한 대원들속에는 길동이라고 부르는 젊은이도 있었다.

지주집 머슴살이를 하느라고 글을 배우지 못하여 낫놓고 기윽자도 모르던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자한자 배워주신 덕분에 글귀를 깨치고 세상리치를 환히 깨닫게 되였다.

어느날 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길동이를 부르시더니 부엉이골에 지금 왜놈《토벌》대 삼백명이 《토벌》을 나와있는데 가서 몰살시키고오라고 임무를 주시였다.

(잠시도 자리를 뜨신 일도 없는데 장군님께서는 어떻게 부엉이골에 왜놈《토벌》대가 기여든것을 아실가?)

길동이 신기한 생각을 금치 못하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길동이에게 부엉이골에 가면 왜놈《토벌》대가 친 천막이 쉰개 있을터인즉 제일 가운데 있는 천막을 들이치고 그 다음에는 량쪽에 대고 총을 세방씩 쏘고 슬쩍 빠져나오라고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은 길동은 곧 차비를 갖추고 길을 떠났다.

자정이 가까와올무렵 부엉이골에 당도한 그는 달빛이 환히 비치는 골짜기를 내려다보았다. 과연 거기에는 왜놈《토벌》대천막이 있었는데 세여보니 신통히도 쉰개였다.

길동은 속으로 크게 탄복하고나서 한가운데에 있는 특별히 큰 천막으로 다가가 그안을 살펴보았다.

천막안에서는 안경쟁이 《토벌》대장놈이 참모들과 지도를 펴놓고 무슨 작전을 토의하고있었다.

《이놈들아, 어디 죽어봐라.》

길동은 가지고온 폭탄에 불을 달아 천막속에 밀어넣었다.

꽝!

폭탄터지는 소리가 나고 천막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다.

《유격대다!》

여기저기 천막들에서 깊은 잠에 빠졌던 《토벌》대놈들이 벌둥지를 쑤셔놓은것처럼 아우성을 치며 뛰여나와 마구 총질을 해댔다.

길동은 량쪽에 대고 총을 세방씩 쏜 다음 슬쩍 빠져나왔다.

산마루에서 내려다보니 《토벌》대놈들은 량쪽에서 서로 제편에 대고 마구 총질을 해대고있었다. 날밝을무렵에 보니 밤새껏 제편끼리 싸움질을 한 《토벌》대놈들중에서 겨우 몇놈만이 목숨이 붙어있었다.

길동은 살아남은 놈들까지 요정내고 유유히 사령부로 돌아왔다.

왜놈《토벌》대 삼백놈을 혼자서 쉽게 요정내고 돌아온 길동이의 머리에서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어떻게 왜놈들의 동태를 그처럼 손금보듯 잘 아실가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그는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그러던 길동은 갑자기 무릎을 쳤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귀틀집 탁자우에서 본 거울이 생각났던것이다.

(그렇지. 바로 그 거울에 왜놈들의 움직임이 다 나타나는게 틀림없어.)

며칠후였다.

물을 길어오려고 샘물터쪽으로 가던 길동이는 바위우에 거울이 놓여있는것을 보았다.

(장군님께서 보시던 거울이로구나.)

길동이는 얼른 다가가 거울을 집어들고 호기심이 나서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자기의 얼굴만 비칠뿐이였다.

길동은 고개를 기웃거렸다.

그때 발자국소리가 나더니 그이께서 다가오시였다.

바위우에 앉으시여 왜놈칠 작전을 구상하시다가 잠시 자리를 뜨셨던 모양이였다.

길동이는 황급히 거울을 수령님께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렇지 않아도 길동이를 찾으려던참이였다고 하시면서 거울을 들여다보시였다.

그러자 이게 웬일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손에 들고 보시는 거울속에 100리밖에 있는 나루터가 사진처럼 환히 비치는것이 아닌가.

나루터에는 수백명의 왜놈수비대놈들이 강을 건느려고 파리떼처럼 모여들어 법석 끓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길동이에게 왜놈수비대놈들이 강을 건너오기전에 요정내고 오라고 하시였다.

길동은 축지법을 써서 눈깜짝할사이에 나루터에 당도하였다.

사공으로 변장한 길동은 왜놈수비대놈들이 탄 배를 소용돌이치는 깊은 소에 밀어넣고 빠져나왔다.

배는 성난 물살에 휘말려 가랑잎처럼 빙글빙글 돌며 기우뚱거리다가 홀떡 뒤집혔다.

배에 탔던 왜놈수비대놈들은 몽땅 물고기밥이 되고말았다.

강대안에 있던 나머지놈들은 아우성치며 소란을 피웠다.

길동이가 놈들을 향해 총을 몇방 쏘니 그쪽도 순간에 잠잠해졌다. 몽땅 황천객이 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신기한 거울을 가지고 왜놈들의 동태를 손금보듯하시며 쑥대베듯 무리로 쓸어눕히신다는 소문은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물론 왜놈들속에서도 파다하게 퍼졌다.

왜놈들은 언제 불벼락이 떨어질지 몰라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벌벌 떨었다.

지어 어떤 놈들은 신기한 거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는 줄곧 감자움속에 들여박혀있다가 처벌까지 받았다고 한다.

밀림속의 염지밭

요영구의 마반산은 소왕청유격구역의 관문인 뾰족산과 함께 유격근거지방위를 위한 첫 전투가 있었던곳으로서 유서깊은 혁명전적지이다.

여기 마반산의 깊은 수림속에는 100여평이나 실히 되는 염지밭이 있다고 한다.

염지란 중국 동북지방과 우리 나라 함경북도에서 쓰는 방언으로서 식물학적으로는 부추라는 남새를 이르는 말이다.

부추는 다년생 초본식물인데 여름부터 초가을사이에 뿌리에서 쫑이 나오고 그 끝에 하얀 꽃이 핀다.

잎으로는 볶음, 나물절임, 부추장 등 여러가지 료리를 만드는데 중국료리에는 조미료로 염지가 안들어가는것이 없을만큼 중국인들이 즐겨먹는 남새이다.

인적없는 산속에 실하게 자란 염지밭이 어떻게 되여 생겨났을가?

보통 심산속에 있는 밭들은 3년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쑥밭이 되여버리고 10년만 내버려두면 숲이 되고 20년이 지나면 밀림이 된다고 한다.

이 염지밭은 약 70여년전에 생겨났다고 한다.

그런데 밀림속의 이 염지밭은 누가 정성들여 가꾸는것처럼

지금도 잡풀 한대없이 염지만이 허리치게 무성하니 그 까닭은 무엇이고 여기에 어떤 사연이 깃들어있을가?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곳 사람들속에서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져내려오고있다.

유격근거지에서 제일 귀중한것은 식량이였다.

사실 근거지안에서의 농사는 거의 불가능하였던것이다.

왜놈들의 《토벌》이 잦아서 강냉이농사도 제대로 할수 없어 채 여물지 않은 이삭을 따먹어야 하는 형편이였다.

왜놈들은 밭갈이, 김매기, 추수 등 일년내내 농사를 방해하였는데 어쩌다가 다행히 곡식이 여문 밭이 있으면 기를 쓰고 거기에다 악착하게 불을 질렀다.

농민들은 많은 경우 어깨에 피가 흐르고 멍이 들면서도 인력으로 가대기를 끌지 않으면 안되였다.

유격대가 적통치구에 나가서 《민회》의 소를 끌어다 농민들을 도와준적도 있었으나 그것은 일상적인것으로는 되지 못하였다.

식량사정으로 허기진 배를 그러안고 기운이 없어 벌벌 기여나가 땅을 뚜지고 씨를 뿌렸다.

그런데 이런 농사마저도 늘 종곡이 없어 애를 먹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어느해 겨울,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유격대원을 적구에 내려보내시면서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올 때 여러가지 종곡과 남새종자를 구해올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한달후 공작임무를 훌륭히 마친 유격대원은 그이께서 과업

을 주신 남새종자까지 구해가지고 사령부가 있는 요영구로 돌아오고있었다. 그런데 유격대원은 돌아오는 길에 적들의 추격을 받게 되였다.

그는 사령부가 있는 반대쪽인 할바령산줄기를 타고 몸을 피했다.

길길이 쌓인 눈을 헤치며 깊은 숲속에서 겨우 놈들을 따돌렸으나 유격대원은 다리에 총상을 입게 되였다.

흰눈우에 점점이 붉은 피를 뿌리며 유격대원은 종곡과 남새종자가 든 배낭을 지고 요영구쪽을 향해 기고 또 기였다.

수령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신 날로부터 벌써 며칠이 지나갔다.

수령님께서 자기를 안타까이 기다리실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조급해졌다.

엄동설한에 눈덮인 깊은 산속에서 열흘나마 헤매이다나니 식량은 이미 떨어진지 오래고 배낭에는 종곡밖에 남지 않았다.

눈속을 파헤치고 마른 풀잎을 뜯어먹었고 나무껍질도 벗기여 입에 넣고 씹었다.

그러면서도 종곡과 남새종자에만은 손을 대지 않았다.

부상당한 몸에다가 여러날째 굶기까지 하다나니 그는 점점 의식이 흐리마리해지기 시작했다.

눈보라는 윙윙 기승을 부렸다.

한편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돌아오지 않아 여러 사람을 파견하여 그의 행처를 알아보도록 하시였다.

그가 활동하던 적구에 가서 알아보니 이미 떠난지 오래되였다는것이였다.

도중에서 분명히 적들에게 잘못된것이라고 단정하고 험준한 로야령산줄기와 할바령산줄기를 살살이 훑기 시작하였다.

유격대원들은 어느 계곡에서 드디여 눈속에 묻힌 그의 시신을 찾게 되였다.

종곡이 들어있는 배낭을 꽉 그러안고 눈을 감은 그의 언몸은 눈속에 반쯤 묻혀있었다.

굶어 숨이 지면서도 종곡이 든 배낭을 꽉 그러안고있는 그를 본 유격대원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시신을 그러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유격대원들은 땅을 치고 울면서 몸부림을 쳤다.

유격대원들은 그의 배낭을 풀어보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의 배낭속엔 염지씨 한봉지만 있을뿐 아무것도 없었다.

자세히 보니 여기저기에 종곡이 널려있고 남새씨가 몇알 흩어져있었다.

추위와 굶주림속에서 허덕이던 산짐승들이 낟알냄새를 맡고 달려든것이 분명하였다.

유격대원들은 목숨과 바꾼 종곡과 남새종자가 짐승들에게 털리운것을 보니 가슴이 찢기는듯 아팠다.

그러나 무정한 짐승들을 어떻게 탓하겠는가.

그들의 가슴속에선 나라를 빼앗은 왜놈들에 대한 증오심이 부글부글 피여올랐다.

그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몹시 가슴이 아프시여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를 산속 양지바른 기슭에 안장하도록 하시고 봉분앞을 오래도록 뜨지 못하시였다.

이해 봄 근거지의 식량사정은 참으로 말이 아니였다.

도토리를 다 주어먹고 그것도 떨어지게 되자 소나무껍질을 벗기고 마른 풀잎들을 뜯어다가 재물에 삶아 두드려서 먹었고 참쑥, 메싹, 무수해, 베짜개 등 산채도 돋는족족 뜯어먹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반산의 수림속에 100여평이나 되게 밭을 일구고 손수 유격대원의 목숨과 바꾼 그 귀중한 염지씨를 뿌리시였다.

염지씨는 하루가 지나자 싹이 트고 뾰족뾰족 자라오르더니 우줄우줄 키를 솟구었다.

그 염지들은 유별나게 잎이 실하고 키도 허리를 치게 컸다.

근거지내 인민들과 유격대원들은 그 염지를 뜯어다가 나물도 해먹고 조미료로도 쓰고 지어는 식량으로도 보태였다.

웬일인지 그 염지는 조금만 먹어도 근기가 있었고 온몸에서 힘이 솟구치군하였다.

더우기 이상한것은 그후에 왜놈들이 여기 유격근거지에 여러번이나 달려들었는데 놈들이 거기엔 조금도 손을 대지 못하는것이였다.

사람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손수 밭을 일구시고 씨를 뿌리셨을뿐아니라 가꾸기까지 하시였기때문에 왜놈들앞에선 그 염지가 조화를 부리고 밭이 둔갑술을 쓰는것이라고 하였다.

식량사정이 어려운 근거지인민들과 유격대원들은 여기 있는동안 내내 이 염지밭의 신세를 단단히 졌다.

그후 유격근거지가 해산되여 인민들은 모두 산에서 내려오고 유격대원들은 보다 광활한 지역으로 진출하게 되자 이 염지밭은 주인이 없어지게 되였다.

인가가 없는 깊은 산속에 있는 이 염지밭은 근 70년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다.

누구도 가꾸는 사람이 없었고 또 그것을 뜯어가는이도 없었다.

그러나 그 밭엔 사나운 비바람속에서도 해마다 여전히 실하게 염지가 자라고있었다.

몇년전에 림산로동자들이 마반산속에 들어가 작업을 하다가 이 염지밭을 발견하고 그것을 뜯어먹었는데 참으로 맛이 별맛이여서 차츰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금도 벌목공들은 가끔 그 염지를 뜯어먹는데 김 하나 없이 염지만이 탐스럽게 자란 밭을 보며 매우 신기하게 여기고 있다.

그들은 《**김일성**장군님께서 가꾸신 염지밭이여서 신기한 조화를 부린다.》고들 말한다.

언젠가 우리 나라의 한 작가대표단이 중국 동북지방방문시에 왕청현의 어느 려관에 든적이 있었는데 중국사람들은 염지로 여러가지 음식을 해주면서 《이 염지는 요영구 마반산속에서 뜯어온것인데 그 염지밭은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가꾸신 밭이랍니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그 음식은 참으로 별맛이였다고 오늘도 작가들은 감회깊이 말하군한다.

수리개바위

무산에서 두만강을 건느면 복동탄광이 있는데 거기서 20리 가량 가면 돌국시라는 부락이 있다.

여기서 또 5리 남짓하게 서남방향으로 가면 양무정자라고 부르는 산골마을이 나진다.

백두산에서 뻗어내린 험준한 산발들사이에 자리잡은 이 마을엔 기묘한 바위들이 많다.

그 기암들은 제나름의 흥미있는 전설들을 가지고있다.

신선이 내렸다는 신선덕우에 있는 수리개바위에는 항일의 나날에 창조된 뜻깊은 전설이 깃들어있다.

지금으로부터 70여년전 이 마을에 범령감이라고 부르는 조로인이 살고있었다.

그는 한때 홍범도의 《포수단》에 들어 화승총을 메고 연해주지방으로 오가면서 나라를 찾는다고 기세를 올린적도 있는 로인이였다.

범령감은 독립군들이 무기를 땅에 묻고 산에서 내려 뿔뿔이 흩어져갈 때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흘리였다.

우리 2천만 배달민족이 이렇게 망하고만단말인가. 이 나라를 구원할 위인은 정녕 없단말인가.

그는 가슴을 탕탕 치며 하늘에 대고 울부짖었다.

그러나 아무리 한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메아리만이 가슴아프게 되돌아왔다.

할수없이 산을 내려 자리를 잡은곳이 양무정자였다.

그러다나니 서른이 훨씬 넘어서야 늦장가를 갔다.

의지가지할데 없는 한 처녀를 안해로 맞았는데 몇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다가 9년이 지난 다음부터 련달아 아들 셋을 낳았다.

동갑내기인 남들이 손자를 볼 때에도 등에 업는 어린 아들이 있었다.

늦자식을 각별히 귀해하는것이 상례이지만 범령감은 그렇지 않았다.

가뜩이나 무섭게 생긴 얼굴에 아이를 얼린다고 갖은 표정을 지을 때면 오히려 험상해서 어른들도 가슴이 써늘할 지경이였다.

그래서 범령감이 아이를 볼 때엔 장창 울리기마련이였다. 사람들이 그를 범령감이라고 부르는것도 바로 이때문이였다.

그러나 범령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소시적에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범을 만나 낫가락으로 그놈을 잡은것이 소문이 짜하게 났었는데 그때문에 자기를 《범총각》이라고 부르다가 나이가 들어 범령감이라고 부른다는것이다.

하여간 어느것이 진짜 범령감으로 부르게 된 원인인지는 모르겠으나 범령감이라는 말이 그에게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모른다.

어느해 여름부터인가 마을사람들속에서는 이 범령감에 대

한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범령감이 수리개바위밑에 있는 약수터옆에다 귀한 보물을 감추었다는 소문이였다.

보석인지 황금덩이인지 모르나 하여간 진귀한 그 무엇이 묻혀있는것은 사실이라는것이였다.

범령감은 매일 이른아침 약수를 마시려 수리개바위밑에 갔다가 꼭 그옆에서 무엇을 파내보고는 다시 묻군한다는것이였다.

성미가 괴벽하고 무서운 범령감이라 쉬쉬하며 말은 하면서도 누구도 감히 그곳을 파볼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

동리사람들은 아마도 독립군을 따라다닐 때 얻은 귀한 보물을 감추어둔게라고 생각하며 차츰 범상히 여기게 되였다.

그런데 범령감은 막내가 예닐곱살이 되자 매일아침 아들까지 데리고 수리개바위밑으로 올라가 약수터옆에 파묻은 그 《보물》을 꺼내보이고는 다시 묻군하였다.

사람들은 범령감이 보물을 아들들에게 물려주려고 미리 알려주는것이라고 추측하였다.

마을젊은이들의 호기심이 버쩍 살아났다.

어느날 밤, 점득이라는 청년이 마을젊은이들 몇과 작당을 하여 수리개바위의 약수터근방을 발칵 뒤졌다.

그랬으나 그들은 땅속에서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웬일인가? 분명히 범령감은 땅속에서 무엇인가 파내군하였는데…)

젊은이들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그도그럴것이 범령감이 약수터옆에서 무엇인가 파내군하는것을 한둘만이 보지 않았던것이다.

그러면 그곳에 있던 그 《보물》이 어디 갔단말인가?

그렇다고 범령감에게 물어볼수도 없었다.

오히려 범령감이 무서워서 여기저기 파본 흔적을 없애느라고 한참이나 신고를 했다.

그러나 범령감의 눈은 속일수가 없었다.

다음날 아침 범령감은 약수터에 갔다내려오자마자 마을이 들썩하게 떠들어댔다.

《어떤 녀석이 못된짓을 하였어? 제놈들이 무엇을 파보겠다구? 어림없다, 어림없어. 네녀석들 눈엔 보이지도 않을게다. 이 어리석은 녀석들.》

누구에게라없이 마을이 떠나가게 소리를 질러댔다.

약수터에 올라갔던 점득이와 마을젊은이들은 속이 켕겨 바깥출입조차 하지 못하였다.

그후에도 범령감은 매일아침 수리개바위 약수터로 올라가 무엇인가 땅속에서 파냈다가 다시 묻군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이른 새벽이였다.

점득이는 몇명의 마을청년들과 함께 또다시 산으로 올랐다. 그들은 약수터가 내려다보이는 수리개바위우에 몸을 숨기고 범령감을 기다리였다.

이윽고 범령감이 세 아들을 데리고 약수터로 올라왔다.

그는 약수를 한바가지 마시고 세 아들에게도 그것을 먹이더니 땅을 파기 시작하였다.

젊은이들은 로인의 거동을 놓치지 않고 살피였다.

로인은 땅속에서 유지에 싼 무엇인가를 조심스레 꺼내였다.

유지를 벗기니 그안에는 한발이나 되는 서슬푸른 장검 세개가 있었다.

세개의 장검에서는 눈부신 빛발이 뿜어져나왔다.

《아!—》

젊은이들은 하마트면 소리를 지를번하였다.

청년들은 손으로 저들의 입을 막으며 범령감의 행동을 계속 유심히 살피였다.

범령감은 칼을 꺼내들더니 숫돌에다 썩썩 갈기 시작하였다.

한참동안 갈더니 그 칼을 약수에 씻고 머리우에 높이 쳐들고 휘둘러보았다.

그러자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 일고 꽝 꽈르릉 하고 천둥이 울었다. 그리고 건너편산의 아름드리나무들이 삽대쓰러지듯 넘어졌다.

《히야!》

젊은이들은 또다시 터져나오려는 소리를 가까스레 막았다.

로인은 세 아들에게 칼을 하나씩 쥐여보이더니 다시 유지에 싸며 말하였다.

《이 칼에 대한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면 당장 목을 베여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범령감의 두눈에선 불찌가 튕기고 웬일인지 눈물이 글썽했다.

삼형제는 눈을 똑바로 뜨고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무슨 칼일가? 무슨 칼이기에 저리도 조화를 부릴가? 그리고 왜 저리도 소중히 여길가?

독립군에서 쓰던 칼같지는 않았다. 마을젊은이들의 호기심엔 더욱 불이 달렸다.

범령감은 망국노의 울분이 치솟는지 몸을 부르르 떨었다.

이윽고 로인은 유지에 싼 세개의 칼을 다시 땅속에 파묻더니 멀리 동남쪽 구름에 가리워 보일가말가하는 한 산봉우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애들아! 저 산이 무슨 산인지 아느냐?》

아들들은 모르는지 대답이 없었다.

《저 산이 바로 백두산이다. 저 산에는 백두산의 대장수 **김일성**장군님이 계신다. **김일성**장군님은 온몸에 번쩍거리는 비늘이 덮여있어 언제나 밝은 빛을 뿌린다. 백두산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다. 그래서 백두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면 떠오르는 달을 만질수도 있다.》

범령감의 목소리는 퍼그나 부드럽게 들렸다.

아버지도 저렇게 다정할 때가 있는가? 아들들은 새삼스런 눈으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범령감의 목소리는 저으기 떨리였다.

《백두산은 온통 얼음으로 뒤덮여서 누구도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지 못한다.

오직 **김일성**장군님만이 오르신다. 그이는 량겨드랑이에 날개가 돋혀있기때문에 훨훨 날아서 오르신다. 그런데 장군님의 날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다 펴면 온 세상에 그늘이 진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신기하게 듣고있었다.

점득이와 마을젊은이들도 자기들이 숨어있다는것도 까맣게 잊을 정도로 범령감의 이야기에 심취되여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은 거인이여서 숨을 들이쉬시면 바람이 불고 내쉬시면 비가 온다고도 하였다.

로인의 이야기는 점점 더 신기하여졌다.

위대한 장군님은 한쪽 날개로 달의 먼지를 털어주어 더 밝

은 빛을 뿌리게 해주시고 다른쪽 날개로 하늘의 구름을 걷어 주어 해가 온 세상을 밝게 비쳐주게 하신다고도 하였다.

밤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날개를 펴시면 그 날개밑에 일곱 개의 별이 뜨는데 그것이 바로 칠성별이라는것이였다.

그 칠성별이 뜰 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칼을 주시오. 장검을 주시오.》하고 세번 소리치면 칼이 떨어진다고도 하였다.

바로 그 세개의 장검도 범령감이 칠성별을 향해 소리치니 하늘에서 떨구어준것이라는것이였다.

이윽고 범령감은 세 아들을 데리고 약수터에서 내려왔다.

점득이와 마을젊은이들도 수리개바위에서 내려 마을로 돌아왔다.

그후 세 장검에 대한 소문은 온 마을에 짜하게 퍼졌다.

그후에도 범령감은 매일 세 아들을 데리고 약수터로 올라가 유지에 싼 장검을 파내여 숫돌에 갈군하였다.

신선덕우에서 이른 아침에 번개치고 우뢰가 울면 사람들은 범령감이 또 장검을 파내여 휘두르는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신기한 장검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다른 얘기도 돌았다.

범령감이 나무를 하려 산에 올라갔다가 그만 풀밭에서 잠이 들었었는데 꿈에 백두산대장수님이 나타나 그를 흔들어 깨우며 《어서 일어나 이 장검을 받으라. 이 세개의 장검은 모두 보검이거늘 잘 건사했다가 아들들에게 주도록 하라. 그러면 아들들은 나라찾는 성업을 이룩하는데서 큰 공을 세우리라.》라고 하시였다는것이다.

잠에서 깨여나 눈을 떠보니 정말 머리맡에는 꿈에서 본 세개의 장검이 놓여있었다고 한다.

이 말도 범령감이 하였다고 하는데 어느것이 사실인지 알수 없다.

하여간 이 세개의 장검에 대해서는 참으로 신비한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다고 한다.

그 어떤 이야기든 이 장검들은 **김일성**장군님과 깊은 련관이 있는것만은 분명하였다.

그로부터 몇년이 지난후 중병에 걸린 범령감은 시름시름 앓다가 림종을 앞두게 되였다.

범령감은 세 아들을 불러앉히고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수리개바위밑에서 장검을 파가지고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거라.》

장례를 치른 후 삼형제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수리개바위밑에서 장검을 파내여 하나씩 가지고 백두산으로 찾아들어갔다.

그후 마을사람들속에서는 삼형제가 어떻게 되였는지 그 소식을 아는이가 없었다.

그저 백두산쪽에서 번개치고 우뢰가 울거나 왜놈들이 백두산장수들한테 무리로 녹아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마을사람들은 거기에 범령감네 삼형제도 있을것이라고 믿고있었다.

세월이 흘렀으나 이 마을에서는 장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전해내려왔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밤마다 칠성별이 뜨면 《칼을 주시오!— 장검을 주시오!—》하고 세번 소리치군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장검이 떨어지지 않을가 하여 기다리군 하였다고 한다.

오늘도 수리개바위와 더불어 이 전설은 사람들속에 즐겨 전해져내려오고있다.

범 바 위

백두산의 동남쪽 장백현의 어느 깊은 산속에는 범처럼 생긴 큰 바위가 우뚝 솟아있다.

범바위라고 부르는 이 바위에도 재미있는 전설이 깃들어 전해지고있다.

백두산기슭의 한 골짜기에 주둔하고있는 일제 《토벌》대놈들중에 기무라라고 부르는 오장이 있었다.

기무라오장은 남달리 겁이 많았다.

캄캄한 밤에는 물론 밝은 대낮에 길을 가다가도 길옆에서 부스럭소리만 나도 흠칫흠칫 놀라군하였다.

동료들은 기무라오장을 보기만하면 《겁쟁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며 놀려대군하였다.

기무라오장이 이렇게 겁이 많은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풀덤불이 우거지게 자란 어느해 여름이였다.

기무라는 《토벌》에 동원되여 백두산수림속을 헤매고있었다.

며칠동안 밀림속을 헤매던 《토벌》대놈들은 어느 산마루에서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는것을 발견하였다.

《유격대다!》

《토벌》대놈들은 개미 한마리 새나가지 않게 산을 겹겹이 둘러싸고 산꼭대기로 조여들었다.

기무라도 총구를 앞으로 내대고 도적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기여올라갔다.

산마루에 거의 올라갔을 때였다.

휙! 하고 바람이 한번 일더니 활활 타오르던 모닥불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누런 줄이 죽죽 건너간 호랑이가 불쑥 나타났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토벌》대놈들은 모두 눈이 화등잔만해서 총을 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말뚝처럼 굳어져 벌벌 떨기만하였다.

그때 《따웅!》하고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밀림을 뒤흔들었다.

그러지 않아도 백두산호랑이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지라 간이 콩알만해서 벌벌 떨던 《토벌》대놈들은 범의 울음소리에 몽땅 기절초풍하여 쓰러지고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기무라가 정신을 차린곳은 《토벌》대병원 침대우였다.

그때 함께 《토벌》에 나갔던놈들은 거의 모두 기절한채 다시 피여나지 못하고 그대로 황천객이 되고말았다. 다행히 기무라와 몇명만이 겨우 살아남았다.

그때부터 기무라는 부스럭소리에도 꿈쩍꿈쩍 놀라는 겁쟁이가 되고말았다.

퇴원한지 얼마후 기무라는 공교롭게도 용감하다는자들만 골라 새로 조직한 《토벌》대에 편입되게 되였다.

(흥, 네놈들은 얼마나 담이 큰가 보자.)

겁쟁이로 놀림을 받던 기무라는 이렇게 속으로 읏별렀다.

얼마후 기무라가 속한 《토벌》대는 백두산동남쪽 장백현의 어느 골짜기로 긴급출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골짜기에 도착한 《토벌》대놈들은 곧 열두겹으로 포위망을 둘러쳤다.

때는 어느덧 어둠이 깃든 저녁이라 포위망을 둘러친채로 꼬박 밤을 새우고 어뜩새벽에 진격을 시작했다.

기무라는 도무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와들와들 떨리기만하였다. 그는 뒤에 떨어져 맨 꽁무니에서 슬금슬금 따라가며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또 백두산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을가?)

포위망을 좁혀갈수록 점점 더 머리칼이 쭈볏 일어섰다.

눈을 크게 흡뜨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진대나무를 넘어서던 기무라는 갑자기 앗! 하고 외마디소리를 내질렀다.

집채만한 호랑이가 눈앞에 떡 나타나 까딱 움직이지 않고 있는것이 아닌가.

《백두산 호 호랑이다! 백두산대장수다!》

기무라는 얼혼이 빠져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뒤로 벌렁 나가넘어져 기절하고말았다.

얼마후 정신을 차린 기무라는 눈을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해는 하늘중천에 떠오르고 나무들은 바람에 가지를 흔들고 있었다.

내가 죽었나, 살았나 기무라는 일어나앉아 사방을 두리번

거렸다.

주위에는 《토벌》대놈들이 버리고간 총이며 쇠똥바가지같은 철갑모들이 여기저기 너저분하게 널려있을뿐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다.

백두산호랑이가 나타났다는 말에 모두 얼이 빠져 정신없이 내뛴 모양이였다.

기무라는 고개를 빼들고 호랑이가 나타났던 앞을 바라보았다.

(아니?! 저게…)

호랑이가 나타난줄로만 알고 기절초풍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범처럼 생긴 바위였다.

그러니 《토벌》대놈들도 모두 그 범바위를 보고 놀라 내뛴것이였다.

기무라는 안도의 숨을 후 내쉬며 가슴을 내리쓸었다.

한참후 그는 널려진 총대와 쇠똥바가지 몇개를 걷어가지고 산을 내려왔다.

《토벌》대앞마당에 들어서니 함께 《토벌》나갔다 도망쳐온 병졸들이 꺼꾸로 서서 기합을 당하고있었다.

병졸들앞에서 화풀이를 하고있던 《토벌》대장은 기무라를 보자 꽥꽥거리는 게사니목청으로 고함을 질렀다.

《네놈은 어디 가있다 이제 오는가?》

그 순간 기무라의 머리가 바람개비처럼 돌아갔다.

혀끝에서 거짓말이 슬슬 흘러나왔다.

《백두산호랑이가 나타나자 몽땅 도망쳤지만 저는 천황폐하앞에 순직할 맹세를 다진 황군병사답게 혼자서 용감무쌍하게 싸우다 방금 돌아오는 길입니다.》

기무라는 걷어가지고온 총들과 쇠똥바가지를 《토벌》대장 앞에 툴렁툴렁 내려놓았다.

《혼자서 싸웠단말인가? 장하다. 야마도다마시이가 살아 있는 용감한 제국군인은 우리 〈토벌〉대에서 기무라군밖에 없다.》

《토벌》대장은 기무라의 등을 툭툭 치고나서 기합을 당하고있는 졸병들앞으로 다가가 기염을 토했다.

《보라, 용감한 이 기무라군을 보란말이다.

겁쟁이같은놈들, 이 기무라군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네놈들은 모두 도망을 쳤지만 기무라군은 혼자서 싸우다 네놈들이 버리고온 총까지 가지고왔다. 전투를 기피한것은 우리 황군의 수치이다! 몽땅 군사재판이다.》

이튿날 겁쟁이로 놀림받던 기무라는 장교로 승급하고 나머지 병졸들은 모두 군사재판을 받고 황천객이 되였다.

백두산호랑이앞에서는 제노라고 용맹을 뽐내는 황군이 모두 겁쟁이가 되고 머저리가 되고마는것이다.

《송풍라월》

얼마전에 별세한 한 로작가는 해방전에 연길현의 조양천농업학교에서 교원을 한적이 있었다.

그는 백두산이 가까운 거기서 살 때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전설을 많이 들었다고 한다.

그가 들려준 백두산전설은 적지 않은데 《송풍라월》이라는 전설도 그가 구술한것이다.

당시 조양천농업학교에는 《친목회》가 무어져있었는데 그 회원들은 무슨 말을 하다가 자주 《송풍라월》에 가서 살자고 하였다고 한다.

《송풍라월》은 민족주의자들이 그리던 리상향도 아니요, 공상적사회주의자들이 말하던 유토피아도 아니였다.

송화강상류, 백두산의 북쪽기슭에는 소나무바람에 비단같은 달빛이 비친다 하여 《송풍라월》이라 부르는 경치좋은곳이 있는데(본래의 말뜻은 《소나무가지에 부는 바람과 댕댕이덩굴사이로 비치는 달》인데 이 고장 사람들은 《비단같은 달빛》으로 돌려 풀었다고 한다.) 오래전부터 여기는 매우 신비한 고장으로 알려지고 많은 전설이 전해져내려오고있다.

그가운데는 19세기중엽에 명천출신의 사냥군 한사람이 백두산에 사냥갔다가 마적들에게 죽었는데 그의 아들이 원쑤를 갚으려 이곳에 들어와 놈들을 몰아내고 이른바 《자치권》을 행사하는 살기좋은 《왕국》을 세웠다가 인차 몰락하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여간 어느때부터인지 백두산근방 사람들속에서 《송풍라월》이란 말은 살기좋은 고장의 대명사로 부르게 되였다.

그러다가 1930년대초부터 《송풍라월》은 왜놈들이 발도 들여놓지 못하는 별유천지라는 소문과 함께 그와 관련한 전설이 나돌기 시작했다.

할바령산줄기의 어느 깊은 계곡에 그리 크지 않은 조선인 부락이 하나 있었다.

망국노의 설음을 안고 정든 고향을 떠나 살길을 찾아온 사람들이 모인 마을이라 매우 궁색하기가 그지없었다.

그가운데서도 백수동이란 사람네의 살림형편은 말이 아니였다.

그의 일가는 본시 함남도 단천군 도덕산기슭의 벼락촌에서 살았었다. 가뜩이나 가난한 살림에 앓는 아버지때문에 약을 쓰느라 잔뜩 빚만 지게 된 수동이네는 너무도 살기가 어려워서 쓰고살던 오두막이며 장농 등속을 팔아 말을 한필 산 다음 후치령을 넘어서 삼수군 개운성으로 이사해갔다.

개운성은 해발 1,200메터가 넘는 고원지대로서 하늘아래 첫동네라고도 불리우는곳이였다.

일가는 그곳에서 부대기를 일구며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도

살기 어려워 수동이는 큰아들과 함께 신작로닦기와 함지를 파는 일 등 그날그날 품팔이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해오고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까지 돌아가 장례를 치르고나니 당장 가족들의 입에 거미줄이 쓸 형편이 되였다.

더는 호구지책을 할수 없어 그는 가정을 깨고야말았다.

수동이는 머루골이란 마을에 식량을 줄터이니 자기네 밭농사를 지어달라는 집이 있어 그곳을 찾아 혼자서 가고 맏아들은 어린 나이에 또 어느 부자집 머슴살이로 들어가고 안해는 둘째와 셋째를 데리고 장진쪽으로 품을 팔러 떠났다.

이렇게 온 가족이 헤여져 겨울을 넘기고 이듬해 봄에야 다시 모였는데 형편은 매한가지였다. 오히려 더 살기 어려워졌다.

이때 마침 두만강을 건너 간도에 가면 땅이 많아 살기좋다는 소문이 돌아서 수동이네가 짐을 이고지고 떠나와 짐을 푼 곳이 바로 이 마을이였다.

수동이네처럼 살길을 찾아 고향을 떠나 만주로 온 조선사람은 그 수가 이루 헤아릴수 없었다.

화룡현의 실례만 하나 들어도 1935년경 당시 인구 15만명중 조선사람이 14만 4,000여명, 중국사람이 5,100여명으로 그 절대다수가 조선이주민이였다. 이 사실 하나로써도 당시 조선사람들의 처지를 가히 짐작할만하다.

그들가운데는 특히 함경남북도지방에서 살다가 떠나온 사람들이 많았다.

현내의 《어랑촌》, 《무산골》, 《갑산골》 등 부락이름

들은 함경남북도지방에서 이주하여간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마을을 이루고 살게 된 경위를 잘 말해주고있다.

만주 그 어디를 가나 조선에서 이주해온 사람들로 차고넘쳤다.

한집에 네다섯세대, 단칸방에 20여명씩이나 들어앉아서 밤을 새우는 형편이였다.

새로 일굴 땅도 없었다.

지주들은 점점 더 배를 내밀면서 《소작료가 비싸면 그만둬라! 땅이 모자라지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고 하며 땅값을 올리는판이였다.

당장 먹고살 식량이며 집이 없어 앞으로 농사지을 가망이 없게 된 농민들은 또다시 다른곳으로 정처없는 길을 떠나지 않을수 없었다.

백수동이네의 처지가 바로 그러하였다.

어디로 갈것인가? 당장 마을을 뜨려고 하였으나 막내녀석이 앓는바람에 하루이틀 미루고있었다.

이때 마을에 놀라운 소문이 떠돌았다.

송화강상류 백두산밑에 《송풍라월》이라는 경치가 기막히게 좋은고장이 있는데 거기서는 먹을 걱정, 입을 걱정없이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산다는것이였다.

(그런고장이 정말 있긴있을가?)

사람들은 처음엔 귀가 번쩍 열렸으나 너무도 놀라운 일이여서 잘 믿으려 하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송풍라월》에 대한 소문은 점점 더 희한하게 번져갔다.

한해농사를 지으면 3년을 먹고도 남는다, 학교와 병원이

있는데 거기서는 무료로 공부시켜주고 병나면 돈 안받고 치료해준다는 등 들리는 소식마다 꿈만 같은것이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선뜻 그리로 갈 결심을 내리지 못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을 모르는데도 원인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그 사실여부를 가늠할수 없었기때문이였다.

조선에 있을 때 만주에 대해서도 얼마나 꿈같은 소문이 많이 돌았던가. 그 소문을 듣고 남부녀대하고 두만강을 건는 사람들의 신세가 과연 어떻게 되였는가.

말은 보태고 떡은 뗀다고 그 어떤 사람이 하도 궁색한 살림이여서 잘 사는 공상이라도 해보려고 한마디 지어낸 말이 자꾸 붙고 다듬어져서 이런 소문을 만들어낸게 아닐가 하는 의심이 좀처럼 가셔지지 않았다.

게다가 얼마후에는 께름직한 소문까지 들려왔다.

많은 사람들이 《송풍라월》이라는 고장이 정말 있는지 또 소문처럼 그렇게도 살기좋은 고장인지 제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고싶어 모르는 길을 물어가며 찾아떠나갔다는데 가보고 오겠다던 사람들이 그 누구도 아직 돌아온이가 없다는것이다.

쑥골에서도 세사람이나 찾아 떠났다. 메밀골에서도 두사람, 절골에서는 다섯사람이나 떠났으나 석달이 되여오도록 아직 종무소식이라는것이였다.

가는족족 돌아오지는 않고 무소식이니 함흥차사란 말까지 돌았다.

서울에 있는 왕이 옥새(왕의 도장)를 가지고 함흥본궁에 돌아가있는 태상왕(왕위를 물려주고 나앉은 왕) 리성계에게 연거퍼 차사를 보냈으나 리성계는 한명도

만나보지 않고 활로 쏘아죽여버렸기때문에 살아돌아오는 사람이 없어 그때부터 가기만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두고 함흥차사라고 일러왔으니 그렇게 말할만도 할 일이였다.

수동은 생각이 많았다.

(어떻게 할것인가. 소문을 따라 찾아떠난다?)

쉽게 결심이 내려지지 않았다.

가족들을 데리고 길도 모르는 고장을 소문만 듣고 무턱대고 찾아갈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온 가족은 뒤두고 자기만 먼저 가보고오자고 해도 그럴 용단이 없었다.

지난해에 온 가족이 뿔뿔이 헤여져 한겨울을 날 때 얼마나 처자들이 그리웠던가! 그때 그는 굶어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는 가족과 생리별을 하지 않으리라 결심하였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수동은 마음속으로 방아만 찧었다.

그러다가 드디여 결심을 내린것이 제혼자 먼저 《송풍라월》에 가보고 인차 돌아오리라는것이였다.

마을사람들에게 생각을 비치자 모두 그게 좋겠다고 하였다.

그들은 수동이가 갔다가 오는동안 가족을 잘 돌봐줄터이니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그를 적극 떠밀었다. 그들이 이러는데는 이웃간의 정도 있겠지만 수동이가 돌아오면 《송풍라월》에 대한 사실여부도 알것이요 또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기들도 함께 가서 살겠다는 생각이 있었기때문이였다.

수동이는 마을사람들의 바래움을 받으며 어느날 아침 집을 떠났다.

송화강상류 백두산밑이라니 할바령산줄기를 타고 무작정

남쪽으로 향했다.

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송풍라월》로 가는 길을 물으니 딱히 어데인지는 모르고있었으나 살기좋다는 그 고장에 대한 소문은 누구나 다 알고있었다.

수동이는 산을 넘고 강을 건느고 마을들을 지나 걷고 또 걸었다.

떠난지 사흘만에 어느덧 장백산줄기에 접어들었고 닷새만에는 백두산에서 흘러내리는 송화강상류에 이르게 되였다.

인적도 없는 고장이라 누구에게 길을 물어볼 사람도 없었다.

들리느니 새소리, 물소리요, 나무가지에 바람스치는 소리이니 답답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수동이는 분비나무밑에 앉아 다리쉼을 하다가 그만 소르시 잠이 들어버렸다.

얼마쯤 잤을가. 누가 자기를 흔들어 깨우는바람에 눈을 떠보니 어스름이 깃들었는데 청의동자, 홍의동자 둘이 자기를 내려다보고있었다.

《여기가 어디냐?》

수동이가 놀란 눈을 해가지고 물으니 그저 방실방실 웃기만하는 두 동자중 먼저 청의동자가 입을 열고 《어서 일어나세요. 여긴 송풍라월이라는 고장이예요.》라고 말했다.

그 목소리는 실로 옥소반에 은방울 굴리는 소리였다.

《송풍라월?!》

얼마나 그리고 동경하던곳이냐! 그는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싱그러운 솔바람이 이마를 스치고 밝은 달이 누리에 은실금실을 내리드리우고있어 말그대로 월궁세계였다.

《저리로 가십시다.》

이번엔 홍의동자가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 또한 귀를 간지럽혔다.

수동이는 두 동자를 따라 숲속에 있는 어느 한 집으로 들어갔다.

그는 여기서 목욕을 한 다음 새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값진 음식으로 푸짐히 대접받았다.

낟알을 언제 입에 대보았는지 생각도 까마득한지라 그는 잠간새에 그릇들을 비웠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배불리 먹고나니 《송풍라월》의 경치는 더 황홀하게 보였다.

나무마다 향기풍기는 과일들이 주렁져 달빛에 번쩍거리였고 주렁진 논과 밭에서 황금이삭들이 바람에 와실렁거리는 소리가 귀를 적시니 부지중 이것은 분명 인간세상이 아니고 선경이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꿈이냐, 생시냐, 아서라, 꿈이면 어떻고 생시면 어떠랴. 꿈이라도 이런 꿈이라면 열백번 꾸고싶었고 영원히 깨여나고 싶지 않았다.

한잠 자고 아침에 깨여보니 모든것이 사실인지라 수동은 온몸이 둥둥 뜨는것 같은 기분에 잠겼다.

만나는 사람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 넘치고 대하는품이 친절하고 례의범절 또한 밝으니 난생처음 자기도 사람이라는 자각을 가지게 했다.

노래소리, 웃음소리는 산천에 넘치고 서로 도와주고 위해주지 못해 안타까와하는 이 사람들이 분명 인간세상, 하계의 사람이 맞을가 하는 의심까지 들었다.

이곳은 산수가 더없이 수려하고 인심이 후하여 산천은 재부와 인정으로 가득차있고 음식맛 역시 별맛인 별유천지였다. 그러니 백두산천지에 내린 아흔아홉선녀가 이곳에 찾아온다는 말이 조금도 거짓이 아닐상싶었다.

산천의 그윽한 향기에 취하고 절승한 경치에 취하고 후더운 인정에 취한 그는 기쁨에 겨워서 마침내 자리를 차고 일어나 훨훨 춤을 추었다.

그러다나니 수동이는 두고온 가족과 떠나온 마을에 대해 까맣게 잊고있었다.

한편 마을에서는 수동이를 확실히 잘못된 사람이라고 여기고있었다.

한달안으로 반드시 돌아오겠다던 사람이 석달이 지나도 소식 한장 없으니 아무리 무슨 일이 있기로서니 이렇게 오래 지체하랴싶어 기다리기를 단념하기에 이르렀다.

가족들은 제사지낼 차비를 하였다.

《함흥차사라더니 정말 가는 사람마다 돌아오지 못하는구나. 송풍라월이란 헛소문이 분명하다. 모두 괜히 마음이 들떠 그러지 말고 생업에나 분투해라.》

마을의 좌상로인이 자손들에게 하는 말이였다.

그러느라니 세월은 흘러 어느덧 수동이 집을 떠난지 꼭 석달열흘, 백날째 되는 날이였다.

이날 저세상사람이 된줄 알고있던 수동이가 희색이 만면해서 마을에 돌아왔다.

《아니, 이게 누구요? 당신이 맞긴 맞소?》

안해는 너무 기뻐 더 말을 못하고 돌아서서 쿨쩍쿨쩍 눈물을 흘리였다.

다 큰 자식들도 아버지를 붙안고 빙글빙글 돌아갔다.

《어떻게 된 연고인지 말이나 좀 하게.》

좌상로인이 토방에 앉아 장죽에 써레기담배를 다져넣으며 말했다.

수동이는 그동안 있은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말했다. 마을사람들은 옛말을 듣듯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

《송풍라월》에서 세월이 가는지 오는지 모르고있던 수동은 어느 참외밭에서 꿀처럼 단 참외를 먹으며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그들이 모두 자기처럼 소문을 듣고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들은 《송풍라월》이 하도 좋아 마을에 돌아가 여기 소식을 알려주는것도 영 잊어버리고있었다.

그들을 보니 수동이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두고온 처자들과 마을사람들이 생각났던것이다.

수동이는 그 사람들에게 마을에서 부모처자들이 애타게 기다리고있으니 어서 돌아가라고 이르고는 자기도 부랴부랴 《송풍라월》을 떠나 집으로 향했다.

돌아올 때의 걸음은 얼마나 가볍고 빠른지 사흘도 안걸리여 마을에까지 와닿았다. …

《여러분들, 모두 마을을 떠나 <송풍라월>로 가십시다. 오늘중으로 당장 떠납시다.》

수동이는 마을사람들을 향해 큰 목소리로 웨치듯 말했다.

《그렇게 합세. 우리모두 떠나자구. 사람이 사람대접을 받는다는 <송풍라월>로 가세. 거기가 지상천국이 분명할시.》

좌상로인이 이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흥분에 들뜬 마을사람들은 모두 제 집으로 바삐들 돌아갔다.

빨리 《송풍라월》로 갈 준비를 하려는것이였다.

그날 오후 백수동이의 뒤를 따라 마을사람들은 모두 《송풍라월》로 찾아떠났다.

그들은 모두 거기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구술자는 여기에 덧붙이기를 그 《송풍라월》에는 네모방정한 소나무밭이 많은데 그 나무들이 울릉도의 소나무와 신통히도 같을뿐아니라 가로세로 줄을 맞추어 자라고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일부러 조림한것이 아닌가?

거기서 울릉도는 수천리인데 어떻게 되여 그곳의것과 같은 소나무가 자라고있을가?

사람들은 울릉도의 소나무를 떠왔다고들 하는데 그것은 《송풍라월》을 더욱 신비하게 여긴데로부터 나온 말일것이다.

여하간 당시 **김일성**장군님께서 창설하신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 대한 인민들의 동경의 마음이 이 《송풍라월》과 같은 전설을 만들었던것이다.

장군님을 찾아가는 청년들

천만군사를 거느리시고 하늘에서 백두산에 내리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왜적들을 이 땅에서 몰아낼 방략을 이미 다 짜놓고계신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던 그무렵이였다.

뜻있는 사람들은 백두산으로, 만주로 그이를 찾아 구름처럼 밀려갔다.

그러나 천하대장수이신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다.

죽음이 골목마다 지켜서있었고 해빛도 스며들지 않는 깊은 수림속에서 향방을 잃고 헤매이는 미궁과도 같은 심연의 나락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전설가운데는 백두산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아래의 전설도 바로 그런 류에 속하는것이다.

오늘 연길시는 조선인자치주정부의 소재지이며 100여만의 인구를 가진 아름다운 도시이다.

지금으로부터 100여년전에만 하여도 이곳은 지달별 한복판에 위치한 습기차고 황막한 지대였다.

연길시주변을 흐르는 조양하강변에만 약간의 방목민들이

살고있을뿐이였다.

그후 조선에서 이주해간 농민들이 황무지를 개간하고 조양하의 물을 끌어들여 논을 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이곳 강역에는 같은 처지의 조중인민들이 모여살기 시작했고 점차 작은 거리가 형성되였다.

그러나 착취자들은 제힘으로 논밭을 일구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보려는 농민들을 그대로 두려하지 않았다.

세무국이 나타나 그들이 일궈놓은 논밭은 지주와 군벌들의 소유로 만들었고 농민들은 다시금 관헌들의 행패와 과중한 착취에 허덕이게 되였다.

1930년대초 이 지방에 거주한 조선사람 거의가 다 소작농과 고용농으로서 일제와 동북군벌 및 봉건지주들의 2중3중의 착취를 받았다. 그들은 년평균 50프로이상의 소작료와 15프로이상의 공과금을 부담하였다. 또한 《치안비》라는 명목으로 년수입의 근 10프로를 징발당하였고 혹심한 고리대착취를 당하였다.

당시 연길현내에는 농민뿐만아니라 8도구광산, 로도구탄광, 천보산광산 등과 연길, 룡정, 명월구(당시는 연길현에 속했다.) 등지에 있는 중소철공소와 목재공장 등에서 일하는 많은 로동자들도 살고있었다.

농민들도 그러했지만 로동자들의 생활처지는 더할나위없이 비참하였다.

8도구광산에는 길주태생인 허아무개라는 청년이 있었다. 그는 남달리 정의감이 강하고 힘이 세고 용감하였다. 원래는 농사군이였는데 만주가 살기좋다고 하여 이곳에 왔으나 땅한뙈기 얻을수 없어 그는 할수없이 광산로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그런데 8도구광산경영주는 최저임금조차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악착한 착취방법을 고안해냈다.

그것은 《모작금점(협동)》이라는 허울좋은 구실하에 일한 것을 장부에 적어만 두고는 돈을 주지 않고 금맥이 발견될때까지 계속 일을 시키는것이였다. 그러다가 혹 금이 나오면 마치 지주가 소작료를 받아가듯이 3분의 2이상이나 《분철》이라고 빼앗고 그외에 《광구세》, 《도구세》, 《자력변(자본에 대한 리자)》 등을 빼앗고 말그대로 거의 빈 봉투만 주었다.

게다가 안전시설이 없어 락반사고와 굴이 무너지는 등으로 매일과 같이 희생자가 났다. 그래서 로동자들은 굴속으로 일하러 들어가는것을 《사지구뎅이》로 들어간다고 했고 새벽밥을 먹으면서 《사자밥》을 먹는다고 했다고 한다.

체구가 억대우같던 허아무개청년은 점점 허약해져 나중에는 앓아눕게까지 되였다.

그가 일하던 굴에는 원래 빚을 지고 끌려온 로동자가 370여명 있었는데 한달후에는 불과 30명밖에 남지 않았다. 그가운데는 길주에서 온 이 허가성의 젊은이도 있었다. 광산주들은 로동자들이 죽으면 아무데나 끌어내다 버렸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하늘이 도왔는지 아니면 왜놈들을 복수하지 않고서는 죽을수가 없었던지 허아무개청년은 갑자기 건강이 회복되고 다시 끌끌한 젊은이로 되였다.

가혹한 탄압과 착취는 필연적으로 일제에 대한 반발심을 야기시키지 않을수 없었다.

허아무개청년을 비롯한 광산로동자들은 반일회회원이 되여

왜놈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나섰다.

그러던 어느날부터인가 8도구광산에 **김일성**장군님께서 항일유격대를 조직하고계신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소문은 허아무개청년의 가슴에 불을 달아놓았다.

그는 같이 일하는 젊은이들가운데서 뜻이 통하는 10여명의 사람들을 골라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갈 작정을 하고 함께 길을 떠났다.

골짜기를 내려 왼쪽으로 뻗어간 연길—안도간의 도로를 타고 8도구거리에 들어선 그들은 높고 날카로운 남산기슭에 접어들었다.

남산봉우리에서 5리밖에 안되는 8도구거리와 그앞을 굽이쳐흐르는 조양하의 물소리를 들으며 그들은 안도쪽으로 향했다.

그들의 희망은 한껏 부풀었다. **김일성**장군님의 부하가 되여 그이의 슬하에서 왜놈들을 마음껏 요정내고싶은 마음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그들은 개암나무와 자작나무가 우거진 숲속을 헤쳐가다가 안도에서 그만 반일부대에 체포되고말았다.

당시 중국인반일부대들은 일제의 반동선전과 민족리간책동에 넘어가 조선사람들을 덮어놓고 적대시하였으며 조선공산주의자들을 함부로 살해하였다.

반일부대두령은 허아무개청년과 같이 온 젊은이들을 모두 왜놈의 주구라고 하면서 감옥에 가두었다.

감방에 들어가니 그안에는 70~80명의 사람들이 갇혀있었는데 그들도 모두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다가 잡힌 조선청년들이였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이제 100명을 채우면 모두 끌어내여 총살한다는것이였다.

참으로 원통하였다.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 그이를 따라 애국성업에 몸바치려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하루에 한개씩밖에 안주는 강냉떡마저 목에 넘어가지 않았다.

김일성장군님을 한번만이라도 만나뵙고 죽는다면 원이 없을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속 기원일뿐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감옥에서 탈출할수가 없었다.

어느날밤, 허아무개청년은 꿈에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뵈웠다.

흰수염을 가슴노리에까지 내리드리운 백전로장의 당당한 위풍이 풍기는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두팔을 벌리고 그를 어서 오라고 부르시는것이였다. 허둥지둥 달려가다가 나무밑둥에 걸채여 번쩍 눈을 뜨니 꿈이였다. 꿈을 꾸고나니 참으로 아쉬웠다.

이제 날이 밝으면 그들은 모두 끌려가 사형을 당할것이였다. 바로 그전날 또 20여명의 조선사람이 잡혀와 이젠 모두 100명이 되였던것이다.

모두가 어쩌지 못하고 이제나저제나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다.

푸름푸름 새날이 밝아왔다.

세상에 태여나 마지막으로 맞는 새벽이였다.

《장군님! 저희들은 장군님을 찾아가다가 이렇게 값없는 죽음을 당합니다.》

허아무개청년은 밝아오는 창밖을 내다보며 이렇게 중얼거

렸다.

이때였다. 밖에서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다.

(부위데기들이 우리를 죽이러 오는구나.)

모두 이렇게 생각하고있는데 감방문이 벌컥 열리였다.

새벽빛을 등지고선 사람은 부위데기(반일부대)가 아니라 풍채가 름름한 젊은분이였다.

모두 영문을 몰라 자리에서 움쭉 일어서며 그분을 바라보았다.

《어서 나오시오. 내가 **김일성**이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소!》

《예?!》

감방안의 사람들은 처음엔 자기들의 귀를 의심했다. 혹시 꿈을 꾸는게 아닐가, 분명히 생시일진대 이런 기적도 있단말인가.

그들은 서로 붙들고 눈물을 흘렸다.

《장군님!》

《장군님!》

모두 땅에 꿇어엎디여 큰절을 드렸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어서 같이 가자고 하시면서 그들을 한사람한사람 붙들어 일으켜세우시였다.

감방문을 나서니 이상하게도 부위데기들이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멍하니 서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따라가는 조선사람들을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있었다.

그리하여 허아무개청년을 비롯한 100여명의 조선사람들은 죽음에서 구원되여 위대한 장군님의 슬하에서 싸우는 유격대원이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사경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는지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부위데기들이 그이앞에서 모두 돌부처가 되여버린것이 또한 놀라왔다.

사람들은 그저 《**김일성**장군님은 사경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늘이 낸 위인이시다.》고 칭송하여마지 않을뿐이였다.

이 전설과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도에 계신다는 말을 듣고 화룡의 청년들 여럿이 그이를 찾아가다가 국민당 패잔병들에게 붙잡힌적이 있었다고 한다. 놈들은 조선사람들을 붙잡아서는 다짜고짜로 쏘아죽이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찾아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워보자고 하였는데 이렇게 체포되여 갇히였으니 참으로 억울하기 그지없었다.

그 다음날 이른새벽이였다. 갑자기 감방안에 뽀얀 안개가 서리더니 문이 열리면서 오매에도 그리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타나시였다.

그이께서는 문을 열고 들어서시며 《어서 나를 따라 오시오.》라고 하시였다.

모두 **김일성**장군님을 따라 산으로 들어갔는데 그후 그들은 훌륭한 군사가 되여 왜놈들과 잘 싸웠다고 한다.

이런 류의 이야기는 지금도 간도지방에서 많이 전해지고 있다.

땅속에서 나온 무기

항일유격대가 갓 창건된 다음 무기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던 때에 있은 일이다.

백두산동북부 왕청현의 어느 한 골안에는 왜놈수비대가 주둔하고있었다.

어느날 새로 부임한 수비대장 히로이 이즈메는 상급으로부터 왕청현의 대감자에 가서 독립군들이 땅에 묻은 무기와 탄알을 파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무기인즉 1921년 6월 이른바 《자유시참변》이라고 부르는 흑하사변과 간도사건으로 하여 쇠퇴몰락한 적지 않은 독립군부대들이 더는 싸움을 계속할수 없게 되자 땅에 파묻고간것이였다.

왜놈들은 밀정들을 통해 이것을 냄새맡고 히로이의 수비대에 명령을 내린것이였다.

부임되여 처음으로 받은 명령이라 한번 본때있게 해볼 결심으로 히로이는 자기가 직접 부대를 이끌고 대감자로 갔다.

현대적인 지뢰탐지기까지 가지고 간 왜놈들은 험준한 대감자의 산과 골짜기를 모조리 훑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놈들은 무기는커녕 탄알 한발 발견하지 못하였다.

천막을 치고 숙영을 하면서 무기를 찾는지도 어언 한달이 지나갔다.

악에 받친 수비대장은 졸병들을 닦아세웠다.

《머저리같은놈들, 여기 대감자의 수림속에는 수백정의 무기와 수만발의 탄알 그리고 많은 수류탄이 파묻혀있다. 헌데 탄알 한발 찾아내지 못하는가? 찾아내지 못하면 몽땅 총살이다.》

히로이가 얼마나 악착하게 몰아댔던지 졸병들속에서는 별의별 해괴한 일들이 다 생겼다.

나무로 화승대를 깎아서 거기에 시꺼먼 칠을 해가지고 오는놈이 있는가 하면 어떤놈은 제 탄창의 탄알을 뽑아 바치기도 했고 지어는 남의 총을 훔쳐다가 흙을 묻혀가지고 오는자도 있었다.

수비대놈들은 저희들끼리 무기도적질을 하고 싸움질을 하느라고 날마다 소란을 피웠다. 서로 칼로 찌르고 총질까지 해대는바람에 숱한 사상자까지 나게 되였다.

히로이는 할수없이 석달만에 대감자에서 졸병들을 철수시키고말았다.

수비대장은 상부에 올라가 썩어지게 욕을 먹었으나 어쩌는수가 없었다.

땅속에 없는 무기와 탄알을 어떻게 파낸단말인가.

그로부터 세월은 흘러 여러해가 지나갔다.

항일유격대를 갓 조직하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대원들을 거느리시고 대감자에 나타나시였다.

유격대에서 무엇보다도 급선무로 요구되는것은 무기였다. 날로 확대되는 유격부대들에 무기를 보장해주기 위해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감자에 오신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시여 산천경개를 부감하시며 지형을 살피시였다.

그러시더니 손을 들어 가리키시며 대원들에게 말씀하시였다.

《저기 저 바위아래를 파보시오. 그리고 저쪽 봇나무밑과 개암나무숲가운데도 파시오.》

대원들은 여러조로 갈라져 그이께서 가리키시는곳으로 달려가 땅을 파기 시작하였다.

쿵쿵 땅을 파는 소리가 골안을 울리였다.

한참만에 제일먼저 봇나무밑에서 땅을 파던 대원들이 소리쳤다.

《무기가 있다!—》

이윽고 금속 부딪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땅속에서 수십정의 장총과 권총들을 꺼내였다.

이번엔 또 저쪽 바위밑에서 땅을 파던 대원들이 소리쳤다.

《탄알이다!—》

그들은 탄알을 수십상자나 파내였다.

유격대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적해주시는곳마다 땅을 파군하였는데 거기에는 틀림없이 무기와 탄알이 묻혀있었다.

그들은 하루동안에 수백정의 무기와 수만발의 탄알을 파내였다.

그런데 왜놈들이 어떻게 이것을 알고 유격대원들을 포위하고 살금살금 포위환을 좁혀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수비대장 히로이 이즈메가 두목이 되였다.

정보를 받은 수비대장은 갓 부임되여왔을 때 당했던 수치를 생각하며 이를 사려물고 발악적으로 달려들었다.

히로이는 **김일성**장군유격대가 대감자에서 무기와 탄알을 파낸다는 정보를 받았을 때 처음엔 전혀 믿지 않았었다.

여러 밀정한테서 같은 정보를 받고서야 드디여 부대를 은밀히 출동시켰는데 그러고서도 제눈으로 보지 못한지라 잘 믿어지지 않았다.

몰래 대감자의 봉우리에 올라선 히로이는 골짜기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깜짝 놀랐다. 골짜기의 여기저기에 무기와 탄약상자들이 더미로 쌓여있는데 유격대원들은 땅속에서 연방 꺼내고 있었다.

히로이는 눈을 뻔히 뜨고 보면서도 믿지 못했다.

그래 눈을 몇번이나 비비고 다시 내려다보았다. 분명히 총이요, 탄알이였다.

히로이가 제눈을 의심하며 산골짜기를 내려다보고있는데 갑자기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울리였다.

《저기 피나무밑을 파시오. 동무들은 저 바위동굴속에 들어가 그안을 파시오.》

위대한 장군님께서 또다시 령을 내리시는것이였다.

수비대장은 뢰성같은 목소리에 주눅이 들어 허리도 펴지 못했다.

유격대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대로 피나무밑을 파제끼고 또 무기와 탄알을 감자캐듯하였다.

히로이는 얼이 나가 멍하니 앉아서 눈만 꺼벅거리고있었다.

유격대원들이 무기를 파내는곳은 모두 히로이가 몇년전에 졸병들을 끌고와서 파보았던곳이였다.

하긴 그때 대감자의 산봉우리와 골짜기의 그 어디엔들 파

보지 않은곳이 있었던가.

히로이는 어리석게도 유격대원들이 파낸 무기와 탄알을 모두 빼앗아 처음 부임되여왔을 때 잃었던 체면을 다시 세우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는 졸병들을 내몰았다.

《돌격! 돌격하라!》

그런데 졸병들은 바위로 굳어졌는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움직이질 않았다.

《돌격! 돌격! 움직이지 않으면 쏜다.》

그래도 졸병들은 무가내로 떡 버티고 서있었다.

한참 혼자서 고함을 치다가 얼결에 하늘을 쳐다본 히로이는 깜짝 놀랐다.

하늘로는 유격대원들이 어느새 무기와 탄약상자들을 구름우에 싣고 훨훨 날아가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탄약상자우에 앉으시여 태연한 자세로 땅아래를 굽어보고계시였다.

수비대장은 닭쫓던 개 먼산 바라보듯 멍하니 서있었다.

히로이도 돌로 굳어진것이였다.

5 리 장 검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이 출중한 장수가 나면 보검도 같이 생긴다고 하였다.

장수들이 쓰는 장검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룡천검이나 설악검도 그중의 하나이다.

이 장검들이 신비스러운것은 더 말할것도 없다.

오래동안 대대로 살아오면서 사람들은 룡천검이나 설악검 등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지만 5리장검에 대해서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다.

백두산에 장수별로 높이 솟아오르신 천출명장 **김일성**장군님께서 왜적을 무리로 쓸어눕히실 때 항간에서는 누가 먼저 시작하였는지는 알수 없으나 5리장검에 대한 이야기가 날개돋힌듯 짜하게 퍼져갔다.

백두산에서 흘러내리는 두만강기슭에 자리잡은 어느 한 마을에 강씨성을 가진 사람이 숯구이를 하며 살고있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는 애국명장으로 이름난 강감찬장군의 후손이라고 하였다.

날씨도 유난스러운 어느 봄날이였다.

지게를 걸머지고 산에 오른 그는 한창 나무를 찍어넘기고

있었다.

그때 우수수 바람이 불어오더니 곧 하늘에 먹장구름이 짝 뒤덮이기 시작하였다.

도끼질에 정신이 팔렸던 그는 금방 대줄기같은 비가 쏟아질것만 같은 하늘을 쳐다보고나서 황황히 얼마 안되는 나무를 지게에 올려놓고 산을 내리기 시작하였다.

비맞을 걱정보다도 금방 해산을 앞두고 집에 혼자 누워있는 안해가 걱정되였던것이다.

허청허청 집으로 장달음을 놓던 그는 집가까이에 이르자 그만 뚝 걸음을 멈추고 장승처럼 서서 두눈을 치떴다.

온 천지가 구름에 뒤덮여 어둑컴컴한데 이상하게도 자기 집에만은 한줄기 밝은 해빛이 찬란히 비치고있는것이 아닌가.

그는 다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온 하늘을 짝 뒤덮은 구름장 한가운데 샘구멍처럼 자그마한 구멍이 뚫어져 그리로 해빛이 쏟아져내리고있었다.

(이게 무슨 조화인가.)

그는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혀 지게를 벗어던지고 집으로 달려갔다.

그가 막 집으로 들어서는데 방안에서 《응아!》하고 고고성이 터졌다.

그 소리를 듣자 가슴이 후드득거리고 눈굽이 찡해왔다.

(아이를 낳았구나. 딸일가, 아들일가?)

방에 들어가보니 안해곁에 아들애가 누워 기운차게 울어대고있었다.

그 아들애는 보기에도 벌써 보통애와 달랐다.

다른 애들보다 팔다리가 곱이나 되게 실하였고 주먹도 대

여섯살난 아이것만큼 컸다.

(이애가 커서 장차 장수가 될 모양이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아들애의 이름을 억동이라고 달았다.

그의 생각은 틀림없었다.

한달이 지나자 아들애는 벌써 걸음을 떼기 시작하였고 석달이 지나서는 밥을 먹기 시작하였는데 그 량이 자그만치 하루에 두되가 넘었다.

억동이는 하루가 다르게 우쑥우쑥 컸는데 서너살이 되자 열대여섯살난 아이들만큼 컸다.

억동이는 기골이 장대할뿐아니라 기운도 엄청나게 세서 동네사람들을 놀래웠다.

한번은 마을 한복판에 있는 삼백근짜리 연자돌이 축이 부러지면서 땅바닥에 굴러떨어진적이 있었다.

연자돌을 다시 올려놓으려고 장정 여럿이 달라붙어 끙끙 힘을 쓰고있을 때였다.

마침 그곁을 지나던 억동이가 팔을 쑥쑥 걷고 나서더니 혼자서 그 삼백근짜리 연자돌을 넝큼 들어올려놓는것이였다.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소문은 어느새 이웃마을에까지 널리 퍼져 주재소 왜놈순사놈들의 귀에도 들어갔다.

조선을 집어삼킨 다음 장수가 나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서 정기있는 산꼭대기마다 쇠말뚝을 박으며 지랄을 치던 왜놈들이였으니 이 소문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는가.

왜놈들은 즉시 이 사실을 본국에 알리는 한편 그를 없애버릴 흉계를 꾸미였다.

다행히 주재소에서 급사노릇을 하는 아이가 제때에 눈치채

고 알려주어 억동이네는 깊은 산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산속으로 몸을 피한 억동이는 사무친 원한을 풀길없어 당장 주재소로 내려가 왜놈들을 요정내겠다고 윽윽 별렀다.

《애야, 원한풀이를 할 생각으로치면 나도 너보다 못하지 않다. 허나 맨주먹으로 총칼가진놈들과 맞선다는건 부질없는 짓이다. 그러니 때를 기다리거라.》

아버지의 말에 억동이는 할수없이 마음을 눅잦히였다.

몇해가 지난 어느날이였다.

백두산쪽에 있는 처서판에 돈벌이를 떠났던 한 처서군이 급히 억동이를 찾아왔다.

《웬일로 이리 급하게 찾아오셨소?》

영문을 몰라 묻는 말에 처서군은 대바람 억동이의 손을 덥석 붙잡고 말하였다.

《옛날부터 장수가 나면 신비한 장검이 생긴다고 하지 않았나? 이번 걸음에 백두산에 들어갔다가 아주 희한한 장검을 봤네. 혹시 임자가 쓸 장검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급히 온걸세.》

처서군은 그동안 몰라보게 기골이 장대하고 우람해진 억동이의 아래우를 살펴보고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아 글쎄 한 바위옆을 지나는데 그 바위우에 어마어마하게 큰 장검이 푹 꽂혀있지 않겠나. 나도 기운깨나 쓰는놈이라 호기심이 나서 그 장검을 뽑으려고 갖은 애를 다 써봤지만 끄떡도 안하더란말일세.

문득 임자 생각이 나길래 부랴부랴 찾아왔네. 어서 가세. 장수가 나면 신기한 장검이 난다고 했으니 그게 바로 임자를 위해 생겨난게 틀림없네.》

처서군의 말을 다 듣고난 억동이는 아버지와 상론한 다음

곧 차비를 하고 길을 떠났다.

사흘만에 그들은 장검이 꽂혀있는 바위에 이르렀다.

바위에 깊숙이 박힌 엄청나게 큰 장검의 손잡이가 멀리서도 보였다.

억동이는 잠시 숨을 돌리고나서 바위우에 뛰여올랐다.

장검의 손잡이를 두손으로 꽉 틀어쥔 억동이는 우쩍 힘을 쓰며 잡아당겼다.

그런데 어찌나 깊이 박혔는지 장검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다시 기운을 모아 있는 힘을 다 써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 장검은 제가 쓸 장검이 아닙니다.》

억동이는 손을 털고 나앉으며 처서군을 돌아보았다.

처서군도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들은 발길을 돌렸다.

얼마쯤 걸어내려오던 그들은 깜짝 놀랐다.

숱한 왜놈들이 총칼을 번뜩이며 사방에서 조여들고있지 않는가.

억동이와 처서군은 몸을 피할데가 없는가 사방을 휘둘러보았다.

놈들은 벌써 개미 한마리 얼씬하지 못하게 열겹으로 포위하고 조여들고있었다.

그들은 창졸간에 당하는 일이라 눈앞이 캄캄하였다.

이제는 피값이라도 하고 죽을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멀리 청청하늘에서 오호홍! 룡마울음소리가 울리였다.

소리나는쪽을 바라보니 날개돋힌 룡마우에 한 젊은 장수가 앉아 곧바로 장검이 꽂혀있는 바위로 날아내려왔다.

바위에 이른 젊은 장수는 허리를 굽혀 장검의 손잡이를 쥐더니 쑥 잡아뽑았다.

그렇게도 뽑히지 않던 장검이 깃털처럼 가볍게 뽑혀나왔다.

젊은 장수는 그 장검을 허공중에 한번 번쩍 휘두르더니 왜놈들을 향해 맹호같이 돌진하였다.

그러자 한번 칼질에 수십놈의 모가지가 단번에 뎅경뎅경 날아났다.

더우기 신비한것은 장검을 휘두를 때마다 5리는 실히 될 산아래쪽에서 게바라오르던 놈들의 모가지까지 뎅경 날아나는것이였다.

길지 않은 장검을 휘두를 때마다 5리나 되게 늘어나는것이였다.

억동이와 처서군은 너무도 희한하여 입을 딱 벌렸다.

혼이 빠진 왜놈들은 정신없이 달아빼기 시작하였다.

젊은 장수는 다시 그 5리장검으로 이번에는 바위벼랑을 힘껏 내리쳤다.

쩡! 쾌르릉! 하고 우뢰와 같은 소리가 나더니 바위가 부서져 와르르 무너져내리면서 돌들이 새처럼 윙윙 날아갔다.

돌들은 눈이라도 달린것처럼 하나도 빗나감이 없이 왜놈들한테로 곧바로 날아가 골통을 깠다.

눈깜박할사이에 숱한 왜놈들을 쓸어눕힌 젊은 장수는 5리장검을 다시 바위에 푹 꽂아놓는것이였다.

5리장검으로 왜놈들을 순식간에 요정내는 모습을 지켜보고있던 억동이와 처서군은 눈이 휘둥그래서 황황히 젊은 장수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백두산대장수님, 미련하고 무엄한 저희들을 용서해주십시오.

백두산대장수님이 쓰시는 장검인줄 모르고 함부로 손을 대였으니 그 죄가 실로 죽어 마땅하옵니다.》

젊은 장수는 룡마우에서 내려 서둘러 그들을 일으켜세우더니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아, 이러지들 마십시오. 나는 백두산대장수가 아니라 그이의 부하장수입니다.》

억동이는 그 젊은 장수의 름름한 모습을 쳐다보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나도 백두산대장수의 부하장수가 되여 5리장검으로 왜놈들을 마음껏 족치고싶습니다.》

젊은 장수는 억동이와 처서군을 번갈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 청을 백두산대장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5리장검은 백두산대장수님께서 쓰시는 장검입니다.

그런데 백두산대장수님께서 우리 부하들도 저 5리장검을 능히 쓸수 있도록 술법을 배워주시고 힘을 키워주시여 이제는 누구나 쓸수 있게 되였습니다.

여기 좀 기다리십시오. 제가 인차 갔다오겠습니다.》

젊은 장수는 이런 말을 남기고 룡마를 타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억동이와 처서군은 젊은 장수를 기다리며 안절부절못하였다.

백두산대장수님께서 변변치 않은 자기들을 부하장수로 받아주시겠는가 하는 위구심때문이였다.

잠시후 젊은 장수는 룡마를 타고 다시 나타났다.

《백두산대장수님께서 당신들의 청을 쾌히 받아주셨습니다.》

억동이와 처서군은 너무 감격하여 백두산을 우러러 큰절을 하였다.

그후 억동이와 처서군은 백두산대장수의 부하장수가 되였는데 술법과 힘을 키우는 조련을 끝마치고 소원대로 5리장검을 쓰며 왜놈들을 쑥대베듯 쓸어눕혔다고 한다.

이상한 노을

노을에 대한 이야기는 해방전 간도지방에서 많이 돌았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하늘의 노을을 가지고도 조화를 부리신다는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송일대에서 활동하실 때 있은 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마도 남호두회의이후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대오를 이끄시고 국경지대로 향하시던 그때일것이다.

어느날 무송의 깊은 수림속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곳에 밀영을 짓고 거처할 장소를 마련할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밀영이 아담하게 꾸려지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휘관들을 부르시여 각곳에 널려져 활동하고있는 유격대들을 모두 부를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보다 큰 부대로 왜놈들을 족칠 작정이시였다.

그리하여 련락원들이 안도, 림강, 돈화, 장백, 화룡 등 여러 지방으로 파견되여가게 되였다.

각처로 떠나가는 련락원들의 마음은 매우 조급하였다.

먼곳에서 활동하고있는 부대들을 어서 빨리 모이게 하여

왜놈들을 족치고싶었던것이다.

명령을 받은 그들은 수림을 헤치며 잠시도 쉬지 않고 달리고 또 달리였다.

그들중에는 돈화에 있는 유격대를 찾아가는 홍가성을 가진 젊은 대원도 있었다.

백두산에서 뻗어내린 험한 산발들을 넘고넘어 북으로 가는 그는 어찌나 빨리 갔던지 이틀만에 할바령산줄기를 타고 미혼진에 이르게 되였다.

미혼진은 안도현 십기가부근 돈화현과의 경계가 가까운 산림지대에 있는 지명이다.

홍가성을 가진 련락원은 여기서 그만 길을 잃게 되였다.

미혼진은 이름그대로 찾아들어가는 사람이 미혼에 빠져서 어디가 어딘지 방향을 알수 없다 하여 불인 이름인데 옛날부터 사람들은 자주 여기서 길을 헛갈리여 고생을 하였다고 한다.

그렇다고 하여 미혼진은 산세가 험한것은 아니다. 봉우리와 계곡들이 아무 특징이 없이 평범하게 생겨서 저 봉우리가 이 봉우리같고 이 골짜기가 저 골짜기같아서 말그대로 미혼에 빠지는것이다.

언젠가 혁명전적지답사단이 이곳에 갔을 때에도 사흘전에 미혼진회의장소를 확인하고 돌아온 길안내하는 사람이 길을 잃어버려 오래동안 고생을 한적이 있었다고 한다.

바로 여기서 홍가성을 가진 젊은 련락원이 방향을 잃은것이였다.

이 골짜기 저 골짜기로 헤매다나니 시간만 보내고 길은 축나지 않았다. 어느덧 저녁이 되여 수림엔 일찍 어둠이 깃들었다.

어느쪽으로 갈것인가?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덮여있어 별들도 보이지 않았다.

이때였다.

어떻게 할지 몰라 망설이고있는데 저쪽 하늘가에서 갑자기 붉은 노을이 화광처럼 타올라 여러곳으로 뻗치는것이였다.

너무도 신기한 현상에 어안이 벙벙해진 련락원은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때마침 하늘의 구름이 벗겨져 설핏해지더니 그사이로 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련락원은 별을 올려다보며 방향을 가늠해보았다. 그랬더니 노을이 비낀쪽은 분명히 자기가 떠나온 무송이였다. 무송에서 비낀 노을의 한가닥은 자기가 찾아가는 돈화쪽을 비쳐주고있었다.

방향을 잃었던 련락원은 그 노을빛을 따라 숲을 헤치며 걷기 시작하였다. 그 노을은 거의 새벽이 되여서야 사위여졌다. 련락원은 그 노을이 어떻게 되여 피여났는지 그것도 사령부가 있는 무송에서 피여난것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었다.

련락원은 한시바삐 돈화에서 활동하는 유격대에 찾아가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걸음을 재촉하였다.

그가 영액령산줄기의 어느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밀림속에서 사람들의 인기척소리가 들려왔다. 얼핏얼핏 숲사이로 걸어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였다.

《엉?》

련락원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바로 그 사람들은 돈화에서 활동하는 유격대원들이였던것이다. 그들중엔 아는 사람도 몇이 있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가!)

련락원은 너무 기뻐서 숲속에서 용수철처럼 뛰쳐나가며 《동무들!―》 하고 소리질렀다.

유격대원들과 련락원은 서로 부둥켜안고 돌아갔다.

무인지경인 이 수림속에서 어떻게 천만다행으로 만났을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신통하였다.

《동무들, 동무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요?》

련락원은 목이 꺽 메여 말을 더듬었다.

《우린 장군님이 부르시는 무송으로 가는 길이요.》

《무송으로?》

련락원은 또 한번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이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르시는것을 알고 제먼저 무송으로 갈가, 누가 먼저 와서 련락을 했을가, 도저히 영문을 알수 없었다.

《내가 장군님의 명령을 받고 동무들을 찾으러 가는데 어떻게 먼저 알고 옵니까?》

련락원의 물음에 유격대중대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어제저녁에 우리는 무송의 하늘에 타오른 저녁노을을 보았소. 그 노을은 밤새껏 스러지지 않고 타올랐는데 그 한가닥이 우리가 있는 수림속에 비껴들었소. 그래서 신기한 이 노을은 장군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길로 떠나오는참이요.》

《예?》

련락원은 노을을 보고 위대한 장군님을 찾아 떠났다는 말에 깜짝 놀랐다. 더우기 비껴오는 노을의 그 가닥을 따라가니 제일 가까운 지름길이 되였다는 말은 너무도 신기하여 옛

말을 듣는것만 같았다.

련락원은 그들과 함께 사령부로 돌아오게 되였다.

돌아오는 길에 다른곳에서 활동하던 유격대원들도 만났는데 그들도 모두 무송에서 타오른 노을을 보고 위대한 수령님을 찾아가는 길이라는것이였다.

무송에 돌아오니 안도, 림강, 화룡, 장백 등 여러곳에서 활동하던 모든 유격대들이 다 모여와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처창즈에서 활동하던 소부대가 제일먼저 찾아왔는데 그들은 노을이 타오르는것을 보자마자 위대한 장군님께서 부르시는것이라면서 그길로 떠났다는것이였다.

홍가성을 가진 련락원은 노을이 타오르게 된 연고를 밀영에 돌아와서야 알게 되였다.

련락원들이 여러곳으로 떠나간 다음날 저녁이였다고 한다.

대원들은 우등불을 피워놓고 그 두리에 모여앉아 학습을 하고 고향이야기도 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등불을 돌아보시며 대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였다.

그러다가 어느 한 우등불가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원들이 하는 이런 말을 듣게 되시였다.

《련락원들이 언제 갔다오겠소. 한 열흘은 걸리겠지.》

《아무렴, 그러잖구. 찾아가는것만도 한주일은 걸릴거요.》

《빨리 와야 힘을 합쳐 왜놈들을 본때있게 족치겠는데…》

이 말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시였다.

그러시다가 손바닥만한 봇나무껍질을 벗겨드시여서 우등불가로 가까이 다가가 그것을 집어던지시는것이였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봇나무껍질이 확 타더니 갑자기 밀영이 대낮처럼 밝아지면서 붉은 노을이 하늘을 가득 덮는것이였다.

노을은 화광처럼 강한 빛으로 누리를 밝히였다.

더욱 이상한것은 그 노을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방금 련락원들을 떠나보낸 그 유격부대들이 있는곳으로 뻗치는것이였다.

유격대원들은 신기한 현상에 놀라 모두 일어서서 노을을 황홀하게 바라보았다.

바로 그 노을빛을 본 유격부대들이 모두 무송으로 찾아왔던것이다.

그리하여 각처에 널려져 활동하던 유격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이 떨어진지 2～3일도 안되여 무송으로 다 모여들게 되였다.

무송으로 모여든 유격대원들은 더 큰 부대를 이루고 왜놈들을 무리로 족쳤다고 한다.

당시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송일대에서 벌리신 전투로는 서강, 로령, 대영, 소탕하, 시난차, 송수진, 무송현성전투 등 실로 많다.

이 전투에서 제일 큰 전투는 무송현성진공전투였는데 여기에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와 만순부대를 비롯한 여러 반일부대들도 참가하였었다.

그후 **김일성**장군님께서는 하늘에 노을을 피워올려 부대들에 신호를 하신다는 소문이 간도지방에 짜하게 퍼지게 되였다고 한다.

유격대원들을 무송으로 모이게 하여 왜놈들을 족쳤다는 이 전설이야기는 아마도 무송현성진공전투를 두고 창조한것 같다.

꽃이 핀 느티나무

일만경치 자랑하는 만경대, 각양각색의 나무들과 기화요초가 한데 어울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만경대엔 나무와 관련한 전설이 적지 않다.

고향집주변만 둘러봐도 뒤뜰안에 정히 매질한 버드나무와 사립문가까이에 있는 들메나무 그리고 느티나무에도 오래전부터 전해져내려오는 전설이 깃들어있다.

그가운데서 느티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에 소개한다.

만경대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시던 해에 김형직선생님께서 옮겨심으신 느티나무가 한그루 있었다.

그런데 그 느티나무는 참으로 신기하였다.

보통 느티나무는 5월에 꽃이 피는것이 상례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나무는 한달이나 앞당겨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4월이면 꽃을 피워 온 마을에 향기를 풍기군하였다.

그 꽃향기도 유별나게 그윽하여 십리밖에서도 맡을수 있다는 소문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이 느티나무를 찾아왔다.

사람들은 그 꽃향기를 맡으면 저절로 마음이 즐거워지군하여 찾아왔다가는 좀처럼 발길을 떼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돌아갔다가는 또다시 찾아오군하여 느티나무밑에는 내내 사람들이 많이 모여 붐비였다고 한다.

망국노의 설음이 가슴속에 서리서리 엉켜 언제 한번 시름이 가셔질 날이 없는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던 사람들은 만경대 느티나무꽃향기를 맡으면 순간이나마 시름을 잊고 즐거움을 느끼군하였다.

느티나무를 찾은 사람들가운데는 멀리 지리산밑에서 온 머리에 상투를 틀고 갓을 쓴 로인과 묘향산에서 왔다고 하는 흰 무명수건을 머리에 맨 젊은이도 있었다.

《이 나무는 과시 신령스러운 나무요!》

《만경대의 정기를 담뿍 안았은즉 범상한 나무일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주고받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광복의 천리길을 떠나실 때 바래주는 조부모님들과 마을사람들에게 하셨다는 말씀을 되새기군하였다.

《제가 보고싶거든 이 느티나무를 보십시오.

느티나무가 푸르싱싱하게 자라면 저도 건강하여 왜놈들과 잘 싸우고있는줄로 알고계십시오.》

사람들은 푸르싱싱하게 자라는 느티나무를 보고 기쁨을 금치 못하군하였다.

그들이 이 나무밑에 모여 백두산대장수 — **김일성**장군님이야기로 꽃을 피울 때면 느티나무는 바람을 불러 가지를 흔들며 솨솨 노래를 불렀고 너울너울 춤을 추었다.

사람들의 눈에선 희망의 불꽃이 튕기고 가슴속엔 마음의 기둥이 든든히 세워졌다.

이런 느티나무가 왜놈들에겐 좋게 보일리가 없었다. 왜놈들은 이 나무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겼다.

이 느티나무가 만경대에 떠옮겨져 스물여섯번째로 움이 트고 꽃이 피던 바로 그해였다.

왜놈들은 《백두산의 호랑이》로 제놈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있는 **김일성**장군님을 힘으로 당해낼 재간이 없게 되자 그 무슨 《골육계》라는 인질전술에 매달려 《귀순공작》을 꾀하였다.

놈들은 만경대의 할머니를 백두산의 험지로 데리고 다니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귀순》시켜보겠다고 어리석게 책동하였다.

그러나 놈들의 이러한 발악은 실패하고말았다.

제놈들의 심복들인 혁명의 변절자들에게 《귀순공작》임무를 주어 들여보냈으나 그들도 역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악에 받친 왜놈들은 100여명의 경찰을 만경대에 들이밀어 이 느티나무가 **김일성**장군님과 맥이 통하는 나무라고 하면서 찍어버리려고 하였다.

그런데 느티나무에 도끼와 톱을 들이대면 우뢰가 울고 지동이 일어 덤벼들수조차 없었다.

놈들은 강제로 총구를 들이대여 졸개들을 내몰아 겨우 나무를 찍어버리고 가지마저 불태워버리게 하였다.

그런데 신통히도 나무를 찍은 놈들이 갑자기 앓아누웠는데 얼마후엔 모두 죽어버렸다는것이였다.

하늘에서는 3일동안 비를 쏟아부었다.

사람들은 그 신령스러운 나무를 찍어버렸으니 하늘이 천벌을 내린것이라고들 하였다.

왜놈들은 느티나무를 잘라버리고도 씨원치 않아 만경대의 지맥을 끊는다면서 긴 쇠장대를 여기저기에 박아놓았다.

그때로부터 느티나무는 그루터기만 남게 되였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가슴아픔을 참을길없어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지었다.

그 이듬해 4월 만경대를 찾은 지리산과 묘향산의 로인과 젊은이는 그루터기만 남은 느티나무를 보고 땅을 치며 울부짖었다.

《악귀같은 왜놈들!》

그들은 이를 부득부득 갈며 왜놈들을 저주하였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을유년의 봄, 꽃이 피는 화창한 4월이 왔다.

그런데 바로 그해의 봄에 참으로 신기한 일이 생겼다.

말라버린 만경대의 느티나무그루터기에 새움이 트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우줄우줄 가지가 뻗치고 잎새마다 꽃이 하얗게 피여났다.

사람들은 하도 신기하여 입을 딱 벌리고 느티나무를 얼없이 바라보았다.

죽었던 나무에 꽃이 피였으니 이해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것이라고 저저마다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이럴 때 이 느티나무꽃향기가 바람에 실려 온 나라에 퍼졌는지 지리산의 갓쓴 로인과 묘향산의 흰 무명수건 두른 젊은이도 만경대로 찾아왔다.

로인과 젊은이는 꽃이 핀 느티나무를 놀란 눈으로 올려다보며 그 두리를 빙빙 돌아갔다.

꽃내에 취한 그들의 가슴속엔 기쁨이 솟구쳐올랐다.

이윽고 갓쓴 로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 이상하다 했네그려. 엊그제 지리산에 올라가니 때이르게 목련화가 폈더란말이요. 그런데 바람타고 몇년만에 처음으로 만경대의 느티나무꽃향기가 실려오지 않겠소. 그래 지금 막 달려오는참이요. 참 기이한 일이요.》

묘향산의 젊은이가 말을 받았다.

《나도 엊그제 묘향산에 올라갔더니 때아니게 정향나무에

꽃망울이 지고 더러는 꽃이 폈더란말입니다. 그래 이상해서 어리둥절해있는데 느티나무꽃내가 풍겨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달려왔더니 죽었던 나무에 꽃이 피였군요. 정말 이것은 하늘의 조화이지 그저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갓을 쓴 로인은 수염을 내리쓸며 의미있게 머리를 끄덕이였다.

《사람에게는 혈맥이 있고 땅에는 지맥이 있는 법인데 우리 조선땅의 지맥이 만경대에 그 원줄기를 두었을진대 그 지맥이 되살아나 죽었던 나무에 꽃을 피우고 조선의 명산들에 그 기별이 닿아 때이른 꽃이 피여난것이 아니겠소. 바로 그 꽃들이 **김일성**장군님께서 나라를 해방하시고 곧 개선하신다는 소식을 알리는것이라고 생각하오.》

《로인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예로부터 천지조화는 나라에 무슨 일이 있을 때에만 생긴다 하였으니 우리 조선국에 대통운이 틀 조짐이 분명할세.》

모여선 사람들은 저마다 로인의 말을 긍정하여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후 항간에 떠돈 말에 의하면 다시 살아난 느티나무의 꽃향기와 지리산, 묘향산들에 핀 꽃내가 멀리 백두산에까지 풍겨갔다고 하였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누가 과장하여 한 말인지는 모르나 하여간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와 백두산을 하나의 맥으로 련결시키려는 우리 인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느낄수 있다.

바로 그해 을유년, 죽었던 느티나무에 꽃이 핀 1945년에 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하고 조국이 해방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선하시였다.

사람들은 감탄하여 후날 **김일성**장군님은 《풍운조화하시고 천지도수를 잘 아시는 하늘이 낸분》이시라고 칭송하여마지 않았다.

남석마을에 찾아온 녀인

청진역에서 서남방향으로 얼마쯤 내려가면 수성벌이 펼쳐져있고 그 가운데로 맑은 직두천이 흐른다.

그 직두천기슭에 남석리가 자리잡고있는데 여기엔 장수바위전설과 함께 한 녀인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내려오고있다.

이고장사람들은 실지 있은 사실이라고 하면서 전설적인 색채가 짙은 이 이야기를 오늘까지 흥미있게 전해오고있다.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정리하여 전설집에 넣는다.

신사년(1941년)도 저물어가던 마가을 어느날 저녁녘이였다. 몇잎 남지 않은 잎사귀를 붙들고 가지 많은 마을의 정자나무가 웅웅— 애처롭게 울부짖는 동구길로 한 녀인이 걸어가고있었다.

녀인의 나이는 40이 되였을가말가한데 머리우엔 잔뜩 짐을 이고 지친듯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고있었다.

옆에 같이 걸어가는 열예닐곱살 되여보이는 아들의 등에도 큰 보따리가 지워져있었다.

행상으로 보아 아마도 멀리서 오는 길손인것 같았다.

녀인은 길가의 어느 한 집에 들려 남석마을에 아무개라는 사람이 살지 않는가고 물었다. 집주인은 모르겠는지 머리를 가로저으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다음집에 들려 물으니 그 집 역시 모르겠는지 머리를 저었다.

세번째 집에 가서 물으니 채머리를 흔드는 늙은이가 창문으로 머리를 쑥 내밀고 손을 귀박죽에 가져다댔다. 몇번이나 재차 말해서야 알아들었는지 로인은 머리를 끄덕이더니 이런 말을 하는것이였다.

《그 사람이 이 마을에 살았네, 살았어. 헌데 오랜 옛날이야. 한 스무해는 지났을테니까.》

《예?》

녀인의 목소리는 거의 절망에 가까왔다.

로인은 녀인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에는 상관않고 제 말만 계속했다.

《스무해가 분명해. 독립만세시위가 있은지 몇해 지나서 그 사람은 처자권속을 다 거느리고 마을을 떴네. 뭐 간도로 간다던지. 헌데 그 사람은 왜 찾수?》

《그분이 이애 외켠으로 5촌백부가 되셔요. 주인도 세상을 뜨고 살아가기가 구차해서 좀 얹혀살자고 했는데…》

녀인은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원, 저런 가긍한지고, 쯧쯧. 하여간 짐을 내려놓고 어서 들어오게. 우리 집 젊은이들이 인차 들어올터이니 같이 좀 의논하세.》

그리하여 그 녀인과 아들 동식은 마을에 눌러앉게 되였다.

처음엔 채머리로인네 집에 부엌을 결달고 살다가 이듬해 봄 연두봉기슭에 오두막집을 짓고 나앉게 되였다.

살림이 째지게 가난하였으나 인정이 넘치는 마을이여서 그들모자는 남석에 자리를 잡은 다음 인차 정을 붙이게 되였다.

과연 이 녀인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되여 여기로 오게 되였는가, 그의 말대로 살길을 찾아 정말 5촌백부를 찾아왔

을가, 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 녀인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생겼다. 말하는품이나 행동거지가 확실히 다른 사람과는 류다른 데가 많았던것이다.

그는 백두산대장수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애길 많이 하였는데 자기는 그이를 직접 만나뵈웠다고까지 하였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었다.

그저 항간에서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도니 들은 애길 한다고만 여겼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의심은 점점 사라졌다. 그의 말이 너무도 진실하게 들렸기때문이였다.

한번은 동네아낙네들이 그 녀인과 같이 뽀로지봉에 나물을 하러 갔을 때였다.

무슨 말 뒤끝인지 여러 아낙네들이 두서없이 이말저말 찧고까불고 하다가 또 **김일성**장군님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녀인이 이런 말을 하는것이였다.

《내가 두만강건너 화룡현에 살 때 일이예요. 그때 우리 마을에 **김일성**장군님 항일유격대가 들렸는데 왜놈들이 이걸 어떻게 알구 덤벼들지 않았겠어요. 그래 우리 마을은 전쟁마당이 되였어요.》

그 녀인의 말은 점점 활기를 띠였다.

아낙네들은 나물뜯는것도 까맣게 잊고 그의 말에 귀를 모으고있었다.

그때 항일유격대원들은 100명이 채 안되였는데 달려드는 왜놈들은 1,000명이 훨씬 넘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왜놈들은 감히 맞서볼 생각

을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유격대원들이 총 한방을 쏘면 왜놈들은 수십놈씩 무리로 쓰러지군하였다.

마을사람들은 **김일성**장군님이 술법을 쓰시는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장교놈들이 몰아대는바람에 숲속에 대가리를 처박고있던 졸병들이 강제로 내몰리여 유격대를 향해 눈먼 총을 쏘아댔다. 총알은 녀인네 집 바람벽을 뚫고 방안으로 날아들었다.

녀인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데리고 총알을 피해 우묵한 부엌바닥으로 내려가 엎디였다.

총알은 부엌에도 날아들어왔다.

《아이구 동식아, 우린 다 죽었구나.》

녀인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아들을 꽉 껴안고 더 납작 엎디였다.

이때 총알이 또 부엌문을 뚫고 들어와 한켠 구석에 가려놓은 솔잎가리에 들어가박혔다.

바싹 마른 솔잎가리에 시뻘겋게 단 총알이 들어가자 대번에 불이 확 당겼다.

부엌은 삽시에 연기로 가득차고 불길이 그들모자를 위협했다.

총알이 비발치듯 날아들어오는판에 일어서서 독의 물을 퍼서 불을 끌수도 없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수 없게 되자 녀인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만이라도 살려보려고 죽음을 무릅쓰고 일어나 동식이를 부엌아궁이에 밀어넣었다.

이때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커다란 불덩어리가 왜놈들의 머리우에 쿵 — 하고 떨어졌다.

그러자 왜놈들은 소리도 질러보지 못하고 모두 죽어넘어졌다. 총소리도 들리지 않고 마을이 언제 전투를 했던가싶게 조용해지자 사람들은 밖으로 달려나왔다.

동식이 어머니도 아들을 데리고나왔다.

마을사람들은 왜놈들을 모두 황천으로 보낸 유격대원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런데 유격대원들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어디로 갔을가? 모두 눈들이 둥그래서 어리벙벙해있는데 어린 동식이가 《엄마, 저길 좀 봐!》하고 소리질렀다.

모두 동식이가 가리키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숱한 군사들이 구름을 타고 백두산쪽으로 날아가고있었다. 맨앞에는 흰 룡마를 타신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였다.

《히야!》

마을사람들은 룡마가 사라져가는 푸른 하늘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

녀인은 언제나와 같이 다음과 같은 말로 얘기를 끝맺었다.

《신출귀몰한 전법을 쓰시는 **김일성**장군님을 왜놈들은 당해낼수 없어요. 이제 왜놈들은 망하구 우리 나라는 꼭 해방이 됩니다.》

동식이 어머니가 있는곳에선 언제나 **김일성**장군님이야기가 벌어졌다.

사람들은 동식이 어머니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꺼내기때문에 어떻게 되여 장군님이야기가 나오게 되였는지 전혀 느끼지를 못했다.

누구나 기다려지는 위대한 장군님이야기요, 듣고나면 즐거워지고 마음이 든든해지는것이 그 이야기였다.

왜놈들은 동식이 어머니를 가만 놔두지 않았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여 주재소에 몇번이나 불리워갔으나 동식이 어머니는 들은 말을 하는데 무예 잘못이냐고 들이대군하였다.

놈들의 단련을 받다가 며칠후에 풀려나오군하였는데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엔 오히려 더 승이 나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이번엔 동식이 어머니를 마을의 《자위단》 단장이 불렀다.

《자위단》에 불리워간 동식이 어머니에게 단장은 이렇게 말했다.

《내 임자를 좀 도와주자고 불렀네. 다른게 아니구 동식이를 우리 〈자위단〉에 받아들이기로 했네.》

《예, 〈자위단〉에 우리 동식이를 넣어요?》

《그렇네, 〈자위단〉에 들면 좀 좋은가? 먹을것, 입을것 다 주지, 애비없는 집 자식으로서야 장땡이지. 그래 생각해서 그 집 아들을 우리 〈자위단〉에 나팔수로 받기로 했네.》

《안되우다. 우리 동식이는 안돼요.》

동식이 어머니는 완강히 반대하였다.

동식이가 어릴 때 폐를 앓아서 나팔을 불지 못한다고 하면서 뻗대였다.

처음엔 생각해주는척하면서 《자위단》에 끌어들이려던 단장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 《〈자위단〉원은 기름도 많이 주기때문에 나팔을 불어도 일없다.》고 하면서 강제로 끌어넣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동식이 어머니도 만만치 않았다.

끝끝내 뻗쳐 동식이를 《자위단》에 넣지 않았던것이다.

동식이는 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다. 그후에

도 동식이 어머니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즐겨하군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반가운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랐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얼마 멀지 않은 라남에 왔다가셨다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라남에 둥지를 틀고있는 왜놈군대 19사단 사단장을 만나고가셨다는것이였다.

이 소문을 들은 동식이 어머니는 도무지 진정할수가 없었다.

라남에 찾아간들 위대한 장군님이야 어떻게 만나랴마는 자상한 소식이라도 알수 있을것만 같아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저녁에 돌아온 동식이 어머니는 마을이 들썩하게 소문을 냈다. 동식이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19사단 사단장과 담판을 하신것이 분명하다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담판에서 사단장에게 제기하기를 사단의 전체 무기를 두만강건너편에 가져다 쌓아놓으면 항일유격대가 19사단만은 다치지 않겠다고 하셨다고 한다.

불세출의 령장이신 **김일성**장군님에 대해 잘 알고있는 사단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벌벌 떨기만 하다가 그 주제에 오그랑수를 썼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기한 문제를 생각해보겠다고 하면서 하루만 말미를 달라고 하고는 깊은 밤에 한개 련대를 동원하여 그이께서 드신 숙소를 비밀리에 포위하였던것이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께서 방금 들어가신것을 보고 숙소를 포위한 다음 발칵 뒤졌으나 하늘로 올랐는지, 땅으로 잦았는지 그 어디에서도 그이께서는 보이지 않았던것이다.

《승천입지한다더니 분명하구나.》

왜놈들은 모두 이렇게 외우며 한탄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던 방에는 두루마기가 걸려있고 침대우에 명함장이 놓여있을뿐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바로 그 두루마기와 명함장을 동식이 어머니는 직접 제눈으로 보고왔다고 하였다.

이 소문은 삽시에 온 마을에 짜하니 퍼졌다.

왜놈들의 귀에도 들어가 또 동식이 어머니를 잡아갔다.

왜놈들은 동식이 어머니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 라남에 오셨댔다는 소문이 거짓말이라고 마을사람들앞에서 말하면 놓아줄뿐아니라 많은 상을 주겠노라고 회유하였다.

그러나 동식이 어머니는 제눈으로 직접 보고왔다면서 모든것이 죄다 사실이라고 우겨댔다.

악에 받친 왜놈들은 어머니를 죽이려고 물 한모금, 밥 한술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하기를 한달열흘이 지나서 왜놈들은 류치장문을 열어보았다. 지금쯤 아예 숨이 끊어졌을것이라고 놈들은 생각하고있었다.

경찰들은 깜짝 놀랐다. 동식이 어머니는 힘이 넘쳐 비분강개한 표정으로 놈들을 쏘아보고있었던것이다.

《이놈들아! 네놈들이 나를 감히 어쩌지 못한다. 내 장군님께 네놈들의 죄상을 모두 아뢰이겠다. 이놈들아, 알겠느냐?》

동식이 어머니의 추상같은 이 말에 왜놈들은 부들부들 떨었다.

동식이 어머니가 **김일성**장군님의 부하가 아닐가 하는 생각이 언뜻 뇌리를 강하게 쳤던것이다.

왜놈들은 무서워서 동식이 어머니를 얼른 내놓았다.

그다음부터 은근히 아첨까지 하였다. 일본이 망한 다음에 사정을 좀 봐달라는 비굴한 아첨이였다.

정말 동식이 어머니의 말대로 몇년이 지나 **김일성**장군님에 의해 망한 왜놈들은 우리 나라에서 쫓겨나고말았다.

해방후 동식이와 그의 어머니는 어디론가 가버렸는데 그 집 행처는 알지 못한다고 한다.

지금 남석리에 사는 나이많은 늙은이들의 말에 의하면 해방이 된 다음 동식이가 38경비대 군관이 되여 한번 마을에 나타난적이 있다고 한다.

동식이 어머니에 대해서 이고장 사람들은 여러가지로 추측하고있다.

분명히 해방전에 **김일성**장군님의 휘하에서 살아본 사람, 말하자면 유격근거지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면 항일유격대공작원이라는 말까지 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하늘처럼 믿는 이 나라의 평범한 백성들중의 한 사람일거라는 말도 있다.

장군님을 믿고 따르는 굳은 신념이 그를 그처럼 강한 인간으로 만들었다고 할수 있는것이다.

지금도 남석리사람들은 동식이네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해오고있다.

어둠은 깨질것이다

일제가 패망하기 전해이니까 1944년 즉 갑신년 겨울에 있은 일이다.

눈에 덮인 금강산이 《개골산》으로서의 기이하고 거창한 모습을 한창 자랑하고있던무렵 어느날이였다.

망국노의 설음으로 천하절승 금강산도 빛을 잃어서인지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들을 달래지 못하였다.

금강산골안사람들은 저녁상을 물리기 바쁘게 어유등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구름 한점 없는 밤하늘에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눈에 덮인 해금강의 계곡들과 봉우리들에 푸릿한 빛을 은은하게 비치고있었다. 극성스레 불어치던 바람도 멎고 갈매기들은 보금자리를 찾아 잠들었는지 바다도 호수처럼 고즈넉하였다.

때때로 쏴—하는 파도소리만이 간격을 두고 잠든 바다가마을의 고요를 깨뜨리며 들려올뿐이였다.

이 밤, 삼라만상이 모두 잠든 이 깊은 밤에 이상한 일이 생겼다.

갑자기 태풍이 불면서 먹장같은 구름을 몰아오더니 《꽈르릉!》하는 천둥소리가 울렸다.

청천벽력이라더니 이 엄동설한에 웬 뢰성인가?

여기저기 집집에서 문여는 소리가 들려왔다.

때아닌 뢰성에 놀란 사람들은 잠에서 깨여 뜨락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예로부터 이고장 사람들은 이런 천변이 생기면 인간세계에도 그 어떤 범상치 않은 일이 생긴다고 믿어오고있었다.

그들은 잠자리에 그냥 누워있을수 없었다. 아무래도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겠다는 강한 호기심이 잠을 말짱 날려보내고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였다.

마을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는데 번쩍 하고 강한 섬광이 비치더니 다시금 《꽈르릉》하는 천둥소리가 울렸다.

섬광은 삼일포의 금강문쪽으로 뻗어갔다. 뒤이어 커다란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웅글은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이윽고 아무일도 없는듯 사위에는 또다시 고요한 정적이 깃들었다.

깊은 밤, 온정령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살을 에이는듯 맵짰다.

《참, 천기가 이상한데.》

《심상치 않은 일일세. 암만해도 저 삼일포쪽에서 무슨 일이 생긴게 틀림없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주고받으며 몹시 궁금해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밤중에 강추위를 무릅쓰고 그곳에 가볼수도 없는 일이였다.

다음날 아침이였다. 날씨는 맑게 개이고 겨울날치고는 한결 온화하였다.

사람들은 저마다 간밤에 번개가 치던 삼일포쪽으로 달려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몽천암터뒤의 금강문쪽으로 밀려갔다.

가보니 금강문의 뒤켠에 있던 집채같은 바위가 갈라져 밑에 굴러내려와있었다.

《이 바위가 벼락을 맞은게로군.》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고 떨어져나간 바위를 심드렁히 살펴보았다.

옛날 량반들이 이곳에 놀러 왔다가 바위에 새겨놓은 이름들이 여기저기 몇군데 보였다.

그 이름자들은 새겨놓은지 오래 되여서 꺼멓게 되여 잘 보이지 않거나 어떤것은 이끼까지 덮여 글자를 알아볼수조차 없었다.

이때 금강문 앞켠에서 한 사람이 소리쳤다.

《여기에 방금 새긴 글자가 있소. 누구 글을 아는 사람이 없소?》

사람들은 그 말에 금강문앞으로 모여들었다. 거기에는 글자가 새겨져있었다.

그것은 분명 새로 새긴 글자였다. 꺼먼 바위에 하얗게 드러난 그 글자는 힘있는 필치로 새겨져있었다.

《무엇이라고 썼소?》

아까 그 사람이 주위를 둘러보며 성급하게 물었으나 누구 하나 대답이 없었다.

발돋움을 하면서 목을 길게 빼고 신기한 눈길로 새겨진 글자를 보는 그들은 모두 덤덤한 표정이였다.

글을 아는 사람이 없었던것이다.

(어떻게 저 글자가 새겨졌을가?)

글의 내용을 알수 없었으나 사람들은 어떻게 누가 새겼을가 하는 의문을 금할수 없었다.

어제 한밤중에 바위가 굴러내렸는데 그사이 누가 와서 이 바위에 글을 새겨놓고 갈수도 없는 일이였다.

한겨울에 뢰성벽력이 있었다는것도 신기하거니와 번개친곳에 글자가 나타났다는것도 범상한 일이 아니였다.

생각은 자꾸만 번져갔다.

어쩐지 심상치 않은 일이 미구에 생겨날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사람들은 다시 그 글자의 뜻에 관심을 모았다.

그들은 참으로 안타까왔다. 모두 눈뜬 장님들이니 어떻게 하랴.

그 글자가 불길한 징조를 알려주는것인지 아니면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들의 앞길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것인지 어서 알고싶었다.

그들은 은근히 자기들에게 길한 일이 생겼으면 하는 희망을 버릴수가 없었다.

하긴 불길한 징조라 하여도 오늘의 그들의 처지로서는 두려울것이 없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운명에 그 어떤 길흉화복을 계시해주는것과 같은 그 글자를 호기심어린 눈길로 그냥 내려다보고있었다. 사람들은 번연히 장님 사또구경인줄 알면서도 거기에서 눈길을 뗄수가 없었다. 이때 뒤늦게야 사람들틈을 비집고 들어선 한 로인이 그 글자를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머리를 끄덕이며 정중한 어조로 말하였다.

《살길이 열린다는 뜻인가보오.》

모두의 눈길이 로인에게로 쏠렸다. 그의 표정은 근엄하였다.

《무엇이라고 썼기에 로인장께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은근히 로인의 말이 옳았으면 하는 심정으로 옆에 섰던 한 사람이 조심스레 물었다.

《〈암파〉라고 썼소. 〈어두울 암〉자에 〈깨여질 파〉자를 썼으니 그것을 이어놓으면 어둠이 깨여진다는 말이요. 그러니 그것은 광명이 온다는 뜻으로 되는거요.》

로인의 이 말에 주위는 물뿌린듯 조용해졌다.

(암파라… 어둠이 깨여지고 광명이 온다 …)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로인의 말을 되뇌여보았다.

로인은 말을 계속하였다.

《이것은 왜놈의 통치가 끝장나고 우리 나라가 해방된다는 뜻일수 있소. 하늘이 알려주는 상서로운 예언이니 왜놈이 망하는게 틀림없을게요!》

사람들은 로인의 글자풀이를 듣고 기뻐서 어쩔줄 몰라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어둠이 깨여진다! 우리 나라가 해방된다!》하고 환성을 올리기도 하였다.

《암파》에 대한 이야기는 날개가 돋힌듯 파다하게 여기저기로 퍼져갔다. 온 금강산이 《암파》이야기로 들끓었다.

얼마후 또하나의 소식이 금강산마을에 전해졌다.

백두산에서 싸우고계시는 **김일성**장군님께서 바로 금강산에 오셨더랬다는 격동적인 소식이였다.

김일성대장수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금강산에 내려오시여 조국해방을 예언하시는 《암파》라는 두 글자를 손수 바위에 새겨놓으시고 가시였다는것이였다.

대장수님께서는 룡마를 타고 금강산에 오셨는데 그때 처음 말이 내렸던 금강문의 뒤켠바위에는 말발굽자리가 그대로 있다고 하였다.

금강문에 오신 대장수님께서는 붓으로 바위에다 《암파》라는 글발을 쓰시였는데 그 글발이 아침해빛을 받자 마치

정으로 쪼은것처럼 깊이깊이 새겨졌다는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저저마다 앞을 다투어 금강문의 그 바위로 달려올라갔다.

정말 바위에는 두개의 말발자국이 있었다.

그러니 대장수님께서 금강산에 오시여 글자를 새겨놓고 가셨다는 이야기는 더할나위없는 신빙성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쁨과 희망으로 들끓게 하였다.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이런 말을 하였다.

《축지법을 쓰시는 장군님이시니 능히 그럴법한 일이지.》

《천출명인이시니 장군님께선 앞일을 환히 내다보시는게 분명하오.》

《그러니까 〈암파〉의 뜻은 결국 장군님께서 손수 천군만마를 거느리시고 왜적을 내쫓으려 백두산에서 여기로 나오신다는 말이로구만.》

이 소문은 그후 삼일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였다.

이튿날에도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암파》라는 신기한 글자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소문이 어떻게나 멀리 퍼졌는지 기차를 타고 지나가던 사람들가운데 우정 고성역에서 내려 삼일포 금강문에 찾아오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삼일포는 호수의 절경으로 하여 흔히 여름철에만 흥성거렸으나 그해엔 겨울에도 눈길을 헤치고 얼어붙은 호수를 가로질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삼일포가 생긴이래 겨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들기는 처음이였다. 약삭바른 장사치들은 이것을 리용하여 몽천암터에 간이상점과 음식점들을 차려놓았다.

바빠맞은것은 왜놈들이였다.

뒤늦게 이 내막을 알게 된 왜놈들은 급기야 경찰을 파견하여 《암파》라는 글자와 말발자국자리를 깎아버리게 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바위에는 도저히 정이 먹어들지 않았다. 큰 쇠메로 내리쳐도 바위는 끄떡하지 않았다.

한달나마 역사질을 해서야 겨우 글자를 깎아버릴수 있었다.

그러나 글자가 지워진 다음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쓰시였다는 글자의 흔적이나마 보려고 모여드는 사람들의 물결은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암파》바위주위를 몇번이고 돌고 또 돌면서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왜놈들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못하게 바위옆에 보초까지 세워놓았다.

그래도 사람들은 보초의 눈을 피해가며 그 바위를 찾아가 보았다고 한다.

그 다음해 8월 일제가 망하고 나라가 해방되자 삼일포사람들은 《암파》바위에 대한 이야기를 즐겨하면서 로인의 글자해석이 신통히 들어맞았다고 기뻐하였다.

그후 1947년 9월 삼일포사람들은 바로 여기에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직접 모시는 천복을 받았다.

정말로 어둠이 깨여지고 영원한 광명이 찾아왔던것이다.

피 현 독

해방전 피현군은 의주군에 속해있었다.

피나무고개라는 뜻으로 불리우는 피현군은 예로부터 나무가 무성하기로 소문이 났었다.

일제가 경의선철도본선을 이쪽으로 낸것도 실은 바로 이 무진장한 산림자원을 략탈하기 위해서였다.

산이 험준하고 수림이 우거져 일제가 우리 나라를 강점한 후 독립군들은 의주, 피현, 천마, 삭주 등 깊은 산속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였다.

이 지구에서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사적이 많이 발굴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일제가 조작한 이른바 《105인사건》도 이 지대와 련관되여있다.

일제는 안명근(안중근의 사촌동생)의 군자금모집활동을 《데라우찌암살계획》의 일환으로 꾸며놓고 이에 서북지방의 애국적지식인들을 련관시킬 준비를 마친 다음 1911년 12월 27일 데라우찌총독이 압록강철교준공식에 참가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가게 된 기회를 리용하여 이른바 《데라우찌암살미수사건》이란것을 발표하였던것이다.

일제는 자기들이 조작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600여명의

애국적인사들을 체포한 후 105명을 기소하여 형을 들씌웠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반일운동자들이 일제의 탄압으로 비관과 실망에 잠겨있을 때 1912년 여름 김형직선생님께서 몸소 이곳 피현에 오시여 신성학교에서 강연회를 하시였다.

이때부터 김형직선생님은 자주 이곳에 오시여 독립군의 오동진, 장철호와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그들의 활동을 지도하시였는데 그들은 의주군사람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초기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시기 그이의 충직한 전사였던 차광수동지의 고향도 바로 의주이다.

그러니 당시 이 지방 사람들의 반일감정과 혁명의식정도를 가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고 하겠다.

잠간 이 지대의 근대력사를 개괄해보기로 하자.

상고리는 피현읍에서 동북쪽에 위치하고있는데 고진강(삼교천의 상류를 이렇게 부른다. 피현읍아래에선 백마강이라 하고 하류에서만 삼교천이라 부르니 강이름이 세개인셈이다.)을 세번 건너 약 40리가량 가면 된다. (그것은 우불구불한 고진강을 세번 꿰질러야 하기때문이다.)

옛날부터 이곳은 서울과 의주로 오가는 길목이였는데 량반들이 행차할 때에는 고관에서 말을 타고 가마체마(현재 피현읍)에서 말을 갈아탄 다음 량책(좋은 채찍이 있는 고장이라 하여 이렇게 불렀다고 한다.)을 거쳐 차련관으로 해서 서울로 나갔다고 한다.

따라서 이 지대는 역마가 다니는 길목으로서 교통이 편리하였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이 지방에는 사화가 많을뿐아니라 깃들어있는 전설 또한 많다.

하늘에서 내린 말을 타고 무술을 닦았다고 하는 천마대전

설도 있거니와 백마산성의 내성을 쌓은 강감찬장군의 이야기와 외성을 쌓은 림경업장군의 이야기도 있고 룡이 내렸다고 하는 전설이 깃들어있는 룡골산도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곳에 있다.

상고리는 1920년대부터 독립군들의 통로로 되여있어 그들의 출입이 매우 잦았다. 그들은 천마산줄기를 타고 고관, 피현쪽으로 드나들었다. 오동진, 장철호 등 독립군의 무장대들은 천마대와 삭주군 판막, 좌리 등에 있으면서 여기 상고리쪽으로 많이 드나들었다.

당시 상고리는 화전민들이 많이 사는 궁벽한 산골이였으나 나무가 많고 흙이 좋아서 숯과 독, 기와구이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들은 대개가 천도교인들이였는데 모두 한결같이 째지게 가난한 사람들이였다.

이곳 천도교의 세력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것은 보통 군에 하나밖에 없는 종리원이 상고동에 있었다는 사실만 놓고도 짐작할수 있다.

그러므로 독립군들은 반일감정이 높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곳에 발을 붙였던것이다.

1918년 청수동회의이후 김형직선생님의 직접적인 지도와 그 영향밑에 고관, 광평, 가산, 옥상, 피현, 월하 등 의주일대에서 무장투쟁이 많이 벌어졌다.

당시 《동아일보》가 《평북도에 대동란. 근거지는 천마산. 일시는 무정부상태》라고 무장투쟁형편을 보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었다.

1930년대말부터 1940년대초까지 이곳에서는 조선인민혁명

군소조가 활동하고있었다.

창성과 삭주를 비롯한 이 지역에서 구호나무들이 발굴되고 숙영지자리와 혁명유적유물들이 많이 발굴되였다.

얼마전 피현군 상고리(당시 의주군 고관면 상고동)에서는 《金日成》이라는 존함이 새겨진 1937년경에 구운것으로 추측되는 독이 발굴되였는데 이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고장사람들속에서는 독과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있다.

그 이야기들의 사실여부는 불문에 붙이고 여기서는 전설적인 가치가 있는 한가지 이야기만을 소개한다.

피현독은 예로부터 모양이 좋고 질이 좋아 높은 호평을 받고있었다. 그것은 독을 빚는 흙이 좋은데도 있지만 독굽는 사람들의 기술이 높기때문이라고 했다.

바로 이런 피현독을 상고동의 독가마에서 만들어내고있었다.

일제시기 상고동에는 세개의 독가마가 있었다.

1930년대중엽 이 세 독가마는 매우 흥하였다.

그럭저럭 벌이가 괜찮았는데 언제인가부터 이상하게 박로인의 독가마만은 날로 쇠퇴해지기 시작했다.

어쩐 일인지 박로인의 독가마에서 빚은 독은 구워내기만 하면 트고 찌그러지거나 깨지고 물이 새서 도저히 쓸수가 없었다.

박로인은 깨진 독을 내려다보며 한숨만 푹푹 내쉬였다.

팔자도 기구하여 그는 몇해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징병에 끌려간후 종무소식인데 전염병이 돌아 로친과 며느리까지 한날한시에 잃어버린 후 올망졸망한 손자손녀 넷을 제 혼

자 말아 기르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그래 얼마 안되는 땅마지기와 가산을 다 팔아가지고 벌이가 좋다는 이곳 상고동에 와서 독가마를 차려놓았다.

처음엔 좀 벌이가 되는가싶더니 몇달전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한것이다.

독가마는 대개가 호주(독가마주인)와 제조인(성형공) 2~3명으로 이루어져있다.

호주는 독가마를 건설한 다음 독을 구울 화목을 대고 제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였고 제조인들은 독을 만들었다. 그러니 독의 질이 좋고 나쁜것은 전적으로 제조인들의 기술여하에 달려있었다.

박로인의 독가마에는 두명의 제조인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든 독이 왜 갑자기 나빠질가?

흙도 그 흙이요, 만드는 공정도 예나 다름없는데 구워놓은 독은 모두 쓰지 못할 형편이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 아닌가.

제조인들은 몹시 안타까와하였다.

제조인들은 박로인을 대하기가 민망스러웠다. 박로인도 그들을 보기가 딱했다.

박로인은 며칠째 부지런히 종리원을 찾아갔다. 그는 천도교인이였던것이다.

새벽마다 종리원에 찾아가 큰 놋합에 청수를 가득 채워놓고 독가마가 잘되길 기원하여 주문을 외웠다.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전심을 다하여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드리고나면 어느 정도 마음은 좀 가라앉는듯싶었다.

그러나 아무리 주문을 외웠어도 박로인네 독가마에서는 여

전히 온전한 독을 생산하지 못했다.

박로인은 생각다 못하여 어느날 두 제조인을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 팔자가 사나운탓에 임자네들까지 고생을 하니 참으로 안됐네. 이제는 이 독가마가 망한게 분명하니 페방할수밖에 없네. 내 임자들에게 남은 재산을 세등분하여 한몫씩 줄터이니 어서 이 독가마를 떠나게.》

《로인님, 무슨 말씀을 합니까? 독가마가 잘되고 안되는것은 저희들탓인데 로인님은 모두 제 팔자탓이라 하시니 도리를 알고 의리를 지키는것이 사람일진대 저희들을 어떻게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어서 그런 생각을 버려주십시오. 다른 독가마의 흙을 파다가 래일 다시 독을 빚어보겠으니 마음을 크게 가져주십시오.》

서당출입을 좀 하여 얼마간의 식자가 있는 나이든 제조인이 박로인에게 말하였다. 그의 말엔 진심이 어려있었다.

다음날 그들은 건너편 독가마의 흙을 파다가 온갖 성의를 다해 독을 빚었다.

그 독을 건조로에 넣어 구워냈는데 이번에도 역시 독은 찌그러졌다.

《아무래도 안되겠네. 전생에 내 무슨 죄를 지어 하늘의 벌을 받는것 같네. 그 벌을 임자들과 같이 받을수야 없지. 오늘 재산을 나누어줄터이니 래일 당장 떠나게.》

제조인들도 이젠 더는 할 말이 없었다.

그렇다고 궁지에 빠진 박로인을 버리고 선뜻 떠날수도 없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서로 쳐다보며 한숨만 길게 내쉴뿐 아무

말도 없이 덤덤히 등잔불밑에 앉아있었다.

아이들만이 세상모르고 쌔근쌔근 자고있었다.

이때였다. 뜨락에서 웬 사람의 발자국소리가 들리더니 이어 《주인님 계십니까?》 하고 찾는 소리가 뒤따랐다.

박로인이 문을 열고 《뉘시요?》 하고 심드렁히 물었다.

《지나가던 길손인데 하루밤 묵어갈가 하여 들렸습니다.》

날이 어두워 사람은 자세히 보이지 않으나 그의 말하는 기품이 그저 보통사람같지는 않았다.

《어서 들어오시우.》

방안에 들어온 그를 보니 나이는 30이 썩 넘어보이고 키는 보통인데 얼굴엔 침착한 빛이 어리고 행동거지는 퍼그나 자연스러웠다.

《무삼 일로 어디로 가는 길인가요?》

《예, 저는 원래 삭주사람인데 살기가 좋다는 만주로 벌이를 갔다가 돈 한푼 못벌어가지고 삼년만에 집에 돌아오니 처자들은 모두 저세상사람이 되고 집마저 없어져 이렇게 정처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들리는 소리마다 모두 불행뿐이니 허참, 이놈의 세상을…》

로인은 땅이 꺼지게 또 한숨을 내쉬였다.

《보아하니 이 집에두 큰 근심이 서린것 같은데 무슨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길손이 이렇게 묻는바람에 로인은 다 망한 독가마이야기를 하였다.

이렇게라도 섧은 사정을 토설하고나면 마음이 좀 나은가 보다.

로인의 말을 심중히 듣고난 길손은 넌지시 이렇게 물었다.

《로인님, 제가 생전에 배운건 옹기점에서 독빚는 일인데 비록 재주는 시원치 못하나 속는셈치고 한번 그 일을 저에게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로인은 그의 말이 탐탁하게 들리지는 않았으나 점잖은 거동에 어쩐지 믿음이 가서 다음날 그 일을 시키기로 하였다.

아침이 되자 박로인은 제조인들과 함께 그 길손을 데리고 독가마로 나갔다.

그 사람은 흙을 이기더니 독틀에 옮겨놓고 빙글빙글 돌리며 독을 빚기 시작하였다.

그의 손동작이 얼마나 날래고 재간이 있었던지 독빚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는것이 대번에 알렸다.

그러나 독은 빚기도 잘하여야 하지만 그것을 말리워서 구울 때도 여러가지 묘리가 있어야 하는것이다. 그러니 독을 잘 빚어놓은것으로만은 아직 장담하기엔 일렀다.

길손은 빚어놓은 독들을 잘 말리운 다음 며칠후에 건조로에 넣어 굽기 시작하였다.

그는 건조로에 불을 때는것도 소나무와 참나무를 엇바꾸어가며 불땀을 조절하는데 신비하리만치 불길이 그가 하자는대로 커졌다작아졌다 하는것이였다.

독을 다 구운 다음 건조로에서 독들을 꺼내니 이게 웬일인가!

독은 조금도 금이 가거나 찌그러진것이 없었고 칠독처럼 번들거리기까지 하였다.

《엉?》

박로인과 제조인들은 저도모르게 놀란 소리를 질렀다.

《임자 솜씨가 여간 아니구만.》

《우리 독가마에 귀인이 나타났구만.》

모두 그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다음날부터 그는 박로인의 독가마에서 제조인으로 일하게 되였다.

그의 이름은 최순이라고 하였다.

최순이 박로인네 집에 온 다음부터 독가마는 다시 홍하기 시작하였다.

독은 맵시있고 배가 나와 큰데다가 매우 탄탄하여 참으로 쓸모가 있었다.

독은 만들어놓기 바쁘게 팔렸고 언제 장마당에 내갈 사이도 없었다.

아낙네들은 저마다 박로인네 독을 사지 못해 안달아하였다.

소문은 빨리도 퍼져 멀리 박천, 운전, 개천, 구장에서까지도 박로인네 독을 사러 왔다.

박로인네 독가마는 점점 더 홍하였다.

독가마가 더 유명하게 된것은 바로 여기서 만든 독에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존함이 새겨진 글발이 나타난 다음부터였다.

독에 새겨진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은 밤이면 별처럼 찬란한 빛발을 뿌리였다.

그 글발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외우며 어서 그이께서 왜놈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찾아주시기를 일일천추로 기원하였다.

그 소문은 쉬쉬하며 한입건너 두입건너 자꾸만 퍼져갔다.

소문을 들은 이웃사람들은 저녁이면 그 신기한 글발을 보려고 독있는 집으로 찾아갔다.

박로인은 처음엔 그 소문을 듣고 믿지 않았으나 자기네가 구워낸 독들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그것은 사실이였다. 독들마다에는 글이 새겨진 위치가 다를뿐 분명히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빛나고있었다.

그렇다면 최순이 그 사람이 새기는게 아닐가?

박로인은 아무도 모르게 최순이와 제조인들이 일하는 모양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들이 독에다 글을 새기는것은 전혀 볼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구워낸 독들을 보면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또렷이 새겨져있었다.

박로인은 왜놈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백두산의 대장수 **김일성**장군님의 존함이 자기네 독가마에서 만든 독에 새겨진것을 보고 은근히 기뻐하였다.

그 글발만 보면 박로인뿐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온몸에서 힘이 용솟음쳐오름을 느꼈다.

젊음을 되찾은듯 씨엉씨엉 걷는 박로인의 걸음발에선 바람이 일었다.

이 소문은 왜놈들의 귀에도 들어갔다.

왜놈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새겨진 독들을 찾느라고 눈이 뻘개서 돌아갔다.

몇개의 독을 빼앗아낸 놈들은 그것들을 주재소 앞마당에다 모아놓고 쇠메로 깨버리려고 하였다.

순사들이 쇠메로 독을 내리쳤으나 웬일인지 그 독들은 쇠

로 만든듯 깨여지지 않았다.

힘꼴이나 쓴다는 놈들을 데려다가 몇번씩이나 내리쳐서야 겨우 그 독들을 깨버릴수 있었다.

사람들은 아까운 독들을 깨버리는 왜놈들을 저주하며 이를 갈았다.

그러나 왜놈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새겨진 독들을 모두 빼앗아낼수는 없었다.

어떤 집에서는 깊은 숲속이나 동굴속에 감추었고 지어는 땅속에 묻기도 하였다.

악에 받친 왜놈들은 박로인네 독가마에 달려들었다.

아무리 눈을 밝혔으나 제조인들이 독에다 글을 새기는것을 찾아낼수가 없었다.

왜놈들은 박로인과 제조인들을 문초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모른다고 딱 뻗대였다.

《그럼 이 독가마에서 만든 독이 분명한데 누가 거기에다 글을 새겨넣겠는가? 바른대로 말을 해라.》

주재소장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문초를 해댔으나 그들은 자기네 독가마에서 만든 독이 아니라고 딱 잡아뗐다.

왜놈들은 박로인네 독가마를 페방시켰다.

그해가 정축년(1937년)이였다.

정축년의 장마는 기상수문자료를 봐도 특이할만큼 많은 비가 내렸고 피해 또한 몹시 컸다.

바로 이 장마에 박로인네 독가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사람들은 박로인네 독가마를 강제로 페방시킨 왜놈들의 처사에 하늘이 노해서 큰 비를 내린것이라고 하였다.

그후 박로인과 최순이와 제조인들은 어디론가 가버리고말

았다.

최순이가 박로인과 같이 갔는지 아니면 저 혼자 따로 갔는지 그것을 자상히 아는이는 없다.

갑자기 나타났다가 홀연 사라진 최순이를 두고 그후 이고장사람들은 여러가지 추측들을 하였다.

그들은 최순이가 백두산대장수의 부하라고도 하였다.

이런 말을 하는데는 일정한 근거가 있었다.

왜냐하면 최순이란 사람이 와있은 1년 남짓한 기간에 고판면주재소의 무기가 감쪽같이 털리우고 악질왜놈순사 셋이 황천객이 되였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격인지 하여간 최순이란 사람의 출현을 이고장에서 생긴 많은 사건과 련결시켜 생각하게 하였다.

나라가 해방된 후 이고장사람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정치를 받으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되자 그때 일을 생각하군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새겨진 독들이 어디에 남아있지 않을가?

이런 생각을 한 그들은 독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종시 찾아내지 못한채 조국해방전쟁이 터지게 되였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독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였으나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찾기가 힘들어졌다.

그러다가 1970년대초에 와서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독 하나를 찾아냈다.

이 독이 상고리 리화동 독가마의 독이 분명하다는것이 여러가지로 증명되였다고 한다.

독의 모양이나 새겨진 문양 그리고 배가 나온 정도를 봐서

도 알수 있지만 가장 믿음직한 증거는 박로인네 독가마에서 만든 독의 전(독아구리의 테두리)형식이 독특하였는데 발굴된 독이 그와 같다는것이다.

전형식은 지방의 토질과 습관에 의하여 평전(밋밋하게 한번 테두리를 두른것)과 준전(테두리를 두줄로 두르는데 밖의 테두리는 가운데가 두드러지게 하고 안쪽 테두리는 가운데가 우무러들게 하면서 끌을 맺는것)으로 잡는데 리화동독은 모두 준전을 잡았으며 흙이 좋아서 독을 빚은 그 흙으로 그냥 빚어도 구울 때 트거나 독이 찌그러지는 일이 없이 곱게 되였던것이다.

그러나 다른데 흙은 독을 빚던 흙으로 그냥 준전을 빚으면 트거나 독이 찌그러지군한다. 그렇기때문에 모양은 좀 없으나 평전을 잡게 되며 준전을 잡을 경우에는 모래를 30프로정도 섞어야 하므로 구워낸 다음 거칠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발굴된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새겨진 독은 준전을 잡았는데 그것이 매끈하고 고왔다.

그래 그 옛날 리화동 박로인네 독가마에서 만든 독이 분명하다는것이 여실히 증명되였다고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새겨진 피현독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즐겨 전해지고 있다.

최근 평안북도 운전군에서는 글자가 새겨진 독이 발굴되였다.

기술감정에 의하면 태천군 룡흥리 천방독가마에서 만든 독으로 확정되였는데 독에는 《조선청년들의여 무엇을 하노 1935년 양 8월 금일》이라고 씌여있다.

이 독과 관련하여서는 여러가지 설이 많으나 일설에는 이 독에 새긴 구호가 피현군 상고리에서 나온 수령님의 존함이 새겨진 독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한다.

말하자면 최순이란 사람의 그후 행처를 모르는데 혹시 그 사람이 그쪽으로 가서 쓰지 않았겠는가 하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이지 꼭 그렇다고 할만한 증거는 없다.

더우기 년대가 피현독보다 2년이나 앞인것이다.

그렇다면 최순이가 먼저 천방독가마에 있다가 상고리로 왔을가? 그렇게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곳 태천군 룡홍리도 반일감정이 높은 지역으로서 일제강점 초시기부터 의병들의 활동이 치렬하던곳이다.

1916년 10월 평산의병장 리진룡이 거느리는 무장단이 평안북도 녕변군 팔월면에 진출하여 일제의 현금수송마차를 습격한적이 있는데 바로 이 팔월면이 룡홍리와 서로 린접하고있는 고장이다.

운전군에서 나온 글자가 새겨진 독에 대해서도 아직 더 고증하여야 할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있다.

하여간 평안북도에서 나온 두개의 독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재미있고 뜻이 깊은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고있다.

술법을 배운 복남이

어느날 **김일성**장군님부대에 복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새로 들어왔다.

지주집머슴살이를 하던 그는 장군님부대에 들어가면 축지법과 변장술 등 여러가지 술법을 다 배워준다는 소문을 들었던지라 이제나저제나 그런 기회만 기다리고있었다.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려도 그 기회는 차례지지 않았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은 어느 누군가가 장군님께서 배워주신 술법을 써서 왜놈들을 무리로 족쳤다는것이였다.

(나도 언제면 그런 술법을 배울가?)

어느날이였다.

장군님께서는 다른 대원 몇명과 함께 복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였다.

(옳지! 이제야 조화부리는 법을 배워주시려는게로구나.)

그는 기쁜 마음으로 장군님이 계시는곳으로 달려갔다.

정말 그날부터 장군님께서는 그들에게 술법을 배워주기 시작하시였다.

그들은 천문과 지리에 대한 지식부터 배우기 시작하여 바지가랭이에 모래를 넣고 산을 넘어 달리다가 모래를 털어버리고 하늘공중으로 날아오르는 날기훈련도 하였고 자라는 송

아지를 매일 아침 들어올려 나중에는 800근짜리 황소도 씽 들어올리는 힘키우기훈련도 하였다.

그리고 캄캄한 굴속에 들어가서 바늘구멍만한곳으로 흘러드는 해빛을 하루종일 앉아 바라보아야 하는 주의집중훈련도 하였다.

이렇게 하기를 꼭 석달열흘이 되자 복남이는 못부리는 조화가 없는 무예에 능한 장수가 되였다.

날아가는 기러기도 화살 하나 날리지 않고 한참 쏘아보기만 해도 제절로 땅에 떨어지고 금시 백발로인으로 변하는가 하면 소년동자로도 변신하니 그의 재주는 이루 다 말할수가 없었다.

복남이는 자기의 술법을 한번 뽐내고싶은 생각이 불쑥 났다.

그는 부대에도 알리지 않고 슬그머니 제가 살던 마을로 내려갔다.

거기서 복남이는 자기를 못살게 굴던 지주놈을 한손으로 넝큼 들어 5리나 되는 강에다 홱 집어던지고 왜놈순사는 새끼손가락으로 이마를 튕겨 그 자리에 뻐드러져 죽게 했다.

이 소문이 퍼져 린근에 주둔하고있던 《토벌》대와 경찰관주재소의 군경놈들이 마을로 달려들었다.

복남이는 술법을 써서 그놈들을 모두 몰살시키려고 하였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는 도저히 배운 술법을 쓸수가 없었다.

뛰자고 해도 걸음이 제대로 안되였고 날아오르자고 해도 맥이 진해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생포하라! 빨리빨리!》

고아대는 왜놈들의 웨침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려왔다.

더는 어쩔수 없게 된 복남이는 백발로인으로 변신하여 놈들을 속여넘겨 위급한 순간만이라도 넘기려고 하였다.

그런데 변신술도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다.

물론 소년동자로도 변하려고 했으나 되지 않았다.

이젠 영낙없이 잡혔구나 하고 울상이 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이고있었다.

이때 어떻게 알았는지 함께 훈련한 장수들이 나타나 술법을 써서 군경놈들을 족치고 복남이를 구원해주었다.

그다음부터 복남이는 석달열흘 배운 술법을 하나도 쓸수가 없었다.

술법을 배우지 못한 보통대원으로 되여버린 복남이는 자신을 원망하며 그날그날을 보내고있었다.

어느날 장군님께서는 다시 복남이를 부르시였다.

(또 술법을 배워주시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한 복남이는 조급한 마음으로 장군님을 찾아갔다.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술법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도 하시지 않고 어느 지방에 나가 식량을 조달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복남이는 술법을 다시 배우지 못하는것을 퍼그나 아쉽게 생각했다.

그러나 식량조달도 중요한 일이니 이 일만 잘하면 장군님께서 자기에게도 술법을 다시 배워주시리라고 믿었다.

그는 장군님의 바래움을 받으며 백두산을 내려 어느 한 지방으로 떠났다.

목적지에 이른 그는 그곳에서 식량조달임무를 훌륭히 끝내

고 다른곳으로 옮겨가려고 하였다.

이때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 일본경찰 수십놈이 그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목화밭이 펼쳐진 벌판에서 추격을 받게 된 그는 매우 곤난한 형편에 처하게 되였다.

어디에 몸을 숨길데도 없고 맞서싸우자니 혼자서는 너무도 력량상 대비가 안되였다.

(이럴 때 술법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한번 보란듯이 써서 본때를 보였을텐데.)

복남이는 바쁜 경황속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있었다.

그는 허리춤에 찼던 싸창에 총탄을 재워넣고 싸울 준비를 갖추었다.

적들은 총을 겨눈채 한걸음한걸음 다가오면서 어리석게도 생포하려고 했다.

싸창을 겨누고 선 그는 원쑤놈들이 가까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잠시후 복남이와 왜놈들사이에 격전이 벌어질판이였다.

매우 위급한 정황이였다.

그는 장군님이 계시는 백두산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에 휩싸인 백두산의 흰 령봉이 우렷이 보였다.

그찰나 운무에 휩싸인 백두산 장군봉우에 서계시는 장군님의 모습이 뚜렷이 안겨왔다.

근엄한 얼굴로 발아래 펼쳐진 천하를 굽어보고계시던 장군님께서 그를 보자 빙그레 웃으시더니 한번 눈을 감았다 뜨시였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복남이의 온몸엔 예전의 술법들이 모두 다시 깃드는듯 기운이 꿈틀거렸다.

왜놈들은 복남이에게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이때 복남이는 《얏!》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그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말았다.

깜짝 놀란 왜놈들은 어리뻥뻥해져서 사방을 두루 살폈으나 그가 간곳을 알수가 없었다.

이때 하얗게 목화가 핀 저쪽 밭 한가운데 웬 사람이 서있는것이 보였다.

《저쪽이다!》

왜놈들은 그리로 달려가 그 사람을 빙 둘러싸고 점점 포위진을 좁혀들어갔다.

그 사람은 그런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태연히 망태기를 둘러메고 열심히 목화송이들을 따넣고있었다.

왜놈들은 《손들엇!》하고 총구를 들이대며 소리쳤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아이, 깜짝이야!》하고 놀라더니 왜놈들을 둘러보며 《왜 그러세요?》하고 물었다.

이게 웬일인가? 그는 유격대원이 아니라 목화따는 아낙네가 아닌가?

눈에 달이 뜬 왜놈들은 아낙네를 유격대원으로 잘못 본것이였다.

게면쩍어진 왜놈들은 허세를 부리면서 큰소리로 물었다.

《유격대를 보지 못했는가?》

《예? 유격대요?》

아낙네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의미조차 알지 못해 오히려 이렇게 되물었다.

왜놈들은 《이제 금방 한 청년이 여기 왔는데 어디로 갔는가 말이다?》하고 돼지멱따는 소리를 또 꽥 질렀다.

그래도 목화따는 아낙네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있었다.

이때 머리우에서 호령소리가 들려왔다.

《이놈들아! 내 여기 있다!》

그 소리에 놀라 하늘을 올려다보니 유격대원은 어느새 구름을 타고 날아오르고있었다.

그것을 보자 왜놈들은 눈알을 부라리며 불호령을 하던 때와는 달리 갑자기 기가 푹 죽어 더는 따라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

《**김일성**부대가 도술을 마음대로 쓴다는 말이 과연 옳다!》

놈들은 이렇게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도망쳐갔다.

백두산마루에서 이 장면을 보고계시던 **김일성**장군님께서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그 웃음소리에 잔잔하던 천지물이 파도를 일구고 온 강산이 흔들거렸다.

복남이는 기절초풍해 도망치는 왜놈들의 꼴을 내려다보면서 유유히 하늘을 날아 목적지로 향했다.

그후부터 그는 장군님에게서 배운 축지법과 둔갑술, 장신술 등 여러가지 술법을 오직 그이의 뜻을 받드는데만 썼다.

그랬더니 그는 못부리는 조화가 없는 훌륭한 장수가 되였다.

황 금 부 채

백두산의 남쪽 압록강물이 거세차게 흘러내리는 한 기슭에 그리 크지 않은 자그마한 도시가 있었다.

일제는 어떤 큰 의의를 부여하였는지 이 소도시에 많은 수비대병력을 주둔시켰다.

소도시의 가운데로는 시내가 흐르고있었는데 장마철을 내놓고는 별로 물이 흐르는것을 보기 힘든 자그마한 실개천이였다.

이 시내를 지경으로 도시가 둘로 갈라졌는데 오른쪽 낮은 버덩에는 조선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고 왼쪽 높은 둔덕에는 수비대병영과 왜놈들이 사는 마을이 자리잡고있었다.

원래 왼쪽 높은 둔덕에 조선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는데 왜놈수비대가 들어앉으면서 시내건너 낮은 버덩으로 쫓겨난것이였다.

봄에 눈이 녹아 탕수가 지거나 여름에 장마가 지면 조선사람들이 사는 마을은 온통 물속에 잠기군하였다.

하늘에 구름만 한점 걸려도 마을사람들의 가슴속에서는 근심의 소낙비가 쏟아졌다.

그때마다 마을사람들은 제 나라 땅에 살면서도 정들었던 보금자리는 왜놈들에게 빼앗기고 사람못살 고장에서 살지 않

으면 안되는 억울한 처지를 두고 가슴을 쳤다.

바로 이 마을에 덕칠이라는 이름을 가진 로인이 살고있었다.

전라도에서 살다가 어느해 가물에 농사를 다 망치고 땅마저 왜놈들에게 떼우자 살기좋다는 소문을 듣고 만주로 가다가 압록강을 건느지 못한채 여기에 보따리를 풀어놓고만 로인이였다.

덕칠로인은 화전을 일구어 그럭저럭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악착한 왜놈들은 여기에까지 따라와서 못살게 굴어 이 시내가의 낮은 버덩으로 내려와 앉았는데 그해따라 무서운 홍수가 지는바람에 이번에는 두자식과 로친마저 잃었다.

덕칠로인은 왜놈들을 생각만해도 눈에서 불이 일었다.

《이 쪽발이왜놈들아! 어디 두고보자. 벼락맞아 죽을놈들!》

가슴에 피눈물만 가득 고인 덕칠로인은 마음속으로 늘 이렇게 벼르고있었다.

그러던 어느해 여름이였다.

이해 장마는 지루하게도 오래동안 계속되였다.

건듯 들리웠다가는 어디서 몰켜왔는지 먹장구름이 떼지어 하늘을 덮어버리고 무더기비를 쏟아놓군하였다.

그때마다 시내물은 넘쳐나 룡대가리같은 파도를 일으키며 가난한 농가가 모여앉은 이 마을로 사정없이 흘러들었다.

여기저기서 아이어른들의 자지러진 고함소리가 들리고 독을 붙잡고 떠내려가는 사람, 나무함지를 타고 헤여나오는 사람, 지붕에 기여오르는 사람 온통 수라장이 벌어졌다.

《하늘도 무심하지.》

통나무를 붙잡고 겨우 기슭으로 헤염쳐나온 덕칠로인은 번개가 번쩍거리고 우뢰가 우는 하늘을 저주하며 눈을 흘기기도 하였고 그래도 하늘이 그렇게야 무심하랴 하는 생각으로 마음속깊이 구원을 빌기도 하였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여전히 무더기비가 억수로 쏟아졌다.

조선사람들이 사는 마을은 점점 더 물속에 깊이 잠겼으나 높은 둔덕에 있는 왜놈수비대병영과 왜놈들이 사는 마을은 끄떡없었다.

왜놈들은 물속에 잠긴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좋아라고 떠들어댔다.

수비대놈들과 왜놈의 가족들까지 나와 물에 빠져 헤매는 조선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돌멩이를 던지고 너털웃음을 웃고 괴상한 몸짓을 해보이며 놀려댔다.

이때였다. 번개가 번쩍하고 하늘을 가르더니 꽝 꽈르릉! 하고 천둥이 요란히 울었다.

이윽고 대줄기처럼 쏟아지던 소낙비가 뜨음해지고 시커먼 하늘에서 갑자기 광휘로운 빛발이 쏟아져내렸다.

웬일일가?

덕칠로인과 마을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멀리 백두산쪽에서 하얀 룡마가 이쪽으로 날개를 저으며 날아오고있었다.

《히야!》

모두 환성을 질렀다.

자세히 보니 그 흰 룡마우에는 한 장수가 타고앉아있었는데 금빛을 뿌리는 커다란 부채를 들고 땅아래를 향해 좌우로

천천히 흔들고있었다.

장수가 황금부채를 흔들자 사품치며 흐르는 물줄기가 이쪽 저쪽으로 실오리처럼 움직이며 물길을 돌리는것이였다.

이윽고 이리저리 움직이던 물줄기가 수비대병영과 왜놈들의 마을이 있는 둔덕쪽으로 돌려지더니 높은곳으로 치달아오르는것이였다.

그러자 수비대병영과 왜놈마을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삽시에 수비대병영과 왜놈마을은 물속에 잠기고 아우성소리가 터졌다.

물은 점점 더 불어났다.

물결이 둔덕을 깎아내더니 시내물줄기가 그쪽으로 돌려졌다.

그바람에 낮은 버덩에 있는 조선사람들의 마을엔 물이 줄어들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들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운 눈길을 하늘에서 뗴지 못하였다.

얼마후 머리우엔 검은 구름이 벗겨지고 푸른 하늘이 비꼈다.

장수가 룡마를 타고 날던 하늘엔 찬란한 태양이 빛을 뿌리였다.

그 해빛의 가닥가닥을 물고 물속에 잠겼던 조선사람들의 마을엔 꽃들이 피여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왜놈들의 마을과 수비대병영이 있던 그 둔덕엔 난데없는 강줄기가 생겨 쏴! 쏴! 소리치며 흘렀다.

그후부터 이 고장의 물줄기는 산밑으로 돌려지게 되였는데 오늘까지도 그대로 흐른다고 한다.

닭의 깃털편지

백두산 서남쪽 장백현의 어느 한 마을에 소작살이로 근근히 살아가는 곽씨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있었다.

천성이 순박하고 어진 그는 자기와 처지가 같은 마음씨 고운 녀자를 안해로 맞아 가난속에서도 서로 의지하여 화목하게 살았다.

남편은 늘 안해를 위해 마음을 썼고 안해는 남편을 위한 일이라면 그 무슨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곽씨의 안해는 마음이 고울뿐아니라 인물 또한 마음처럼 아름다왔다.

그런데 안해의 용모가 곽씨의 불행으로 될줄이야 어이 알았으랴.

언제부터 곽씨의 안해를 탐내오던 민지주놈은 물지 못한 빚을 구실로 돌도 채 못된 아이를 떼놓고 하루아침에 안해를 빼앗아갔다.

지주놈은 곽씨를 위해주는척 하면서 황무지를 개간하여 거저 부치게 하고는 소작료를 꼭꼭 계산해두었다가 이해에 리자까지 붙여 당장 한꺼번에 물어내라고 생떼를 썼다.

곽씨가 빚을 물지 못하리라는것을 뻔히 알고 들이대는것이였다. 지주놈은 빚값으로 안해를 끌어갔던것이다.

곽씨는 앞이 캄캄했다.

어미없이 아이는 어떻게 기르며 안해없이 이 어지러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간단말인가.

그러나 그는 자기보다도 지주놈에게 끌려가서 갖은 수모를 당할 안해를 생각하니 가슴이 더욱 찢기는듯 했다.

곽씨는 때늦게나마 지주놈의 검은 배속을 알았으나 어데가서 고소할데가 없었다.

고소한댔자 들어줄데도 없었고 그렇다고 가만있자니 분통이 치밀어올라 도저히 견딜수가 없었다.

마을사람들은 모두 불행한 곽씨를 동정하면서 지주놈의 악행을 두고 욱욱하였으나 권세없고 가난한 백성들이라 어쩌는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마을에 까까머리중이 찾아왔다.

중은 목탁을 두드리며 나무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을 연방 불러대면서 절간에 찾아가 부처님께 빌면 무슨 소원이든 다 풀린다고 했다.

중의 말에 곽씨는 귀가 솔깃해졌다.

(옳지. 그러면 안해를 구원하고 지주놈에게 벌을 내리게 할수 있지 않을가?)

성품이 워낙 고지식한지라 곽씨는 그날부터 없는 살림에 불공음식을 해가지고 아이를 업고 절간으로 찾아가 빌기 시작했다.

《령험하신 부처님께 비나이다.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나이까. 황무지를 개간하면 3년은 도조가 없다고 하옵기로 우리 부부가 풀뿌리를 캐고 웅뎅이를 메워 곡식을 심고 자래웠는데 3년이 지난 오늘 묵은 소작료까지 갑자기 다 물라고

하니 이 어디 될 말입니까? 그리고 빚을 물지 못한다고 갓난 아이를 떼버리고 저의 처까지 빼앗아가니 이런 악행이 어디 있습니까? 령험하신 부처님! 불쌍한 저의 자식에게 어미를 돌려주시고 한가족이 모여살게 자비를 베풀어주옵소서.》

곽씨는 빌고 또 빌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도승은 곽씨에게 넌지시 말했다.

《불공을 드리는것은 부처님께 자기의 지극한 정성을 표시하는 아주 좋은 품성입니다. 부처님의 망극한 은혜를 입으려면 정성이 지극해야 하는데 그것은 절에 얼마만한 시주를 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시주를 하다니, 궁색한 살림에 불공음식을 장만하는것만도 바쁜 일인데 무엇으로 시주한단말인가? 곽씨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다.

가난한 그는 시주를 할수가 없어 불공을 하려 절에 가는것마저 그만두고말았다.

절간에 발길을 끊으니 마음이 허전하였다.

그래도 절간에 다닐 때는 행여나 하고 마음의 기대라도 가지고있었는데 그것마저 없으니 앞이 캄캄하기만했다.

그러던 어느날 마을에 큰 무당이 찾아들었다.

애기무당들을 앞세우고 가마를 타고 나타난 큰 무당은 관상을 보는지 울상을 하고 길가에 서있는 곽씨의 얼굴을 한참이나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묻지도 않는데 이런 말을 했다.

《참으로 불쌍한 팔자를 타고났수다. 아버지때부터 받은 살이 아직 내리지 않아 아들대에까지 미친것인즉 하루빨리 성황당에 가서 신령님께 제사를 지내여 액풀이를 하소서.》

물에 빠진 사람 지푸래기라도 잡는다는격으로 곽씨는 큰 무당이 자기의 기구한 팔자를 알아맞히는것이 너무도 신통하여 다음날엔 성황당엘 찾아갔다.

그러나 상에 올려놓을 음식을 장만할수가 없어 이가 빠진 사발에 맹물 한사발을 떠놓고 빌기 시작하였다.

《령험하고 령험하신 신령님은 굽어살피시사 이 불쌍한 애비와 자식을 돌봐주옵소서. 저의 팔자 기구하여 걸음걸음 불행이 뒤따르니 제발 그 액을 벗겨주옵소서.》

그러나 성황당도 그 《령험하신 신령님》도 정성이 모자라서인지 곽씨의 《팔자》를 고쳐주지 못했다.

나중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만을 찾는 전도부인의 말을 듣고 멀리 교회당에도 몇번 다녀보았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만복을 내려준다던 하느님은 오히려 불행만을 들씌웠다.

곽씨에게는 인젠 밥을 지을 쌀알 한알 남지 않았다.

아이는 이 집, 저 집 동냥젖을 얻어먹였으나 배가 고파 그냥 울면서 보채기만 하였다.

그는 고개너머 멀리 왜놈목재소에 찾아가 품팔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런데 어린애가 문제였다.

이웃집에 맡기는것도 하루이틀이지 계속 봐달라고 할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업고 다닐수는 더욱 없었다.

그는 할수없이 띠개로 정지간 기둥에다 아이를 잡아매놓고 품팔이를 다니였다.

어느날 집에 돌아와보니 아이가 마지막숨을 쉬고있었다. 엄마를 찾으며 울면서 기여나오다가 그만 부엌에 굴러떨어진

어린애가 띠개에 목이 감기여 그 지경이 된것이였다.

곽씨는 아이를 품에 꽉 그러안았다.

아이는 어머니의 젖가슴을 찾는지 조그만 고사리같은 손으로 아버지의 가슴을 허비였다.

그는 가슴이 미여지는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어머니의 젖이라도 한번 실컷 먹여보고싶었다.

그는 아이를 안고 지주집으로 달려갔다.

주먹으로 쾅! 쾅! 대문을 두드리자 지주가 나와 곽씨를 쏘아보았다.

《웬일인가?》

그는 가슴에 불이 일었으나 꾹 참고 사정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죽어가는 애에게 제 엄마젖을 한번만 물리게 해주시우. 제발 사정합니다.》

그러나 지주놈은 랭정하게 딱 잘라말했다.

《아무래도 죽을 앤데 어미젖을 먹고 죽으면 어떻고 그냥 죽으면 어떻단말인가?》

《뭐요? 당신도 사람이요, 사람인가 말이요?》

한뉘 억눌려만 살아온 곽씨의 가슴에선 분노가 꿈틀거렸다.

두눈에선 피눈물이 흐르고 설음이 가슴가득 차올랐다.

지주는 불이 이글거리는 곽씨의 눈을 보고 기가 질렸던지 《임자 녀편네는 멀리 강건너 목재소주임에게 팔아버렸네. 그러니 여긴 없단말일세.》하고 말하고는 문을 탕 닫고 들어가버렸다.

곽씨는 아이를 안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목재소로 달려갔다.

그는 벌써 제정신이 아니였다.

한참 달려가던 곽씨는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숨결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에 숨이 넘어간것이다.

그는 할수없이 죽은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 원한을 어디에다 하소한단말인가? 그는 두주먹으로 가슴을 탕탕 쳤다. 원한이 쌓이고쌓인 가슴에서 불이 일었다.

바로 그 다음날이였다.

마을에 귀가 번쩍 트이는 소문이 돌았다.

백두산에 대장수가 내렸는데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신 그 대장수는 백성들의 소원을 풀어주고 장차 조선을 독립시킨다는것이였다.

《백두산대장수!》

그는 멀리 하늘가에 우렷이 솟은 백두령봉을 바라보았다.

말만 들어도 온몸에 신심이 넘쳤다.

그런데 다음날 곽씨는 더 기쁜 소식을 들었다.

누구든 백두산대장수에게 소원을 아뢰면 그 소원을 다 풀어주신다는것이였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백두산대장수의 행방을 아는이가 없었다.

곽씨는 기어이 백두산대장수를 찾아가 자기의 기막힌 처지를 아뢰고 소원을 말씀드리리라 마음먹었다.

그렇지만 어디로 어떻게 찾아갈지 몰라 망설이고있었다.

어느날 곽씨는 나무를 팔려 장에 갔다가 해가 기울무렵 집으로 돌아오고있었다.

(어떻게 하면 백두산대장수님을 만날수 있을가?…)

곽씨는 이 한가지 생각에 옴한채로 고개를 넘어 한 마을을

지나고있었다.

그는 마을 동구밖 찔광이나무그늘아래서 참지에다 닭의 깃털로 글을 쓰고있는 한 로인을 만났다.

어려서 서당에 좀 다녀본적이 있는 그는 붓으로 글을 쓰는것을 보았으나 닭털로 글을 쓰는것은 말만 들었지 실지로 보기는 처음이라 호기심이 버쩍 동해 그앞으로 다가갔다.

그 로인은 참지에다 《천하제일강산》이라고 쓰고있었다.

글씨도 명필이거니와 내용 또한 곽씨의 마음을 대번에 사로잡았다.

나라 잃고 제 나라땅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난 망국노의 슬픔이 늘 가슴속에 서려있는 곽씨에게 결코 무심히 볼수없는 글발이였다.

《로인님, 로인님은 왜 닭의 깃으로 글을 쓰십니까?》

곽씨는 이렇게 넌지시 물었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는 계명산천이라 했거늘 그것은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제일먼저 새날이 밝는 나라라는 뜻일세. 그래서인지는 모르나 선조들은 장닭의 깃털을 복이 오게 하는 그 무슨 여의주(그것을 얻으면 사람이 마음먹은대로 무엇이나 이루어진다는 전설에 나오는 신기한 구슬)처럼 여겼다네. 그래 내 간절한 기원을 담아 닭의 깃으로 빼앗긴 조국을 그리며 이렇게 써보는중일세.》

로인은 허연 수염발을 천천히 내리쓸며 그리움에 찬 목소리로 말하는것이였다.

《그렇습니까?》

곽씨는 잘 알았다고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집으로 길을 재촉했다.

어느 고개마루에 이르렀을 때였다.

곽씨는 수건을 질끈 동인 머리에 장닭의 깃털을 꽂은 한 농민과 맞다들게 되였다.

곽씨는 그에게도 호기심이 생겨 이렇게 물었다.

《여보시오, 당신은 어째서 그 장닭의 깃털을 머리에 꽂고 다니십니까?》

《예, 이것말인가요?》

서글서글하게 생긴 그 사람은 머리에 꽂은 깃털을 만지더니 허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전장에 나갔다가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올 땐 이런 장닭의 깃털을 투구에다 꽂고 장한 기상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 나도 한번 그 본을 따서 이렇게 해본거웨다. 허허.》

《예, 그렇군요.》

곽씨는 그와 헤여져 고개를 넘어갔다.

얼마쯤 가니 이번엔 길가 초가집마당에 웬 사람들이 오구구 모여있는것이 보였다.

웬일인가 하여 가까이 가보니 결혼잔치를 하는 집이였다.

한창 신랑신부가 큰상을 받았는데 그앞에서 마을 좌상로인이 커다란 장닭을 방금 날리려는참이였다.

아이어른 할것없이 구경을 하느라고 진을 치고있는데 좌상로인은 신랑신부를 일으켜세우더니 장닭을 하늘높이 날리며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후여!— 건너마을 황지주집엔 벼락이 내리고 새서방, 새색시에겐 복을 내려주소서—》

좌상로인의 말이 하도 이상해서 사람들에게 물으니 새색시,

새서방은 다 황지주의 머슴을 살았는데 빚을 갚을 때까지 잔치를 못하게 해서 이렇게 늦게야 차렸다는것이였다.

그러니 신랑신부는 물론 마을사람들도 황지주에 대한 원한이 높았던것이다.

그날저녁 집에 돌아와 홀로 자리에 누워있으려니 낮에 있었던 일들이 삼삼히 눈앞에 떠올랐다. 잠을 설치고 일어나니 마을엔 참으로 신기한 소문이 떠돌고있었다.

바로 어제밤에 황지주놈집에 벼락이 떨어져 불이 당겼는데 지주놈이 그 불에 타죽었다는 소문이였다.

일이 너무도 신통하여 곽씨는 머리를 기웃거렸다.

그런데 소문은 틀림없는 사실이였다.

그는 장닭을 날리던 로인이 신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백두산대장수님을 찾아가는 길도 알수 있지 않을가?)

곽씨는 그날로 로인을 찾아가 마음속에 품고있던 생각을 다 털어놓았다.

로인은 곽씨의 말을 감심하여 듣더니 허연 수염을 내리쓸며 이렇게 말했다.

《옛날부터 계모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닭의 깃털편지라는 뜻일세. 비밀히 알려야 할 일이 있거나 서로 뜻이 맞는 사람끼리 급한 일이 생겨 소식을 전할 때 흔히 쓰는 편지라네. 나도 백두산대장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네만 어디에 거처를 정하고 계시는지는 딱히 모르고있네. 그러니 임자의 소원을 편지에 적어서 거기에 닭의 깃털을 꽂아 그 누구에게든 주게. 그러면 그 편지는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옮겨져

백두산대장수님께 가닿을걸세. 백두산대장수님께서 백성들의 사정을 잘 살펴주신다니 그렇게 하면 틀림없을거네.》

《계모신이요?》

곽씨는 돌아온 그길로 글 잘쓰는 사람을 찾아가 자기의 소원을 편지에 써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는 편지에 꽂을 멋진 장닭의 깃털을 구하려고 온 동네를 다 헤맸다.

다음날 곽씨는 편지에 무지개빛이 나는 깃털을 꽂아서 로인의 말대로 옆집에 가져다주었다.

그랬더니 그 편지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는데 며칠후에는 종적을 감추고말았다.

누구도 그 편지가 어디에 갔는지 알지 못했다.

얼마후 곽씨에게는 놀랍고도 기쁜 일이 생겼다.

민지주놈에게 끌려간후 생사를 모르던 곽씨의 안해가 돌아온것이였다.

민지주놈은 곽씨의 안해에게서 뜻을 이루지 못하자 멀리 압록강건너 어느 목재소주임놈에게 팔아버렸었다. 그런데 그 목재소에 백두산대장수님께서 군사를 거느리고 나타나 놈들을 족쳐버리고 은혜를 베푸셨던것이다.

곽씨의 안해는 구원되여 로자까지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더 놀라운것은 곽씨의 안해를 팔아먹은 민지주놈이 하루밤사이에 행방을 모르게 사라진것이였다.

소문에는 밤중에 백두산대장수님의 군사들이 나타나 잡아갔다고 하였다.

《옳지. 그 로인의 말대로 닭의 깃털편지가 백두산대장수님께

가당은것이 틀림없구나. 그래서 내 소원을 풀어주셨구나.》

곽씨는 무릎을 치며 탄복했다.

그러나 곽씨는 한가지 의문만은 풀수 없었다.

자기도 지주놈이 안해를 팔아버린후 그 종적을 몰랐는데 어떻게 백두산대장수님이 아시고 먼곳에 가있는 안해를 찾아내여 구원해주셨을가?

생각할수록 의문은 더욱 짙어만 갔다.

이때 소문을 듣고 달려온 장닭을 날리던 로인이 곽씨의 손을 잡고 말했다.

《령험하신 백두산대장수님께서 백성들의 사정을 속속들이 아시고 이렇게 속시원히 풀어주셨네그려.》

《로인님! 정말 고맙습니다.》

곽씨는 로인에게 허리를 굽혀 절을 하려고 하였다.

《아, 아니 이러지 말게. 소원을 이뤄주신 백두산대장수님께 큰절을 드려야지.》

곽씨는 땅에 엎드려 백두산을 향해 절을 하였다.

소문은 이 동네, 저 동네로 퍼져갔다.

그때부터 왜놈들이나 지주놈들이 못살게 굴면 조선사람들은 《이놈들 어디보자! 백두산대장수님께 계모신을 보내여 네놈들의 죄행을 다 아뢰고말테다.》하고 말하군하였다.

낚시질최면술

최면술이란 사람을 잠들게 하거나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법을 이르는 말이다. 옛날 도술을 부리는 도사들이 흔히 최면술을 쓰군하여 이 술법을 매우 신기하게 여기였다.

해방전 중국 동북지방과 우리 나라 북부 내륙지방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낚시질최면술로 단번에 수백명을 잠들게 하셨다는 전설이 파다하게 전해져 내려왔다.

1940년 8월 소할바령회의직후에 있은 일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경위중대를 친솔하시고 행군하시던중 한 골짜기에서 왜놈들의 추격을 받게 되시였다.

꼬리에 대적이 달렸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오의 행군속도를 높일것을 명령하시였다.

그리하여 중대는 말그대로 강행군을 하게 되였다.

한여름이라 조금 걸으니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숨이 꺽꺽 막히였다.

시간이 감에 따라 점차 대오의 뒤에 멀리 떨어지는 대원들도 생기였다.

허지만 쉬자고 제기하는 대원도 또 쉬려고 생각하는 대원도 없었다. 행군대오는 수림을 누비며 여전히 한본새로 나아갔다.

위대한 장군님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한시라도 빨리 적을 따돌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였다.

대원들은 땀으로 미역을 감다싶이하면서도 저마끔 앞장서 덤불을 헤쳤고 서로서로 부축하며 걸음을 다그쳤다.

산등성이를 몇개나 넘었는지 또 앞으로 몇개나 더 넘어야 하는지 가늠할수 없었지만 대원들은 그에는 아랑곳않고 지친 몸을 강의한 의지로 지탱하면서 걷고 또 걸었다.

대오가 맑은 물이 넘쳐흐르는 개울을 낀 어느 한 산기슭에 이르렀을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드디여 행군대오에 휴식명령을 내리시였다.

(이제는 적들을 따돌렸는가, 아니면 혹시 우리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리신 명령이 아닐가?)

이런 생각을 하며 편안한 자리들을 골라 기댄 대원들은 좀처럼 마음을 놓을수가 없었다. 방금이라도 뒤따르던 적들이 덤벼들것만 같았다.

그래서 대원들은 신들메를 더 든든히 조인다음 총가목을 으스러지게 틀어쥐고 긴장한 눈초리로 사방을 경계하였다.

그러는 대원들의 모습을 지켜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리에서 움쭉 일어서시더니 맑은 물이 사품쳐흐르는 개울에 시선을 주시였다.

《물목을 보니 고기가 많이 모일것 같구만. 여기서 낚시질이나 하며 푹 쉬고가야겠군.》

이렇게 말씀하신 그이께서는 전령병에게 낚시대를 가져오라고 하시였다.

(왜놈들의 대부대가 추격해오는데 낚시질을 하시다니? 그러니 적들을 모두 따돌리신게 분명하구나.)

대원의 뇌리엔 얼핏 이런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내가에 나가신 그이께서는 물목에 낚시줄을 드리우시였다.

그러자 참으로 신기한 일이 생기였다.

물가에 앉으시여 태연자약하게 낚시줄을 드리우신 그이의 모습을 보자 대원들은 왜서인지 갑자기 온몸이 노그라져 끄덕끄덕 졸더니 눈시울을 내리덮고 잠을 자기 시작하였다.

잠간사이에 경위중대의 대원들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잠에 곯아떨어졌다. 여기저기서 코고는 소리가 들리고 꿈을 꾸는지 뭐라고 중얼거리는 대원도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가. 하나, 둘 대원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것을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잠 푹 잤소?》 하고 물으시였다.

《예, 한잠 잘 잤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낚시질을 하시는 동안 깊은 잠에 들었던 대원들은 날것만 같은 기분이였다. 이제는 단숨에 천리를 간대도 무서울것이 없을것 같았다.

이때 전령병이 헐떡거리며 급히 달려와 위대한 장군님께 보고드리였다.

《장군님! 저기 숲속에 왜놈들이 있습니다.》

대원들은 눈이 휘둥그래졌다. 아니 왜놈들이 우리들이 자는사이에 바싹 따라왔단말인가.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조금도 놀라시지 않고 태연한 어조로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아마 그놈들은 거기서 자고있을거요. 좀 더 자라고 둬두고 우린 갑시다.》

추격해오던 왜놈들이 잠을 자다니? 그럼 장군님께선 우리들이 자는동안 왜놈들도 잠들게 하셨단말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리둥절해하는 대원들에게 행군명령을 내리시였다. 대원들은 행군해가면서도 줄곧 그 생각을 하였다.

어느덧 저녁이 되여 밀림속에 어둠이 깃들자 다시 휴식명령이 내렸다.

대원들은 인젠 잠을 자던 적들을 완전히 따돌렸는가부다 하고 생각하며 천막을 칠 준비를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천막보다 앞에 있는 저 바위틈이 더 시원할것 같다고 하시며 거기서 쉬자고 하시였다.

그리고는 먼저 그리로 향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그곳으로 다가가보니 정말 안성맞춤한곳이였다.

깎아지른듯한 바위의 중턱에 깊숙한 동굴이 있었는데 경위중대가 다 들어가누워도 자리가 남을것 같았다.

대원들은 바위굴로 들어가앉았다. 그런데 바위굴에 달빛이 환하게 비쳐 멀리서도 빤히 들여다보였다. 추격해오는 적들의 눈에 띄지 않을가 하는 위구심이 생겼다.

왜 이런데다 숙영장소를 택하셨을가.…

대원들의 이런 마음을 벌써 다 헤아리신듯 그이께서는 《걱정하지 말고 다리를 쭉 펴고 쉬시오.》하고 말씀하시고는 지형을 살피시려는지 바위우로 오르시였다.

장군님의 그 말씀에 대원들은 마음이 놓이긴 하였으나 어쩐지 긴장감은 풀리지 않았다.

이때 저쪽 등성이를 넘어 또 왜놈들이 나타났다.

《우리가 자는동안 유격대는 100리도 더 갔을것이다. 빨리 빨리 추격하라!》

왜놈《토벌》대장이 고아대는 소리가 바위굴안에까지 들려왔다.

아까 잠을 자던 그 왜놈들이였다.

대원들은 놈들과 싸울 태세를 취하였다. 어느 성급한 대원이 탄알재우는 소리가 《절컥》하고 들려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전히 아무일도 없으신듯 바위우에 조용히 서계시였다.

왜놈들이 가까이 다가왔다. 어느덧 놈들이 바위굴앞에 이르자 대원들은 저도모르게 방아쇠를 건 손가락에 지그시 힘을 주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기전엔 사격을 할수가 없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왜놈들은 바위굴앞을 그냥 지나갔다. 어떤놈은 달빛이 환히 비치는 굴안을 기웃이 들여다보기도 하였으나 눈앞에 있는 유격대원들을 보지 못하였는지 아무런 기색도 없었다.

수백명의 왜놈들이 굴앞을 지나갔으나 눈들이 멀었는지 어느놈도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왜놈들이 다 지나간후에야 바위우에서 내려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굴안에 들어오시여 경위대원들에게 말씀하시였다.

《이제는 왜놈들이 더 시끄럽게 따라오지 않을거요. 오늘밤 마음놓고 여기서 숙영을 합시다.》

그날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바위굴안에서 충분히 휴식한 경위대원들은 다음날 아침 유유히 목적지를 향하여 행군을 계속하였다.

그후부터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낚시질최면술로 유격대원들을 단잠에 들게 하시고 추격해오는 왜놈들도 잠에 곯아떨어지게 하신다.》, 《장군님께서는 최면술로 왜놈들이 눈을 뜨고도 앞을 보지 못하는 청맹과니로 만드신다.》는 전설이 우리 인민들속에서 전해지게 되였다.

항간에서는 여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때 낚시질로 잡으신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덧붙어져 전해지고있는데 그에 의하면 그 물고기를 먹은 후부터 경위대원들이 축지법, 둔갑술 등 여러가지 신기한 도술을 마음대로 부렸다고 한다.

사실 그때 바위굴안에 있는 경위대원들을 왜놈들이 보지 못한것도 그들이 자기도모르게 둔갑술을 썼기때문이라고 하였다.